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지은이 / 레이시(A. Lacy) 외 다수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지은이 / 레이시(AI Lacy) 외 다수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1판 1쇄 / 2009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2판 1쇄 / 2014년 8월 25일  
3판 1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12-8 03230

정가 : 18,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Mystery of The Angels and UFOs*

—A. LACY—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강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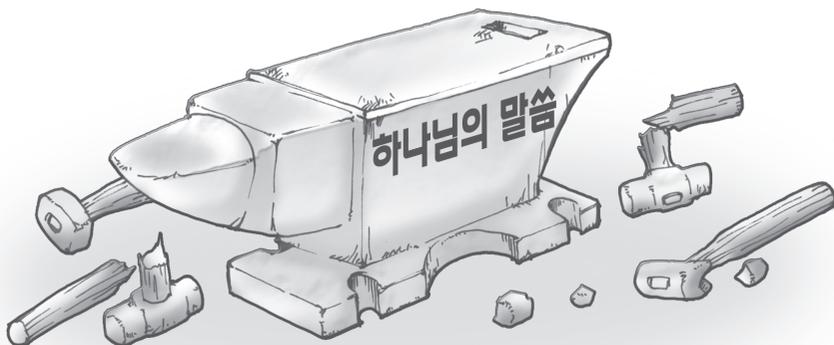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 목 차



저자 서문 .....	6
역자 서문 .....	7

## 제1부 천사들의 미스터리

1장 천사들의 미스터리 .....	17
2장 천사들의 창조 .....	24
3장 천사들의 속성 .....	37
4장 천사들의 타락 .....	61
5장 천사들의 아이들 .....	68
6장 천사들의 사역 .....	109
7장 천사들의 왕 .....	148

## 제2부 UFO의 미스터리

8장 UFO의 역사 .....	163
9장 UFO와 천사 커넥션 .....	215
10장 UFO 사령관: 루시퍼 .....	230
11장 UFO와 고대 신화 .....	247
12장 UFO와 프로젝트 아바돈 .....	263
13장 UFO와 뉴에이지의 표 .....	290
14장 UFO와 말세의 표적들 .....	311
15장 UFO에 대한 결론 .....	328

## 부 록

부록 1 영의 세계 .....	341
부록 2 사 탄 .....	353
부록 3 사탄의 삼위일체 .....	361
부록 4 UFO와 마리아 현현 .....	367
부록 5 고대 세계의 지식 .....	394
부록 6 사라진 아틀란티스 .....	404
부록 7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 .....	412
부록 8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간 복제 .....	423
부록 9 하나님의 심판: 역병들 .....	432
부록 10 어거스틴의 창세기 6장 해석 변개 .....	440

## 저자 서문

저는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많은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 시리즈를 준비하고 편집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본적 복음주의를 견지하며 여러 상황을 다룬 주제들을 가르쳐 왔는데 저희 성도들에게 천사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 했던 학습 시리즈는 없었습니다. 천사에 관한 연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흥분과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써 보라고 제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앨 레이시(Arlen Lacy)  
(1933-2016)

이제 여러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미스터리」(*Mystery of The Angels*)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렇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창조물을 주제로 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 신비한 존재는 힘에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 월등하며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저는 이 책이 천사의 신비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 주고 천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다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콜로라도주 리틀튼에서

앨 레이시(Al Lacy)<sup>1)</sup>

1) 복음 전도자 앨 레이시의 감동적인 생애는 다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

[https://www.jesusprecious.org/bible/kjb/pastor\\_al\\_lacy\\_seminar.htm](https://www.jesusprecious.org/bible/kjb/pastor_al_lacy_seminar.htm)

## 역자 서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하나님께서 성경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3:15)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 통합 운동 같은 비성경적 요소들이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에 따라 교회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미확인 비행 물체(UFO), 외뿔을 지닌 유니콘, 피라미드, 스팅크스, 무지개, 각종 신화 등이 가장 흥미 있는 화제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누구나 그런 상징들을 TV 프로그램이나 상품 혹은 광고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바로 천사들(Angels)에 관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마치 UFO를 타고 등장하여 우리 인류에게 새 시대(뉴에이지)를 열어 줄 존재들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천사론이 등장하여 크리스천들에게 소개되었지만 그 내용은 고대 신화나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른 비성경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천사의 모습을 간증 등을 통해 전파했고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천사와 UFO 바로 알기」의 1부인 ‘천사들의 미스터리’(Mystery of The Angels)는 철저한 성경 신자이며 훌륭한 성경 교사인 레이시(Al Lacy)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루터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이 취한 성경 해석 방법을 따라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글에서도 그 같은 해석 방법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성경 신자들이 믿는 ‘천사들에 관한 사실’만이 이 안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성경을 자신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듯이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번역되었습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 교회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독자들께서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펴서 관련 구절들을 읽어 가며 확인해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사와 UFO 바로 알기」의 2부인 ‘UFO의 미스터리’(Mystery of The UFOs)는 천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UFO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주변에는 뉴에이지 관련 영화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접시(UFO), 외계인(에일리언 혹은 E.T.), 외계인과의 접촉 혹은 외계인에 의한 피랍, 공통 부활, 유전자 조작 등을 줄거리로 하는 영화들이 줄지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만 해도 ‘인디펜던스 데이’, ‘맨 인 블랙’, ‘쥬라기 공원2’, ‘콘택트’ 등의 UFO 및 외계인 관련 영화들이 미국에서 가장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최근에는 공상 과학 영화의 대부분이 UFO와 외계인의 도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내용은 거의 다 지구 밖의 어떤 별에서 고등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와서 종말을 맞게 된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 즉 뉴에이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히트를 친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과 ‘노잉’ 같은 영화가 이런 부류 영화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사실 1997년도는 UFO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이라는 곳에서 UFO 참사가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 6월 16-21일 사이에

시사 주간지 「타임」은 로스웰 사건 50주년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었고 일간지인 「유에스에이 투데이」 및 여러 TV 방송에서 1997년 3월 13일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이상한 광체들의 출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나타난 이 UFO들은 비디오로 촬영되어 전파를 통해 전 미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7월 1-6일 사이에는 48,000명이 사는 로스웰시에 20,000여 명의 UFO 신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 UFO 열기가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를 포함하는 구소련 국가들, 일본,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UFO를 목격한 사람들과 UFO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경향은 예외가 아니며 서점가에서도 계속해서 UFO 관련 서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트랙’ 등의 외계인 관련 영화 매체에 의해 세뇌당한 초등학교생들도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는 스스럼없이 ‘비행접시’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고 휴대폰 광고에도 버젓이 외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UFO와 외계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UFO 신드롬’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명의 세속 작가들이 나름대로의 정신세계에 기초해서 외국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UFO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책들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이 책들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뉴에이지 신학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답을 줄 만한 내용은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전문성 등은 높이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서클에서는 어떤가요? UFO와 관련해서 한두 개의 책이 나왔지만 그 내용이나 전문성이 세속 작가들의 절반도 못 미치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 그 핵심은 그런 것이 다 정신병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크리스천 작가라 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미신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과연 어느 누가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독자께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믿으십니까? 썩은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이런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신비주의를 조장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누가 UFO,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 외계인, '세 번째 종류의 접촉' 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것과 성경과의 관계성 및 의미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즉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현대인들이나 현대판 사두개인 크리스천들은 이 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나 사물, 혹은 존재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거인들, 외눈박이 휴머노이드 거인들, 짐승 잡종들(돌연변이들), 괴물들, 푸른색 안개, 날아가는 방패, 살과 피의 비,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자칩, 검은색 헬리콥터, 타락한 천사들, 지하 터널, UFO, 소리를 내고 빛을 발산하는 비행 물체들,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 식인, 위조된 처녀 탄생, 붉은색 용들, 검은 옷의 사나이들, 뱀들, 날개 달린 뱀들, 불공들, 가스가 퍼뜨리는 재앙들, 질병의 치료와 관련이 있는 뱀들, UFO 납치, 난쟁이들,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마리아 출현, 물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이 세상의 신(고후4:4) 등등.

부디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면에 해답을 주며 최종 권위가 되고 현대 지성인들보다 적어도 100-3,000년 정도는 늘 앞서간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3:4).

어떤 현상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좋은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도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더 뛰어나게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거의 없는 교회에서만 뛰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저는 기계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존층과 지구 온난화 관련

환경 문제와 열역학 등을 강의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평범한 크리스천입니다. UFO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지만 저보다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 혹은 다른 크리스천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을 출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일 년에 서너 차례 미국에 출장 갈 기회가 있으므로 오랫동안 UFO 관련 책자들을 많이 모으고 분석도 했지만 저 자신이 책을 저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을 보고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늘 기억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입니다.

1. 성경에 해답이 있다.
2. 최소한 세속 작가들보다는 사례 제시 및 해석 등에서 전문성을 높인다.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네 힘을 다하여 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전9:10).

이 책의 2부를 저술하며 30여 가지 이상의 관련 서적들을 참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UFO 및 이단 전문가인 윌리엄 슈네벨린, 목사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옹호자이며 수많은 성경 관련 서적을 출간한 피터 렉크맨, 방송 설교가로 유명한 노아 허칭스, 뉴에이지 전문가 텍스 마르스, 뉴에이지 및 컬트 전문가 밥 라슨, 현대 성서들과 뉴에이지 커넥션을 밝힌 게일 리플링거 등의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2부의 경우 전체 본문의 흐름은 슈네벨린의 소책자 「Space Invaders」를 따랐고 필요한 곳마다 보충해야 할 것과 제가 연구한 결과들을 넣었습니다. 고대 신화 부분은 렉크맨의 「Black is Beautiful」에서 그림과 함께 발췌했습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부록을 넣었습니다. 부록 1-3은 라킨이 지은 「성경 바로 보기」에서 인용하였고 부록 4는 천주교회의 「마리아 출현」이 「UFO 현상」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국내의 세속 작가가 매우 세밀하게 저술한 「UFO 신드롬」(맹성렬 지음, 넥서스 출판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부록 5-7은 「고대 세계의 지식」, 「아틀란티스」,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를 다루는데 이것들은 허칭스의 소책자에서 인용하여 주석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복제에 관해서는 차한 박사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좋은 서적을 제공하기 위해 역자 추천 목록을 추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 일 년에 서너

차례 정도 영화관을 가곤 하며 주로 수사/모험 영화나 첩보/공상 과학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 내용을 독자들이 아는 것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인디펜던스 데이’, ‘닥터 모로의 DNA’를 포함하여 45편의 UFO 및 외계인 관련 영화를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와 ‘노잉’ 등의 UFO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읽으신 뒤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과 천사와 UFO 커넥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도 관련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UFO에 납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납치됩니다. 또한 외계인과 접촉하기 위해 사악한 신비주의에 입교하여 스스로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놓은 사람들이 주로 UFO 및 외계인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신비주의 서적이나 UFO 영화 등에 탐닉하지 마십시오. 특히 독자의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킹, 휘틀리스 트리버 같은 작가의 글은 베스트셀러라 해도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비록 이 책의 2부의 많은 부분을 기술하긴 했지만 저는 이 책이 저의 독창적 작품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천 양심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집하고 성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일관성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해 독자께서 좀 더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한 독자께서 이 글을 읽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 외에 다른 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이 지구(땅)에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공간 전체에서 오직 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 받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행성에서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마귀의 뉴에이지 작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UFO와 외계인 — 실은 슈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임 —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특히 바벨탑 사건 이후로 줄곧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존재해 온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과 그 일로 말미암은 슈퍼 인간들의 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슈퍼 인간들과 이들의 기술이 UFO 같은 것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슈퍼 인간들의 작전이 아무리 사악하고 교묘하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골3:3).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동안 광범위한 지식을 알게 됨에 따라 진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처음에는 다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00%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UFO나 외계인 등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의 지식은 결코 독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의 지식으로 인해 독자께서는 마귀와 그의 계략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바로 알게 되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곤란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책을 번역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해 준 레이시 목사님, 슈네벨린 형제님, 러크맨 목사님 그리고 허칭스 목사님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편과 아빠를 신뢰하며 같이 있을 시간을 희생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저술하는 동안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sup>2)</sup>

2009년 10월

인천에서  
정동수

---

2)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제1부

# 천사들의 미스터리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 제1장

# 천사들의 미스터리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고전4:1).

아가사 크리스티, 대쉬엘 하멧, 코난 도일, 미키 스피레인, 알프리드 히치콕 등은 독자들이 손에 땀을 쥐게끔 하는 유명한 미스터리 추리 소설을 쓴 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 속의 모든 완숙한 기법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미스터리(신비)<sup>1)</sup>와 비교해 보면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으로 성경은 미스터리와 관한 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많이 있으며 그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이미 계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신29:29).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미스터리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들곤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라디오에 귀를 꼭 붙이고 30분간 사람을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 프로그램을 청취하곤 했습니다.

저는 또한 「서스펜스」, 「비밀의 서재」, 「그림자」 등의 신비 소설을 좋아

---

1) ‘미스터리’, 즉 ‘신비’는 라틴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미스터리(mystery)라는 단어가 총 27회(단수로 22회, 복수로 5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미스터리만큼 저를 흥분시키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마 13:11; 눅8:10), 올리브나무의 신비(렘11:24-25),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눅 16:25; 엡3:4),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고전2:7), 휴거의 신비(고전15:51), 하나님의 뜻의 신비(엡1:9),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엡3:2-3),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신비(엡3:8-9),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엡5:32), 복음의 신비(엡6:19),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골1:26-27),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골2:2), 불법의 신비(살후2:7), 믿음의 신비(딤후3:9),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계1:20), 작은 책의 신비(계10:7-11), 바빌론의 신비(계17:5), 음녀와 짐승의 신비(계 17:7) 등.

이것들 외에도 수많은 은밀한 일과 신비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한 미스터리도 하나님 말씀의 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상한 창조물 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 가면서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그림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땅에 속한 음식을 먹으며 모래 위에 자기들의 발자국을 남기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 주는 것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귀와 싸우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과 나사렛 사람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계시하고 그의 아내가 될 젊은 유대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침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과 겸손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실 것을 예고하며 그분의 비천한 출생지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강건하게 해 주었고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을 때에도 그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다시 한 번 승리의 곡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 뒤 우물쭈물하는

룻을 도시 밖으로 이끌고 나간 일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 낸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탕던 배가 폭풍 속에서 시달릴 때 갑판 위에서 그와 함께 있던 일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정상적이며 평범한 남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사탄과 그의 사악한 천사들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과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크게 외치며 경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지옥의 뚜껑을 열고는 멸망받은 혼들이 불 호수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세상 끝의 7년 환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으며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혔을 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를 흔들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태양의 한가운데 서서 육식성의 사나운 새들을 큰 저녁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한 도시의 열두 문에 파수병으로 서 있으며 타는 불 속에서 왕들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마귀를 불 호수 속으로 내던지며 바다 속으로 큰 돌들을 내던지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비 그 자체이면서도 밧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큰 신비들을 계시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에 관한 전설과 신화가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실로 그들이 매우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천사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하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사론’ 혹은 ‘천사들에 관한 성경적 교리’는 결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욕망 등을 잘 보여 줍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보여 주며 그들을 감싸고 있는 신비의 많은 부분을 보여 줍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천사들에 관한 대부분의 신화는 종종 만화책 등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만화들은 “땅



▲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 뉴에이지 천사

위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천사의 머리 위에 후광이 있고 날개를 뒤로 달고 는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 묘사 합니다. 이런 데서 보면 그는 단순하게 생긴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린 채 하프를 켜며 여자 천사에게 재치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화들 속에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1. 어느 누구도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하늘(천국)에 가지 않는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자신이 선 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들을 회

개하며 자신의 종교를 하수구에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눅13:3; 살전1:9; 요1:12 참조).

2.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하늘에 가서 천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지하다는 사실은 정말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3. 천사들은 결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앉아 있지 않다.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천국에 구름이 있다는 사실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다.

후광은 고대 바빌론 종교를 이어 받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 성인, 예수님, 마리아, 교황, 추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 수도승, 수녀, 사제들 뒤에 꼭 후광을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상징인 뿔을 그려 넣습니다. 불교의 성인들이나 부처 뒤에도 늘 후광이 따라다닙니다. 사실 후광은 모든 이방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 천주교 성자들의 후광

## 5.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니 뭐라고요? 이 말에 놀라셨습니까? 독자께서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천사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신화는 여전히 예술가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랍(Seraphim)들과 그룹(Cherubim)들은 물론 날개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천사들’(Angels)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 존재들’(Spiritual beings)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하늘을 통해 날고 있는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는 그 천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난다고 해서 날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책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땅으로 날아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하는 말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승천하셨지만 그분께는 결코 날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독자께서는 천사들이 종종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오인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삿13:9-11; 행1:10; 10:30 등).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자, 만일 어떤 이가 등 뒤에 날개를 달고 당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당신은 얼떨결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날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무언가 수상한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었다면 성경에 자주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평범한 남자들로 오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6. 천사들은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우 지혜로우며 지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참으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남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탐구 영역에서 인류가 이루어 놓은 발전들은 다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타락했고 타락하기 전의 아담이 소유했던 굉장한 능력들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결코 타락한 아담이 소유한 표준 이하의 본성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 외에도 그들은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지식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 7. 여자나 아기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종종 남자로 오인되곤 했지만 여자들(혹은 아기들)로 오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이름도 다 남자의 이름입니다. 단수 대명사로 묘사될 때 천사는 항상 ‘그’(he)로 표현됩니다. 성경 속의 대화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남자들’(men)로 불립니다(창 18:22; 19:1-5; 막16:5 등).

이같이 매력적인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많은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말씀 속에 그들에 대한 많은 사실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의 미스터리를 감싸고 있는 휘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걷어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당신과 저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원을 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같은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도 물론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 아기/여자 천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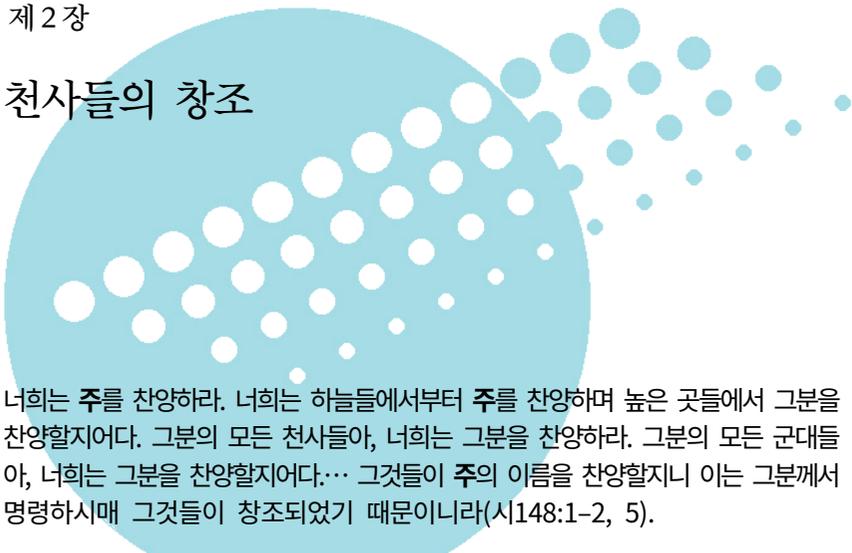
그들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구절들을 만든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천사라 불리는 하늘의 존재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 상세히 천사들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 봅시다.

## 제 2 장

# 천사들의 창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시148:1-2, 5).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시33:6, 9).

성경은 종종 ‘하늘의 군대 혹은 군대들’(The hosts of heaven)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군대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창32:1-2).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6).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눅 2:13-15)

위의 성경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 즉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셋째 하늘(대우주)에 존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과거의 영원 속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천사들도 우리처럼 창조된 창조물이지만 그들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고 또한 더 큰 위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사8:1, 3-5).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5-9).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인성의 측면에서 역시 그와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두 경우 모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현재 천사들보다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적 힘이나 지적 능력에서 천사들에게 뒤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권위 면에서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 1. 육체적 힘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9:35).

천사들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천사가 단단히 무장한 군인 십팔만 오천 명을 죽일 정도로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지적 능력

그리고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다윗)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삼하14:17).

천사들의 분별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삼하14:20).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천사들의 지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3.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눅1:19).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위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 4. 권위

하나님의 천사들은 권위 있게 말하며 권위 있게 행동합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창19:1, 12-13)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즉 도시를 파멸시키고 그 안에서 살릴 자들을 선정하며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 하나는 나사렛의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예정대로 그녀와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마1:24)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권위로서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천사들 보다 위에 있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루려 하며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두 구절을 비교하려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벧전3:22).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자마자 천사들이 그분께 복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장소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계3:21).

현재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종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3)

몇몇 신학자들은 위 구절의 천사들은 단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내리는 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천사들에 관한 문제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천사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다음의 성경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 독자들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앞뒤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는 한 천사는 항상 좋은 천사, 즉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독자께서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의 첫 부분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특별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히2:5).

크리스천 여러분! 천사들은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2)

여기에서도 ‘판단하다’의 의미는 ‘지옥으로 보내다’를 뜻하지 않고 사실과 사건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의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즉 판단하는 것]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단7:2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약 33년 반 동안만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박탈해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전지하신 능력’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졌을까요?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 1. 사람이 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며 시장하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겐세마네에서 그분께서는 극도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22:43).

그분께서는 매일매일의 여행 속에서 시장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마21:18)

그분께서는 또한 갈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19:28)

그분의 몸은 또한 잠을 필요로 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므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막4:37-38)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이런 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먹기는 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곳도 그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제약들이었습니다.

## 2. 사람이 되심으로써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천사들보다 낮추셔서 죽을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눅20:34-36).

우리는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다는 사실만을 인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지만 그분께서는 한 번 죽으셨습니다.

### 3.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공할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히2:16-18).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15).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유혹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천사들, 즉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은 결코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딤후5:21).

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당신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천사들보다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영원 전 과거 속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는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늘의 군대가 창조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그를 '두로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 타락하기 전의 '뒀는 그림' 루시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1-15).

현재 우리에게 사탄(Satan)으로 알려진 루시퍼(Lucifer)는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에덴동산 안에 있었습니다(창3:1-6). 그러나 그는 그전에 하나님의 왕좌 위를 날아다녔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Anointed Cherub)으로서 하늘에 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다름 아닌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시48:1-2; 사14:12-13).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the sons of God)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이 문제는 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비교하며 좀 더 연구해 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므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에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었나이다(왕상22:19).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욘2:1).

위의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좌 근처로 모이는 ‘하늘의 군대’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하늘의 군대’가 다름 아닌 ‘천사들’임을 증명했습니다(창32:1-2; 느9:6; 눅2:13-15).

욘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기 전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네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모퉁잇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욘38:4-7)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초들이 놓이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천사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그 큰 군대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우주 안에 천사들이 무수히 많음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 줍니다.

그들의 수가 매우 많음으로 인해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속에 그 숫자에 대한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 창조 때에 이미 존재한 천사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온밤을 지냈으며 그가 그곳의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뒤



▲ 야곱의 사다리와 천사들

그곳에서 자려고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창28:10-14).

만일 야곱이 하늘과 땅 사이의 수백만 광년의 거리를 연결해 주는 긴 사다리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은 마치 시내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심과 같도다(시68:17).

성경은 천사들을 세는 단위가 ‘수천’(thousands)임을 보여 줍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마26:53)

‘군단’이란 로마 군대의 구분 중 가장 큰 것이었고 6,2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6,500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두 군단의 천사들이란 78,0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단 한마디에 78,000명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군단’이 굉장히 큰 숫자를 의미하므로 종종 그것은 정규적인 많은 무리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막5:9)

우리 주님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에서 ‘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대언자 엘리사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아의 왕은 그의 사역을 싫어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아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들을 모두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왕하6:13-14).

우리는 그 ‘큰 군대’의 인원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말 자체만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무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왕하6:15)

그 불쌍한 종은 너무 놀라서 몸이 뻗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올테갈데없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의 장막으로 완전히 덮여졌고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이빨을 덜덜거리고 온 몸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흔들거리며 엘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리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5-17).

당신은 누가 말과 병거들을 지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그곳에는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당신이 어떻게 천사들이 그 말들과 함께 있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 말들과 불 병거들 위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확실한 대답을 원하십니까?

다리오의 제이년 십일월 곧 스باط 월 이십사일에 주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라에게 임하니 그가 말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니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녀 보았는데,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하더라(슁1:7-11).

여기에는 분명히 천사들과 말들이 함께 땅의 여기저기를 다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군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 34:7).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이루시려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때에 모였던 천사들의 무리를 묘사하고 있는 다음 성경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눅2:13-14).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multitude’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숫자의

군중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군대들의 큰 무리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계5:11).

만만이란 일억을 뜻하며 천천이란 또 백만을 뜻하니 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innumerable) 천사들의 무리와(히12:22)

웹스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유명한 웹스터 사전에서 ‘innumerable’이란 단어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 제 3 장

# 천사들의 속성

이처럼 묘한 하늘의 존재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끈을 풀어 가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의 속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만일 천사를 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게 되면 연약해질까요? 그들도 죄를 지을까요?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천사들의 일곱 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 1. 천사는 육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위에서 거니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고(시104:1-4)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3-14)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면서 그들은 매우 신비하게 육적인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되며 만져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르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three men)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며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가루 삼 스아를 속히 준비해서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들을 구우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소 떼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하므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창18:1-8).

같은 장의 10, 17-20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남자 중 가운데 있던 남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Pre-incarnate Jesus Christ)로서 곧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남자는 천사들입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men’을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들(the men)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 그들과 함께 갔는데(창18:16)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더 나누시기 위해 뒤에 남으셨고 다른



▲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두 명의 남자들은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two angels)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창19:1)

아브라함이 보았던 세 남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앞마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멀리서부터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옆에 섰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분명하게 ‘appeared’, 즉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 세 남자 중 한 명이 바로 주님이심을 금방 보여 줍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다른 두 남자가 천사라는 사실과 롯 또한 그들을 보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롯은 그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창19:12)

롯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져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며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그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이매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었더라 (창19:15-16).

여기에 나타난 대로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와 같은 육적인 몸을 취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만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 먹었던 실제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출16:35).

시편 78편에서 시편 기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듣고 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대적하여 불이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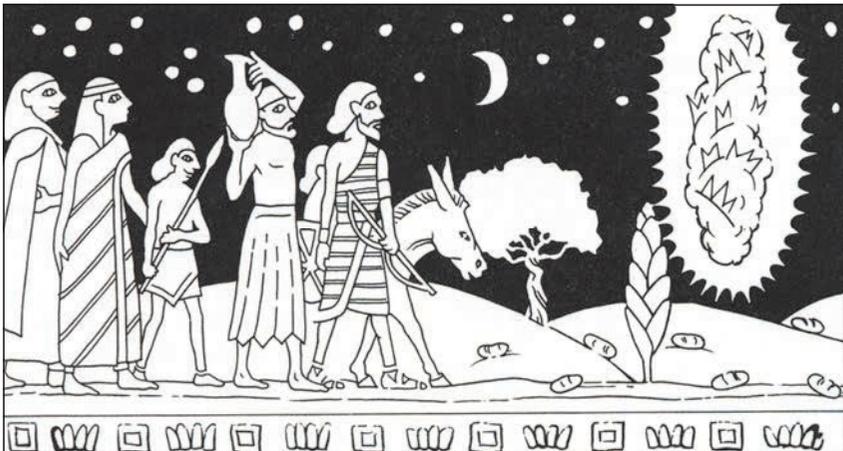
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시78:21-25).

천사들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먹는다는 즐거움을 위해 먹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 즉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나무 밑에 앉았을 때에도 천사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버터가 흥건히 발린 송아지 고기를 먹었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들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입었던 몸, 즉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요20:19)

이 기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서는 바로 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분께서는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밀어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다

방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 보게 하셔서 자기가 정말로 진짜 몸을 갖고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몸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방으로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눅24:39-43).

우리는 위에서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며 사람들처럼 육적인 몸을 갖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목격하고 느끼며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도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부활하신 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이시여, 당신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그와 똑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천사에 관한 것 중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나타날 때 그들은 매우 빛난 광채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마리아는 번개 같은 용모를 한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마28:1-4).

삼손의 어머니 역시 무서운 용모를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낳지 못하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삿13:3, 6).

위에 있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의 용모가 번개 같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전혀 그런 용모를 띠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보고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창19:5)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만일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와 같아서 아브라함이나 롯이 벌벌 떨게 되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 2. 천사는 모두 남성이다.

이 말에 많은 분들 특히 신학교 교수님들은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화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논쟁을 두려워했다면 저는 결코 침례교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조금만 다룰 것이고 뒤에 가서 이 문제의 핵심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며 중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분들 중 대다수는 선하고 정직하며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고 믿는다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이며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을 만한 교리가 아니며 저는 5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의 처녀 탄생, 피의 속죄,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명확한 신약 시대 교회의 교리 등을 믿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한다면 저는 단 3초 내에 당신과 절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론에 대한 것은 절교를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천사론을 옹호함으로써 매우 위력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려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명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간 한 여자의 경우를 가정하고는 이 문제를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에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29-30).

우리는 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독자들께서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구절이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글썄요? 아니지요. 이 구절은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고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천사들이 항상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언급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수 대명사로 표시될 때 천사들은 100% 모두 ‘그’(he) 혹은 ‘그를’(him)로 표현되어 있으며 결코 ‘그녀’(she)나 ‘그녀를’(her)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일 그들이 중성이었다면 ‘그것’(it)으로 표현되어야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중성인 ‘그것’(it)으로 표현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천사는 항상 남성을 지칭하는 ‘그’(he)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천사들 모두 남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등.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his countenance)

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his raiment)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him)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마28:2-4).

성령님께서서는 분명히 천사를 가리켜 ‘그의’ 혹은 ‘그를’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결코 ‘그녀의’ 혹은 ‘그녀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의’도 아닙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자기 손(his hand)을 내밀어 그곳을 멸하려 할 때에… (삼하24:16)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가(he) 멸할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사… (대상21:15)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he)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행12:7).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에 그가(he)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계22:8-9).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천사들이 남성인 것도 아시므로 성경 안에서 천사를 모두 남성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천사들이 남성이므로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에서 그들을 모두 남성으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 3. 천사는 남자와 매우 비슷하다.

천사들은 모두 남성일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남자들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제목에서 ‘비슷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했지만 힘, 지혜, 하늘의 능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크기나 생긴 모습 등을 따져 보면 그들은 우리네 남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신체적 크기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시 주위를 돌고 있는 곳을 가 봅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시의 치수를 재고 있었습니다.

또 그(천사)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계21:17).

수정같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치수는 천사의 치수와 똑같습니다. 큐빗이라는 단위는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의 길이입니다(약 45cm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같은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사들이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굴러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a young man)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막16:1-5)

그런데 성도 마태는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분명히 천사였다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마28:1-5).

흥미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성경은 그를 ‘청년’(young man)이라 부릅니다. 또한 그가 ‘젊은 남자’(young man)로 불렸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천사들이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지만 생김새에서는 우리 남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종종 ‘그들’(them)을 ‘남자들’(men)이라고 부릅니다.

- 창세기 18장 2절의 ‘남자들’(men)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 스가랴 1장 10절의 ‘남자’(man)는 스가랴 1장 11절에서 ‘천사’(angel)로

판명 납니다.

- 누가복음 24장 4절의 ‘두 남자’(two men)는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눅24:4)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요20:12)

사도행전 1장 10절의 ‘두 남자’(two men)는 마태복음 28장 3절,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처럼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거든 고넬료에 관한 다음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낮 아홉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행10:1-4)

여기서 우리는 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고넬료 자신이 베드로에게 무어라 이야기 하는지 살펴봅시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10:30-31)

분명히 성령님께서서는 고넬료를 방문한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하며, 고넬료는 그를 ‘한 남자’(a man)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들이 참으로 남자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는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바로 사람의 형상과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창1:26-27).

웹스터 사전은 ‘형상’(image)을 ‘모방품’(copy) 혹은 ‘복제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이 사전은 ‘모습’ 혹은 ‘모양’(likeness)을 ‘다른 것과 닮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므로 사람도 역시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증명됩니다. 자, 이 말을 증명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므로 사람도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독자께서는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라는 복수형 대명사가 쓰였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 안에 서로 다른 세 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구절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sup>1)</sup>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바로 그 앞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차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창18:1-2)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19장 1절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남자들 중 두 명이 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또한 소돔에

---

1)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개역성경,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모두 이 구절을 삭제해 버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역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 변호」,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개역성경 분석」,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는 동성애자들도 이 천사들을 남자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있었던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롯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창19:5)

여기에 나오는 ‘알리라’(know)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맺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마리아의 말을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I know not a man)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눅1:34)

저 사악한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그들을 남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는 어떤 후광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날개 같은 것도 없었지요. 소돔 사람들은 그 남자들(천사들)과 더불어 동성애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19장 6-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문에 있는 그 시름들에게 내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느니라, 하매(창19:6-8)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두 명의 천사들을 제외한 다른 남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남으셨음을 보여 줍니다(9-33절 참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남자는 열세 번이나 ‘주’(Lord)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분은 언제나 남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a man)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창32:24)

그렇다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다(창32:30).

그는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분께서 벨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호12:3-4)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채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기와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3-15).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the man) 보라! 하니라(요19:5).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man)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딤후2:5).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남자로 계십니다. 지금도 남자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남자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in the form of God)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체 또한 남자입니다. 이 같은 연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골2:9)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셨으며 특별히 남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남자의 모습 이외에 다른 모습은 취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셨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남자로 올라가셨습니다(딤후2:5). 물론 그분은 그곳에서 지금도 남자로 계십니다. 승천하신 뒤 약 60년이 지나서 그분께서는 밧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계1:12-13).

휴거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분께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남자로 오실 것입니다.

첫째 사람(the first man, 원래는 첫째 남자)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the second man, 원래는 둘째 남자)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고전15:47-48)

웹스터 사전이 ‘형상’을 ‘복제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갖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어라 기술하였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고전15:49).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 즉 젊은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서 그분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흠에 속하지 않으므로, 즉 노쇠해지거나 불완전한 몸으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는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자들, 다시 말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몸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10:12)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로서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광장을 메우고 있는 천사들도 역시 사람(남자)과 비슷합니다.

#### 4. 천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눅20:34-36).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4-17).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죽으시려 해도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 즉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20)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기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셨고 또한 그리함으로써 지금 마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천사들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나이를 먹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노쇠해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 5. 하늘의 천사는 거룩하다.

하늘에 있는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모든 창조물은 거룩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마25:3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막8:38).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 14:9-10)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국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는 죄의 오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대언자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함을 살펴봅시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상천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사6:1-3)

스랍들이 두 번 혹은 네 번 ‘거룩하다’고 외치지 않고 세 번 ‘거룩하다’고 외친 사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침 중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 다른 하나는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에 있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고 가는 천사들은 다 거룩합니다.

## 6. 천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비록 천사들이 지혜로우며 지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아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화과나무’(이스라엘)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마24:36).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또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 통합 운동 등에 의해 적그리스도를 위한 무대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사실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벧전1:8-9, 12).

천사들은 구원에 관한 일들을 단지 살펴볼 수만 있습니다. 어느 천사도

죄의 모래 더미에서 구출되어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과 불타는 것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로 어느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쁨과 그분의 뼈 중의 뼈가 되고 그분의 살 중의 살이 되는 놀라운 기쁨, 즉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 7. 하늘의 천사는 순종한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귀중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천사들의 최우선 임무는 자기들의 창조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사들은 모두 타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타락하지 않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입니다(딤후5:21).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어떤 도덕률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표준과 원칙들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겸손 속에서 자신들의 도덕률을 따라 엄격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단 한 명의 반역하는 천사도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질서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수행할 과제나 직무 순번 등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반역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아! 이 땅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지닌 사람은 순종의 영이 아니라 그와 반대인 불순종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1-3)

첫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불순종의 영(마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고전15:45)은 새로운 인종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인종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과 매우 비슷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마치 천사들의 본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나타내 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처럼 죄를 지을 수 없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딤후1:21).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그 ‘씨’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신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산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 안에는 실제로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즉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혹은 육신)은 곧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입고 있던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며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두 번째 태어났을 때 갖게 된 본성, 즉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새 본성입니다. 이 같은 진리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3-4).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씨’는 그 사람의 후손들의 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씨’로 수태되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인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하나님의 ‘씨’는 그분 자신의 신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될 때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신성은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옛 사람’은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수태된 순간부터 그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받았으니*(엡4:22-24)

옛 사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악하며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창조되었고(벧후1:4) 또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사람,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옛 사람을 ‘죄’라 불렀고 자기 안에서 잘못 행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옛 사람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배하게 하든지 혹은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3:9-10).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옛 사람(혹은 육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본성과 비슷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중에 천사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거나 혹은 겁을 났다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같은 속성, 즉 두려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히11:8)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이 이방인의 땅을 여행하며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결정 속에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용기로 인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매일같이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위험한 날씨와 기근을 겪으며 더러운 감옥에서 지내는 중에서도, 자기의 동료들이 배반하는 중에서도 그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처럼 하늘 위로 치솟으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용기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가 받는 모든 고난은 순전히 그의 사도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경과 고문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갈1:1)

그리하여 두려움을 물리친 사도 바울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류를 밀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순종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찍질, 감옥살이,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 주었던 용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체포되어 종교 회의에서 거물들 앞에 불러 나왔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리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차별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 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행4:18-21)

그 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겁에 질린 개처럼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고개를 꼭 숙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행4:31).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다 분노로 가득 차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 두었으나(행5:17-18)

바로 이 시점에서 매우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

중 하나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힘이 뛰어난 그 천사는 감옥의 문들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서 상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행5:20)

사도들은 또다시 깜짝 놀란 관리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들이 감옥을 그렇게 잘 탈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 그 천사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행5:27-29).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불 옆에 서 있던 대적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겁 많던 베드로는 놀라울 정도로 용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벌벌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다른 이들도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 줍니다. 이게 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 그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

크리스천이시여, 당신과 내가 어떻게 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 제 4 장

# 천사들의 타락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타락하였으며 그 후에는 그들이 결코 처음 상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탄핵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천사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영적 존재였던 루시퍼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의 시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루시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2-15).

루시퍼의 타이틀인 ‘아침의 아들’(son of the morning)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한때 매우 아름다웠으며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루시퍼가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다섯 가지 사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내가… 하리라.”(I will…)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최악이 루시퍼의 가슴속에서 수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시퍼가 스스로 죄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가슴속에서 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죄와 불법의 탄생지는 루시퍼의 가슴속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사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태되어 자라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잠4:23).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헛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모으매 그가 밖에 나갈 때면 그것을 말하나이다(시41:5-6).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며…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피하며 불화를 뿌리느니라(잠6:12, 14).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잠 19:3).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淫慾)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5:28).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마12:34).

루시퍼의 죄는 그의 마음속에서 수태되어 자랐고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늘에서의 그의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분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두로의 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1-15).

우리는 루시퍼가 밝게 빛나며 아름답고 매우 지적인 그룹(Cherub)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서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왕좌 위를 날아다닌 그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루시퍼는 아름다움 면에서 완벽했고 그의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루시퍼가 아름답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고후11:14).

그러나 그는 빛의 천사가 아니며 실제로 사악한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는 현존하는 창조물 중 가장 무서우며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 나쁘며 흉측하며 혐오감을 지닌 존재입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짓밟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지난 6,000여 년 동안 죄가 자신 안에서 일하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그가 아름다움에서 완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켜야 한다면 이 사실은 그가 빛의 천사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는 타락한 어둠의 그룹이며 철혹같이 캄캄한 어둠 속의 불 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불탈 운명입니

다(계20:10; 유13).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는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취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천사들이 ‘별들’(stars)로 불리곤 합니다(욥 38:7). 루시퍼라는 이름 그 자체도 실은 셋별(Day Star)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계12:3-4).

여기 나오는 별들은 한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반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독자께서 그 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7-9).

사탄은 어디로부터 이 천사들을 얻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도적인 반란에 가담하여 사탄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아시며 그분께서 나머지 삼분의 이에 속하는 천사들을 ‘선택받은 천사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딤펵전5:21).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게 될 천사들은 이미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천사들은 마치 사탄처럼 사악하며 더럽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마치 루시퍼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의 천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즉 하늘)를 이탈했던 천사들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유6).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타락한 천사들 중 많은 수는 현재 심판을 기다리며 지옥에 있는 맨 밑바닥 감옥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나머지 천사들은 사탄이 땅 위에서 악을 조장하는 것을 도와주며 사악함의 ‘권력들’(principalities)과 ‘권능들’(powers)로서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엡6:11-12).

이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악을 조장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수없이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이 바로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원래 지옥은 사람의 혼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될 때 사실 그들은 침입자요 탈취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끝을 맞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을 최대한으로 베푸사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 많은 사람들(우리 모두)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를 좇으려 한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독자여!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무신론자이거나 영지주의자라면 당신은 사탄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종교적이라면, 즉 의식만 중요시하고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8:44).

종교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흘린 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공합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당신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침례, 주의 만찬, 교리집, 간증, 목주 돌리는 것, 고해 성사, 종부 성사,

미사,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마룻바닥을 기어가며 고행하는 것, 방언하는 것 혹은 끝까지 견디는 것 등이 모두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과 제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침례나 주의 만찬이 종교이므로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에다 영원하지 못한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그분께서는 결코 ‘나와 침례’ 혹은 ‘나와 주의 만찬’ 혹은 ‘나와 내 어머니 마리아’ 혹은 ‘나와 너희들의 목주’ 혹은 ‘나와 너희들의 선행’ 혹은 ‘나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옥을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의 황금 길을 거닐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당신의 사악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분을 당신 자신의 구원자로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엡3:17)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사랑하는 독자여,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멸망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종교적 측면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 즉 믿음에 당신의 행위를 더한다면 — 당신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알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만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발 지금 제 가슴속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천사들 중 타락한 천사들처럼 사탄과 함께 당신의 처소를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 제 5 장

# 천사들의 아이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이제 우리는 몇몇 신학자, 신학교 교수,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의 말씀은 옛적부터 보수주의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격렬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토록 많은 논쟁과 분쟁을 일으켰던 주제 안에 사탄이 감추어 놓으려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옛 마귀가 열어 놓으려 하지 않는, 지렁이로 가득 찬 강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 ‘거인들’이라는 매우 사악한 인종을 만들어 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지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점차로 그런 중대한 주제를 덮어 두고 더 이상 그것을 연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당신이 알지 않았으면 하고 사탄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확실하게 이 구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독자들을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같은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사탄이 왜 이 주제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쉬쉬하고 또 과거의 유명한 사람들 곧 거인들이 천사들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sup>1)</sup>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사람의 딸들’의 문제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 혹은 논쟁들을 제시하기 전에 저는 독자들께서 바로 이같이 공평하지 않은 연합/결혼으로 인해 이 땅 위에 사악함이 퍼졌고 죄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불법 결혼에 의해 출산된 후예들은 매우 더럽고 추한 자들이 되었으며, 노아가 살고 있던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위해 대홍수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창6:4-8).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차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창6:12-14).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자께서는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견해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간의 결혼이란 단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

1) 한때 이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화석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가서 ‘Ancient Aliens: Lost Race of Biblical Giants Uncovered’와 ‘When were the giants?’를 검색하면 실제 기록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공평하지 못한 결혼을 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같은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예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킨다고 가정합니다.

유명한 「툼슨 주석 성경」, 「오픈 성경」 등 거의 대부분의 주석 성경 및 주석서들이 위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이며 근본적인 성도들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의 반하우스 목사님은 훌륭한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두 군데 주석상의 잘못을 빼고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유명하며 그 안의 주석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반하우스가 지적했던 한두 군데의 잘못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독자들을 오도하여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담긴 주석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의 주석만큼은 다른 주석 책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주석이 틀렸음을 보여 주기 위해 저는 「구 스코필드 주석 성경」(*Old Scofield Reference Bible*)에 기록된 그대로 스코필드 박사의 주석을 옮겨 놓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처음(첫 번째)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유6).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사43:6). 천사들은 성(性)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여자 천사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또한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마22:30). 히브리 사람들과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수용된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 6장 2절은 셋의 경건한 가계와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 사이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 줌과 동시에 셋의 가계에 맡겨진 주 여호와께 대한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보여 준다(창4:26). 배도에 대해서는 심판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사1:2-7, 24-25; 히6:4-8, 10:26-31). ‘의의 선포자’였던 노아에게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증조부가 예언했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유14-15; 창7:11).

스코필드의 논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는 주장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한 가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천사란 사람과는 다른 종류이며

따라서 비록 그들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여자들을 수태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와 그 외 다른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요점을 취해서 위에 있는 또 다른 대안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비추어서 검토를 해 보려 합니다.

**1. 창세기 6장 2절은 셋의 경건한 가계와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 사이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 준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밝혀 두려는 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학자를 본 적이 없으며 그래서 제 자신이 신학자가 아닌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위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 번 성경 말씀과 위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아들들 — 사람들의 딸들(성경 말씀)
- 셋의 경건한 가계 —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사람의 주장)

위의 대조 그 자체가 당신의 머릿속에 빨간색 경고등을 켜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만이 믿는 자들이었고 여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믿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벌써 ‘셋의 아들들’ 이론은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신자들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이 노아와 함께 배에 타지 못했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것처럼 경건했다면 왜 그들이 늙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돕거나 혹은 노아가 한 것처럼 죽어 가는 이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2:4-5).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만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물속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노아의 여덟 식구를 제외하고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외에도 이 같은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셋이 경건한 가계 혹은 혈통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족보상의 ‘가계’는 아마도 메시아의 가계일 것입니다. 즉 그 가계 속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통마저도 불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 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베레스는 사생아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간통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셋이 “경건한 혈통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비성경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창세기 4장 26절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창4:26).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셋이나 에노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장이 ‘셋의 경건한 계보’에 대한 증명 구절로 사용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인의 계보는 다 불경건했다.”라고 진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성경은 가인 자신이 불경건했고 가인의 후예들 중 얼마는 매우 사악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이 모두 사악하며 불경건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며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사악하며 불경건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악한 파라오(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악했던 왕들 중 몇몇에게는 매우 경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했

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속되며 사악하고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중 가인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셋의 계통과 불경건한 가인의 계통’이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천사를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이다 (사43:6)(「스코필드 주석 성경」).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전적으로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는 우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들에서 데려오라, 하리니(사 43:6)

도대체 어떻게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관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 및 딸들은 ‘경건하다’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을 마감하시기 전에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셨음을 보여 주십니다. 22절부터 끝 절인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및 딸들을 ‘경건한 셋의 계통’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곧잘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절은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녀라(출4:22).

이 구절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또한 이들은

셋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주’(LORD)는 히브리어로 ‘여호와’(JHWH)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 ‘여호와’가 쓰일 때 그 단어는 구속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지칭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주’도 역시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3장의 처음 14절은 모두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접어 두고 창세기 3장 14-15,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3:14-1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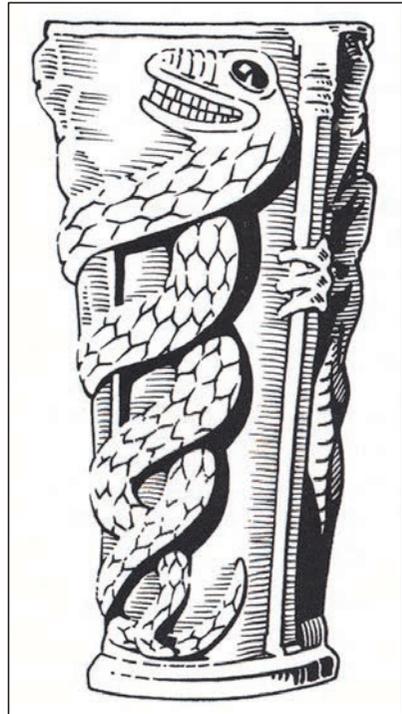
이 구절들 안의 ‘주’는 모두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다 사람의 ‘구속’(Redemption)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6장 2, 4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Elo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아들들’(Sons of Jehovah 혹은 히브리어로 ‘Ben-Ha-JHWH’)이라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과 이사야서 43장에 이



▲ 고대 중동에서는 뱀이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생명, 지혜, 혼동 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들은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혹은 히브리어로 ‘Ben—Ha—Elohim’)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총 다섯 번 사용되었으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 중 세 번은 욥기에서 발견됩니다.

■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땅의 기초를 놓았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38:7)

물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이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은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천사들을 구속하신 적이 없습니



▲ 세상의 창조 때에 이미 천사들이 존재하였다

다.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벤—하—엘로힘’으로 이것은 곧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 욥기 1장 6절에 있는 장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1:6).

그때에 하늘에는 사람이란 존재는 있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도 ‘벤—하—엘로힘’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입니다.

- 다음 장면도 역시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2:1).

물론 여기 있는 ‘벤—하—엘로힘’도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군데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벤—하—엘로힘’이 천사들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군데를 살펴봅시다.

- 두 군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창6:2).

-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4).

이제 잘 보셨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근거로 이처럼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났습니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도 모두 태어났습니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벤—하—엘로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이브뿐입니다(창5:2). 그래서 아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이 땅에서 산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의 사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the only begotten Son of God)입니다.

따라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으며 어느 곳에도 어느 때에도 그분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다루게 될 ‘사탄의 씨’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the likeness of God)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 5:1).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들과 그의 후예들은 다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것은 오직 창조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선포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엡2:10).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벤—하—엘로힘’이라는 칭호는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며(시148:2, 5; 겔28:13, 15) 아담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눅3:38).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창2:16-17).

그가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몸과 혼만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을 의미함). 또한 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그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보여 줍니다(고후 4:4; 골1:15).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셋과 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또 다른 점 하나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and also after that)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4).

“그 뒤 즉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니 그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구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흥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만일 이 구절이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연합이 거인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왔을 때 거인들이 만들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공평한 연합에 의해서 거인이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이같이 기록하지 못한 연합으로 인해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십대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셋의 시대로부터 노아의 때까지에는 아홉 세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홉 세대(약 900년) 동안 셋의 혈통 속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아들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가인의 혈통 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의 시대에 들어서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줄을 섰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또한 셋의 딸들 중 몇몇은 자기 오빠들처럼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이들이여,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거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림’(Nephilim)이며 이는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것처럼 불린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육적인 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거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다른 평범한 사람하고 비슷한 신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 이전의 이상한 연합/결혼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성경 말씀이 홍수 이후에 존재한 네페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주므로 ‘정신적 거인들’에 대한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네페림은 서로 다른 계보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엠 족속(Emims, 영어로는 에임스, 창14:5; 신2:10-11), 수스 족속(Zuzims, 영어로는 주짐스, 창14:5), 아낙 족속(Anakims, 영어로는 아나킴스, 신2:10-11; 수11:21-22 등), 르바 족속(Rephaims, 영어로는 르파임스, 창14:5; 15:20), 삼숨 족속(Zamzummims, 영어로는 잠쥘뮴스, 신2:20) 등.

독자들께서는 위의 영어 이름들에서 네페림(Nephilim) 혹은 그것의 복수인 ‘네페림스’의 끝에 있는 두 글자인 ‘임’ 혹은 ‘임스’(‘im’)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성경은 얼마나 묘합니까?

열넷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창14:5)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부르며(신2:10-11)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는데 옛날에는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부르느니라.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나 **주**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거하였는데(신2:20-21)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의 성경 말씀 속의 거인들이 ‘정신적 거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키가 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거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곳은 역대기상 20장 4절, 사무엘기상 17장 4절, 사무엘기하 21장 16-22절, 여호수아기 17장 15절, 민수기 13장 33절 등입니다. 부디 홍수 이후에도 불법적 결합에 의해 거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수기 13장에 있는 구절을 읽고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올림픽 경기의 단거리 선수들처럼 재빨리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보냈던 모세에게로 되돌아와서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키가 큰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나 컸는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그 거인들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출석 교인 수를 늘 과장해서 말하는 목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무서운 괴물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목사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에 있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m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종종 2.1m가 넘는 장신의 농구 선수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내게는 전도 친구인 팔머 형제가 있는데 그의 키는 2.3m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키가 크다는 사람들도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산의 왕이었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m, 너비가 2.1m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키는 운동화를 신고도 겨우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제 키와 제 침대 길이가 비례하듯이 바산 왕 옥의 키와 그의 침대가 비례한다고 생각해서 그의 키를 계산해 보면 그는 적어도 4m의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신3:11). 이런 연유 때문에 ‘정신적 거인’ 이론은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일 천사들이 이 책의 3장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신체적 치수들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의 후예들은 거인이 되었던 말입니까?”라고 물음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있으며 저는 이번 장의 조금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셋의 후예들이라면 왜 그들의 후예들은 모두 남자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거인들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사람들’(men of renown), 즉 ‘남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 언급되거나 묘사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들은 항상 남자였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 이유도 보여 줄 것입니다.

먼저 독자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적으로 사악한 존재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사람이 되셨듯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던 어머니들의 아기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창6:5)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은 너무나 부도덕해서 결국 전 인류를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단순히 셋과 가인의 후예들이었다면 왜 그들이 그처럼 사악했을까요? 물론 그전의 가인 족속들도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함은 결코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대격변을 일으키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땅 위에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전면적 심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전면적 심판을 불러일으킨 네피림들은 결코 셋과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나타났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다 —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 멸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들을 치시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시135:10-11).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후예들만큼 사악한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그들의 문헌 속에 홍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그 홍수까지임을 추적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자랑스럽게 그런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매우 흥미 있는 것은 고대의 작가들이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반신 반수의 괴물이나 혹은 거인들을 낳은 신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sup>2)</sup> 우리는 이런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전설 정도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교도 족속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신들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절름발이 남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

2)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의 단군 신화, 박혁거세 신화 및 대부분 고대 국가들의 신화 등도 이와 비슷하다.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행14:11-12).

여기 나오는 주피터나 머큐리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이 아닙니까? 시편 안에도 이 같은 신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시 82:1).

어떤 이들은 시편 82편의 신들과 사도행전 14장의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말한 신들이 같다는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시편 82편의 신들이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는 신들, 즉 시편 115편에서 묘사된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1절의 신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에 있는 우상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들입니다. 우선 시편 89편을 살펴보고 잠시 후에 시편 82편으로 되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력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이까?(시89:6)

위 구절의 ‘강력한 자의 아들들’(the sons of the mighty)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의 거주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수가 땅에 내려와서 창세기 6장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82편이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의 중간 부분은 분명히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걸나니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 있도다(시82:5).

자,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시82:6)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대홍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며 신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음 구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사82:6-7).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들 가운데서 재판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는 홍수에 대해 알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이들인 이 신들에게 그들이 사람들같이 죽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위의 사실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 봅시다. 만일 이 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도 될 수 없는데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눅20:34-36). 잠시 후에 홍수가 닥쳐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자식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창세기 6장에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반쪽만 사람입니다. 다른 반쪽은 물론 신 혹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들이 땅의 모든 기초가 꺾어질 때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셋과 가인의 후예였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각 맞추기 게임에서 조각들을 거의 다 맞추었는데 그때 남아 있는 조각들과 남아 있는 빈 공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조각 맞추기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다음의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신약 성경은 이 천사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낮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5-7).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 했습니다. 사실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
-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
-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가 단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항하여 비방을 했던 많은 무리를 파멸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평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사악한 자들을 이 땅으로부터 쓸어 버리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만 남았습니다.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여! 만일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두 번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줄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을 펴시는 분들이시여! 처음 신분,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 즉 하늘을 떠나서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의 죄악을 저질렀던 천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두 번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오직 창세기 6장 말씀뿐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조각 맞추기 게임’으로 되돌아가서 빙빙 돌고 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이 거의

다 끝났는데 남아 있는 조각과 남아 있는 빈 공간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도 “그러나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7절은 분명히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낮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5-7).

6절은 우리에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음행과 ‘낮선(이상한) 육체’를 좇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 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런데 7절은 타락한 천사들이 음행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 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 깊은 독자들은 유다서 기사의 연대기를 자세히 관찰해 봄으로써 천사들의 음행이 소돔 사람들의 음행 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 사람의 음행을 다룬 창세기 19장 이전에 천사들의 음행을 다룬 기사가 있어야만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이 창세기 19장 이전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라는 구절은 이 천사들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범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낮선 육체’란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육체와 성적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롬1:26-27).

천사들의 경우에 ‘낯선 육체’는 땅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 죄를 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여인들로부터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낯선 육체’(strange flesh)란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sup>3)</sup> 만일 이 땅의 여인들이 이상한 육체였다면 천사들은 평범한 육체일 것입니다. 즉 천사들과 여인들은 서로 다른 육체였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육체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똑같았고(히 13:2)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창18:8).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탄주의자들이 마귀들과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위에서 제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사람들과 같은 크기라면 —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이 보여 주듯이 이것은 사실임 — 왜 그들의 후손들은 거인이었을까요? 거인들은 서로 육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두 개의 다른 육체끼리의 결합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비정상적인 결합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에 비극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육체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행한 기형아의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행’이 동성애를 가리켰습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는 ‘음행’이 사람들의 딸들과의 성적 결합이었습니다.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인 성적 관계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포르네이아’(porneia)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르네이아’에는 간통,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근친상간,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폭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서는 천사들의 죄와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 ‘음행’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서 6절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도 언급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

3)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른 색’이라고 표현하여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벧후2:4-6)  
독자께서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이 천사들의 사건에 대한 문맥이 노아의 대홍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수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 바로 천사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 구절의 연대기는 소돔의 멸망이 홍수 이후에 있었음을 보여 주며 홍수는 천사들의 죄 이후에 생깁니다. 소돔의 멸망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홍수는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범치는 창세기 7장 이전에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만 남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다 성령님께서서는 천사들의 죄를 적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은 천사들입니다.
-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에 관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성경 구절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사들은 같은 천사들이며 그들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반은 천사요, 반은 사람인 거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때에 이 거인들은 사람들처럼 죽었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스코필드의 세 번째 주석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 3. 천사에게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마22:30)(「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이 구절에서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처럼 ‘셋과 가인의 후예’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간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부활 때에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the angels which art in heaven)과 같으니라(막12:25).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들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잠 30:6). 그분께서는 결코 ‘땅 위에 있는’(on earth)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사들 간에 결혼이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넷째 및 다섯째 진술을 살펴봅시다.

#### 4. 천사는 성이 없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도대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중성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을 단 하나만이라도 제게 보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 천사가 ‘그것’(it)으로 표시된 구절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이 없으며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점을 재차 확인하려면 이 책의 3장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들은 남자들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젊은 남자입니다.

물론 날개를 갖고 있는 아기 천사들 — 모두 로마 카톨릭교회의 창작물임 — 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중성의 천사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온 부활절의 토끼나 로마에 있는 거짓의 대왕인 교황이나 라스베이거스의 나체 댄서들만큼이나 거짓된 것입니다. 스가라서 5장에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 즉 마귀(하르피)에게는 날개가 있었지만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독자께서 천사들에 관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개 긴 머리를 하고 머리 위에 후광을 갖고 있으며 여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등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천사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 땅 위에 천사들이 내려온다면(히13:2)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과 구원받은 자들 중 대부분을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과 가인의 후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천사들은 중성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구절이 “천사들은 중성이다.”라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줍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은 결코 “천사들이 중성이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자 천사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 땅 위에서 성적 관계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생식에 의해 수를 늘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천사들은 무수히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이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멸종으로부터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들의 규약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항상 천사들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남성이며 그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남성이 아니고 중성인 ‘그것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고(이미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또한 육체이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의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육체라는 물질적 몸을 입고 있는 ‘혼’(soul)입니다(창2:7). 천사들은 육체라는 물질적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히1:7; 창18-19

장). 그렇다면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그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점들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보시다시피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서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점들이 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셋의 후손들이라면 왜 그들의 아이들은 모두 남자였을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자 거인에 대해서는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사람들(남자들)'(men of renown)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언급되거나 묘사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그들은 언제나 남자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수태될 때 그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sup>4)</sup>

이것은 물론 셋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에게도 이 사실이 해당된다면 셋의 후예들을 모두 남자아이로 탄생시킨 그들의

---

4) 사람에게에는 모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중 1쌍의 염색체가 성염색체이고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는 상(常)염색체이다. 2개의 X염색체를 가진 개체는 여성(XX)이고 X염색체 하나와 Y염색체 하나를 가진 개체는 남성(XY)이다. 남성 또는 여성의 성 결정은 세포가 분열하여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인 감수 분열 단계에서 결정되는데, 배우자, 즉 생식 세포는 정상 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감수 분열 중에는 남자의 XY 성염색체 쌍이 분리되어 X 또는 Y가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그 결과 배우자(정자)의 절반은 X염색체를 갖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Y염색체를 가진다. 여성은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난자는 1개의 X염색체를 운반하게 된다. 난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되면 여성(XX)이 되고, Y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면 남성(XY)이 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여기서 저자는 천사의 성염색체가 YY이므로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온다고 말한다.

어머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 남자아이들은 가인의 후예들 중의 딸들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두 ‘남자아이’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았듯이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은 성경의 빛 안에서 설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실한 카톨릭교도가 성경에서 연옥이란 것을 찾아 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코필드의 주석을 살펴봅시다.

### 5. 성경에는 여자 천사가 언급된 적이 없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분명히 “천사들은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면 왜 그들이 “성경에서는 여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주석을 집어넣기 원했을까요?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은 성을 갖고 있다.”, 즉 “천사들은 남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라고 말한 뒤 “성경에는 여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주석을 첨가했는데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그들은 “성경에는 남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목에 줄을 매고 누군가가 그들을 건져 내는 것뿐입니다.

이번 장의 서두에서 저는 이 주제로 인해 생겨난 근본주의자들 간의 소동 속에는 사탄이 뚜껑을 덮어 두기를 원하는, 벌레들로 가득 찬 깡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크리스천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하나님께서서는 언젠가 ‘여자의 씨’가 그 옛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 여자는 물론 나사렛의 마리아입니다(마1:18). 그

여자의 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갈4:4; 롬16:20). 여기 있는 죽음의 선고는 불 호수 가운데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계 20:10, 15).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자신을 처부술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는 죽음의 선고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처부술 자가 오게 될 통로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로서 사탄을 처부술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인류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이 타락할 때 함께 했던 자들, 즉 하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천사들 중 많은 수가 땅에 내려가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거인 족속을 만들어냄으로써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창6:5, 12).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예외였습니다. 백이십 년 동안 노아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의를 선포했으나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은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창6:13). 살인, 폭동, 강압, 도둑질, 치고받는 갱단들 간의 싸움 같은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단지 노아만이 피에 굶주린 군중들에게 목이 쉬도록 회개할 것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2:4-5)

그러나 그의 외침은 할리우드의 간통자들,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는 군중들, 라스베이거스의 댄서들과 노름꾼들, 음주 중독자들, 마약 중독 및 담배 중독자들과 같은 그 당시의 패역한 군중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외쳤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매우 사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군중들은 너무나 사악해서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아이들의 사악함으로 온 인류가 거의 파멸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의 결혼에 의해서는 그가 이런 것을 성취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한 수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며 상쾌함을 가져다줍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과 그로 인한 모든 사악함을 그대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의인 노아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대로 일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를 쳐부술 자가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두 번씩이나 사탄의 벌레 깡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천사들은 이 땅의 여인들과 동거할 수 없고 따라서 아기들을 낳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벌레 깡통의 뚜껑을 막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저 불법의 신비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그는 뉴에이지 속에서 7년 환난기 동안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탄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숨길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간략하게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에는 휴거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군중들은 성경의 많은 진리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은 사탄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선하다.”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진리 위에 뚜껑을 씌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세상의 주관자인 적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역시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사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따라서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친아들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 사탄의 씨

위에서 우리는 마귀가 숨기고 있는 벌레 깡통 속에 들어 있는 진리가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진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구절 속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자, 네 씨(thy seed)와 여자의 씨(her seed)라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씨(the seed of Mary)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만일 당신이 생리학과 생물학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생식을 위해 남성이 여성 속에 자신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아론의 씨’, ‘아버지의 씨’, ‘사람들의 씨’ 등이 언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씨’ 혹은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씨’, ‘라헬의 씨’, ‘어머니의 씨’ 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여인들 중에서 자기 안에 생식을 위한 남자의 씨를 지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여성들 안으로 심겨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인공 수정조차도 ‘치녀 탄생’, 즉 여자에 의해서만 아기가 탄생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의 씨’(the seed of the woman)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남자의 씨에 의해 생긴 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씨이십니다. 그녀는 물론 주님의 실제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마귀를 쳐부술 자가 되려고 사람이 되시려 했을 때 그분은 그녀의 아기집을 통해서 ‘마리아(즉 여자)의 씨’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몸이 그녀의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 그녀의 어머니의 아기집 속에서 수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기집 속에 그 씨를 심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씨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과 성숙기를 통해 그녀는 그 씨를 갖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짝이 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히10:5).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수태되었을 때 그녀의 아기집 속에 씨를 넣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여자의 씨이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집 속에 그분을 담고 다녔으며 실제로 그분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씨’(thy seed)… ‘여자의 씨’(her seed)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 ‘네 씨’, ‘네 씨’.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사탄도 실제로,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친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것만큼이나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말세에 그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어떤 여인과 동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여인에게서 출산된 그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즉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 운운하는 무리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땅의 여인들과 동거하여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사탄의 ‘씨’라고 하심으로써 큰 실수를 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며 실수를 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저는

문자 그대로 사탄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씨는 성경에서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1. 적그리스도(Antichrist)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2: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4:3).

### 2. 짐승(Beast)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계13:1-4).

### 3. 죄의 사람(The Man of Sin)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살후2:1-3).

### 4.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사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도 그가 자신의 사악한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는 사자’(벧전 5:8)로 표현된 것 같이 적그리스도 역시 무서운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있을 것이므로 그는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사악하므로 ‘죄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아버지 마귀와 함께 불 호수에서 끝장나게 될 것이므로(계19:20; 20:10)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멸망’(Perdition)은 ‘아폴레이아’(apoleia)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곧 ‘파괴’ 혹은 ‘파괴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독자께서 ‘아폴레이아’의 충격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의 몇 군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destruction, 아폴레이아)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마7:13)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견고 있게 되어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destruction, 아폴레이아)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빌3:18-19)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destruction, 아폴레이아)을 가져오리라(벧후2:1).

마귀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는 결코 끝이 없는 멸망의 불 속에서 궁극적인 파멸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계17:11).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 19: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씨를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두 번만 그 칭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옆에서 자기의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 그 칭호가 처음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2).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 중 하나는 가짜였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기록을 성취했는데 그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41:9).

그들(앞뒤 문맥으로 보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자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시69:25).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의 위에 세우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시109:6-8)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41편 9절이 자신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 하나에 의해 자신이 배반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요13:18).

사도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6-8절이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함으로써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백이십이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행1:15-17).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행1:20)

##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2).

성경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칭호가 언급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며 말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살후2:3).

이 두 경우 모두 ‘멸망의 아들’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즉 ‘독생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표시할 때는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멸망의 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the Mystery of Iniqui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the Mystery of Godliness)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신비한 존재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 즉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을까요? 여인을 통한 출산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불법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반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한 출생에 의한, 즉 처녀 탄생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적그리스도도 이상한 출생에 의한 사탄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이듯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일을 행하는 방법이 결코 비밀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고후2:11).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숲속의 더러운 뱀을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만일 성경을 연구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사악하며 교묘하며 더러운 계략들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온 우주의 대 모방자’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의 여섯 가지 모방 계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1. 종교는 구원의 복음을 모방한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6-8).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11:4).

### 2. 사탄은 모조품 성경들을 출간했다.

현재 미국의 성경 시장은 100여 종류가 넘는 성경으로 인해 성경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과연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권의 국가들은 지난 400여 년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일으키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형편없는 번역이고 더 좋은 ‘새’ 번역 성경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또다시 마귀의 모방이 이루어 놓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사탄은 삼위일체 신성을 모방한다.**

참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1) 아버지	(1) 용
(2) 아들	(2) 적그리스도
(3) 성령	(3) 거짓 대언자
마28:19; 요일5:7 참조	계12:9; 20:10 참조

**4.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방한다(계13:3, 14).**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계13:3).

**5.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적도 모방한다(계13:13-15).**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6.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방한다.**

그런데 마귀는 또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처녀 탄생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창세기 3장 15절의 사탄의 씨 참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듯이 적그리스도는 참 마귀, 참 사람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왜 가룟 유다도 그와 똑같은 칭호로 불렸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사탄의 모방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씨’(여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2, 14).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9:6).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자신이 어머니 배 속에서 수태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에 이 땅에 살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독자께서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늘 지지 않으려고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아들도 그것을 모방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 참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계1:8).

### 모조품 그리스도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마귀는 흉내를 내긴 내되 똑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모방자란 기껏해야

모방자에 불과합니다.

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계셨고(was)	있었다가(was)
계시고(is)	없으나(is not)
앞으로 오실(is to come)	여전히 있는(yet is)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 사탄의 아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이 구절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그는 있었고(과거)
2. 그는 없으며(현재)
3.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미래)
4.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미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있었으나 바로 그 당시에는 죽어서 땅 위에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일러 주었던 천사는 적그리스도가 땅에 다시 올 것이고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최종 도착지는 멸망(즉 불 호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겠지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자살할 때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에 의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왜 유다가 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요17:12).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살후2:3). 이 칭호 앞에 있는 정관사 ‘the’는 단 한 명의 유일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적그리스도는 같은 인물로서 하나입니다.

② 저는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남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마귀의 ‘씨’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 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열두 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요6:70-71).

위의 성경 구절의 ‘마귀’(devil)라는 단어로 그리스어 ‘디아볼로스’(diabolos)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다이모니온’(daimonion)은 사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두머리 사탄 마귀(the devil)의 줄개들인 ‘마귀’(a devil) 혹은 ‘마귀들’(devils)로 번역되었습니다(마15:22; 막5:15; 행10:38 등 참조). 그런데 ‘디아볼로스’(diabolos)라는 단어는 단 한 번의 예외(우리가 금방 읽었던 가롯 유다에 관한 요한복음 6장 70절)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 한 구절만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마귀(devil)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 자신의 정의를 따라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③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영들(다이모니온, 즉 마귀들)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한 기사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육십육 권을 통틀어 개인적으로 사탄에 의해 사로잡히고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13:26-27).

유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④ 사탄처럼 유다는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창3:1).

한편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마26:20-23).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마26:25).

유다는 너무나 교활했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리키며 “아, 유다여, 너는 숲속의 뱀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 간사해서 그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간사한 그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요6:64). 이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2:25).

마귀는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유다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열한 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속였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탄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의의 사역자로 교회에 보냄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13-15).

물론 적그리스도도 교활한 점에 있어서는 유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⑤ 유다가 지옥(땅의 중심부에 있는 바닥없는 구덩이, 무저갱)으로 내려간 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행1:25)

성경에서 언급된 그 어떤 인물도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땅을 떠난 뒤에 무저갱에 있는 자기 자신의 특별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하여야만 그가 다음 성경기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⑥ 가룟 유다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그를 재정 담당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돈 가방에서 돈을 훔쳤습니다(요12:6). 유다는 나머지 열한 명을 삼 년 반 동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삼 년 반 동안 속일 것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 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마흔두 달(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계13:5)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살후2:9-10).

자, 이제 요약을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여자들을 통해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이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라는 옷장 뒤에다 벌레로 가득한 그 깡통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속여 왔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특히 성경 신자들을).

마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는 지옥의 하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소’에 가서 사탄이 한 여인을 속여 그 여인이 수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태된 순간에 유다의 혼은 무저갱에서 나와 그 여인의 태로 들어갈 것이고 9개월이 지난 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방하기 위해 그녀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의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사탄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될 것입니다.

다음 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중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1	위에서 내려오셨다(요6:38).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계11:7).
2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요5:43).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요5:43).
3	자기를 낮추셨다(빌2:8).	자기를 높인다(살후2:4).
4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사53:3; 눅23:18).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계13:3-4).
5	나중에 지극히 높여지셨다(빌2:9).	나중에 불 호수 지옥으로 던져진다(사14:14-15; 계19:20).
6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요6:38).	자기 뜻을 행한다(단11:36).
7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눅19:10).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단8:24).
8	선한 목자시다(요10:14-15).	우상 목자이다(슌11:16-17).
9	참 포도나무이시다(요15:1).	땅의 포도나무이다(계14:18).
10	진리이시다(요14:6).	거짓이다(살후2:11).
11	거룩한 분이시다(막1:24).	사악한 자이다(살후2:8).
12	고통의 사람이시다(사53:3).	죄의 사람이다(살후2:3).
13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눅1:35).	멸망의 아들이다(살후2:3).
14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딤후3:16).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 안에 나타난 사탄이다(살후2:7).

## 제 6 장

# 천사들의 사역

천사라 불리는 하늘의 존재들이 행하는 사역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누셨고 그들에게 다른 직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겠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그들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군대에 여러 가지 질서와 계급과 종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사탄의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비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사실 마귀는 모방의 명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 있었을 때 배웠던 것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시라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엡1:19-21)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권력’(Principality), ‘권능’(Power), ‘강력’(Might), ‘통치’(Dominion)는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고 천사의 등급을 가리킵니다.<sup>1)</sup>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Authorities)과 권능들(Powers)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벧전3:22).

1)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가서 ‘Nine Orders of Angels’를 검색하면 천사의 존재들의 아홉 가지 등급을 요약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Thrones)이든 통치들(Dominions)이든 권력들(Principalities)이든 권능들(Powers)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골1:16).

위의 ‘왕좌들’(Thrones) 역시 천사들의 등급을 말합니다. 위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의 등급을 정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 사탄의 왕국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1-12).

위의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모방했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 천상의 존재들

자, 이제 하늘 군대, 즉 영적 존재들의 계급과 칭호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 1. 스랍들(Seraphims)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세랍’(seraph)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랍들’은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에 거주하므로 하늘의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독자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지금 공부하는 스랍과 다음의 그룹은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 존재(spiritual beings)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사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불타는 자들’이라고 명명된



▲ 날개가 여섯 달린 스랍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직 한 차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웃이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상천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사6:1-4).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그때에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 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사6:5-7).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분명히 이사야는 그의 평생을 통해 그 경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위로 올라가 온 우주의 왕좌가 있는 무서운 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아다니는 스랍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쳤고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모든 위엄과 영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왕좌 위에 앉아 계신 영광의 대왕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① 스랍들의 직무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임무가 하나님께 찬양을 외치는 것이며 또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알리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왕좌 위에서 서로에게 “군대들의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독자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맙시다. 그분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거룩한 언행과 선함 가운데서 마땅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벧후3:11)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벧전1:16).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 ② 스랍들의 힘과 능력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사6:4)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지략과 영의 모든 능력들이 연합해도 그것을 찌그러뜨리거나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단단하며 강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랍들이 소리를 지르자 문기둥들이 움직였습니다.

## ③ 스랍들의 모습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사6:2)

이 여섯 날개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두 날개로 그(he, 남성)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1. 스랍들은 자신들이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고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께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2. 스랍들은 주님의 존전에서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3. 거룩하며 순수한 스랍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부신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 두 날개로 그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 이것은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의 존전에 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발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왕의 존전에서 신하가 느끼는 겸손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발을 가림으로써 스랍들은 절대적으로 고귀하신 분의 존전에서 자신들의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스랍은 자신이 모든 왕의 왕 되시는 분의 두려운 존전에 서서 그 높은 왕좌에 계신 분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 왕좌가 있는 바로 그 방에서 머리를

속이고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 두 날개로 그는 날았습니다.

여섯 개의 날개 중 단지 두 개만이 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네 날개는 그분을 흠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두 개만이 나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종종 그와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를 해 드리기 위해 너무나 분주하며 그 결과 그분을 흠모하기 위해 쉬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르다는 사실 매우 바쁜 꿀벌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예수님께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그분의 발밑에 앉아 그분을 흠모하여 그분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10:41-42).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분께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분의 발밑에 앉아 그분을 흠모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스랍들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 ④ 스랍들의 성

이것은 이 책의 5장에 대한 복습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스랍을 가리킬 때 ‘그(he)’라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하늘의 군대들처럼 스랍 역시 남성입니다.

## 2. 그룹들(Cherubims)

‘그룹’이라는 단어는 ‘잡다’, ‘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빛으로 보기 전에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

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빌3: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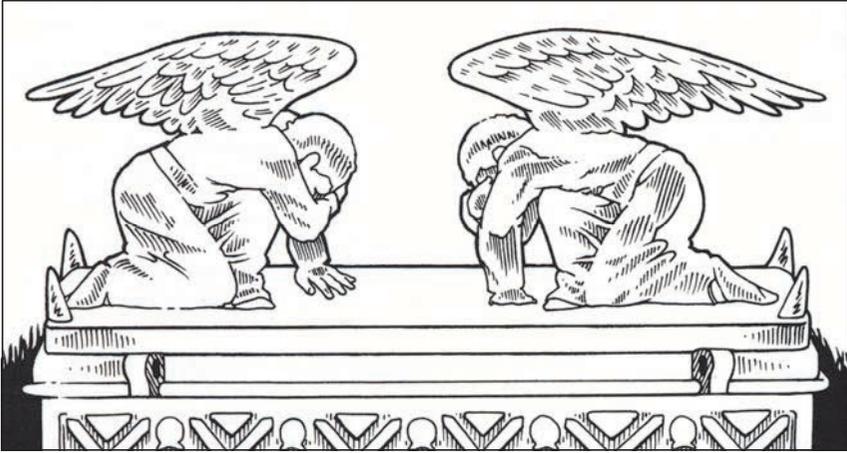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높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따르면 그것은 섬김 혹은 봉사에 이르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방향을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로잡아 이루고자 한 것 바로 그것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즉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분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을 자신이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섬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룹들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룹의 형상과 설계를 살펴보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그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은 각각 주의 집 동쪽 입구 문에 서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줄 알았노라. 그들은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들 밑에는 사람 손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들이었으며 그들의 모양과 그들 자체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갔더라(겔10:18-22).

독자께서는 여섯 날개를 갖고 있던 스랍들과는 달리 그룹들은 단지 네 날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방에서면 두 날개는 ‘궁휼의 자리’(mercy seat, 시온소)를 덮었고 나머지 두 날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 언약궤 위의 공홀의 자리를 덮는 그룹들

그들의 얼굴들이 이러하였으며 또 그들의 날개들이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고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다. 그 궁창 밑에서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이쪽에서 덮었으며 또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저쪽에서 자기 몸을 덮었더라(겔1:11, 22-23).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안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공홀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공홀의 자리 두 끝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한끝에 다른 그룹은 다른 끝에 만들지니라. 즉 너희는 공홀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자기 날개들로 공홀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공홀의 자리를 향할지니라(출25:17-20).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광채가 바로 이 ‘공홀의 자리’에 모였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도 증명됩니다.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여, 주께서는 빛을 비추소서(시80:1).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시99:1).

그룹들과는 달리 스랍들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스랍들이 여분으로 더 가지고 있던 두 날개에 대해 한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날개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광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기적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좌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그 왕좌의 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봉사의 임무를 띠고 매우 바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왕좌의 방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심지어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땅 위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3:24).

궁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룹들은 아마 교대로 일했을 터인데 그 이유는 어떤 그룹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광채를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들의 임무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서 선 채 교대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도 숯불과 불로 된 돌들로 이루어진 제단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도 독자께서는 이사야서의 스랍들 중 하나가 집계를 가지고 불로부터 뜨거운 숯불 하나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붙고 있는 그 제단은 궁홀의 자리 바로 앞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에덴동산을 지키는 그룹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퀴들 사이로 즉 그룹 밑으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붙은 솥을 네 손에 가득 채워다가 그 도시 위에 흘리라, 하시므로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갔는데(겔10:2)

우리는 또한 루시퍼인 사탄이 그룹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겔28:14).

그룹들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요약하면 그들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봉사’임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또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니 그들은 설 때에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겔1:14, 24).

대언자 에스겔은 무려 서른 번이나 그룹들을 가리켜 ‘살아 있는 창조물’(짧게 ‘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생명, 열정,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움직임 등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룹들도 성령님에 의해 남성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룹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항상 ‘그’(he)입니다. 사탄도 그룹이었고 후에 그는 적그리스도의 아버지(남성)가 될 것입니다.

### 3. 천사장(The Archangel)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유9).

많은 신학자들은 천사장이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장’(Archangel)이라는 말은 ‘사자(使者)들 중에서 으뜸가는 자’(Chief messenger)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엘이 으뜸가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미가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나타내는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경호 천사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경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경호 천사입니다.

특히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몇몇 특별한 천사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서 ‘통치자들’(Princes)이라고 불립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온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천사와 대화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천사]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the prince)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단10:11-14).

위의 말씀을 통해 독자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에 관한 전달 사항이 다니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천사를 도우러 온 것은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다음 구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곧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단10:21).

이 천사는 미가엘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 관한 미래사를 아는 천사가 하늘에 없다고 다니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 실제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위대한 천사로서 등장합니다.



▲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또다시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유9).

미가엘은 그때에 사탄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사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만일 그때에 미가엘이 사탄을 공격했다라면 사탄이 즉시로 파멸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미가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탄을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 넣으실 때도 그가 아닌 다른 천사를 사용하십니다(계20:1-3).

미가엘은 또한 신약 시대 성도들의 ‘휴거’(들려 올라감)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5-17).

왜 천사장 미가엘이 성도들의 휴거 때에 오게 될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들의 증거를 막거나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탄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천년 왕국 전에’(전천년설, Pre-millennial), ‘환난 전에’(환난전 휴거, Pre-tribulation) 공중 강림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마귀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오성 장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질 때 미가엘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계12:7-10).

할렐루야! 미가엘은 마귀를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여, 그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쟁은 참으로 어렵고 종종 우리도 피곤을 느끼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가엘은 굉장히 큰 능력을 소유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즉 미가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창조물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 1:1).

예수님께서 미가엘을 지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가브리엘(Gabriel)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브리엘을 보내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대략 1초에 34,000킬로미터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빛은 1년에 약 10조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셈입니다. 하늘에 관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거리를 계산할 때 킬로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광년’, 즉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사용합니다. 하늘들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거리를 계산한다면 너무나 많은 영(0)이

나오게 되므로 그들은 곧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년’(light year), 즉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인 10조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3-14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별들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 천문학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잡을 수 있는 별들이 약 천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늘이 그보다 얼마나 더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즉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The third heaven)이 수천만 광년 되는 거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채 삼 분도 못 되어 그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잡고 다니엘서를 펴 봅시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9절을 통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방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다니엘서 9장에서 저 위대한 대언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4절에서 시작되어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속도로 그 기도문을 크게 읽는다면 아마도 약 3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the man Gabriel)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단9:20-23).

다니엘은 두 번씩이나 자기가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가브리엘이 자기를 만졌다고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셔서 땅으로 날아가라고 했음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브리엘은 참으로 신속하게 그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수천만 광년(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임)이나 되는 거리를 단 3분 내로 날아왔습니다.

하늘에 가게 되면 저는 가브리엘에게 ‘속도왕’이라는 별명을 지어 줄 것입니다. 가브리엘 역시 남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사람(남자) 가브리엘’(The Man Gabriel)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날개도 후광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 보지 않은 예술가들만이 여자의 모습 혹은 아기의 모습을 띠고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그립니다. 분명히 가브리엘은 남성이었고 남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으며 또 내가 울래 강의 독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이여,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오는 때에(at the time of the end) 대한 것이니라, 하니라. 한편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격노[대환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 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단 8:15-19).

여기에 있는 격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환난을 말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또한 가브리엘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 계열에 사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눅 1:5-7).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라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1:11-13).



▲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यो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눅1:18-19).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의로운 노인 부부에게 전해 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던 것도 가브리엘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26-30, 35).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어 이 세상에 구원자를 출산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특권 역시 가브리엘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처녀 탄생 소식을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전해 주었던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사가라의 경우에 모두 자신을 ‘주의 천사’(angel of the Lord)라고 소개합니다.



▲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가브리엘은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또한 성도들의 휴거 시에 바로 그가 나팔을 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그 기쁜 사명은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브리엘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특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쁜 일에 그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도 참으로 흥분되며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독특하고도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께서는 아셔야만 합니다. 가브리엘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데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위대한 특권을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성도여, 그 특권을 사용해서 죽어 가는 영혼들을 구하십시오. 영혼 구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 5. 천사들(Angels)

영어로 ‘angel’(천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ngelos’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곧 ‘보내어진 자’(messenger), 즉 ‘사자’(使者), 다시 말해 심부름꾼을 뜻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도 수행합니다. 저는 그들의 임무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천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독자들께서는 자주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 「개역성경」의 ‘여호와와 사자’)라는 용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인물은 성육신 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과 ‘그 천사’에 대한 앞뒤 낱말들이 그 용어가 위의 두 경우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의 배를 가르려 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창22:11-12).

위의 구절 중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주의 천사’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사악한 대언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 길에 나타나서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경우의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민22:31)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님과 주의 천사가 분명히 다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께서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민22:28)

참으로 성경은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그는 주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 기드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므로(삿6:11-13)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주님 자신이 아니라 단순히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뒤의 몇 절을 더 읽어 보면 그 점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태워 버렸고 그때에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며!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화평이 있을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삿6:21-23).

독자께서는 그 천사가 주님에게 속한 한 천사(an angel of the LORD)였다는 것과 그 천사가 떠난 뒤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기드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어떤 구절의 ‘주의

천사'를 구분할 때 문맥이 '주의 천사'가 주님 자신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그냥 실제의 천사라고 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 ■ 아브라함과 그의 종을 인도함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창24:6-7).

### ■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출23:20)

### ■ 엘리야를 먹임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죽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왕상19:4-5)

### ■ 스가랴를 깨우쳐 줌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화나무들 사이에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이 있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니(슥1:8-9)

### ■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의 동료들을 위로함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5-6).

마태복음 28장 3-4절을 보십시오. 이 천사도 역시 남성(he)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이 여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Two men), 즉 천사들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18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남자이며 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10-11).

#### ■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가져다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겺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계1:1)

#### ■ 신약 시대 교회들에게 증언함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계22:16).

위에서 우리는 천사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기사를 다루었지만 저는 독자들께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계시의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②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적들을 꺾는 데 사용되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을 누르시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힘을 살펴봅시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계18:21).

위의 맷돌(millstone)은 콩을 갈아 비지를 만드는데 쓰는 맷돌이 아니고 적어도 무게가 1-4톤 정도나 되는, 옛날의 방앗간에서 쓰던 큰 맷돌을 말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바다에 던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뜰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굴러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막16:2-5)

여기에서 ‘청년’, 즉 ‘젊은 남자’로 확인된 인물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 구절은 분명히 그가 스스로 돌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러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꺾는데 사용된 예들을 살펴봅시다.

#### ■ 아시리아 군인들을 살육함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다(왕하19:35).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천사가 훈련받은 정예 부대 십팔만 오천 명을 단숨에 살해했습니다. 오 형제여! 저는 제가 하나님의 편이기에 참으로 안심합니다.

#### ■ 예루살렘에서 사악한 무리들을 살육함

보라, 여섯 사람(천사들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으며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딸들을 죽임 당한 자들로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죽이니라(겔9:2, 7).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이 여섯 명의 남자들은 천사임이 확실한데 단지 여섯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 ■ 소돔을 멸망시킴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 남자들(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창19:1, 12-13)

하나님께서서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소돔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 사악한 왕 헤롯을 침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행12:21-23).

■ 하나님의 적들에게 화를 선포함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도다! 하더라(계8:13).

지진, 번개, 불, 유황, 연기, 피, 죽음 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천사들이 선포한 화들은 땅에 있던 하나님의 적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세상 위에 그분의 진노의 금병들을 부음으로써 성취됩니다.

■ 하나님의 적들이 불타게 되자 승리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14:10)

불 호수에 거주할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정복함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7)

-9).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국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파멸시킬 것입니다.

③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경호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 주위에 진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존재들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들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천사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때에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는 거의 20년 동안 말을 타고 여러 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를 드린 뒤에 그 전도자는 그 모임 기간 내내 거했던 그 교회의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응접실에서 그 집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 전도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젊은이는 이번 집회에 관해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죽어 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 가는 사람이 그 전도자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잠시 말을 타고 달려간 전도자는 그 아픈 사람이 사경을 헤매며 누워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채 그 전도자는 죽어 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흐릿한 눈을 뜬 채 그 사람은 꺼질 듯 말 듯한 등잔 불빛에 의해 희미하게 비쳐진 전도자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한 가지 알려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십이 년 전에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

다.”

그는 말을 멈추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네,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심호흡을 하고 베개 위에 머리를 다시 조절해서 놓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의 마지막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모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방에 넣고 달빛 속으로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다음에 갈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말을 타고 지름길로 달려서 숲속에서 목사님의 돈 가방을 털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그 돈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로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으로 뛰어나가 총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목사님께서 주춤거리시더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고말고요.”라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안장 띠가 헐거워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것을 다시 조이려고 잠시 쉬었지요.”

머리를 끄덕이며 그 병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쏘 죽이려고 하던 때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목사님과 저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께서서는 전혀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목사님을 뵙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뿐입니다. 달빛 속에서 그 옷은 빛이 났거든요. 그는 길에 서서 목사님께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었던 그 이상한 남자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려던 그 남자가 어떤 망상을 본 것일까요?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최근에 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 가족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 부족이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부족 주민들과 수년 동안 일한 뒤 그들은 결국 그 부족의 추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 추장은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가 끝났을 때 추장은 몇 년 전 어두운 밤에 자기와 부족 중 몇몇 용사들이 그 선교사의 집을 습격하러 갔었다고 겸연쩍어 하며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교사와 그의 온 가족을 몰살하려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왜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추장은 자신들이 그 집에 접근해 보니 몇몇 이상한 남자들이 그 집 주위를 덮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불로 된 칼들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선교사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 가족 중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추장이 망상을 보았던 것일까요? 추장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그 원시 부족 흑인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이보다 좀 더 최근에 저는 매우 지적이며 성실한 크리스천 부인이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팽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쇠조각은 막 휘어서 영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꼼짝없이 좌석과 운전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압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녀는 자기 옆에 앉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발을 운전석 앞으로 대고는 좌석을 뒤로 밀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초인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좌석이 뒤로 밀려나자 즉시로 그녀는 무섭게 조여 오던 압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차 옆에 있는 두 명의 다른 이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녀는 좌석을 뒤로 밀어냈던 그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어떤 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해답을 갖고 있지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저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좀 늦었기에 제한 속도를 넘어서 고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면서 저는 왼쪽 차선에 있게 되었고 제 오른쪽에도 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고속도로에는 조그만 돌들이 깔려 있었고 제 차는 옆으로 돌더니 그만 시멘트 블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속 90킬로미터 정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차 뒤의 범퍼를 잡아당기는 것 같더니 우리 차는 시멘트 블록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는 열네 살 때부터 약 50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동차가 90킬로미터로 미끄러져 갈 때 앞으로 향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때 우리가 왜 시멘트 블록을 들이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언젠가 한번은 쉼보레 ‘콜벳’이라는 스포츠카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보통 차와는 달리 공랭식(보통 차는 수냉식임) 엔진이 차 뒤에 있었고 연료통은 앞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연료통이 터지고 운전자의 얼굴로 연료가 분사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조그만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운전자는 즉사하겠지요.

저는 주택가에서 규정대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5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에 부딪히는 것은 50킬로미터로 달리던 두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에 치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참 달리던 중에 저는 제 앞에서 오는 차가 차선을 넘어 제게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자연스럽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스포츠카는 기적적으로 멈추었고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섰기 때문에 저는 운전대에 심하게 부딪쳤지만 눈을 떠 보니 그 차는 제 차의 오른쪽 펜더 바로 옆으로 통과하여 인도 블록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때 그 차와 제 차의 간격은 불과 5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요행수로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사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사91:11-12).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 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에서 자신의 종과 함께 적군에 의해 둘러싸였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적들이 밤에 와서 그를 죽이려고 둘러섰습니다.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3-17).

자,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진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리오 왕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형의 집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 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던라. 그때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단6:16-18)

그 뒤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매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단6:19-22).

다니엘은 심지어 굶긴 데도 없었습니다. 사자들의 턱은 자물쇠로 잠겼고 다니엘은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왕이 애가 타고 괴로워서 폭신한 최고급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베드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일 참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체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행 12:4-7).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네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행12:8-10).

이리하여 베드로는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 그 배는 그만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지만 여전히 풍랑은 그들을 침몰시키려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바다의 물결이 미친 듯이 뛰노는 무서운 상황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쇠사슬 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갑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행27:22-25).

그 배에 타고 있던 항해사들은 모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관한 한 그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배는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떠십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자,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they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위에서 영어와 함께 쓰인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은 이미 구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될 자들도 돌보아 줍니다. 이 구절과 함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병행하여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으로 보아 그분께서는 아기들, 즉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기들 혹은 어린아이들에 대해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in heaven their angels)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아이들의) 천사들’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신 사실을 통해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 즉 아직까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천사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바로 위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연계하면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즉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어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혹은 그녀)에게 최소한 한 명의 개인적인 천사가 배정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며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때의 나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이때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 천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의 평생 동안 그 천사가 그와 함께 지내도록 위임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십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 하늘에 가게 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벧전1:2).

그러나 저는 이것이 칼빈의 극단적 예정론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나이에 이르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선택되었으므로(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직 걷지도 못하던 갓난아기였을 때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고 전혀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바구니에 저를 담아서 밖에 해가 비치는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야생마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곤 했습니

다. 우리가 살던 곳은 콜로라도주의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안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밖을 보니 한 때의 야생마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곧바로 제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야생마들이 저를 밟아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다 걷힌 후에 보니 그 소동 속에서도 그 바구니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천사가 그들이 제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제 앞으로 나가서 자기 팔을 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며 “이 아기는 주님의 선택된 자니 다쳐서는 안 된다.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가라.”라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위를 누리십시오. 한 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 차의 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창문에 기대어 몸의 반 이상을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수학적인 계산대로라면 저는 밖으로 떨어져서 두개골에 큰 상처를 입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차들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높았습니다. 따라서 제 머리는 시멘트 블록에 부딪치고 두개골은 반으로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천사는 제 몸의 반 이상이 창밖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속하게 제 머리가 닿을 곳에 그의 손을 대어 충격 완화용 쿠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제가 네 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은 끝이 뾰족한 나무들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원숭이처럼 어딘가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들, 빗물이 내려오는 통들, 기둥들, 그리고 뾰족한 나무 울타리에도 오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뾰족한 나무 울타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그만 제 셔츠의 목 부분이 뾰족한데 걸려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비틀어지면서 제 숨통을 막아 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더구나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천사가 저를 구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

다. 그때 마침 제 외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천사는 그에게 ‘나를 찾아보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냈을 때 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마다 저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천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총알이 들어 있는 자동 소총의 구경을 눈에 대어 보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총신이 짧은 소총을 제 머리에 대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탄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뻔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게 참으로 소중한 아내인 조니와 세 자녀들 코니, 제프 그리고 켈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니와 제게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매우 소중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이들이 그들의 천사들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막내딸인 켈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켈리가 세 살이었을 때 이 아이는 사내아이들처럼 매우 험하게 놀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네에 사는 다섯 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자기 밑에 두고 데리고 놀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명의 천사를 그녀에게 배정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기어오르고 떨어지고 싸우고 깨뜨리고 부딪치곤 했습니다.

한번은 켈리가 높은 나무마루에서 떨어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굴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계단마다 부딪쳤습니다. 사실 어른들 같았으면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테지만 그녀는 조그맣게 흠이 난 것을 제외하고는 멀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녀의 천사들이 그녀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칠 때마다 쿠션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요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살 때 한번은 그녀가 할아버지의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수영장 근처에 있었지만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조그맣게 풍당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수영장의 반대편 끝에 있다가 켈리가 물속에 잠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물속으로 잠수해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밑에서 이미 그녀의 눈이 크게 열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녀를 물에서 꺼내어 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켈리는 물속에 약 20초 정도 잠겨 있었지만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전에 물속에 머리를 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물에 빠지면 숨을 쉬려고 하다가 물을 먹게 됩니다.

또 한번은 켈리가 면도날로 손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마침 그때 집에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수리를 하느라 바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천사들 중 하나가 제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으니 빨리 켈리를 살펴보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목욕탕에서 면도날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면도날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다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녀의 양다리가 모두 크게 찢겨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피는 그리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면도날로 상처를 많이 내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처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와야만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그녀를 떠받들고는 상처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일 이후에도 이 아이의 다리에는 아무런 흠집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닦았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는 태어난 지 약 8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저는 그 일을 마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했고 주일 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충실했으며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켈리의 천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목사가 되려 하지 않는데 오늘이야말로

그를 돌아서게 해야겠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를 잘 보도록 해라.”

저는 집 앞으로 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켈리의 언니와 오빠에게 “내가 차고에서 차를 뒤로 뺄 테니 켈리를 잘 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 아이들은 서로 놀기에 바빠서 켈리가 차고 앞에 있는 차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편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차고에서 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집 건너편에 사는 이웃 한 분이 “스톱!”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제프가 제 옆으로 오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차 밑에 켈리가 깔렸어요! 켈리가 깔렸다고요!”

저는 그때 얼어붙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뒤 약 7, 8초가 지난 뒤 제 아내가 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앞으로 가야 할지 혹은 뒤로 가야 할지를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의 몇 초는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게 큰 소리를 질렀던 그 이웃 사람이 달려오자 제 아내가 “차를 앞으로 빼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른쪽 뒷바퀴가 그녀의 발목과 손목을 눌렀고 그녀의 머리는 바로 바퀴 뒤에 있었습니다. 약 0.1초만 더 늦었다면 그녀의 머리는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에 그녀의 천사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을 쟖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피부에 타이어 자국이 나기는 했지만 빼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가족의 주치의의 불렀고 그는 우리더러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쁜 증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으로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아마 어떤 분들은 이처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그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나 죽음이 필요한가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께서 천사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거나 허용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 안에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천사들은 우리의 혼을 하늘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눅16:22)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Paradise)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즉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 살았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죽어서 갔던 곳입니다(눅23:43). 낙원은 지옥(하데스)의 차가운 쪽에 있으며 이 땅의 중심, 즉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구원받은 자들, 즉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습니다(엡4:8-10; 고후12:2-4).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은 뒤에 더 이상 땅속의 낙원으로 가지 않고 직접 하늘로 갑니다.<sup>2)</sup>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하며 천사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은 남자로 오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天使)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죽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임종 시 구원받은 혼(Soul)이 몸으로부터 빠져나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로 천사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육적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

2) 「성경 바로 보기」와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그리스도 예수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 넘어가는 우리의 죽음은 사실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와 겁에 질린 그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눈을 여셔서 순식간에 저쪽 세상을 보도록 하셨지만 불쌍한 그의 종은 단지 이쪽 세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7).



▲ 천사는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천사들이 단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창세기 19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전체 군중이 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여러 명에게 나타나지만 그중에 오직 한 사람만 그들을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 미국 개척 시절 네 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단칸 오두막집에서 살았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을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정쯤에 그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자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마를 닦아 주며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침대 곁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불이라고는 희미한 등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눈을 뜨고는 부엌 쪽을 향해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들이 나를 위해 왔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니?” “저기 있는 두 천사들 말이예요.”

그녀는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천사들이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단다.” “엄마 그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들이 어디 있단 말이니? 얘야.” 그는 너무나 약해져서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엄마에게는 그들이 안 보여요? 그들은 바로 찬장 옆에 서 있어요.

그들은 제가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몇 번 기침을 하고 눈을 감고는 하늘로 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많은 경우 죽는 사람의 혼은 두 세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그 짧은 순간에 육과 영의 세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아들 제프를 낳았을 때 그녀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심한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자 의사들은 강제로 조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만 시에 의사들은 그녀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 조니에게 그때 그 사건을 글로 적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녀의 글을 적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 조니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고 연발 실수를 범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꿈 이야기만 하며 “랄랄랄랄” 하며 쓸데없는 방언 이야기나 하고 직통 계시 등만을 이야기하는 ‘은사주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며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녀가 자신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보았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조니의 간증문입니다.

내가 둘째 아이를 가진 뒤 여덟 달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매우 심각한 임신 중독증 때문에 예정보다 5주 앞당겨 강제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나 역시 많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늘 그래 왔듯이 나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흘렀다. 나는 오후 늦게 분만실로 가는 침대를 탔다. 그때까지도 나는 얼마나 길며 괴로운 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했고 것처럼 외로운 밤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실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임신 중독증이 매우 심각했으므로 내게는 마취제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 고통스러운 분만 과정의 아픔을 그대로 다 견뎌 내야만 했다.

그것은 참으로 길고 어려운 밤이었다. 밤이 점점 깊어 오면서 나는 내 힘과 생명 자체가 나로부터 떠나려는 듯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이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분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눈을 떴을 때 내 침대 바로 옆에 빛나는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보기에 참으로 상냥스러웠다. 나는 그 사람이 천사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참으로 내게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나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려 하자 그는 자기 손을 도로 거두어 버렸다. 그때 나는 그가 나를 분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안을 주러 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 뒤 나는 곧바로 아들을 낳았고 그 천사는 내 곁을 떠났다.

이 사건은 1954년 11월 23일에 있었지만 지금도 내게는 그 일이 눈앞에 휩하다. 내가 지금 남편의 책에 내기 위해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그 귀한 경험과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바로 죽음 직전까지 경험했으므로 나는 왜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 없는가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려 하실 때 우리 손을 잡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오도록 그분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다.

조 앤 레이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성도들이여!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天使)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 제 7 장

# 천사들의 왕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즉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시24:7-1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선언하시며 시편 24편 10절에서는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이방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땅의 왕이시요, 왕의 왕이시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들의 왕이십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왕도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셨을 때 그분의 강한 음성이 하늘의 전을 울렸고 우주의 끝이 없는 곳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히1:6)

비록 천사들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는 바로 자기들의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분에게 신경을 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섬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수태 예고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定婚)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눅1:26-29)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30-35).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마리아가 자신의 독생자를 낳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흠모했으므로 주저함 없이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 2. 성육신 속에서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싸매는 천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눅2:7-14).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왕좌를 떠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기에서도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했고 그분께 찬양을



▲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단 한 번도 그분께 가장 높은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그분을 술고래라고 불렀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었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흠모하며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영광을 취했지만  
 천사들은 그분 손으로 이루신 일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식초와 쓸개를 주었지만  
 천사들은 그분에게 향내 나는 봉사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 3. 시험 속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상형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주리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1-7).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옳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마4:8-11).

우리 예수님께서 사악한 마귀와 정면으로 만나 그의 시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그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기들의 왕께 시중들러 왔습니다.

### 4. 극도의 피로 속에서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눅22:39-44).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치워 달라고 했던 그 잔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그분의 떨리는 입 속에 넣어 주셨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요18:11). 그것은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벤

전2:24). 그 안의 모든 것을 마심으로써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고후5:21).

영혼의 지극히 거룩함 속에서 그 밤에 십자가의 어둠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분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의 지치신 몸은 스펀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온통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몸소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들마저도 잠만 잤습니다(마26:40).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도왔던 것은 오직 천사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22:43).

여기에서 ‘강건하게 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니스쿠오’(enischuo)인데 이것은 ‘내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쟁은 그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분께서 그 시련의 초반부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마26:38)

순전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죄 없으신 그분의 혼은 임박한 죄의 잔을 보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혼에 그토록 무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혼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라헬의 혼(魂)이 떠나갈 때처럼 그분의 몸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온 천사는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잔을 마시도록 내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분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잔을 지정해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남아 있는 한 그는 반드시 그 잔으로 마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손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보통의 포도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손님이 특별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집에서 가장 아끼는 최상품 포도즙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집의 주인이 예비한 포도즙의 질을 보고서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저주했고 욕했고 비난했으며 그분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최상급 포도즙을 드리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쓴 잔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오직 천사들만이 그분을 정당하게 대접했습니다.

## 5. 십자가 처형 속에서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든 일단의 무리를 겿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와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어떤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마26:52-54).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무례하게 취급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78,000명이 넘는 천사들이 하늘에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몸짓과 부르심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온 귀를 땅에다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 단 한마디의 명령만 내리셨다면 상황은 급변했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군중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겿세마네에서 그분의 손을 묶었을 때 하늘의 군대들은 출동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등에 채찍을 내리치자 미가엘은 칼을 꺼내 들고 왕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도우러 가겠나이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그가 너를 부르기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위에 그분을 내려놓고 잔인하게 그분의 손과 발 위에 못을 박았을 때 하늘의 군대들은 모두 칼을 빼 들고 “자, 이제 가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좌로부터 “안 된다. 그가 너희를 부르지 않는 한 너희는 갈 수 없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 하고 외치자 미가엘이 하늘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소리쳤습니다. “들으셨지요. 제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미가엘아! 그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결코 한 발짝도 땅으로 향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언자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사63:3)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10:17-18).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도움 요청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군중들은 아마도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마27:42).

그런데 그때 만일 주님께서 천사들을 불렀더라면 혹은 만일 그분께서 한 말씀만 하심으로써 구출되셨더라면 그분께서는 결코 한 영혼도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사악한 인간들은 그 영광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지만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했으며 그분의 말씀만 기다리며 신실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6. 부활하실 때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마28:1-7)

성도 누가는 무덤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눅24:1-5)

비천한 말구유로부터 빈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도 우리의 친구인 천사들로부터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 7. 영광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과 자신의 최종 말씀을 신약 교회에게 주신 뒤 그분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마28:16-20; 행1:1-8).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의사 누가는 이 승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9-11).



▲ 예수님의 승천 때에 나타난 천사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도 천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로 향하시는 그분의 출발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바울과 요한은 하늘에서 본 승천의 광경을 묘사해 줍니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거기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다(시118:18-19).

시편 118편은 겿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일, 그분의 체포, 십자가에서의 처형, 죽음, 그리고 부활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부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문에 다다르셔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고 외치십니다. 그 문들을 지난 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왕좌에 다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스럽게 그분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히1:13).

천사들은 그분께서 영광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수치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性品)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딤후3:16).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늘 천사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녀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침례를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 체포, 심문,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영광을 받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본향으로 돌아오자 천사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히1:3-6)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영원을 내다보게 해 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왕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 위에 높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분께서는 어린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어린양은 여전히 갈보리에서 찢겨진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분의 왕좌 주위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히12:22).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계5:11-12).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소수만이 그분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 천사들은

주님에 대한 수태 예고에서(In Annunciation),  
주님의 성육신 속에서(In Incarnation),  
시험 속에서(In Temptation),  
극도의 피로 속에서(In Exhaustion),  
십자가 처형 속에서(In Crucifixion),  
부활하실 때에(In Resurrection),  
영광 중에서(In Glor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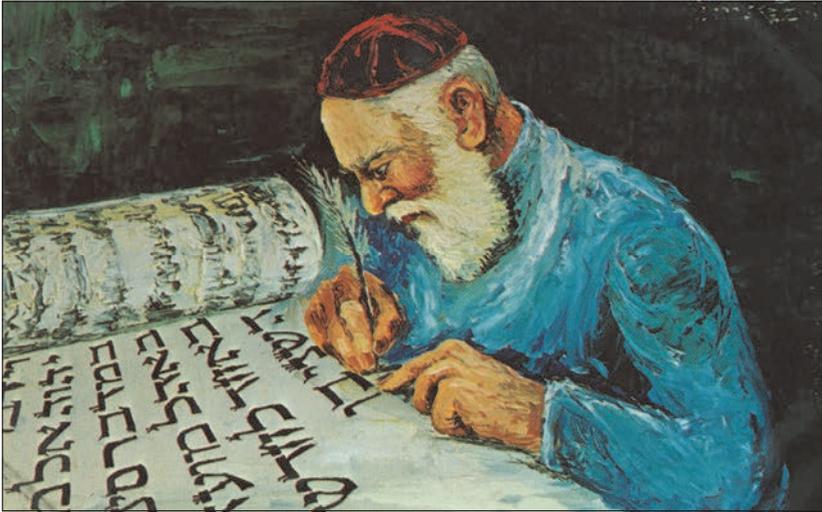
자기들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흠모의 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천사들의 왕이시여!  
 들의 짐승들도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짐 신는 짐승들도 그분께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그분의 세금을 내주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그분의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나무도 그분의 저주에 말라 버렸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물도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의 외침에 돌들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악하며 반역하며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왕을 존경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탁드리오니  
 우리도 이제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왕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립시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맞으라.  
 천사들아 앞드려서  
 영광의 금관을 가져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께 씌워 드려라  
 영광의 금관을 가져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께 씌워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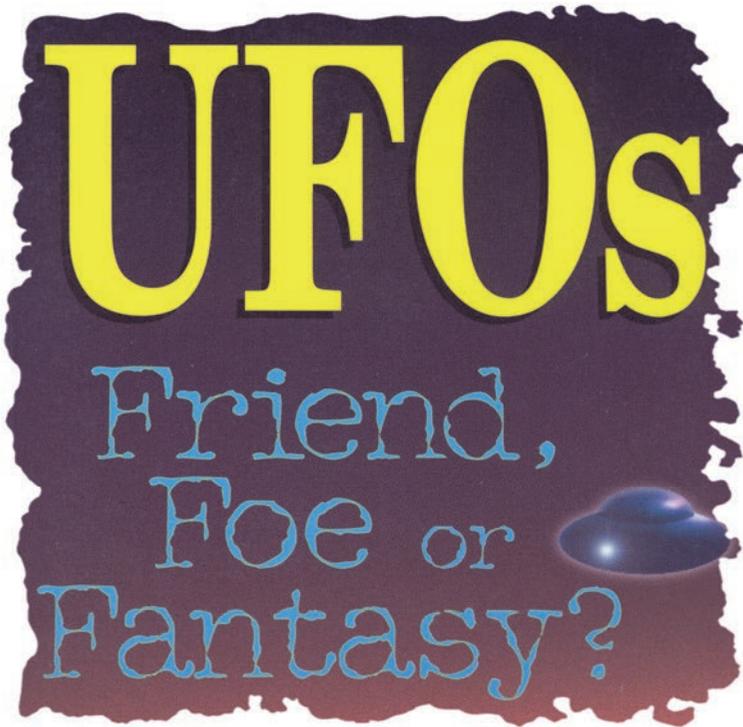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제2부

# UFO의 미스터리



UFO는 친구인가, 적인가, 판타지인가?



## 제 8 장

# UFO의 역사

오, 하나님 말씀사,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 1994년 3월 8일, 미시간주 머스키간에서  
엄청나게 큰 UFO를 목격한 경찰관의 비명 소리 -

이것은 금속체로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 미국 공군의 만텔 대위가 UFO를 추격하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

하늘을 주시하라!  
- 영화 ‘클로즈 인카운터스’의 원제목 -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눅21:28).

과연 UFO는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 10여 년간 저(슈네벨린)는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 특히 사교나 이단에 빠져 죄 중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UFO와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비록 뉴에이지 운동이 소위 외계인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상관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뉴에이지 속의 ‘UFO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미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영매들이 행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주의 외계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 대중 매체들도 ‘하늘을 나는 비행접시’를 추종하는 사교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비행접시에 끌려간 인물 중 가장 많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아담스키(George Adamski) 등에 대해 과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를 기독교 관점에서 반박하는 책들이 저술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몰몬교도나 프리메이슨(Freemasons, 석공 조직)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자들로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모든 UFO 현상을 이런 엉터리 사기꾼들이 조작해 낸 부풀린 풍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 또한 이 현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UFO 현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생각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시간을 내서 깊이 연구해야만 할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감지해야 할 사실은 UFO야말로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끌고 갈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UFO가 사회의 비밀 조직과 어둠의 세력들과 연합하여 모든 인류를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환난’(마24:21, 29; 계7:14)이라고 표현된 마지막 기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킨다는 점입니다. UFO란 단지 허깨비나 환영이 아니고 더더욱 속임수도 아니며 능력이 있고 사악한 존재들이 만들어 내는 속임수를 위한 고차원의 도구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 놀라시지 않는다!**

이제부터 전개될 내용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특히 대중 매체를 무조건 따라가는 성도들은) 매우 놀라게 될지도 모르지만 늘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으며 바로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듯이,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하늘에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서 사방에서 믿는 이들을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이 머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救贖)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눅21:28).

###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고전4:1-2).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청지기란 주인에게서 어떤 값나가는 것을 인수받아 잘 간수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되려면, 그는 무엇보다도 신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모든 것이 실제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비들을 맡기셨고 이것들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보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들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비들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 사회 보장 제도, 연금, 보험, 자기 자녀들, 집, 차, 물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나 신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치 올빼미로 가득한 창고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사람들이 도무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대인들은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도 의를 좇기 위해 혹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애타 하거나 굶주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비’ 혹은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단어는 당신이 밤을 새워 연구해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신비란 말 그대로 신비이며, 당신은 그것을 그냥 믿어야지 절대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종종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종종 매우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갖게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창세기의 첫째 아담), 둘째로 여자로부터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셋째로 여자를 통하지 않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실 수 있고(이브), 넷째로 남자와 여자들로부터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모든 사람들). 사람이 이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모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직도 세 가지 방법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며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라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구호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보다 앞서 있으므로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줄달음 질쳐야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세기의 현대인들보다 최소한 100-3,000년 정도는 늘 앞서갑니다. 물론 저는 이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성경이 말하는 ‘신비’가 무엇인지 다음의 정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로 밤새 연구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말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미스터리(신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마13:11; 눅8:10),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롬16:25-26; 엡3:4), 휴거의 신비(고전15:51),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엡5:32), 복음의 신비(엡6:19),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골2:2), 불법의 신비(살후2:7), 바빌론의 신비(계17:5), 음녀와 짐승의 신비(계17:7)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은밀한 일들과 신비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성경은 미스터리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 중 어떤 것들은 이미 계시를 통해 밝히 드러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UFO와 외계인에 관한 신비도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신비들 혹은 은밀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나 신학자가 무어라 하든지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UFO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기본 용어 정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두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UFO가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UFO란 ‘미확인 비행 물체’(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즉각 비행기나 유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모두 위의 정의에 따라 UFO입니다. 과연 UFO가 다른 별에서 온 우주선인지 아닌지는 뒤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따라서 날아다니는 것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 UFO라는 점을 부디 기억하시고 이 책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자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UFO의 정체가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sup>1)</sup>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된 지 약 6,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모든 것에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성경 말씀이 UFO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20세기의 과학을 숭배하는 문명인들의 생각이나 지식보다 몇백 년 정도는 늘 앞서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명백하게 UFO를 보여 주고 있는 다음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이십 큐빗이며 그것의 너비가 십 큐빗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이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며 맹세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저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하더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제

---

1) UFO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UFO, 즉 미확인 비행 물체는 실존한다. 유튜브(www.youtube.com)에 가서 ‘UFO in Jerusalem(CBS)’과 ‘UFO 그리고 외계 생명체(KBS)’로 검색하면 예루살렘에 나타난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볼 수 있다. 또 ‘UFO in Korea’와 ‘이번에도 괴생명체 등장? 골프장 하늘 위 가로지른 의문의 물체’로 검색하면 한국에 나타난 UFO를 볼 수 있고 ‘UFO caught on Live TV News! Turkey!’로 검색하면 터키에서 생중계 방송 시간에 화면에 잡힌 UFO를 볼 수 있다.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에바(바구니)니라, 하고 또 이르되, 이것은 온 땅 전역에 있는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낱 일 달란트가 들리고 나서 보나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니라, 하더라.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그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 넣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가리 위로 던지더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는데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짓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곧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의 기초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속5:1-11).

스가라서 5장에는 여러 개의 미확인 비행체, 즉 UFO가 나옵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스가라 5장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는 말세에 대한 계시라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행 물체는 공중에서 날아가 악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flying roll)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비행체는 이보다 더 멋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셀 바구니처럼 생긴 ‘날아가는 바구니 에바’ 혹은 ‘날아가는 큰 접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목격된 UFO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두루마리나 바구니 형태의 UFO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보다 늘 앞서잡니다.

위의 ‘날아가는 바구니’ 위에는 뚜껑이 있고 재미있게도 그 안에는 여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하르피(Harpy)<sup>2)</sup>들은 땅에서 이 바구니를 취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바빌론(시날 땅)으로 옮겨 가서 그 바구니의 기초(영어로는 base로서 공군 기지 등에 사용되는 단어임)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기지(기초)는 창세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던 곳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다시 오기 바로 전의 세상이 마치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노아가 어느 때에 살았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 때가 아닙니까?(창11:27) 이처럼 UFO 현상이 재림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르피 같은 반인반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2)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로 여자의 얼굴과 새의 날개를 가진 탐욕스러운 괴물, 스가라서의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여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실행과 믿음의 모든 점에 있어서 말입니다.

한편 UFO와는 달리 ‘외계인’(Alien)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1-12).

이 구절에 나오는 ‘외인’이 바로 영어로 ‘에일리언’(Alien)이며 곧 ‘외계인’을 뜻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외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이 땅에 찾아온 존재들은 다 ‘외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계인’을 ‘다른 곳에서 온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온 존재’로 정의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히11:3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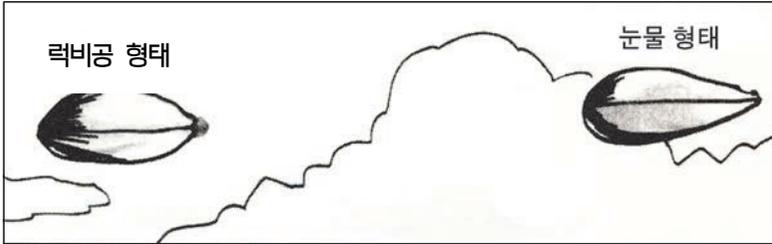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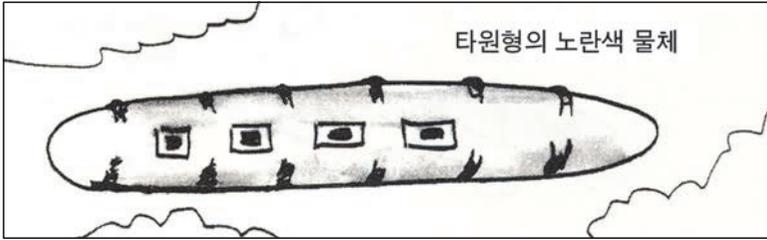
여기에 나오는 ‘외인들의 군대들’은 영어로 ‘the armies of the aliens’, 즉 ‘외계인들의 군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32-34절에 있는 인물 중에서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계인들의 군대들을 패주시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락이라는 재판관(사사)이었습니다.

사사기 4-5장을 보면, 드보라라는 여대언자와 바락이라는 재판관이 나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의 시스라와 싸워 승리한 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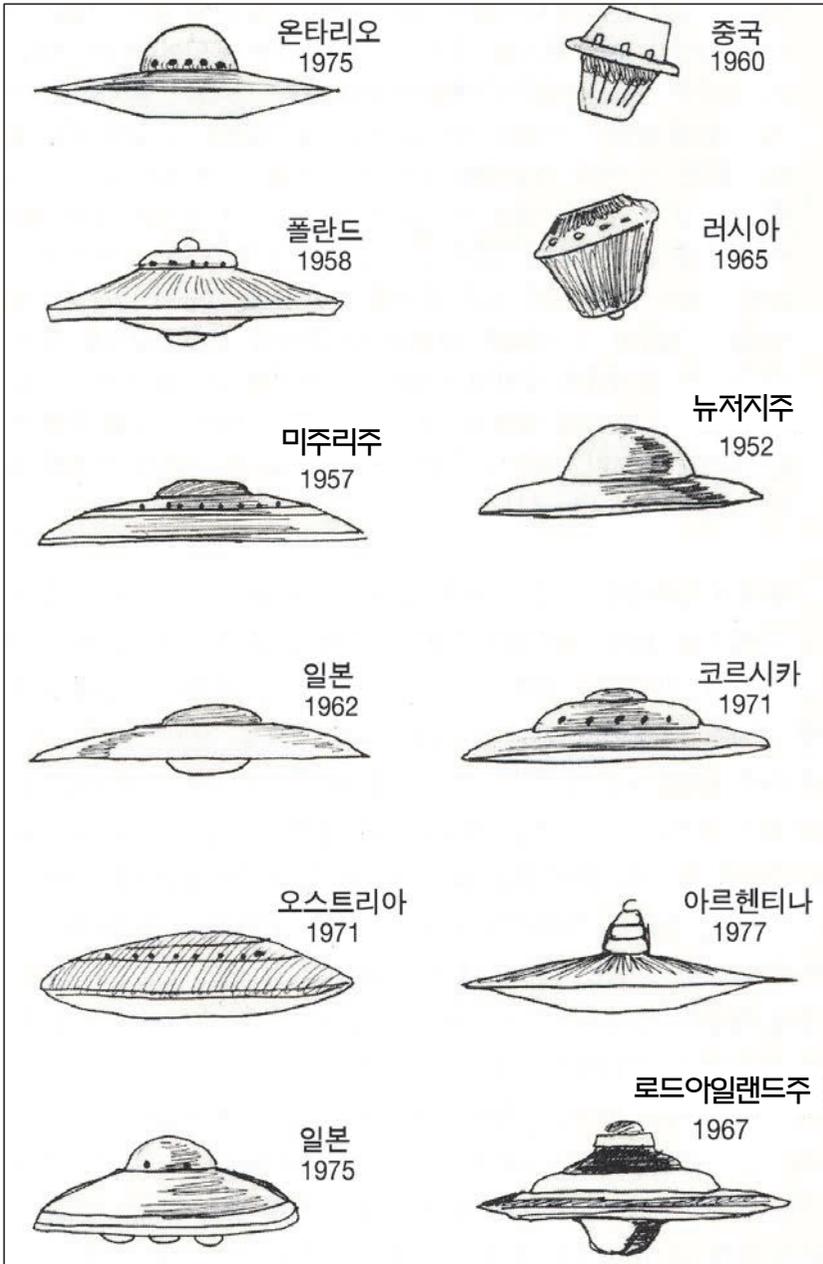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므깃도 물가의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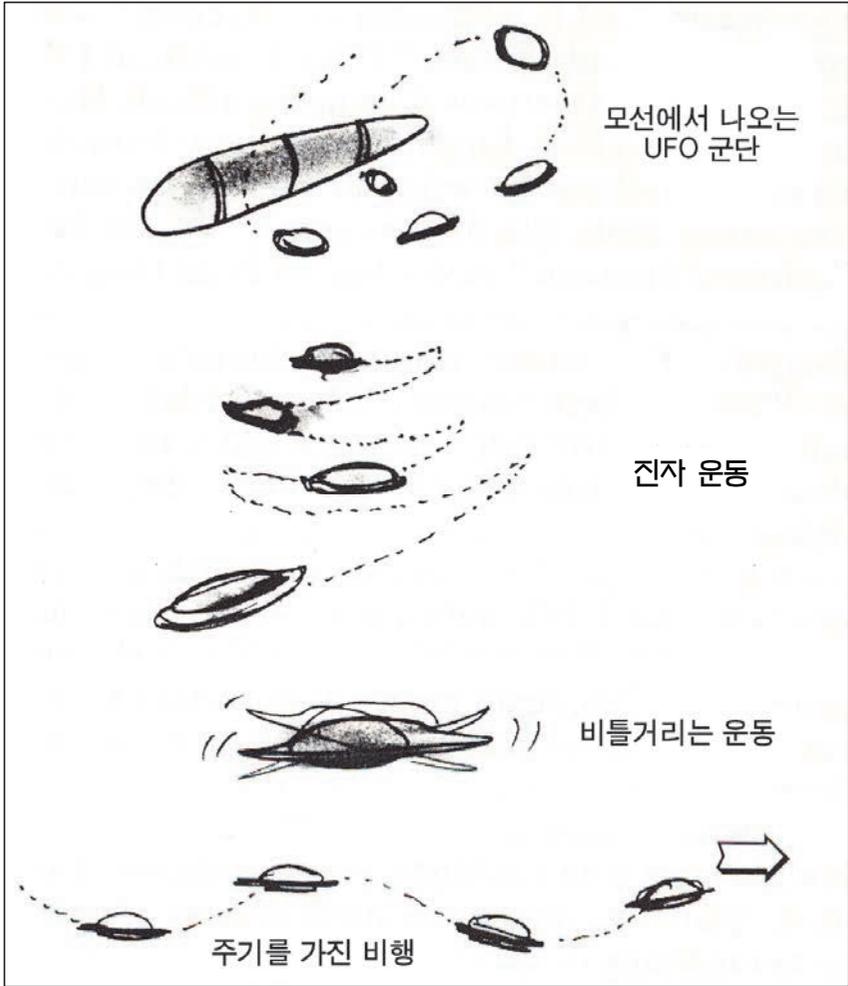
▲ 반인반조  
하르피



▲ 위: 1960년 5월 4일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 나타난 UFO  
 중간: 텍사스주 레블랜드에 나타난 UFO  
 아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나타난 UFO



▲ 미국 정부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UFO들



▲ UFO의 비행 운동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삿5:19-20).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사를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므깃도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로 봅니다. 물론 사사기 5장의 앞뒤 문맥이 ‘크고 무서운 주의 날과 비슷하므로 이 같은 해석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므깃도에서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땅에 장사되었다가 정확히 3일 만에 부활(즉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며 홀로 죽음 권세에서 나오지 않고 사로잡힌 자들(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다 사로잡아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sup>3)</sup>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4:7-10)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사기 5장 12절에 나오는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라는 구절을 취해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가 나오고 물론 사탄과 그의 군대도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터에는 하늘로부터의 군대들도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구절과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구절도 이런 점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따라서 이 구절과 히브리서의 ‘외계인의 군대들’을 연관시켜 보면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사탄의 마귀들도 ‘외계인’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이지만, 독자들이 성경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위의 정의에 따라 명백하게 외계인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3) 「성경 바로 보기」와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갯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계9: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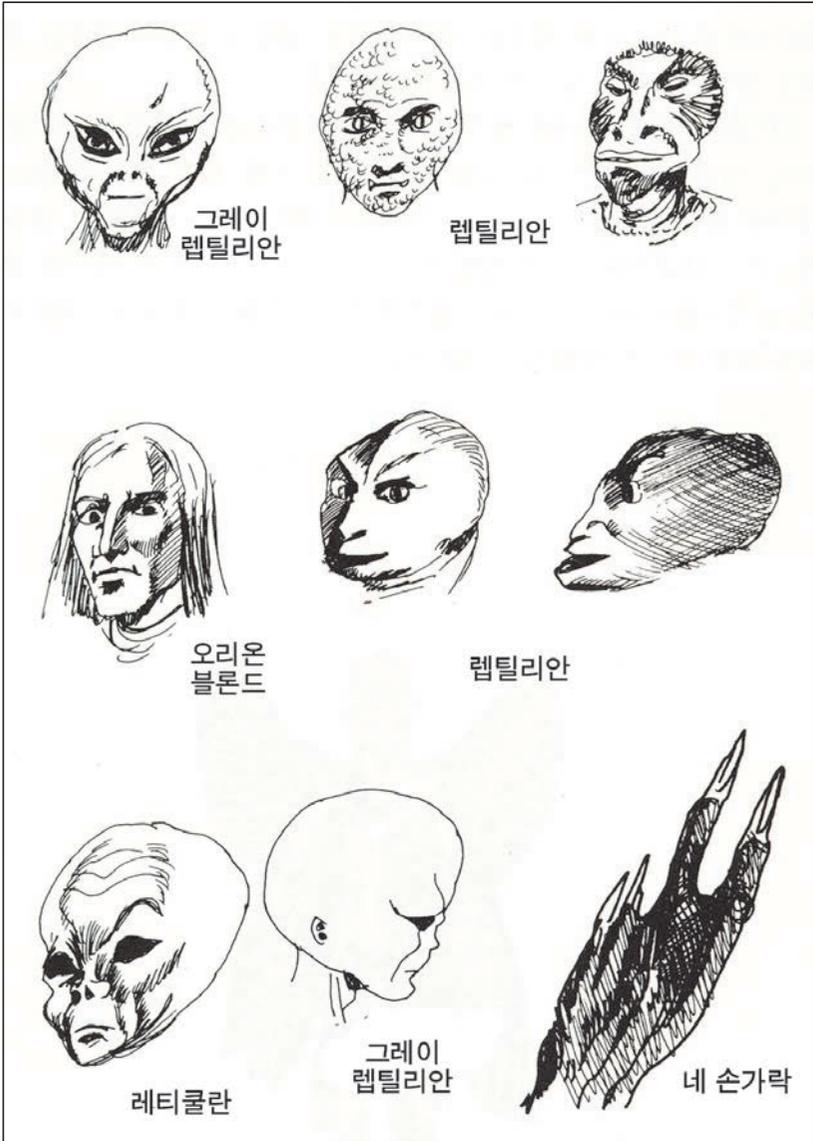
위의 계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휴거를 받은 뒤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땅 밑의 아바돈에서 나오는 존재들에 의한 고통입니다. 사도 요한이 메뚜기라고 부른 이 존재들은 분명히 땅 밑, 즉 외부 세계에서 나오며 위의 정의에 따라 ‘에일리언’ 곧 ‘외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며 생김새가 ‘UFO 내의 외계인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을 단지 비유의 책 정도로 보지 마시고 그 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면에서 성경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UFO와 외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 드렸으므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슈넬펠린)는 UFO에 관한 한 제가 초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저는 1964년부터 무려 30년 이상이나 UFO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크리스천



▲ 메소포타미아의 마귀 (계9장의 메뚜기와 비슷함)

이 아니었을 때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UFO 외계인의 종류

## UFO 수수께끼의 역사

상세한 내용 및 해석을 담고 있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나마 UFO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UFO 현상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 많은 독자들이 꽤나 많이 놀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 훨씬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 즉 UFO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사람이므로 하늘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혜성이 나쁜 것에 대한 전조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현재 21세기 초에 사는 우리는 혜성이 단순히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늘에 나타나는 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이런 현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매우 흥미 있는 볼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고대에, 하늘에 나타난 현상을 모두 이처럼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에 관련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생긴 사건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했던 동방의 지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대에 살던 매우 현명한 연대기 기록자들 중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관측하고 목격한 어떤 일들로 인해 매우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빛을 내는 이상한 비행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주전 90년부터 주후 200년까지의 고대 작가들에 의해서도 이미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플리니(Pliny)와 세네카(Seneca)뿐만 아니라 주후 170년에는 헤로디안(Herodian) 등이 UFO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UFO 관련 유명 인사 중 하나인 본 다니켄(Erich von Daniken)이 저술한 「신들의 수레」(*Chariots of Gods*)와 「외계로부터 온 신들」(*Gods from Outer Space*) 같은 책들이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고대에도 UFO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UFO는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주전 175년에 코케이아노(Dione Cassio Cocceiano)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누비오에서 여러 개의 별이 태양을 가로질러 갔다. 또한 주전 122년에 골 지방에서는 세 개의 태양과 세 개의 달이 나타났다. 스폴레토 근처에 황금색 불 모양의

공이 땅 위에서 구르더니 점점 커지면서 땅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지나갔다.

주후 350년에 줄리안(Julian the Obsequious)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전 222년에 세 개의 달들이 보였다.

주전 106-143년에 살았던 키케로는 「De Divinitat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개의 태양이 보였다. 밤의 태양이 보였을 때 큰 소리가 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 했으며 하늘에 이상한 공들이 나타났다.

키케로 이후에 UFO는 ‘태양들(둥근 것)’, ‘불로 된 공들(둥근 것)’, ‘달들(둥근 것)’ 등으로 불렸습니다. 주후 23-79년까지 살았던 플리니는 자신의 저서 「자연 역사」(*Natural Histor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태양 곧 캐킬리오와 파피로가 집정하던 때에 밤에 하늘에서 나온 광채는 밤의 하늘을 마치 대낮처럼 만들었다... 도미조와 파니오가 집정할 때는 세 개의 달들이 나타났다... 별에서 나온 불뚱이 땅에 가까이 오면서 점점 커져 달처럼 커졌고 마치 대낮에 구름이 낀 것 같은 정도의 빛을 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사라졌다... 칠로와 포르키오 시대에는 우유와 피로 된 비가 왔고 루카니아에는 살점과 쇠가 떨어졌다.

주후 170년에 시리아의 헤로디안은 자신의 저서 「마루크스 아우렐리우스 이후의 제국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밝은 대낮에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

주후 46-120년에 살았던 플루타르크는 「카이사르의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별들의 출현은 항상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혜성이 7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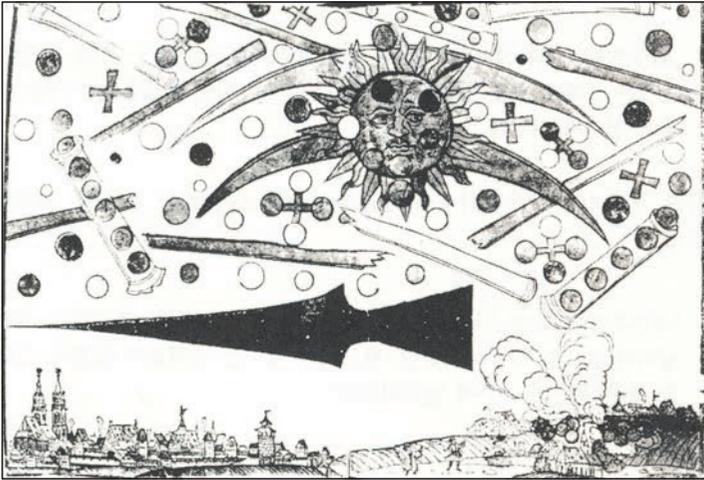
「영국 민족의 교회사」에서 비드(주후 672-735)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대하며 날아가는 물체 네 개가 보였다... 하늘에서 광채가 나와 기도하고 있던 수도승들 위를 덮었고 사원의 반대편에 가서 정지하더니 마치 태양처럼 밝은 빛을 내며 공간 깊숙이 사라져 버렸다.

주후 583년에는 매우 밝은 광채가 프랑스 땅 전역으로 날아다녔습니다.



▲ 십자가 처형을 묘사한 14세기의 판화 중 일부  
(계란 모양의 우주선에 남자가 타고 하늘을 날고 있다)



▲ 1561년 4월 14일 독일 뉴렘부르크에 나타난 UFO 현상

샤를마뉴의 「Karl Der Gross」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810년에는 하늘에서 큰 공이 마치 번개처럼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갔고 타고 왔던 말이 뒷걸음질쳐서 그는 떨어져 상처를 입었다.

주후 776년에 로우리쎬네스(Annales Laurissenses)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색슨족들이 시지스부르크에서 샤를마뉴의 기병들을 포위하는 동안 날아다니는 방패가 나타났다. 램프처럼 빛나는 광채들이 있었다. 그리고 붉은 용들이 공중에 날아다녔다.

윈도버의 로저는 「Flores Historiarum」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후 796년에 조그만 공들이 태양 주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영국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다.

1768년에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형태의 수없이 많은 별들이 깔때기 모양을 하고 나타나 너무나 큰 빛을 내서 눈을 뜰 수 없었다.



▲ 고대인들의 UFO 그림

한편 켈리니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1290년 10월 2일, 우리는 플로렌스 지방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나이다! 그것은 마치 큰 불빛 같았으며... 반지처럼 생긴 은빛 물체가 천천히 날아가는 것이 보였으며... 1548년에는 불공이 튜린지아 지방의 하늘에서 폭발하는 듯 했으며 응고된 피 같은 물질을 떨어뜨렸나이다.

1577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이상한 기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태양’, ‘붉은 태양’, ‘붉은 용’, ‘불타는 원반’ 등이 폴란드와 독일에 나타났고, ‘둥근 기계, 날아다니는 원반, 빛나는 반지’ 등이 1547년부터 1697년 사이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흥미 있는 일은 1492년 10월 11일에 현재 우리가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라 부르는 곳에서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하루 전에 콜럼버스가 UFO를 보았음을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sup>4)</sup>

한편 1883년 8월 12일 보닐라(Jose Bonilla)는 멕시코의 자카테카스 천문대에서 150여 장의 UFO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31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처럼 생긴 단단한 물체가 마치 비행선처럼 태양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길한 관점에서 보면, 중세에 무서운 페스트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이상한 혜성들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혜성이라고 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비행접시라고 부르는 것들과 동일한 형태였으며 심지어 포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대의 작가들은 이처럼 날아다니는 물체가 신들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마귀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전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과 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UFO만큼이나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원반’이나 ‘불공’, ‘태양’, ‘구’, ‘방패’, ‘달’, ‘접시’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UFO를 본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우주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런 물체를 보고 ‘날아다니는 배’, ‘원반’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말쑤에 근거하여 UFO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마18:16).

### 하늘에서 살과 피가 떨어지다

한편 UFO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상한 것들이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비’(rain)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물로 된 비만 내리지 않습니다. 개구리, 빵, 우박, 불, 만나 등이 모두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출애굽기 9장 23절, 시편 78편 24, 27절 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다 ‘비’(rain)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구절만 영어와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시78:24).

And had rained down manna upon them to eat, and had given them of the corn of heaven.

또한 그들 위에 고기를 티끌처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시78:27)

He rained flesh also upon them as dust, and feathered fowls like as the sand of the sea.

시편 78편 24절은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가 비로 내려온 것을, 27절은 고기와 새들이 비로 내려온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키케로나 플리니처럼 착각을 했거나 헛것을 봤을까요? 도대체 왜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마18:16).

1892년에는 앨라배마주의 콜부르크에서 뱀장어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그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에서 사는 것들입니다. “콜부르크 사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요.”라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66년에는 영국과 유럽 전역에 미끈미끈하게 생긴

개구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프랑스에 사는 한 여인의 뒤뜰에는 개구리가 자그마치 100마리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전 1500년에 모세가 일으킨 '개구리 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4년 9월 26일에는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에 두꺼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 여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탠리에도 두꺼비 비가 내렸습니다.

인도의 알라바드에는 물고기처럼 생긴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바삭 마른 크래커 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냄비에 넣고 그것들을 데우자 갑자기 피로 변했습니다. 1832년에는 러시아에 약 5cm 두께의 노란색 고무 같은 끈적끈적한 수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약 20평 정도를 덮었습니다. 에드워즈(Frank Edwards)가 지은 「이상한 세계」(Strange World, Bantam Books, 1964)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1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니에토스와 켄터키주의 베쓰 카운티에서는 살과 피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내쉬빌 대학의 화학과 교수인 트루스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동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빨간 구름 속에서 이것들이 떨어졌다. 이 살과 피는 길이가 0.8킬로미터, 너비가 75미터 되는 지역을 덮었고 다 합치면 몇백 킬로그램은 되는 것 같았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50년에는 버지니아주 클로버리아에서도 살과 피가 떨어졌습니다. 이 '비'는 약 3mm 두께의 고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고기를 분석해 보니 사람의 근육과 간과 심장 밑부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851년에 「샌프란시스코 헤럴드」지는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에 사람 고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군인들이 이것을 거두어 분석한 결과 사람의 살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0-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보다 최소한 100-3,000년 정도 늘 앞서갑니다.

### 참으로 위험한 한 세기

현대의 UFO 현상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19세기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때에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영성주의(Spiritualism),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과 같은 새로운 거짓 종교들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허구가 성경의 진리들을 대항하며 일어났습

니다.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바로 이때에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난도질을 하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ing James Version*)을 버리고 영국의 개역성경(*Revised Version*)이라는 ‘새로운 것’(행17:21)을 만들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성경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611년부터 약 300년간 영어권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받았고 이 성경을 통해 온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sup>5)</sup>

한편 19세기 말에는 사악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접신 협회, 즉 신지학 협회(Theosophical Society)의 블라바츠키(Helena P. Blavatsky, 1831-1891)이고 다른 한 명은 크로우리(Aleister Crowley, 1875-1947)였습니다. 1831년에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블라바츠키는 어릴 때부터 심령술에 대한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 앞다투어 추구하려고 했던 힌두교와 동방의 다른 신비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티베트로 여행하는 동안 마하트마라는 ‘몸이 없는 고등의 영적 존재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올코트(Henry Steel Olcott)와 젯지(William Quan Judge)라는 다른 두 명의 신비주의자들과 함께 신지학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신지학 협회는 사실 현대의 모든 뉴에이지 단체의 모체입니다. 블라바츠키가 저술한 책들은 현대 뉴에이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개념들은 마치 해악을 품은 독초처럼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형이상학적 정신 체계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주장한 우주관의 특징은 비너스, 즉 금성에 자신이 접촉한 외계인 마스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성의 주인들(Lords)은 말 그대로 외계인들로 자신과 같은 영매와 더불어 직접 교통을 한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고등 외계인과 접촉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의 영화 ‘E.T.’에서부터 ‘클로즈 인카운터스’ 등이 추구하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한편 블라바츠키를 경멸했던 크로우리는 총기가 넘치는 신동이었으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로 불리기를 고대하던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20세기 마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정리해 감에 따라 크로우리와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협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5)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영국의 경우 1880년부터 1889년까지의 10년은 참으로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악한 영어 개역성경이 이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소위 프로테스탄트 국가라 불리던 영국에서 근 300년간 사용되어 온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 개혁 본문을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던져 버리고 다시 로마 카톨릭주의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영향을 받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소위 ‘크리스천 신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댔습니다(고후2:17).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웨스트코트는 접신을 행하는 영성주의자였으며 호르트는 마귀와 지옥, 하나님의 창조 등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본문 비평’이라는 마귀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며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뒤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영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빨 빠진 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닙니다(갈6:7).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의 미국 역시 영국의 실정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일들이 UFO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매우 상관이 많습니다. 1890년부터 1899년까지의 10년 사이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개역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이 출간되었고 동시에 현대판 ‘UFO 대출현 현상’(UFO flap)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대 UFO 용어에서, ‘플랩’(Flap)이라는 말은 UFO 현상이 수없이 많이 목격된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한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UFO 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890년대에 시작한 UFO 대출현 현상은 거의 4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UFO가 한 달에서 여섯 달 혹은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출현하다가 사라지고는 약 4년이 못되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비의 UFO 대출현 주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지금부터 1세기 전이었습니다.

### 시베리아에서 별과 별 사이의 대변동 발생

한편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베리아에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08년에 시베리아의 퉁구스카에는 별들로부터 매우 거대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은(아마도 공중 폭발이 었는지도 모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어떤 원자력 우주선이 나 장치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과 같았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원자

폭탄을 폭발시키기 4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발로 인해 나무들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뿌리째 뽑혀 30킬로미터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폭발 현장에서 나온 빛은 너무나 밝아 8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다른 빛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흘러간 뒤에도 그 주변에는 아무런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의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폭발이 일어난 장소가 매우 황폐한 곳이므로 지금까지도 과연 그것이 거대한 유성이었는지 혹은 우주선이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즉사해서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자세히 점검해 본 결과 유성의 잔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유성이 마치 원자 폭탄처럼 폭발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sup>6)</sup>

### 흰옷을 입은 마리아의 등장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포르투갈에서는 매우 유명한 ‘성모 마리아 출현’ 현상이 있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성모 마리아 출현’이 UFO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UFO 문제로 보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세속 UFO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7년에 포르투갈의 조그만 마을인 파티마에 사는 세 명의 어린이들에게 하얀 모습의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흰옷을 입은 채 빛나는 공 같은 것을 타고 왔습니다.<sup>7)</sup>

물론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그 여인을 ‘파티마

---

6) 다음은 <위키백과>의 기사이다. 통구스카 사건 또는 통구스카 폭발은 현재는 러시아의 Krasnoyarsk Krai 지역에 있는 Podkamennaya Tunguska 강에서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 14분경에 일어난 강력한 폭발 사건이다. 폭발의 에너지는 TNT 10-15 메가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1,000배 정도이다. 이 폭발은 2,150제곱미터에 걸친 대략 8천만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다. 당시에는 발명되지 않았던 리히터 스케일로 진도 5.0의 지진이 폭발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7시 17분경 통구스카 지역 사람들과 바이칼 호수의 북서쪽 언덕 러시아 거주자들은 하늘을 가르며 이동하는 거의 태양의 밝기에 맞먹는 푸르스름한 빛의 기둥을 목격하였다. 약 10분 후, 대포 발사음과 유사한 소리와 섬광이 있었다. 이 소리는 충격파를 형성하여 사람들을 쓰러트리고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의 창문을 깼다. 이 폭발은 대영 제국에서 관측될 정도로 강한 대기압의 변동을 일으켰다.

7) ‘성모 마리아 출현’ 및 UFO와의 관련 여부 등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 숙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가 '세 번째 종류의 접촉'(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 제3종 근접 조우)이라 부르는 현상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UFO 및 외계인 접촉 등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미국 공군에서 수년간 UFO 상담가로 일한 바 있는 유명한 우주인이자 교수인 하이네크(J. Allen Hynek)가 만들어 놓은 외계인과의 접촉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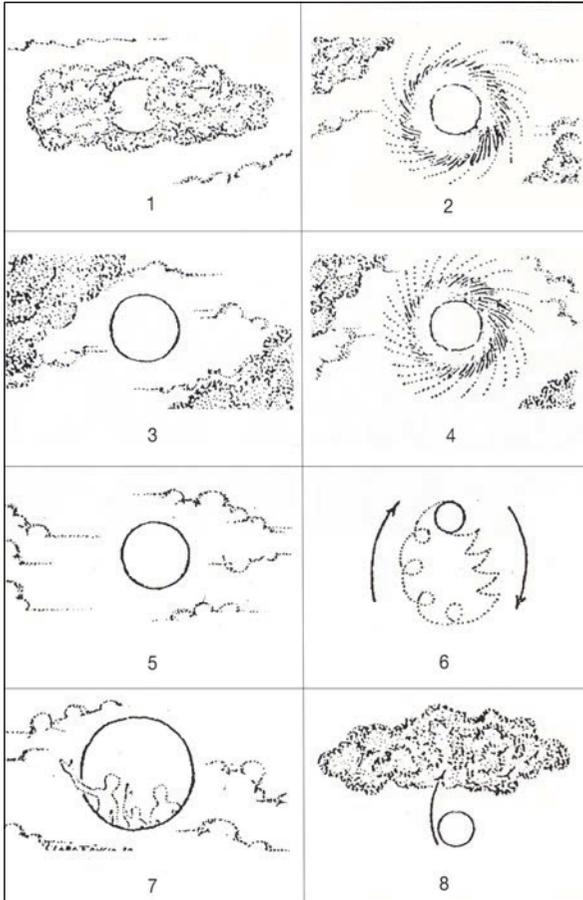
▲ 파티마의 마리아

- (1) 첫 번째 종류의 접촉(Close Encounter of the First Kind, CE1, 제1종 근접 조우): 약 150m 정도의 거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 (2) 두 번째 종류의 접촉(CE2, 제2종 근접 조우): UFO가 목격자 근처에 착륙한 뒤 착륙한 흔적을 남기고 이륙하는 것 그 흔적에는 불에 탄 것 방사선 농작물이나 풀이 눌린 것 등이 포함된다.
- (3) 세 번째 종류의 접촉(CE3, 제3종 근접 조우): 목격자가 UFO 조종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심지어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우리는 나중에 네 번째 종류의 접촉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

사실 하이네크는 UFO 출현 등에 대해 늘 반박했고 믿지 않았으나 공군의 대변인 직무를 마친 후 군대에서 은퇴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년에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UFO의 특성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의 글을 통해 우리는 미국 공군이 UFO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티마에 나타난 그 여자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를 강화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 것과 더불어 하늘에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눅21:11). 이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양(혹은 구름 뒤에서 나타나 마치 태양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공중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둥근

물체는 길이 방향으로 통째로 회전하는 것을 빼고는 갖가지 움직임을 다 보여 준 뒤 사라졌습니다.



▲ 파티마의 원반 태양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지만 UFO 전문가들은 그것이 분명히 UFO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카톨릭교도들 역시 이런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태양을 움직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제의 태양을 움직여 행하신 일이라면 왜 파티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만 그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마치 태양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원반처럼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면, 최소한 지구의 그편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현상을 지켜보러 온 순례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은 지역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사실 그 현상이 UFO 현상이거나 아니면 레이저에 의한 현상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 농장의 소년과 UFO 승무원: 몰몬교

UFO 연구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파티마에서의 성모 마리아 출현이 신성을 띤 최초의 ‘종교적 출현’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출현하기 90년 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유명한 출현을 조사해 보면, 거기에도 UFO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몰몬교를 창시한 자칭 예언자 조셉 스미스(Joseph Smith)가 처음으로 그 출현을 보았을 때 그것은 놀랍게도 마치 현대판 UFO의 ‘세 번째 종류의 접촉’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무에 걸터앉아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어둠이 엄습해 자신을 덮자 그는 연약하게 되어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의 기둥이 나타났고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아래로 빛을 비추며 그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이 두 남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



▲ 모로니 천사를 만나는 조셉 스미스

과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에서 종교적 색채를 모두 지워 버리면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UFO 접촉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리가 마치 저질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적군의 전투기?

이제 다시 UFO 연대기로 되돌아가 보면, 그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이 UFO 기술과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는 UFO가 독일 영토에 추락했고 독일군들이 생존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독일의 히틀러의 ‘제3제국’에 고용된 세 명의 접신자들이 영교를 통해 외계인과 접촉을 했으며 독일 과학자들에게 어떤 무기나 비행기 등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히틀러가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으며 동시에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그는 최소한 한 개의 독일 신비주의 그룹에 입문하여 신비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점성학에 너무나 심취했고 그래서 영국의 처칠 경은 자신의 점성사들을 불러 히틀러가 점성술 그림에 기초를 두고 세운 전쟁 계획을 예측해 내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히틀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탄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해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이룩하려는 천년 동안의 ‘제3제국’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매를 고용하여 어떤 종류의 마귀와 접촉을 하거나 혹은 다른 세계의 어떤 권능과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지 독일의 과학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매우 진보된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은 V-2 로켓을 만드는 데서도 드러났고, 신속히 원자 폭탄을 제조하려는 시도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런 기술을 습득한 것이 단지 과학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UFO와 나치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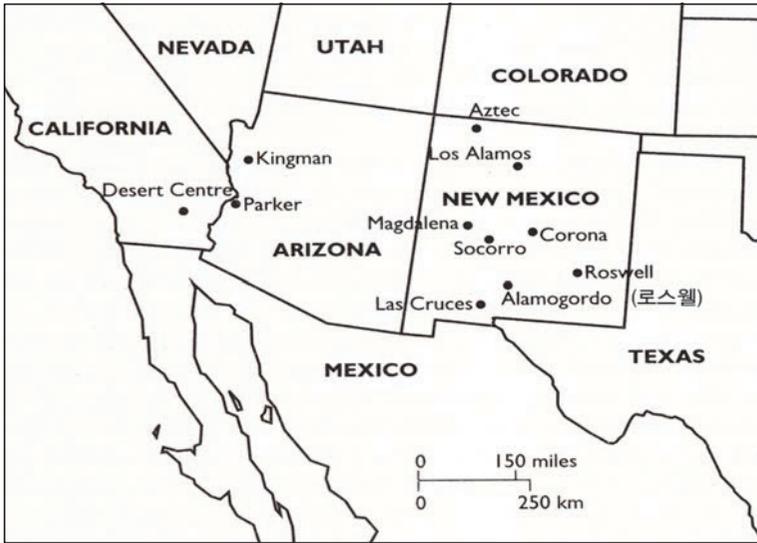


▲ 전형적인 UFO 조우

지금 우리는 나치로부터 현세대까지의 UFO 역사를 다루면 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어느 누구도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비행체들이 공중에서 수없이 많이 날아다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합군들은 그것들을 ‘적군의 보이지 않는 전투기’라 불렀고 그것들이야말로 독일군이 개발한 비밀 무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독일군 조종사들이, 자기들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확인 비행 물체 때문에 종종 당황해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원자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와 일본 황제의 광적인 꿈은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 비행접시와 로스웰의 탄생!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UFO 역사에 또 다른 획이 그어졌습니다. 1946년에 전쟁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에 UFO 대출현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4년마다 약 8개월간 UFO가 대거 출현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주기가 끝날 무렵인 1947년에 UFO 용어 사전에 영원히 기록될 ‘비행접시’와 ‘로스웰’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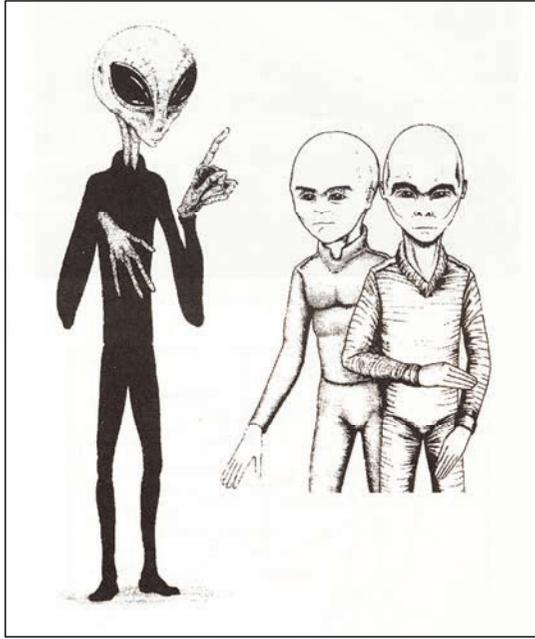


▲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1947년 6월 24일 워싱턴의 사업가로서 민간 항공 경비회의 회원인 아놀드(Kenneth Arnold)는 레이니어산 근처의 캐스케이드 상공에서 자신의 경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연못 위에 수평으로 돌을 던지면 돌이 물위에서 툭툭 튀며 나아가듯이 ‘비행접시’들이 구름에서 툭툭 튀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방송 매체들은 ‘비행접시’란 단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접시란 단어는 UFO 역사에서 공식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대개 방송 매체들은 이런 종류의 기사에 대해 콧방귀도 끼지 않지만, 아놀드의 명성 때문에 그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접시 목격 사건이 일어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은 1947년 7월 8일에 심지어 아놀드의 비행접시 사건을 완전히 무색케 해 버린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로스웰 근처의 광활한 목장에 비행접시가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 로스웰에는 공군 부대가 있었고 그곳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원자 폭탄을 실은 비행기 편대가 있었습니다. 녹색과 흰색의 조그만 존재들의 시체들과 날개같이 생긴 물질들이 추락 사고 현장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처음에 미국 공군은 자신들이 비행접시의 잔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가 지나서는 그것이 사실은 기상 측정용 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비밀 연막이 이 사건을 덮어 버렸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UFO 역사상



▲ 뉴멕시코주 로스웰의 외계인(추정)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런 사건들을 항상 부인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심지어 뉴멕시코주 상원 의원이 연방 정부에게 로스웰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자신들이 부주의로 모든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또 다른 로스웰 사건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새겨졌습니다. 우리(미국) 공군이 그들의 비행접시 중 하나를 격추시켰고 그들도 우리의 비행기 중 하나를 격추시켰습니다. 1948년 1월 7일 오후 1시 15분, 켄터키주 포트노스에 있는 갓맨 공군 기지 근처에서 매우 거대한 UFO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F-51 무스탕 편대가 그것들을 요격하려고 출격했습니다. 이 편대의 지휘관인 만텔(Thomas Mantell)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UFO를 추격하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금속체로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탄 비행기는 추락했고 그 잔해는 사방 1.6킬로미터를

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스카이하푼 기상 기구를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것처럼 훈련을 받은 전문 조종사가 자기보다 더 빨리 날고 있는 거대한 비행기를 기상 기구로 착각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954년에 또 다른 UFO 대출현 기간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UFO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출현들 가운데 어떤 것은 땅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고 레이더로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행접시들은 심지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상공과 백악관 위에서도 날아다녔습니다. 비행접시의 출현이 너무나 빈번하여 비행기 조종사들은 하룻밤에 8-10번 정도 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들은 놀라게 되었고 드디어 공군은 UFO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사는 ‘프로젝트 싸인’(Project Sign), ‘프로젝트 그릿지’(Project Grudge), ‘프로젝트 블루 북’(Project Blue Book) 등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공군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위협적인 것이 공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거의 대부분의 UFO 출현이 사람의 실수로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당국의 이런 주장은 점점 더 그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1963년에 나타난 UFO 대출현시에 팔로마산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은 지름이 300미터가 넘는 UFO가 자그마치 260개나 달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UFO 출현을 모두 합치면 적어도 백만 번은 됩니다. UFO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명의 훈련받은 미국 공군 관측사들, 6명의 훈련받은 미국 해군 관측사들, 4명의 훈련받은 미국 해병대 관측사들, 5명의 훈련받은 미국 육군 관측사들, 14명의 과학자나 천문학자들, 40명 이상의 공군 조종사들 등. 이처럼 잘 훈련받은 관측사나 비행사 혹은 과학자들이 기상 측정용 기구를 UFO로 잘못 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57%의 미국인이 UFO의 존재를 믿으며 15%가 UFO를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주선을 탔던 우주인들 가운데 13명이 UFO를 봤거나 외계에 UFO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 대통령도 UFO를 목격하다

1976년 가을에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선거 유세장에서 자신도 UFO를 목격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뽑아 주면 UFO에 대한 비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터는 1969년 조지아주 리어리 지역에서 열렸던 라이온스 클럽 집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자기의 측근과 더불어 UFO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달 정도의 크기였으며 매우 밝게 빛났고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대략 10분가량 지켜보았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UFO를 목격한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카터는 선거 공약대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정보 자유화법에 따라 UFO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카터를 이은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수차례나 외계인의 지구 침공 가능성을 언급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하는 중에 그는 “만약 외계인의 침공에 직면하게 된다면 서로 협력하여 이에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지 그는 외계로부터 미지의 존재들이 침공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UN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백악관 상공의 UFO

나는 가끔씩 만일 지구가 외계인의 공격 위협을 받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매우 신속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UN에서 그것도 자그마치 176개국의 대표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레이건 자신이 UFO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UFO 목격담을 자신이 주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의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밀러(Norman C. Miller)에게 개인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1974년 어느 날 밤 그를 포함한 일행 4명이 탄 비행기가 캘리포니아주 베커스필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후방에서 다가오는 UFO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정지한 불빛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다가오더니 45도 각도로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바람에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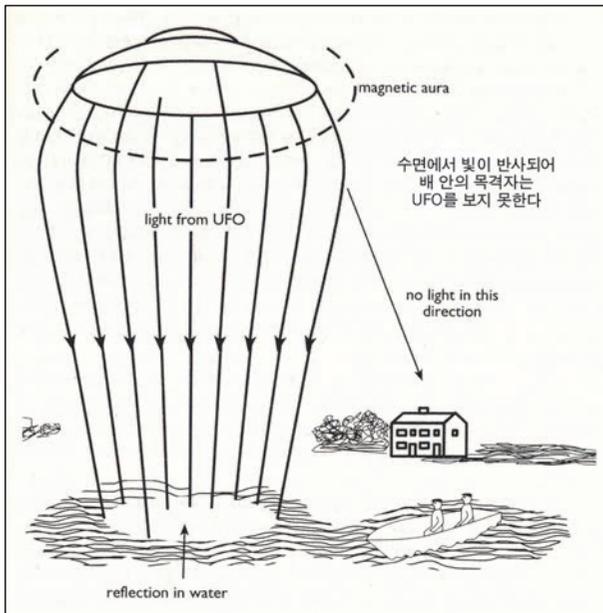
비행접시는 크기나 모양이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이 불에 그슬린 금속처럼 은색이나 검은 금속체 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UFO 중 어떤 것들은 접시처럼 생겼고, 어떤 것들은 삼각형이나 부메랑처럼 V자로 생겼으며 또 어떤 것들은 계란처럼 타원형이거나 원형입니다. 인류가 겨우 음속으로 나는 비행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 UFO의 대부분은 음속의 5-6배가 되는 고속으로 날아다닙니다.

또한 비행접시들은 매우 조용하며 낮은 음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UFO 출현 시에 자동차나 비행기 혹은 가정집이나 발전소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67년 12월 3일에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쉬르머(Herbert Schirmer)는 UFO에 납치되었고 그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날아다니는 기계들은 마치 빙빙 돌아가는 원반 같았고 빛과 소리를 났으며 플로리다주 해안과 아르헨티나 근처, 남극 밑부분의 바다 아래에 그 기지를 두고 있었다. 이 기계들은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정같이 생긴 회전체를 포함하는 가역 전자기 시스템으로 운전되었고 이 회전체는 두 개의 기둥같이 생긴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 비행체들은 중력을 헤쳐 나가며 물질을 조절하고 빛을 꺾이게 하는 능력을 지녔다. 또한 이것들은 저수지나 발전소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쉬르머의 증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965년에는 뉴햄프셔주에 UFO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나 보고되었습니다. 그 보고의 90%는 UFO들이 송전선 바로 위에 나타났다고 증언했고, 1966년 11월에는 캐나다 일부와 북미의 여덟 개 주에서 동시에 전기가 끊어져 3,500만 명이 고생을 했습니다. 1966년 이후에도 UFO가 자기들 근방에 출현하자 전기 장비가 이상한 현상을 일으켰음을 보고하는 운전자나 조종사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비행접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비행체로서는 도무지 하기 힘든 곡예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파티마의 원반 태양 그림 참조).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UF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UFO들은 음속의 다섯 배가 넘는 고속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곤 합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그런 속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회전 시의 중력에 의해 (혹은 원심력에 의해) 조종사가 마치 종이처럼 쭉그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속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단지 차이가 있다면 UFO와 같이 고속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그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진행하려던 방향으로 나가려 하고 안전벨트가 우리를 꼭



▲ UFO가 한쪽 지역에서 빛을 없애는 현상

잡아 주기 때문에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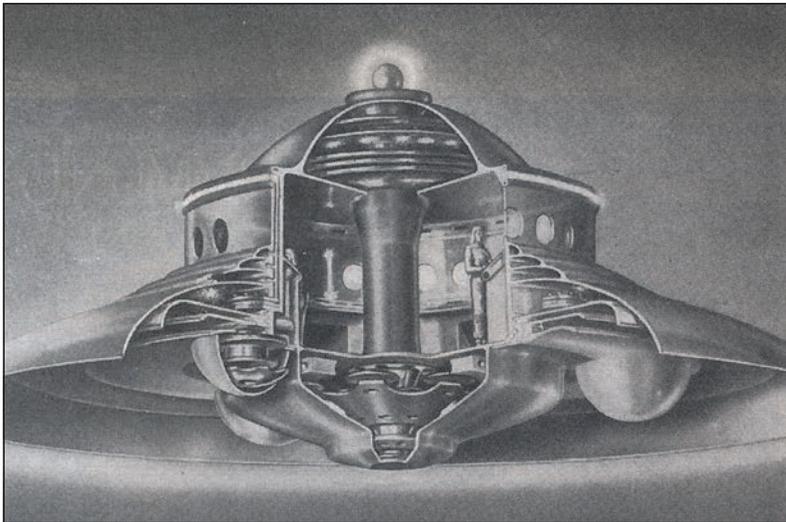
우리가 겨우 시간당 60킬로미터로 달릴 때에도 이 같은 큰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만일 누가 시간당 6,000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방향을 바꾼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마치 스파게티 소스처럼 완전히 눌러서 국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능이 높은 조종사들이 운전하고 있음이 어느 정도 증명된 이런 비행접시들이 그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수직으로 하강하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그 힘에 의해 켈리처럼 흐물흐물하게 되지 않고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가운데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에 라자르라는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가 불쑥 튀어나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서 일했으며 메슨 물리 연구소에서도 일했고 1988년에는 ‘프로젝트 갈릴레오’를 수행하기 위해 네바다주의 ‘에리아 51’(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와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등에 나오는 51구역) 비밀 지역에 갔습니다. 1989년에 그는 자신의 증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그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리학을 전공한 대학교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20세기에 태어나 UFO에 관한 일을 했으며, 9대의 UFO를 연구하여 반응기와 중력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과연 뉴스 미디어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키케로, 플리니, 플루타르크, 비드 등의 기록이 옳은가 살펴봅시다.

1. UFO 원반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2. 중무장한 경비원들이 곳곳에 있었다.
3. UFO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5미터와 17미터였다.
4. UFO의 천정은 1.8미터 정도였다.
5. UFO는 볼트나 리벳으로 연결한 흔적이 없었으며 사용된 재질은 금속 같았다.
6. UFO의 반응기는 ‘반물질’을 생산했다.
7. 반응기의 직경은 0.45미터, 크기는 0.3미터였고 UFO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8. 반응기는 양자들을 가속시켰고 열을 전기로 변환시켰다.
9. 반응기의 효율은 99%였다.
10. 반응기에는 미지의 원소가 연료로 사용되었다.
11. 우리는 이 원소를 화학 주기표에 끼워 넣었고 115라는 '안정된 원소'의 번호를 부여했다.
12. 동전 크기만 한 이 원소는 잘 보관되었고 삼각형의 썰기들은 반응기에 넣기 위해 잘라야 했다.
13. UFO는 무거웠으며 구릿빛/오렌지빛이었고 방사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독성을 띤 것 같았다.
14. 9대의 UFO는 그 밑부분에 세 개의 중력 증폭기를 달고 있었다.
15. 반응기들은 음니크론과 델타라는 두 개의 모드에서 작동했다. 각 비행체는 나름대로의 중력장을 만들어 냈고 나는 이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 레오나르드 크램프가 그린  
아담스키의 비행접시 내부 상상도



## 시간을 잃어버리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UFO 신화에서 매우 불길한 전조를 보낸 두 가지 돌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아담스키 등이 주축이 된 UFO ‘접촉자’ 이단(혹은 사고)의 등장입니다. 아담스키는 자신이 실제로 외계인들과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그의 주장에는 자기가 비행접시를 타고 금성과 다른 세계에 갔다 왔으며 녹색 피부를 한,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Humanoid) 여인들을 보았으며 ‘우주의 형제들’이 자신을 지구의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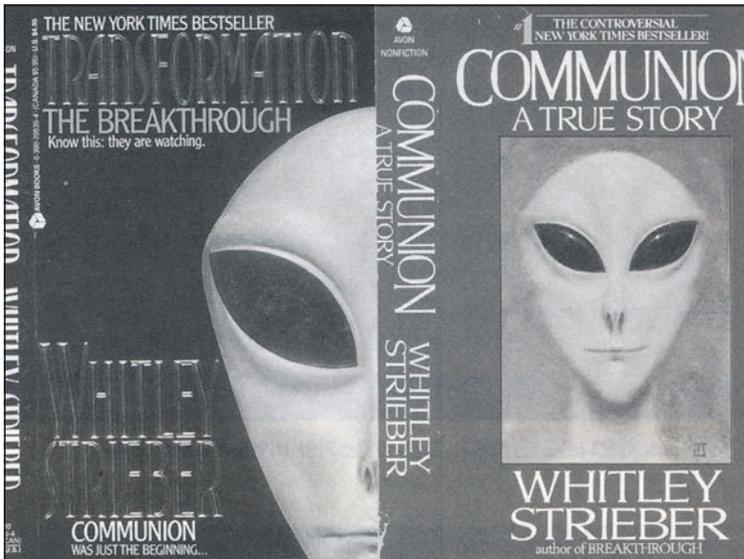
아담스키는 자신이 비행접시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담은 사진들을 제시했으나 이 그림들은 사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좀 신비스럽게 죽기 전에 그는 외계인 그룹들과 교통했으며 외계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 개의 조그만 단체들을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가 UFO라고 주장한 그 사진은 참으로 UFO 원조 그림이 되었고 그래서 1960년대 TV 연속극으로 방영된 ‘침입자’(Invader)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사진의 비행접시가 외계인이 타고 오는 비행접시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베티와 바니라는 이름을 가진 힐 부부(Betty and Barney Hill)에게 일어났습니다. 1961년 9월 19일, 그들은 뉴잉글랜드(보스턴 근방) 지방에서 차로 여행을 하는 동안 2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최면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타고 있었고 자기들의 차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 2시간 동안 의학적으로 마취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외계인들에 의해 납치당한 사람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계인에 의한 납치 사건은 UFO 신드롬 속에서 조용하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홉킨스(Budd Hopkins), 파울러(Raymond Fowler) 그리고 뉴에이지 공포 작가 스트리버(Whitley Strieber) 등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ET라 불리는 외계인들에 의한 납치 사건을 다루면서 대중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두 사람은 아마추어 탐험가나 조사자로서 이들은 힐 부부가 경험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 베티와 바니 힐 부부



▲ 스트리버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커뮤니온'

한편 스트리버는 자신이 외계인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커뮤니온」(Communion),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브레이크스루」(Break through) 등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사실 스트리버의 책들은 대중들의 의식 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에 수없이 많은 외계인에 의한 어린아이와 어른의 납치 사건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맥박사(Dr. John Mack)는 미국인 중 사오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외계인에 의해 납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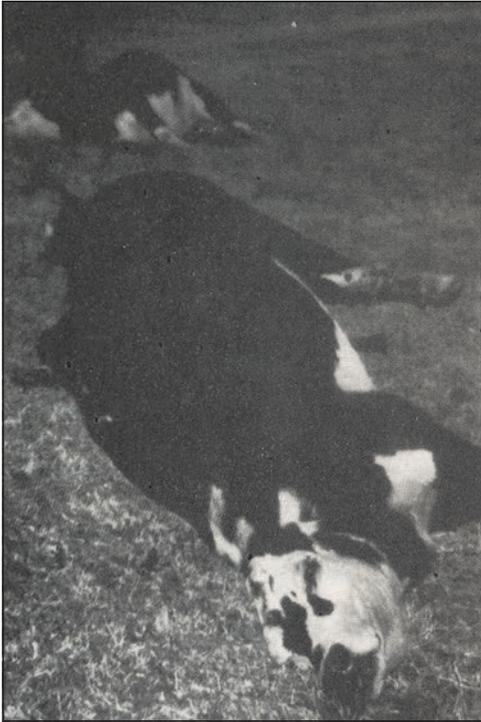
### 소 떼의 죽음

한편 UFO 미스터리의 범주에 속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문서로 잘 정리되어 제시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은 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현상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힐 부부가 납치되었다고 주장한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의 고립된 지역에서 수많은 소들이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 짐승들의 사체 주변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다. 짐승을 죽인 자들이 매우 정교하게 짐승의 귀나 입술 혹은 생식기나 둔부 등을 잘라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거된 신체 부위의 상처는 매우 예리했으며 마치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메스나 레이저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1960년대에는 레이저라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사실은 이처럼 짐승의 신체가 잘린 사건의 현장 부근에서는 UFO나 검은색 비행기(대개 헬리콥터) 등이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렇게 신체를 절단 당한 짐승이 대개 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sup>8)</sup>

---

8) 유튜브(www.youtube.com)에 가서 'UFO - Cow abduction'으로 검색하면 1983년도에 소가 하늘로 들려 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다음 날 그 소는 죽어서 피가 남겨지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또 'Cattle Mutilations - Government & Alien Research?'으로 검색하면 가족들 중에서 주로 소들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자료들이 나온다. 'UFO Cattle Mutilation In Colorado Mar 11, 2009'에도 비슷한 것이 보고되어 있다.



▲ 위: 1989년 3월 10일, 미국 알칸사주 호프에서 살해당한 소들의 모습  
아래: 미국에서 소 떼가 죽은 장소들



## 곡식밭의 원들

1970년대 중반 영국 남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밭에 큰 원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30여 개가 넘는 나라의 농부들이 자기들의 곡식밭에 외계인이 침입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곡식밭에 생긴 원들이 외계인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마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왔으며 너희들의 곡식밭을 밟아 놓았다!

이런 원들은 대개 지름이 3.3m정도나 되며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기후나 짐승들에 의해 이 같은 원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곡식밭에 생기는 원들’은 중세부터 존재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97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견된 이후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건 이상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sup>9)</sup>

처음에는 이런 원이 주로 영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마도 이 현상이 그 지역에 있는 신비한 고인돌<sup>10)</sup>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주에 사는 한 농부는 자신의 밀밭에서 24m 길이의 물음표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기극이라고요? 아닙니다. 국제적인 UFO 관찰 기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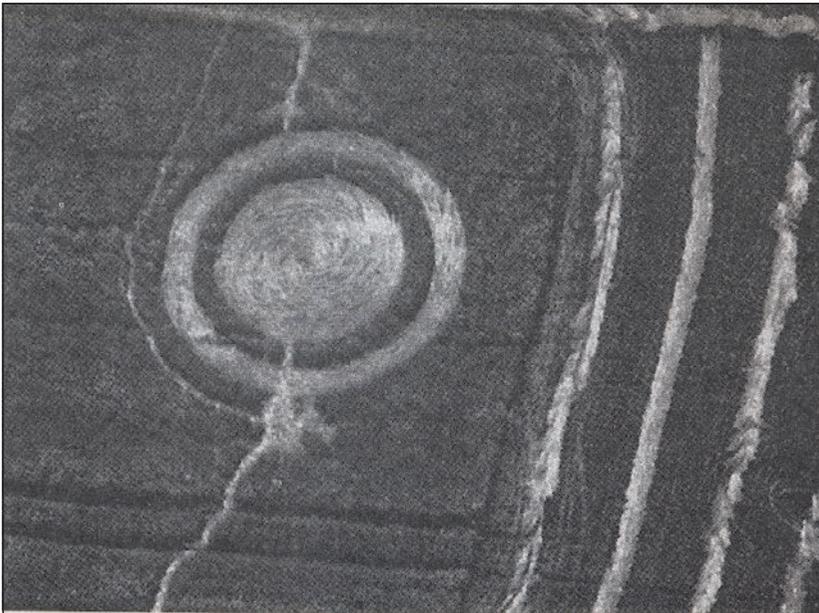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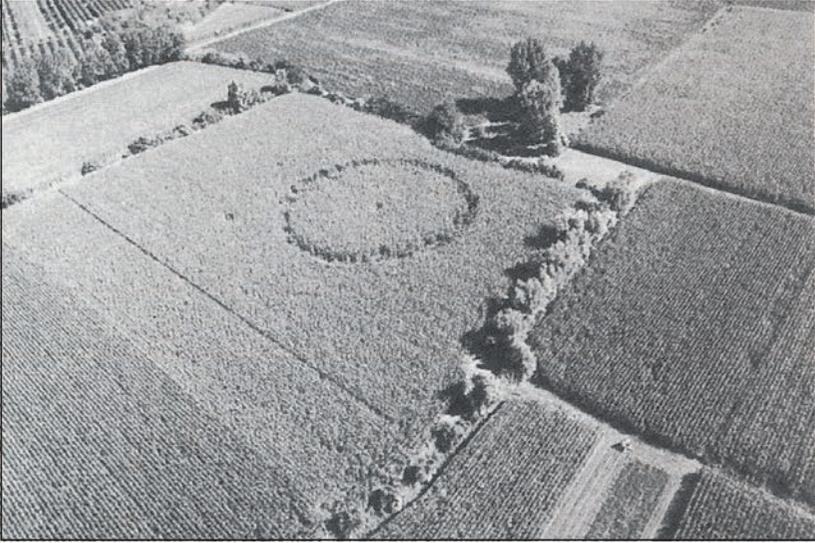
사우스다코다주에는 사기꾼이 살지 않는다. 이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로서 자기들의 밀밭을 망쳐 놓는 사기극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렇게 원을 만드는 것이 곡식을 가져가기 위험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농촌에 사는 일가족은 자신들의 자동차를 세워 놓는 길에 약 12m 크기의 원이 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

9)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가서 ‘The Crop Circles of Google Earth(March 2008)’ 과 ‘Crop Circle Season 2009’로 검색하면 구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곡식밭의 무늬들을 볼 수 있다.

10)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 - 일종의 고인돌)는 피라미드(Pyramid), 오벨리스크(Obelisk), 카르낙 신전의 돌들과 함께 고대 거석 기념물의 하나로서 주전 200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지식과 힘을 보여 주는 고대 유산이다. 돌 중에서 큰 것의 무게는 무려 45톤이나 된다. 유튜브에 가서 ‘Secrets of Stonehenge’를 치면 스톤헨지의 미스터리를 볼 수 있다.



▲ 위: 1985년 8월 이탈리아의 조포카에서 발견된 '곡식밭의 원'

아래: 1996년 7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뷰트시 주민들은 직경 10m의 '곡식밭의 원들'을 발견하였다. 옆의 길들은 이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사과나무 위에 갈때기 모양의 빨간빛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다음 날 일어나 보니 사과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곡식밭에 원이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그 원들이 매우 정교하게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대개 곡식들은 땅에서 약 5cm 정도 높이로 짓눌려 있고 또한 전체적인 형태는 마치 회오리바람이 몰고 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줄기는 꺾이지 않아 그대로 두면 추수 때까지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원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한 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켈트족의 십자가처럼 가운데 큰 원이 있고 사방으로 작은 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크기는 자동차 타이어부터 축구장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그 근처에 사람의 발자국이나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 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대기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장에 의해 ‘플라즈마 볼텍스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원들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중세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원들이야말로 UFO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에드윈 퍼라는 캐나다 농부는 쟁기질을 하다가 앞에서 다섯 개의 빛나는 비행접시가 땅에서 약 40cm 위에 떠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그 광경을 보았고 마침내 비행접시들은 다섯 개의 원을 남겨 놓은 채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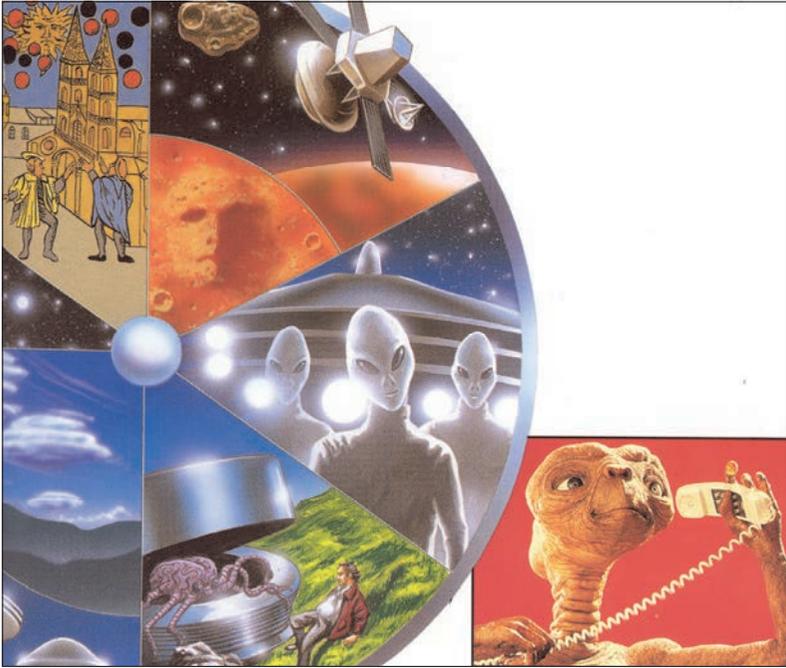
## UFO와 영화 산업

이런 사건이 자꾸만 발생하면서 그늘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UFO 논의가 점차로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어 18’(Hanger 18)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는 스피버그 감독의 ‘클로즈 인카운터스: 세 번째 종류의 접촉’(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같은 대규모 흥행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sup>11)</sup> 그래서 UFO와 E.T. 등을 다루는 영화들이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계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1950년대에 할리우드에 UFO 영화 붐이 일어난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UFO가 수없이 많이 출현한 것과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정지한 날’(The Day the Earth Stood Still), ‘그것은 외계에서 왔다’(It Come From Outer Space), ‘지구와

---

11) 이것은 국내에서 ‘미지와외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다.



▲ E.T.와 UFO 그리고 외계인들

비행접시'(Earth vs the Flying Saucers) 등의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계가 실제로 비행접시 현상을 선전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1970년대에도 스피버그 감독의 '클로즈 인카운터스' 같은 영화 등을 통해 일어났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종족들'(Species), '도착'(The Arrival), '스타게이트'(Stargate)와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등의 영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피버그의 '클로즈 인카운터스'는 UFO 접촉에 대한 붐을 일으킨 영화이므로 이것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UFO로 추정되는 존재들이 세계 곳곳에 남긴 흔적들이 발견되고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인디애나주에 사는 로이는 정전을 조사하다 우연히 UFO를 목격하고 아들 베리와 함께 사는 질리안도 같은 경험을 한다. 그날 이후 로이는 UFO에 관한 기사를 모으고 섬광 물체를 목격했던 곳에서 다시 그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가 하면 희미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찰흙으로 빚기도 한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부인마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가 버리지만 그는

이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 한편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라콤 박사의 지도하에 외계인과 통신할 수 있는 음악 코드를 개발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그 위치는 와이오밍주에 있는 ‘데블스 타워’였고, 정부는 극비로 하기 위해 고의로 열차 사고에 의한 독가스 유출을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다. 뉴스를 통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데블스 타워’를 발견한 로이는 지금껏 자신을 끌어당겼던 것이 바로 데블스 타워였음을 깨닫고 아들을 섬광 물체에 빼앗긴 질리안과 함께 군인들에 의해 봉쇄된 도로를 뚫고 데블스 타워로 향한다.

2008년에는 해리슨 포드가 등장하는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이 상영되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UFO 혹은 외계인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냉전이 최고조에 다다른 1957년, 인디애나 존스는 친한 동료 맥과 함께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Area 51) 비밀 창고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소련 특수 부대 이리나 스팔코 일당의 추격을 피해 힘겹게 탈출한다. 일상으로 돌아간 인디애나 존스는 대학에서 고고학 강의를 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비밀 창고에서의 탈출 사건과 고고학 연구와 관련해서 자신을 해고하려는 정부의 또 다른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대학을 떠나려던 찰나, 그의 앞에 머트 윌리엄스가 나타난다. 반항기 가득한 청년 머트와 존스는 크리스탈 해골<sup>12)</sup>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을 늘어놓으며 수천 년간 풀리지 않은 마야 문명의 비밀이자 고고학 사상 최고의 발견이 될 ‘크리스탈 해골’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인디애나와 머트 일행은 크리스탈 해골을 찾아 페루 마야 문명의 전설의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소련 군대의 수장 이리나 일당 역시 크리스탈 해골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 세계를 정복할 야욕으로 그들을 쫓는다. 세계를 지배할 힘을 지닌 크리스탈 해골! 더욱 막강해진 적들의 등장!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모험이 시작된다! 아카토에 도착한 이들은 크리스탈 해골의 주인이 다른 차원의 외계인임을 알게 되고 13명의 외계인 중 12명이, 사라진 하나의 크리스탈

---

12) 크리스탈 해골은 1924년 탐험가 F. A. 미첼 헤지스가 중앙아메리카 루바톤에 있는 마야의 고대 사원을 굴착하던 중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매끄러운 표면과 두개골과 턱의 분리, 어둠에 대한 이상 반응 등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발견과 동시에 최고의 미스터리로 떠오른 유물이다.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른 모양, 색깔, 특징의 크리스탈 해골들이 속속 보고되었다. 이 유물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지녔다’, ‘외계인이 만든 산물이다’ 등과 같은 추측과 가설을 낳고 있다. 크리스탈 해골의 미스터리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13개의 크리스탈 해골에 얽힌 전설로 각각 특별한 능력을 지닌 크리스탈 해골 13개를 모두 갖게 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것은 모두 외계인의 유물로 간주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Mystery of the Crystal Skulls’이나 ‘2020 - God speaks of the crystal skulls’로 검색하면 뉴에이지 추종자들의 미스터리 이론을 볼 수 있다.

해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리스탈 해골은 결국 외계인에게 넘겨지고 궁극적으로 UFO가 나타나서 크리스탈 해골과 함께 외계인들을 태우고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한편 2009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Knowing)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줄거리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루신다라는 의문의 소녀가 있었다. 개교일 기념행사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루신다는 50년 후에 열게 될 타임캡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선됐다. 그 후 어느 날, 루신다는 갑자기 미친 듯이 종이에 숫자를 썼고, 그것을 타임캡슐에 넣었다. 50년 뒤, 한 남자아이가 루신다의 종이를 뽑아서 아빠에게 보여 주었다. 아빠는 암호 같다고 생각해서 풀어 보았고 그 결과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숫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 숫자는 메신저(외계인)가 속삭여서 저절로 쓰인 것이었다. 그 종이를 뽑은 아이와 루신다의 손녀도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숫자를 쓰게 되었다. 그 아이들이 쓰는 숫자에는 루신다가 자살한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뜻이 암호로 담겨 있었고 그것을 안 그 아이의 아빠는 그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메신저(외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사람만 UFO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결국 그 두 아이만 다른 행성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 같은 UFO 영화들은 대개 종말을 맞는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별에서 UFO와 외계인이 나타나는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노잉’ 같은 영화는 지금의 지구가 없어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또 다른 지구가 생기거나 다른 곳에서 다시 지금의 인류가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번창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화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지구와 인류는 과거에 외계의 어떤 고등 존재들이 이루어 놓은 작품이며 지금의 지구가 없어지면 또다시 윤희의 수레바퀴를 타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지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UFO 영화들을 자주 보면 힌두교나 불교의 윤희 사상과 뉴에이지의 UFO/외계인 사상에 빠져들어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심취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할리우드 영화계가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실제로 흥행 영화업계를 거머쥐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테드 터너나

소니 혹은 MGM사가 흥행 영화업계를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장악한 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소 발자국(소들의 신체가 절단났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테드 터너나 스필버그 감독 등 현재 흥행 영화업계의 ‘신들’(시82:6-7)은 자기들이 어디서 돈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놀림을 받고 있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UFO 컬트

서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997년은 참으로 UFO의 해였습니다. 1997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주 란초산타페에 있는 160만 달러짜리 호화 주택에서 21명의 여자와 18명의 남자가 자죽빛의 삼각형 덮개를 덮은 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안관이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0세에서 72세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셔츠 주머니에 자기들의 정체를 알려 주는 물건들을 지니고 있었고 다음과 같은 자살 방법이 적힌 조그만 종이쪽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딩이나 애플소스를 취해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수면제와 섞어 술과 함께 마시고는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라.

희생자들의 침대 밑에는 여행용 가방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죽은 사람 모두 주머니에 5달러 지폐와 몇 개의 25센트 동전 그리고 입술에 바르는 연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블랙본 의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자살로 보이며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수 없이 수행되었다.

이들은 ‘헤븐스 게이트’(Heaven’s Gate, 즉 하늘의 문)라는 이름을 지닌 사고 집단으로 밝혀졌고, 바로 그날 약 4,210년 만에 ‘헤일-뱀’ 혜성이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자신들의 자살극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www.heavensgate.com](http://www.heavensgate.com)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신들의 정체와 임무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많은 이들을 독려하여 같이 죽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헤븐스 게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고이며 ‘헤븐스’라는 단어와 ‘게이트’라는 단어가 마치 뉴에이지의 앙크 십자가 형상을 이루며 빨갱게 깜빡거리며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 위: 헤븐스 게이트의 인터넷 로고와 그 추종자들이 믿은 UFO 외계인

아래: '우주의 형제들을 환영함'

우리엘이라는 UFO 광신자가 자신이 만든 우주 캐딜락 자동차 옆에 서 있다.  
이 여인은 1993년에 죽었으며 2001년에 다시 지구에 와서 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약속된 대로, 하늘의 문에 이르는 열쇠들이 2,000년 전에 예수와 그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티와도(UFO) 안에 있다.

이 희생자들은 고등 지식을 갖춘 외계인들의 세계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이 속한 ‘헤븐스 게이트’에 입교하는 것이고, 헤일-밥 혜성의 출현은 이 같은 고등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집단으로 자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헤일-밥 혜성의 꼬리에 UFO가 숨어 있으며 그 안에 외계인들이 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몸이란 매개체 혹은 통에 지나지 않으며 고등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통을 벗어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자기들을 로마군에 의해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주후 73년에 마사다에서 자결한 유대인들과 비교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왜곡된 뉴에이지 신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소유한 외계인이며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그 외계인이 예수의 몸으로 들어갔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을 때 사실은 외계인이 예수의 몸이라는 통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고등 세계의 대표자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사고 단체들이 집단 자살 행각을 벌인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UFO를 숭배하는 단체가 집단 자살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UFO와 외계인에 대한 뉴에이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컬트 수준의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라엘리안 무브먼트’(www.raelian.kr)라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프랑스의 라엘이라는 사람이 외계에 가서 외계인들을 만난 뒤 지구에 주는 메시지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알리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E-book 등을 만들어서 성경 전체를 UFO와 외계인들에 의한 역사로 변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뜻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외계인들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핵 공격을 피하기 위한 우주 로켓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국력이 신장하다 보니 국내에도 민족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따라서 민족의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곳 중에 하나가 증산도입니다. 증산도는 그다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해 온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래에 증산도가 급성장하면서 포교를 위해 여러 가지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끌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증산도는 UFO, 피라미드 신비주의, 외계인 숭배, 동서양의 예언, 기(오로라)를 찍는다는 킬리안 사진, 한의학의 기, 뉴에이지 사상, 점성술, 주역 점술, 사이비 과학의 다른 이름인 신과학, 지구 공동설 등의 온갖 신비주의를 선전에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것들입니다.

한편 증산도의 주장 중 하나는 ‘천지가 개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개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증산도 사상 연구회의 멤버가 UFO와 외계인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세계관과 우주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지구인만이 신이 창조한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저 광대한 우주를 향해 꿈과 희망을 펼칠 시대가 왔다. 인류만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즉 UFO와 수수께끼의 고대 유적, 우주 탐사 자료들이 있다... 현재의 서구 문명의 근저를 이루는 종교는 유일신관과 이에 따라 우주에서 지구만이 생명이 꽃피는 유일한 행성이며 지구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일한 생명체라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외계의 별에도 우리처럼 진화된 고도의 문명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기에 외계 문명의 실체가 드러나면 기존의 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 여파는 단순히 종교적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의 가치관 혼돈과 정신적 대공황, 나아가 사회 혼란과 체제 붕괴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세계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UFO의 진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인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진실을 숨기면서 과도기적 상황을 연장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열린 의식과 사상으로 적극적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 한민족의 정신세계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은 외계 문명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도전5:189).

또한 지구 문명과 외계 문명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 내려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서양의 문명 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도전2:26)라는 말은 서양의 문명 이기가 천상 문명, 즉 외계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앞으로 지구는 큰 변혁기를 거쳐 우주 시대로 다가서게 되며 「도전」은 이러한 대변혁기를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인 ‘개혁’이라 부른다. 이런 새 시대에는 심적 영적 진동 주파수가 광자대 진입에 따른 높은 파동의 수준으로 상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다음 진화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과거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영적, 물질 대청소를 겪어야 한다. ... 지구인을 고등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일체화된 일단의 광명 일꾼들이 필요하며 한민족은 이를 위해 특별히 선택되고 예정된 민족이다. ... 그날이 오면 지구 밖 외계인들이 지구에 집단 착륙(이주)하고 지하에 있는 아갈타 왕국의 레무리아 후손들이 일제히 지상으로 출현할 것이다. ... 지구는 전 은하계 생명체들의 초고속 발전을 위한 빛의 영광스러운 특별 진열장이며 우주 대통합의 중심 별이 될 것이다.

증산도의 주장 역시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의 UFO 이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지구 외에도 우주 공간에 다른 선진 고등 문명이 있고 말세에 천지개혁의 때에는 UFO와 우주인들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은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개념인데 증산도는 국내에서 이런 뉴에이지 개념을 널리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대학에 들어와 책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 세를 확산시키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UFO와 외계인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거짓일까요? 모두 다 사기를 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UFO 및 외계인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마귀와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우리 크리스천들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 제 9 장

# UFO와 천사 커넥션

전 장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연대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이 주제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마귀가 자신의 군대들과 더불어 수행한 성형 수술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실과 오류를 갈라놓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탄이 처음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사14:14)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의 왕좌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사14:13).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깨달은 그는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사실 이 약속을 통해 그는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아마도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의 혈통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과연 여자가 씨를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씨를 찾아 나섭니다. 먼저 그는 가인을 유혹하여 아벨을 살해하게 했고 아벨을 대신한 셋에게서 나오는 메시아 계통을 부패시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귀의 음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의 씨를 부패시키기 위한 사탄의 매우 지독한 계획을 보여 줍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던대라(창6:1-4).

이미 1부의 5장 ‘천사들의 아이들’에서 자세히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구절이 난해 구절로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로서 저주받은 가인의 씨와 결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주장이나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천사를 지칭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욥1:6; 2:1; 38:7 등).

UFO를 살펴보면서 독자께서는 인류 역사의 초기에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천사와 사람이 결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전자가 조작되어 거인이 나오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천사들의 미스터리

작금의 뉴에이지 시대에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별히 영적 존재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 매체나 서적 등을 통해 영적 존재들, 특히 천사들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만큼 천사들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이나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악한 마귀들’을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로 위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조작한 뉴에이지 천사가 대중 매체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따라 미국의 크리스천 서점에도 천사에 대한 책이 수십 가지나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에이지 서적이나 대부분의 크리스천 서적들이 천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크리스천들이 혼동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사가 우리가 공부하는 UFO 및 외계인 문제와 매우 큰 관련이 있으므로 올바른 천사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귀의 궁극적 목표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를 와해시키려는 것임을 염두에

둔 채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특성과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성경을 조사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많은 미스터리(신비)들을 담고 있으며 천사에 관한 신비도 이런 신비들 중 하나입니다. 이 이상한 창조물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 가게 되면, 우리는 각 부분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그림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땅에 속한 음식을 먹으며, 모래 위에 그들의 발자국을 남기며,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며, 사다리를 오르며,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마귀와 싸우며, 성도들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부으며, 꿈속에서 나사렛의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며, 젊은 유대인 처녀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침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해 말해 주며, 겸손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알려 주며, 그분의 비천한 출생지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강건하게 해 주었고, 그분께서 겻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에도 그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다시 한 번 승리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 뒤, 우물쭈물하는 롯을 성 밖으로 이끌고 나가며, 감옥에서 사도 베드로를 구해 내며, 사도 바울을 태운 채 폭풍우에 시달린 배의 갑판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정상적이며 평범한 남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탄과 그의 사악한 천사들에 대항하여 싸우며, 천사들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구원에 관한 일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크게 외치며, 지옥의 뚜껑을 열고는 멸망받은 영혼들이 불 호수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7년 환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으며, 지구를 흔들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태양 가운데 서서 육식성의 새들을 큰 저녁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한 성의 열두 문에서 파수병으로 서 있으며, 타는 불 속에서 왕들의 왕(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를 불 호수 속으로 내던지며, 바다 속으로 큰 돌들을 내어 던지며, 세상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의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스터리이면서도 밧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큰 미스터리들을 계시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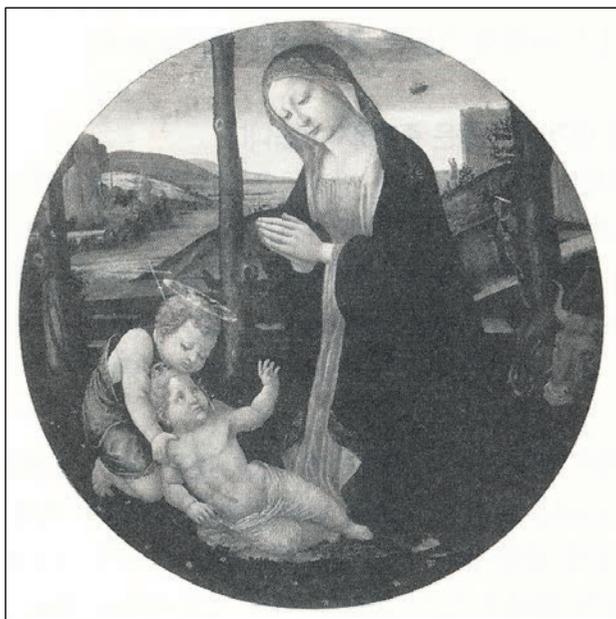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천사들에 관한 전설과 신화들이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신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사론’ 혹은 ‘천사들에 관한 성경적 교리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천사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본서의 1부 ‘천사들의 미스터리’ 중에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UFO에 대해 살펴볼 터이므로 이 시점에서 간단하게 천사들의 속성을 요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천사가 되지 않는다.
2. 천사들은 결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앉아 있지 않다.
3.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다.
4.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5. 천사들은 단순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
6. 여자나 아기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7. 천사들은 육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다.
8. 천사들은 모두 남성이다.
9. 천사들은 남자들과 매우 비슷하다.
10.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
11.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 호주 원주민들이 바위에 그린 그림 머리의 동그라미는 성인들의 후광이나 외계인들의 헬멧으로 이해되고 있다.



▲ 위: 마리아 뒤에 있는 물체가 UFO라는 주장이 많다.

아래: 마리아의 생애를 묘사한 중세의 그림  
 검은색의 모자 같은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다.

##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본서의 1부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신비와 속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최대 욕망이 무엇인지 또 창세기의 뱀이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을 성취하려 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마귀는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be as gods)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창3:4-5).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신들’(gods)이 되고자 했고 마귀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의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눈이 밝아진 인류의 궁극적 목표는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바빌론 신비 종교(힌두교, 불교 등)를 통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혹은 불교 용어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뉴에이지 추종자들의 궁극적 목표 역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말이 뉴에이지 운동, 즉 새 시대 운동이지 그 골자는 이미 오래전에 에덴동산에서부터 존재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이 아니라 ‘올드에이지 운동’이라 해야 맞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단12:4). 약 6,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과연 지금처럼 지식이 빨리 증가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엄청난 지식 증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주선을 만들어 온 우주를 정복하는 것일까요? 전쟁을 막고 병을 제거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인류의 지식 탐구의 목표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 말세의 표적: 유전자 조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한 인류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 왔습니다. 현재 온 인류의 에너지와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바로 생체 유전 공학입니다. 이 연구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유전자 조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고 마귀의 도움을 받아 인류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이 바로 생체 유전 공학 연구의 핵심이요, 궁극적 목표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복제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97년에는 처음으로 양이 복제되었습니다. 1998년 벽두부터 온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팀의 인간 복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는 CNN 방송 등에서 연일 인간 복제의 가능성 및 윤리에 대해 각계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현재 인류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사람을 복제할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 내고 신이 될 수 있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인간 복제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내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sup>1)</sup>

### 유전자 조작의 시작

한편 유전자 조작은 지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에는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의 초기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임했고, 모든 인류와 짐승이 다 파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UFO 관련 기술로 사람이나 짐승의 유전자 조작을 일으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 한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기 바랍니다.

1부의 4-5장은 노아 당시에 천사들의 타락과 이들의 타락으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져서 거인 족속이 생겨났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천사들이 낮선 육체로 이 땅에서 여인들을 취하고 동성애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대홍수로 온 세상을, 유향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성경 신자들은 앞으로 타락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의 활동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늘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

1)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인 신화  
(창세기 6장, 신명기 2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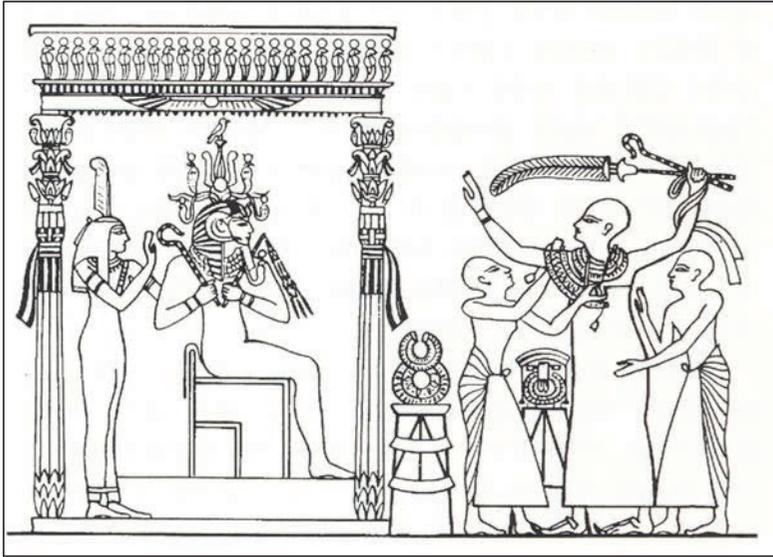
## 마귀의 속임수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성경을 비유로 영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사들의 활동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시대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해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속여 왔지만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속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천사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만 하느니라(고전11:7-10).

독자께서 창세기 6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올까 하고 참으로 어리둥절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 머리를 민 이교도들의 여사제들

바울은 ‘천사들로 인해’ 여자들은 머리를 덮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15절을 보면 ‘덮는다’는 것이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긴 머리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 자체가 덮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도대체 왜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를 덮어야 할까요? 만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천사들을 유혹하여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도록 한다면 아마도 이 구절은 영적으로 머리를 덮지 않는 여자들 혹은 실제로 긴 머리를 갖지 않은 여자들이 천사들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이교도들의 신전의 여사제들은 머리를 밀었으며 지금도 여승들은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고린도전서 11장의 난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반복되는 노아의 날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6장에서 사탄이 행하려 한 바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DNA를 혼잡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저주받은 연합으로 인해 괴물과 거인들이 생겨났고 정상적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결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Noah was a just man and perfect in his generations, and Noah walked with God.

여기에 보면 노아는 그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므로 영적인 면에서 완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이라는 마귀의 계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가 그의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유전자의 변형이 없었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대홍수의 원인은 마귀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인간 유전자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메시아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모든 혼혈족들을 멸절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데리고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 구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셨습니다.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절이 없었다면 마귀의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더 이상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께 매우 기증한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켜 온 세상을 파멸시키셨지만, 이런 관행은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홍수 이후에 그 유명한 골리앗이나 아낙 족속과 엠 족속 같은 거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신2:10-11, 21; 9:2 등)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여자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주었을까요?<sup>2)</sup>

이와 더불어 저는 한 가지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때가 어떠한 것이냐고 물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한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7).

노아의 날들에 상황의 어떠한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

2) 노아의 날들과 말세의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가서 'Return Of The Nephilim: Chuck Missler'와 'Chuck Missler -Transhumanism'으로 검색하면 말세의 영적 현상과 UFO와 외계인 등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볼 수 있다.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눅17:26-30).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표적들은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영계서는 이것을 세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위의 구절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세는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날들에 벌어진 죄악들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죄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과 신분이 다른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역시 ‘낮선 육체’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날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100% 확실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만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유명한 아더 핑크의 창세기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핑크 역시 똑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근본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유대인들의 책임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후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는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슬러 박사(Chuck Missler)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www.khouse.org](http://www.khouse.org) 참조). 그의 웹사이트에는 상당히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시해야 할 10가지를 선정해서 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예루살렘 문제(The Struggle for Jerusalem)
2. 무기 확산 문제(Weapons Proliferation)
3. 이슬람 문제(The Rise of Islam)
4. 러시아 문제(The Magog Invasion)
5. 극동 문제(The Rise of the Far East)
6. 생명 공학과 역병 문제(Biotech & Global Pestilence)

7. 유럽 공동체 문제(The Rise of a European Superstate)
8. 미국의 쇠퇴 문제(The Decline of the U.S.)
9. 단일 세계 정부 문제(Global Government)
10. 단일 세계 종교 문제(Global Religion)

여기서 열 번째로 언급된 단일 세계 종교를 다루면서 그는 분명하게 UFO와 외계인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부각될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창세기의 유전자 조작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점을 성경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악한 일이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내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두 휴거를 받아야 합니다.

### 다니엘서의 유전자 조작 확증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탄은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여인의 씨에서 자신의 메시아를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로 인해 좌절하지 않으셨으며, 홍수 이후에 사탄이 여러 종류의 거인 종족들과 더불어 행한 일들도 모두 수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사탄이 행한 모든 것이 가지가지의 괴물과 반신반인, 반인반수 등을 포함하는 쓰레기 같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의 뉴에이지 시대에 다시 고개를 들고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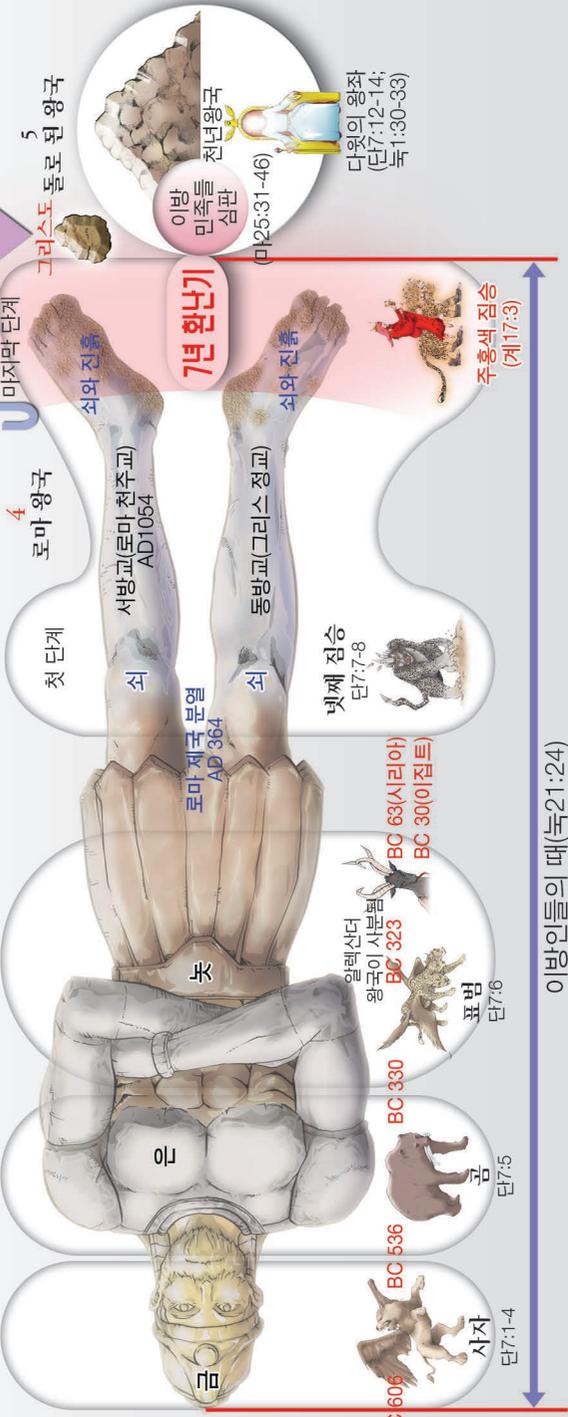
성경에 확실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매우 흥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형상의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형상이 지닌 의미를 왕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그리고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에 발을 맞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산산조각이 났고,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형상과 돌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에 대해 보여 주셨습니다. 금은 바빌론 왕국을, 은은 페르시아 왕국을, 동은 그리스 왕국을, 철은 로마 제국을,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세상 끝에 있게 될 왕국을

# 다섯 가지 세상 왕국

## 누가그네살의 형상

- 1 바빌론 왕국 메데/페르시아 왕국
- 2 그리스 왕국
- 3 로마 왕국
- 4 그리스도 돌로 된 왕국
- 5



<다섯 가지 세상 왕국>

나타내며 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단2:31-45). 그런데 하늘의 왕국, 즉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있게 될 철과 진흙의 왕국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단2:42-43).

And whereas thou sawest iron mixed with miry clay,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en: but they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 even as iron is not mixed with clay.

이 구절은 참으로 묘합니다. 43절의 첫 번째 ‘그들’이 누구인지는 앞뒤 문맥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입니다. 같은 절의 두 번째 ‘그들’은 첫 번째 ‘그들’ 곧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 자들’과 ‘사람들의 씨’로서 이 구절은 이 둘이 서로 합해져 어떤 형체를 갖기는 하는데 온전치는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 사람들의 씨와 섞이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람과는 다른 창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천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혹은 앞으로 설명하게 될 UFO 외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든지 간에 이 구절은 말세에 사람과 결합하여 인류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개하려는 의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미묘한 것만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21세기의 인류보다 최소한 몇백 년은 앞서갑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신분이 다른 것끼리의 성적 접촉에 대해 의아해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신분이 다른 짐승과 더불어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그랬습니다(출22:19; 신27:21 등). 설마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마6:9, 13).

## UFO 사령관: 루시퍼

9장에서 우리는 주로 창세기 6장에 대해 언급을 했으며, 천사와 관련이 있는 UFO 및 외계인 현상이 어찌면 인류를 하나로 묶어 뉴에이지로 들어가게 하려는 마귀의 무서운 계획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과 이방인들의 전설 그리고 이것들과 UFO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이유로 언제 타락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와 종교 및 철학 그리고 사상 체계 등에 침투해 들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UFO나 외계인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탄의 기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실은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대단한 실력을 지닌 ‘우주의 권세자’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창조된 날로부터 타락하기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그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금으로 짜인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 28장 11-19절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로 왕의 이름을 써서 사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두로 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고 앞뒤 문맥 역시 이 구절에 나오는 인물이 사탄임을 보여 줍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북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2-15).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사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고후11:14).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겔28:14). 성경이 말하는 그룹은 결코 벨런타 인데이 카드에 나오는 아기, 즉 얼굴과 등에 날개를 갖고 있고 조그마한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존재들로서 언약계 위에 있는 공홍의 자리(시은좌)를 덮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네 그룹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래는 그룹이 넷이 아니라 다섯이었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오는 덮는 그룹이 바로 또 다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의미의 ‘anointed’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세에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적그리스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경은 예수님을 ‘그분(하나님)의 그리스도’(his Christ)라고 표기하곤 합니다(행4:26; 계11:15; 12:10). 그런데 이 다섯째 그룹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많은 바퀴를 가진 채 이동하는 네 그룹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퀴’(wheels) 하나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의 UFO가 다 바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묘합니다.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 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겔1:5, 10).

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룹이 사람처럼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다리, 등, 가슴, 목 등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즉 마귀는 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겔1:10과 겔10:14에 있는 그룹에 대한 말씀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겔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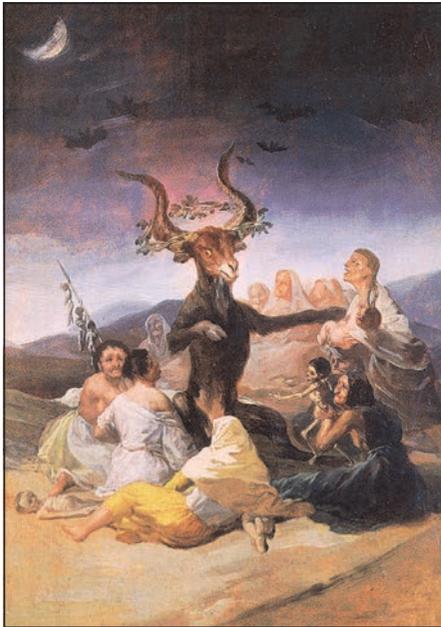
▲ 대언자 에스겔이 본 네 그룹의 환상

겔1:10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고, 겔10:14에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독자께서는 ‘그룹의 얼굴’이 바로 ‘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 7-8절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은 빛나는 늦 색깔 같은 빛을 났으며 또 자기들의 네 측면에 있는 자기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졌는데(겔1:7-8)

여기에서 우리는 그룹이 날개를 갖고 있고 갈라진 굽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람의 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로부터 마귀 혹은 루시퍼의 상징은 갈라진 굽과 뿔을 가진 소였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이집트의 우상 숭배자들과 배도한 이스라엘이 모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왕상12: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사탄, 즉 그 뱀을 소(혹은 가축, 영어로는 cattle)로 분류하셨으며(창3:14) 이것은 실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그룹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 인디언들의 뿔 달린 루시퍼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 타락하여 지금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는 네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같이 생겼으며 송아지처럼 갈라진 발을 가지고 있고, 천사들과는 달리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얼굴은 두 뺨 달린 황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라고 말하는 존재들도 다 머리에 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탄의 타락

사탄의 타락에 대한 기사는 이사야서 14장 12-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아침(혹은 새벽)의 아들 ‘루시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보여 주는 ‘루시퍼’라는 이름, 즉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사탄의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 줍니다.<sup>1)</sup>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자, 이제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했다’는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해 사탄이 사람의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의 타락에 대한 기사를 통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루시퍼가 타락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여섯째 날 전에 타락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많은 근본주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아담 이전에도 이 땅에 어떤 문명이 있었고 그 세상을 루시퍼가 치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sup>2)</sup> 그러나 최근에 모리스 박사 등을 중심으

1) 유튜브로 가서 ‘The TRUE form of Lucifer - The Fallen Angel’와 ‘The Fall of Lucifer’로 검색하면 루시퍼의 타락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로 한 미국창조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지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길어야 10,00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정통과 유대인들 역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는 것과 같이 첫 사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는 6,000년 정도가 흘렀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타락은 땅과 우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루시퍼는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큰일을 수행하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땅과 우주와 사람의 창조 이후에 그는 아담을 타락시킨 뒤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한 말들에 의해 확증됩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가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눅4:5-7)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왕국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마귀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분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 황소 숭배

인류 역사를 통해 이교도들의 숭배를 받아온 신들 -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천사들에게서 나온 거인들임 - 은 대개 뱀이나 황소라는 상징물로 표현되곤 합니다. 성경 또한 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2) 이것은 보통 재창조론 혹은 간극 이론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에는 그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론을 이용하여 진화론과 성경의 연대 사이의 간격을 좁혀 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제는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성경 역사를 문자 그대로 6,000년 정도의 역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창조과학회(<https://creation.kr>)에는 창조 연대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시22:1-2, 12)

현재 하나가 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상징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미녀’(미녀와 야수, Beauty and Beast)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소입니다. 또한 그 미녀는 그리스 신화의 오이로파(Europa)입니다. 바로 이 오이로파에서 유럽(Europe)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우스(혹은 주피터)는 소가 되어 오이로파를 강간하지 않았습니까?(레18:23)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고,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졌으며(계17:1-4)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10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는 황소의 얼굴을 가진 다섯째 그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 중에서 뱀, 즉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렵틸리안들(파충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소가 파충류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송배의 대상이 되어온 아피스라는 소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피스는 소긴 소인데 그 뿔 가운데에는 매우 아름답고 독이 많은 뱀이 박혀 있습니다. 모든 파라오의 이마에도 이런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는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피스의



▲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한 아피스 황소



▲ 타임지 커버에 실린 유럽 연합의 상징인 짐승(소) 위에 탄 여자

빨리 사이에는 아주 멋진 ‘태양 원반’(UFO)이 새겨져 있으며 이 원반은 세계 어느 곳의 카톨릭 성당의 제단에 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용 숭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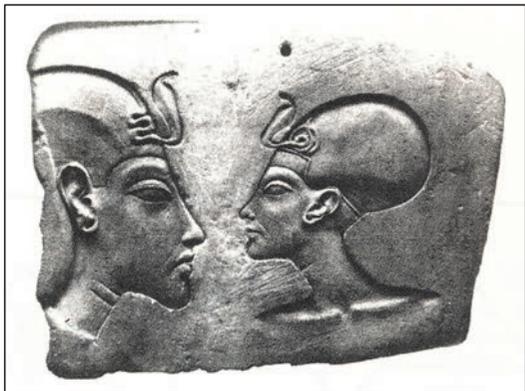
독자께서는 고대 영국의 아더 왕(King Arthur)의 전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rthur’라는 단어는 고대의 ‘Uther’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며 그 의미는 용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경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핑턴 흰말’(Uffington White Horse)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흰말은 매우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더 왕’은 ‘용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세 소설에

나오는 아더는 ‘아더 펜드래곤’(Arthur Pendragon)이라 불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Pen’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는 고대 앵글로-색슨 말로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아더 펜드래곤’은 ‘용의 아들’인 ‘용’을 의미합니다.

사실 고대 영국의 아더 왕은 켈트족의 ‘헤라클레스’였으며 그는 주피터라는 정체를 가진 용의 아들이었습니다. 주피터는 라틴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아더’라는 단어에서 ‘rth’를 ‘m’으로 바꾸면 ‘Amur’라는 일본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검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1901-1947년 사이에 일본에서 흑룡 협회라는 정치 비밀 조직이 군사 작전 등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맥아더 장군과 미국 군대가 일본에 진주하면서 이 단체를 해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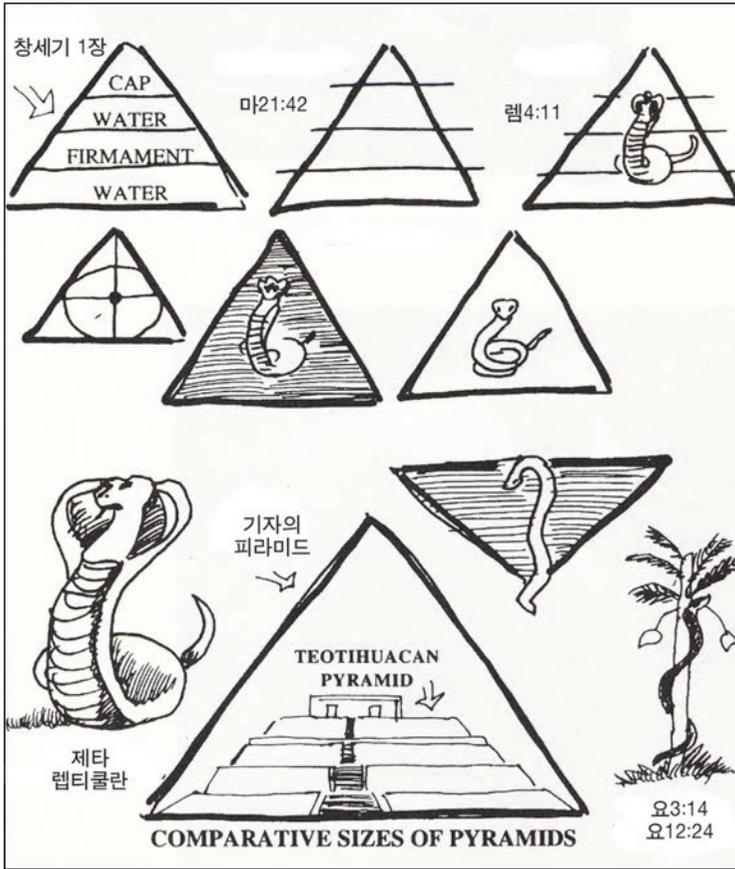
용은 성경에서 ‘사탄’이라 불리며 대적자 혹은 원수라 불리기도 하고(벧전 5:8), 마귀(계12:9), 뱀(계12:9), 속이는 자(계12:9), 거짓말쟁이(요8:44), 살인자(요8:44) 등으로도 불립니다. 우리가 최종 권위라 부르는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원본’이나 ‘필사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영어로 보존된 종교 개혁 본문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는 달리 오직 이 성경만이 ‘용’(dragon)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사야서 27장, 시편 74편 등). 사탄은 이사야서 14장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쫓겨나 몰래 용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패전 드라마의 중요성과 세밀한 묘사는 새로운 성경 역본들이 ‘용’의 역할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 용이 나오는 34개의 성경 구절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용을 제거함으로써 점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NIV는 무려 20곳에서, NASB는 18곳에서 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sup>3)</sup>



▲ 고대 이교도들의 뱀 신 숭배

3) 성경에는 용이 35회 등장하는데 개혁성경은 용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여러 구절을 뱀(신 32:33), 이리(욥30:29), 시랑(시44:19) 등으로 처리해 버렸다.



▲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뱀 신 숭배

### 사탄: 모방의 명수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잉카, 마야, 힌두, 그리스, 중국, 켈트 신화를 지어낸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으며 또한 놀라운 예언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에스겔서 28장 12-15절에 나오는 뱀, 즉 날개를 가진 뱀입니다. 그의 천사들은 창세기에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 고대의 용과 군주

다음의 요점들은「미트라的神비」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1. 최고의 신은 사자나 뱀으로 비교된다(요3:14, 창3:1; 49:9, 벤전5:8; 계5:5).
2. 이 최고의 신은 홀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창49:10; 시45:6) 열쇠를 가지고 있다(계1:18).
3. 그는 항상 빛과(요일1:2-5) 불과 연관되어 있다(히12:29; 신5:26; 32:22).
4. 그는 신들 혹은 타락한 인간들이 '신들'이라 부르는 존재들을 만든다(시 82, 히1).
5. 그에게는 사람인 신부가 있으며(엡5, 고후11, 시45), 그는 본질상으로는 삼위일체가 아니나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삼위일체로 나타난다(불, 물, 공기 혹은 하늘, 땅 등).
6. 그는 신비한 잔을 가지고 있으며(마26:27) 그 안에는 대개 포도주가 들어 있다(요2; 마26).
7. 그의 대적은 그의 왕좌를 차지하려 하며(사14) 이 대적은 지하 세계와

- 상관이 있다(겔26; 31; 계9).
8. 그의 대적은 패배를 당하나(계20) 꼭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된다. 그는 이미 한 번 패배를 당했으나(창6; 벥후3) 그 뒤 도피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창3-6).
  9. 최고의 신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있으며 그나 그의 아들은 항상 용을 죽이거나(창3; 사27; 계12) 황소를 죽인다(겔1; 10; 출32; 시22:12).
  10. 어딘가에는 거인들이 있으며(신1; 창6) 사악한 눈이 있다(속11:17).
  11. 여러 신 중 한 신은 항상 최고의 신을 향한 중재자이다(딤펵전2:5).
  12. 신의 아들은 대개 처녀에게서 난다(눅1-2).
  13. 그의 출생 시에는 목자들이 나타나며 그는 종종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창3).
  14.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 나오게 한 피는 새 생명이나 새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롬5; 요3).
  15.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있었고 그 재앙에서 한 사람만이 도피한다(창6-8).
  16. 삶은 전쟁이며, 누구나 관능적인 것을 피해야만 한다.
  17. 어떤 영웅적인 신은 죽어서 부활한다(마28; 막16; 눅24).
  18. 그 신의 생일은 12월 25일이며 그는 태양과 관련이 있다(말4; 시19:1-6).
  19. 이 세상은 심판이 있을 후 불로 끝난다(계20; 전12).

이처럼 미트라 신화 책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표절한 것입니다. 이런 표절 내용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전에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주전 1800년경에 율기가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 신화와 전설을 빌려다 정리한 책이다.

또한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자께서는 성경이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 철학자, 과학자, 소위 우주에서 왔다는 외계인, 성경 비평가, 그리스어 및 히브리어 학자들보다 항상 몇백 년은 앞서간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 차례 증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교도들의 신화나 전설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유다서) 이 땅에서 마치 신들처럼 행세한 타락한 천사들(창세기 6장)을 숨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설이나 신화가 항상 성경과 비슷하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성경의 사건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1-3)

지금까지 기록된 수많은 종교적 신화나 전설은 다 동일한 인물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마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고후4:4). 사탄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그리스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보다도 성경을 잘 알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폴로나 아도니스 등과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신화 속에는 마술 ‘나무’와 관련이 있는, 삼위일체를 닮은 신들이 나옵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화 및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처녀 탄생’이나 ‘부활’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sup>4)</sup>

## UFO와 나는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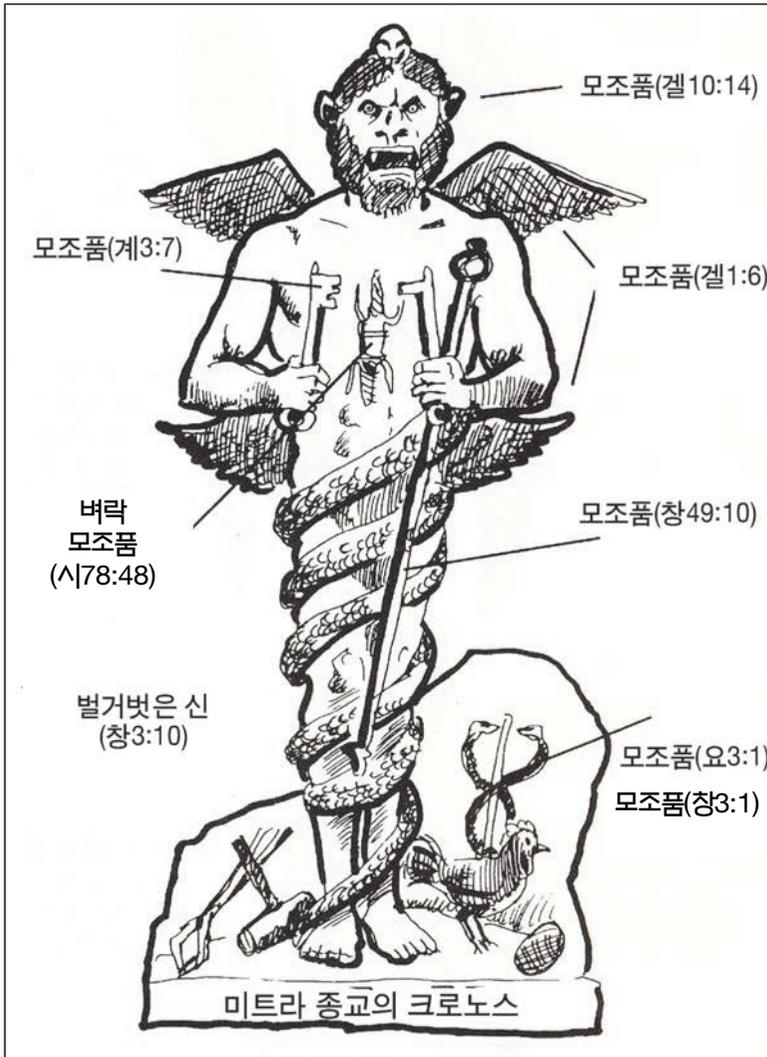
이제 우리는 고대 이교도들의 신화를 하나로 묶어 그 안에 감추어진 ‘용’, ‘뱀’, ‘황소’ 등의 의미를 살펴보려 하며 이를 위해 ‘영원한 시간’ 곧 ‘영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트라 종교의 ‘미트라 크로노스’(Mithraic Kronos)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동상은 아담과 같이 벌거벗은 남자의 동상인데 뱀이 그를 여섯 번이나 감고 있습니다(계13:18 참조). 뱀의 입은 마치 그 남자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렘51:34, 44). 이 남자의 등에는 네 개의 날개가 있고 이 동상 밑의 오른쪽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상징(즉 두 마리 뱀이 감고 있는 막대기)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한 시간’의 주인공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인물은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열쇠들을 한 손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열쇠들은 야누스의 열쇠들입니다. 그는 또한 목자의 막대기처럼 생긴,

4) 「천주교의 유래」(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을 참조하기 바란다.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벼락이 새겨져 있고 그 동상의 밑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카누스(Vulcanus)의 망치와 집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상의 발 옆에는 소크라테스의 닭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500-1000년경의 그리스 신전에서는 뱀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처녀 신전'의 대사제가 전수 의식을 받은 후에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교 의식은 ‘주피터-암몬’이라 불리는 신과 처녀가 성적 교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신은 언제나 뱀으로 변장을 한 채 나타납니다. 한편 그리스 철학자들도 영원한 신성의 계시를 받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으며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말로 다시 써서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 그들의 신화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는 피라미드 위에 지어진 신전들이 있으며 이것들 역시 뱀 신(창3:1)을 숭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 뱀 신은 아스텍 사람들이 숭배한 신들 중 최고의 신으로 ‘깃털 달린 뱀’이라 불렸습니다. 시친(Z. Sitchin)의 책 「잃어버린 영역」(*The Lost Realms*)에 보면, 이 존재가 바로 이집트의 ‘나는 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뱀은 죽은 파라오들의 혼을 ‘영원히 사는 신들’에게로 데려가는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스텍의 ‘나는 뱀’은 ‘모든 지식의 수여자’로 여겨졌으며 이 뱀의 짝은 ‘뱀의 치아를 갖고 있는 자’로 불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의 미신적인 이교도들은 진화론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현대의 과학자들보다 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누구나 학교에서 뱀이 깃털을 나게 한다고 배웁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파충류와 조류의 진화를 소개한 교과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조새’라고 명명된 창조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은 새와 같은 파충류로서 날개와 꼬리에 깃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깃털을 가진 뱀’이라니! 1990년대의 교육을 잘 받은 이들과 주전 3000년 경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다 진화론이라는 리그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깃털을 가진 뱀’을 다시 번역하면 ‘날개 달린 뱀’이 되며 여러 고고학자들은 그가 바로 이집트의 ‘쏘쓰’(Thoth)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서는 그를 ‘쿠쿨칸’(Kukulkan)이라 부릅니다. 어찌 되었든지 마야와 잉카의 피라미드 위에 세워진 신전들은 ‘뱀 신’을 숭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뱀 신’, 즉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조직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야지디스’(Yazidis)라 불렸고 자신들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오긴 했지만 가인과 아벨과는 다른 계통을 통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리병 속에서 아담의 씨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야지디스’라는 말은 ‘우리의 신’을 뜻하며, 이 신은 피를 마시는 무함마드의 종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의 딸과 강제로 결혼했고 이 여자가 예지드에게 아이를 낳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사원의 문기둥 위에는 사자(벧전5:8)와 뱀(창 3:1), 사람(롬5:12)과 도끼가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멜렉 타우스로서 곧 사탄 마귀입니다.

이제부터 독자께서는 막대기(혹은 장대) 위의 뱀(민21:9)이 병의 치료와 상관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치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요3:14).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으며(갈3:13)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고후5:21).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의술의 신인 아에스쿨라피우스가 날개를 가진 채 '나는 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해공군의 의사들이 지난 50여 년 동안 '두 마리 뱀이 막대기를 감고 있는 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막대기에 날개들이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독자께서 원래의 '의술의 상징'이 무엇인지 보기 원한다면 용을 죽이는 자로 알려진 헤르메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헤르메스는 오른손에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담은 책을 지니고 있습니다(골2:8). 그리고 왼손에는 '두 마리 뱀이 감고 있는 날개 달린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네 개의 날개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마치 미트라 종교의 크로노스 신상처럼 혹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의 생물처럼) 헤르메스는 뱀 막대기에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가슴에 나머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 우주적 지혜의 신은 프리메이슨의 치마와 파라오의 머리 장신구 그리고 이마 중간에 있는 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세기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기술된 주전 800년경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쉬르머라는 사람은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매우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의 짐승들마저도 매우 이상한 것을 느끼고는 심상치 않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UFO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외계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 블루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쉬르머는 UFO 외계인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본 상징물은 UFO 외계인들의 제복의 왼쪽에 있는 조그만 조각이었는데 그것은 '날개 달린 뱀'이었다.

## 사탄에 대한 요약

성경에 보면 사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묘사됩니다.

1. 그는 그룹으로서 창조된 짐승 중 수중 양서류를 대표한다(겔28장).
2. 외부 공간에서 그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주관하는, 일곱 머리 달린 용으로 나온다(눅4:6).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있는 왕관들에 유의하라.
3.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는 ‘파란색 피’를 가진 존재, 즉 외부 공간에서 온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후11:14).
4. 땅에서 그의 실제 모습은 뱀과 같다(사27:1; 계12:9). 그래서 짐승 중 뱀이 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런데 뱀은 지식과 관련이 있는 신화에서 중심인물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역사 기록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가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사탄이 외부 공간에 있지만(욥41; 계12) 곧 이 땅에 많은 UFO와 외계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것이고 그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당해 영원토록 땅속에 자신의 거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계20:2-3). 물론 그가 지옥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많은 죄인들이 이미 그곳에 갇으며 이들은 아폴로나 담무스 혹은 아도니스 등과 같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계20:2).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 들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토록 타는 불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UFO와 고대 신화

이제부터 우리는 위의 배경 연구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성경이 주는 명확한 빛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신화나 전설 등에 숨겨져 있는 UFO와 외계인 관련 사실들을 찾아내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전설이나 신화 혹은 역사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과 대조해 보아야 하며 과연 이런 것들이 마귀의 계획과 들어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화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은 온 세상을 덮었던 대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왔다는 '외계인들'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야만 대학 졸업장을 딴 이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UFO는 홍수 이후의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천 년 동안 UFO와 외계인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UFO의 '외계인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생식 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마도 복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혹은 짐승)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해 온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채 이 부분을 읽기 바랍니다.

### 구약 시대의 반신반인 신화

창세기 1-3장의 과학적 기사는 매우 정확하게 인류의 원천이 고대 수메르 곧 창세기 2장 14절의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변임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중남미의 이교도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는 이 수메르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화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화의 특징은 거의 똑같습니다. 즉 신 혹은 신들이 사람들의 딸들이나 여신과의 결합을 통해 당대의 영웅이나 거인들을 낳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인 거인 헤라클레스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주피터 신이 사람의 딸과 더불어 만들어 낸 강력한 영웅으로 12가지 힘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딸들에 미쳐 성도착증에 걸린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이런 사악한 일을 행했습니다(창6:5; 레20:15, 18).

사실 이런 거인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이라 불리는 신족(神族)으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아틀라스, 제우스 같은 신들 역시 이런 종류의 신족입니다. 이런 신족 문화는 수메르, 아시리아, 이집트, 잉카, 마야, 길가메시, 페르시아, 인도, 볼리비아, 미국 인디언들의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들은 대개 ‘별에서 온 사람들’(Star people)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타고 온 물체는 지금 우리가 비행접시라 부르는 것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명에서 조각이나 그림 등을 보면 외계인, 비행접시 등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부의 천사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신들’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나 이전에 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나 전설이 홍수 이전의 세상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재구성했고 그 결과 ‘왜곡된 역사’가 그 이후의 인류의 종교나 사고 체계 등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휴머노이드 잡종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시대 이후로 각 나라의 왕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바로 이런 ‘신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신화의 단군, 주몽, 김수로왕, 박혁거세 등도 다 신, 사람, 짐승이 결합된 존재들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다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 이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범신론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6장 1-5절 이전에는 ‘신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1장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신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우상이 나옵니다. 드라빔이나 형상들은 다 대홍수 이후의 유폐로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최고의 신을 상티(상제)라 불렀으며 베트남에서는 느광와라 불렀습니다. 동방에서는 최고의 신을 닝산이라 불렀고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신을 ‘아오난월로나’라 불렀고, 아즈텍 사람들은 ‘베베테올’, 힌두교도들은 ‘브라마’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짜 삼위일체도 선을 보였습니다: 브라마-비쉬누-시바, 아누-엘린-엔키 등. 그 이후로 제우스, 요브, 아후라, 마즈다, 바알, 티아맛, 벨, 주피터, 아폴로 등이 붓물 쏟아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흉내라도 내듯이, 신의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특성이 부여되기도 했습니다(요5:19-21, 23, 26, 27, 30 등).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이런 전승들이 너무나 혼잡하게 되었고 신들의 이름이 중복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똑같은 신이 두세 개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왕들은 자신을 제우스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로써 천사의 위용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 중에는 ‘아흐리만’, ‘플루토’, ‘헥타테’ 등과 같이 악역을 맡은 신으로 인식된 존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일을 벌였으므로 당연히 여성들도 신성을 지녀야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다이애나, 이시스, 헤바, 캐레스, 주노, 포오나, 올림피아, 아쉬토레쓰, 이스타르테, 아테나, 헤라, 팔레스, 미네르바, 메두사, 루나, 세라피스, 키벨레 등의 여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런 신들을 다 모으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한 그룹씩 나누어 주어도 될 정도가 됩니다.

바빌론의 경우에 외계에서 온 신들은 ‘아누나키’라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은 지금부터 423,000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믿음 속에서도 현명한 독자께서는 이 외부의 방문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아누나키들 중에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은 아누와 닝기르수였습니다. 또한 폭풍과 바다의 신 아에기르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의 딸인 란과 더불어 음행을 벌였습니다.

티베트에 살던 고대의 라마 중들은 우리에게 큰 흥미를 주는 이상한 수술을 행했습니다. 진정한 라마가 되기를 원하는 초심자들은 다 이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마의 중앙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선(송과선)을 잘라 내는 수술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대승)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심자의 이마에다 금속 핀을 꽂고 송과선 근처에다 대나무 가시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초심자는 이마의 중간에 셋째 눈 곧 ‘모든 것을 보는 눈’(All-seeing eye)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눈은 일본, 한국, 인도에 널려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불상에 다 있습니다. 라마들은 이런 수술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몸에서 색깔이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의 ‘달라이 라마’는 창세기 6장 1-6절에 나오는 거인들의 후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티베트에 있는 사원들 밑에 있는 터널에 갔다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4미터에서 6미터 정도의 신장을 갖는 사람들, 즉 거인들 중에서도 한 눈을 가진 거인들을 위해 예비한 매우 거대한 관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볼리비아의 전설은 ‘우리의 피와는 전혀 다른 비인간 종족’의 파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 있는 티아후아나코에는 우리와는 피가 다른 고대 종족들이 한때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갈퀴가 달린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시아(Beltran Garcia)가 지은 「잉카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주선이 티티카카 호수에 착륙했고 한 여자가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큰 귀와 원추 모양의 머리 그리고 물갈퀴가 달린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뾰족한 머리를 갖고 있던 종족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있으며 잉카의 신화에 보면 이들이 ‘플레이아데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욘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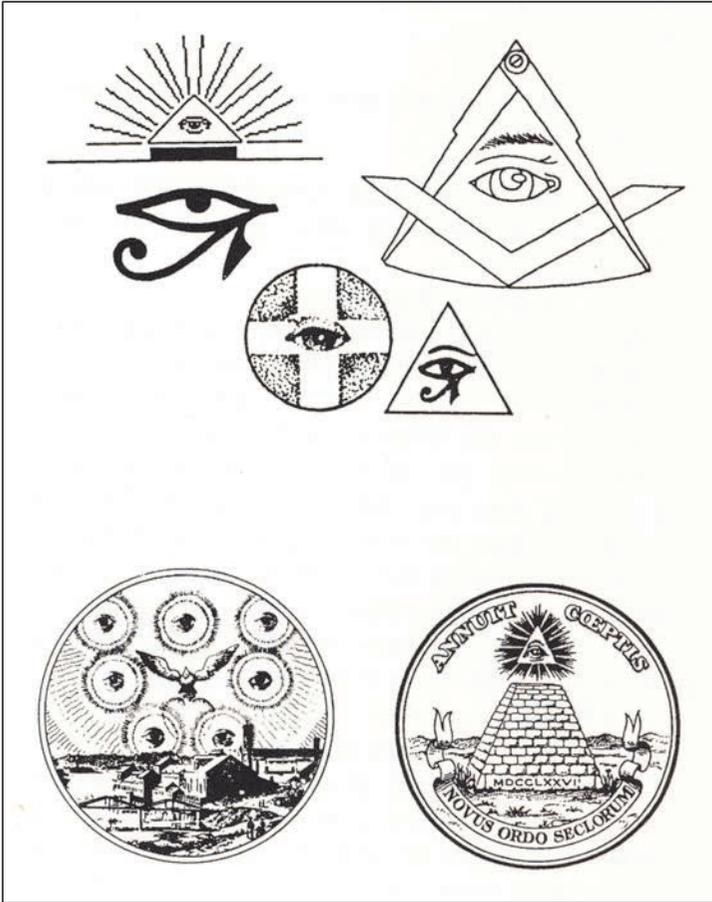
페루와 과테말라에는 이런 뾰족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에 대한 신화에는 참으로 흥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란색 피부를 가졌다.

이것은 사실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 사람들’의 피부색과 똑같습니다.<sup>1)</sup>

파란색 피는 우리처럼 철분을 기초로 하는 혈액 시스템이 아니라 구리를 기초로 하는 혈액 시스템에만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티티카카 호수 지역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구리를 기초로 하는 파란색 혈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파란색 피를 가진 어떤 종족이 사람들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한다면(창세기 6장) ‘파란색 피’를 갖는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나 여왕이

1)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 뉴에이지의 '모든 것을 보는 눈'(All-seeing eye)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반신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대의 역사가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으므로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이교도들의 고대 신화들이 거의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처럼 타락한 ‘권력들’과 ‘권능들’은 고대의 ‘지배자들’이 되었습니다(엡6:10-12). 그들은 홍수 이전과 이후에 온 세상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는 현대인들은 주전 3000년경의 자신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들’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그것을 지지해 주는 진화론은 믿으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신들’이 이 땅에 있었으며 성경은 이들을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유6)로 규명해 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땅 밑 지옥의 한 부분에 갇혀 있습니다(벤험2:4). 성경이라는 과학적 문서(신화가 아니고)는 분명히 사람들이 낫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기록하며 이런 ‘신들’은 바로 시편 82편에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데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시82:1, 6-7).

이 ‘신들’은 확실히 이 땅에 존재했으나 ‘순수함’ 혹은 ‘거룩함’ 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냈으며(고후11:14) 그래서 그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그들 주위에 항상 후광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나 불교, 힌두교의 성인들 주변에도 모두 후광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종교들이 다 이 신들을 섬기는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던 이 ‘신들’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디 독자께서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대륙들이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욱단이었으며(창10:25)

이스터섬의 석상이나 크레타섬의 거대한 궁전들, 이집트의 신전들, 바알벱의 유해들은 거인들이 한때 온 세계로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입니다.<sup>2)</sup> 실제로 텍사스주 글렌로즈에 있는 팔룩시장 하저에는 길이가 55센티미터이고 너비가 28센티미터인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들은 공룡의 발자국들과 더불어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sup>3)</sup> 필리핀의 가르가얀 지방에서는 5미터나 되는 사람의 해골이 발견되었고 중국의 고고학자인 페이 웬슁은 3.3미터가 넘는 사람의 뼈를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

2) 유튜브에 가서 ‘Easter Island’와 ‘The Mystery of Easter Island’로 검색하면 이스터 섬에 있는 100여 개의 모아이 거석들을 볼 수 있다. 이것들 가운데는 무게가 90톤이나 되는 것도 있다.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있었다.

3) 유튜브에 가서 ‘The Delk Track: Evidence of dinosaur and human coexistence’로 검색하면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키타무라 교수는 물갈퀴가 달린 발을 갖고 있는 ‘카파스’(Kappas)라는 거인 종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쭉한 머리와 삼각형의 큰 눈과 귀 그리고 손가락이 세 개 달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성령님께서서는 의사 누가를 인도하여 20세기에 사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으므로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행14:8-13)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두 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더라.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행19:34-35)

이 구절들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람들처럼 생긴 ‘신들’이며(창6:1-5; 시82:1-7), 두 번째 경우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상이었습니다. 위 구절에서 또한 우리는 이런 외계인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주피터(목성)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피터는 또한 라틴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 구약 시대의 반인반수 신화

창세기 6장은 외계에서 온 ‘휴머노이드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다닌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의 딸들’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도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계도 모두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익사했고 그 당시의 ‘신들’ 역시 사람들과 더불어 죽었습니다(시82).

주전 1500년에서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기사는, 늘 그러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물론 이교도들의 신화에도 이런 일들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자면 신들의 왕으로 알려진 제우스는 황소가 되어 땅에 내려와 오이로파(Europa)를 강간하고 후에는 백조가 되어 레다를 강간합니다. 또한 미궁에 갇혀 여자들을 잡아먹는 반인반우인 미노타우로스라는 ‘짐승과 사람 사이의 잡종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신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가 정적의 반대를 제압하고 크레타섬의 왕이 되었을 때 미노스는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희생으로 바칠 소를 바다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빈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하얀 황소를 보내는데 그 소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노스는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기고 소를 숨긴다. 이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벌로써 미노스의 아내 파시피아로 하여금 이 황소를 끄찍이 사랑하게 만든다. 한편 공예가 다이달로스에게 정교한 황소의 모습을 만들게 한 왕비는 아무도 몰래 그 황소와 교접하여 소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로스(미노스의 소라는 뜻)를 낳는다. 이에 미노스는 이 괴물을 다이달로스를 시켜 미궁, 라비린토스에 가두고 속국인 아테네로부터 보내오는 인신조공인 소년 소녀를 먹여 길렀다. 그러나 마침내 이 인신조공 속에 끼어 들어온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에 의해 미노타우로스는 살해당한다.



▲ 미노타우로스



▲ 반인반수(창세기 6장의 모든 육체)

한편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기사를 통해 이교도들의 전설이나 신화에서나 나온다고 생각하는 괴물들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인반마로 알려진 켄타루스(Centaur),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사티로스(Satyr), 하르피, 유니콘, 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지 전설이나 신화 속의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독자들께서는 실제로 이런 괴물들 중 최소한 넷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람과 새 사이의 잡종인 하르피는 스가라서 5장에 나오며 용은 바로 사탄 마귀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3장 21절은 사티로스에 대해 말합니다.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사34:14도 참조)

한편 시편 92편 10절, 29편 6절, 욥기 등에는 유니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거나 그것이 실제로는 유니콘이나 사티로스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유니콘이 사실은 황소나 코뿔소라고 주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모두 아홉 번에 걸쳐 유니콘을 언급하고 있으나 한글 개역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이 유니콘을 모두 들소나 황소로 번역했습니다. 유니콘이 들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욥기 3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 유니콘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네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욥39:9)

들소나 황소는 길을 들여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콘이 지녔다는 큰 힘을 고려해 볼 때, 욥기 39장 9-10절에 나오는 짐승이나 민수기 23장 22절과 24장 8절에 나오는 짐승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것들은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임에 분명합니다.

한편 시편 29편 6절의 말씀은 젊은 유니콘이 경동경동 뛰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코뿔소나 황소가 경동경동 뿔 수 있습니까? 또한 유니콘들은 주 예수님 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이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흠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사34:7).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높여진’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레엠’(re'em)에서 왔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레엠이라는 단어가 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으므로 이 같은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뿔은 정치적 권력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권세를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치리자마다 한 개의 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유니콘이라는 말 자체가 ‘한 개의 뿔’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유니콘은 힘이 센 어떤 짐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이사야서 34장 7절의 말씀에서 유니콘을 소로 하면, ‘소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가 되어 소가 중복되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니콘은 소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유니콘이 실제의 짐승이 아니고 신화 속에만 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8세기에도 유니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도, 아비시니아, 메카, 중국, 페르시아, 캐나다 등에서도 이것들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에 있는 유니콘의 모습을 닮은 짐승은 현재 없으며 특히 1미터 정도의 뿔을 지닌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한때 이 땅에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개인 동물원에 유니콘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자는 몇 년 전에 '아, 고구려!'라는 제목의 고구려 문화 전시장을 방문해서 고구려인들의 벽화에 뿔을 가진 유니콘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나 어떤 사실을 보아서 안 됩니다. 즉 '지금 있느냐 없느냐' 혹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맞느냐 틀리느냐'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살펴볼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나 사물이 존재하던 당시의 상황하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만일 주님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어떤 짐승이 코뿔소임을 보여 주시려 했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코뿔소라고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자신의 책에다 자신이 쓰기 원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UFO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티로스 같은 괴물들은 다름 아니라 사탄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유전학적인 잡종일 가능성이 큼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죄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늙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22:19).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사악한 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일행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금방 되돌아 나오지 않고 400여 년이나 지낸 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낫선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뒤 네 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아브라함의 씨)은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창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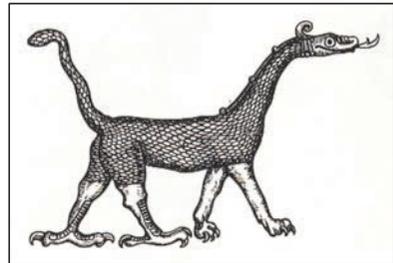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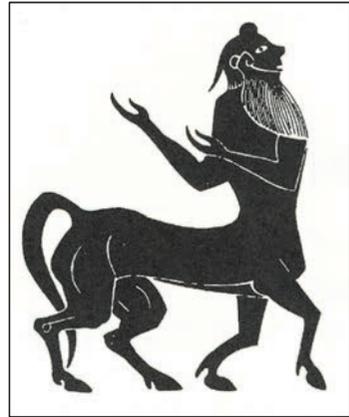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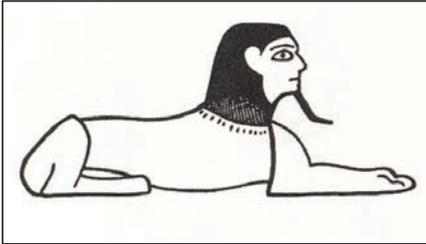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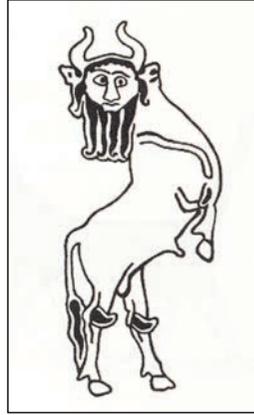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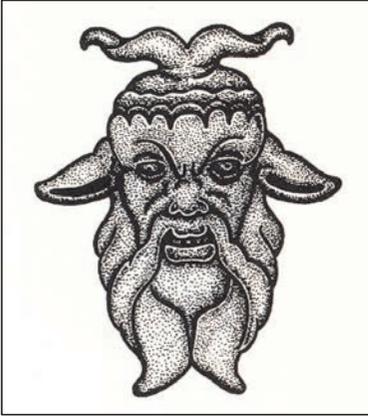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네 세대 만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낙 족속과 같이 천사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태어난 거인들이 있었으며 또한 짐승과 행음을 벌이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행위는 마귀에게서 나와 전적으로 마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서는 메시아가 나올 유대인들의 피를 보전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의 행위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짐승과 행음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대한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련된 짐승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이 일에 관련된 짐승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5-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레20:15-16).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처럼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사탄의 추종자들인 마귀들의 도움으로 사람과 짐승 사이의 성적 행음을 통해 저주받은 후예들이 생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탄주의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남자 사제나 여자 사제가 염소나 황소 혹은 자칼 등과 더불어 행음을 벌여 마귀의 후손을 낳으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돌연변이 잡종의 개발이 아닙니까? 물론 이들은 이런 잡종의 개발을 통해 인류에게 무진장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많은 이들의 의심을 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반신반인이나 반인반수의 전설이나 신화 등을 UFO와 외계인 그리고 이들을 통한 유전자 조작이라는 각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 사티로스, 반인반우  
스핑크스, 켈타우로스  
사이렌, 용

## 신약 시대: 신들이 당황하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등의 증인들이 전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당대의 지성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고린도전서 1-2장). 요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언행이나, 친구들, 사역, 삶의 방법 등은 지난 800년간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쳐 온 ‘신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헤르메스는 입을 다물었고 페가수스는 더 이상 날지 않았고 헤라클레스는 깜짝 놀라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메두사는 미장원에 갔으며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와 음행을 저지를 수 없게 되었고 큐피드는 활과 화살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들이 주장해 온 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을 무덤에서 살려 내는 ‘신’을 본 적이 없으며, 칼에 잘려 나간 귀를 다시 붙여 주는 ‘신’을 본 적도 없고,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는 ‘신’을 본 적도 없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500여 명의 증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신들을 추종하던 철학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그 당시의 지성인들은 미봉책으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비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그리스인 학자들과 유대인 학자들은 그리스/로마 신화가 실제의 역사는 아니며 단지 어떤 진리만을 전해 주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제우스는 단순히 ‘로고스’, 즉 말씀을, 헤르메스는 이성을, 레아는 지구를 상징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세운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호머의 종교적 특성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특성을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고전1:19-20)

이러한 사적인 성경 해석 체계를 도입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학교는 자신들을 역사상 첫 번째의 크리스천 대학으로 만들었으며 ‘비유 해석’을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학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마다 — 예를 들어 창세기 3, 4, 6, 9, 12장, 레위기 17장, 사사기 5장 등 — 그것을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바를 말씀이 주는 실제 의미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학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대로 성경을 뜯어고쳐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성경(NIV, NASB 등)의 원본이 된 알렉산드리아의 소수 사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신들’은 실제의 역사를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제거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플라톤의 철학은 판테누스, 필로, 오리겐 등과 같은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창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카톨릭교회 역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교황 중 가장 위대한 교황이라 불리는 그레고리 대교황(주후 540-604년)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 구약 시대의 옴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2. 옴의 아내는 옴의 육적인 본성이다.
3. 옴의 일곱 아들은 사도들이다.
4. 옴의 세 딸은 평신도를 상징한다.
5. 옴의 7,000마리 양은 완전한 크리스천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 급기야 창세기 기록은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믿을 수 없는 신화’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1877년에 이르러서는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모세 오경을 J, E, D, P의 네 가지 문서로 구분하여 모세가 아닌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을 기록했다고 엉뚱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창세기 문서설입니다.

또한 많은 신학교가 독일의 이성주의자인 세물러(Semuler)가 채택한 알렉산드리아의 해석학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세물러는 ‘신들’에 대해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보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어 학자들만이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이 그런 것들을 접해야만 한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세물러는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무지한 청중들을 위해 스스로 수준을 낮추사 비록 그들의 용어가 거짓이긴 해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진리를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 논의할 때 신학생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되고 맙니다.

### 마귀의 작전 성공

거의 지난 2,000년간 마귀는 알렉산드리아의 비유 해석을 이용하여 그리스천들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그리스천들이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마저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11장의 말씀을 실제의 기록으로 믿는 그리스천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리스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인본주의 학자들을 동원하고 진화론을 이용하여 성경의 기록이 대개 이교도들의 신화나 전설에서 나왔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벌레가 가득한 깡통을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게 잘 간수해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암흑기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득세를 하면서 신부나 수도승들의 독신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천사들도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를 범했는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어떻게 일생 동안 독신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교황들이 첩을 두고 살았으며 수많은 성적 비리들이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신 뒤 곧 여자를 지어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은 신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UFO와 외계인 문제에 대한 현대인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 UFO와 프로젝트 아바돈

### 실존하는 지옥과 그곳의 위치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고대의 전설은 땅 밑에 존재하는 문명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UFO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단지 지옥을 영적인 장소로 생각하고는 자기들의 발밑에 실제로 지옥이 있음을 부인합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지옥을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킨 나머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평범하게 전해 주는 바는, 첫째 지옥이 실제 장소이며 둘째 그것이 땅의 심장부 깊숙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 즉 지옥이 실제의 장소라는 사실을 부디 믿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 전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 시대였고 이때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사악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누가복음 16장). 그렇다면 실제로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단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옥’(Hell)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정리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성경 구절을 함께 적었습니다.

- ◆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타올라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며 땅과 땅의 소출을 태워 버리고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신32:22).

For a fire is kindled in mine anger, and shall burn unto the lowest hell.

◆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욘11:8)

It is as high as heaven; what canst thou do? deeper than hell; what canst thou know?

◆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로다(시55:15).

Let death seize upon them, and let them go down quick into hell.

◆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잠7:27).  
Her house is the way to hell, going down to the chambers of death.

◆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잠15:24).

The way of life is above to the wise, that he may depart from hell beneath.

◆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사5:14).

Therefore hell hath enlarged herself, and opened her mouth without measure: and their glory, and their multitude, and their pomp, and he that rejoiceth, shall descend into it.

◆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5).  
Yet thou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to the sides of the pit.

◆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질 때에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요동하게 하였으니… (겔31:16)

… when I cast him down to hell with them that descend into the pit:

◆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마11:23)  
And thou, Capernaum, which art exalted unto heaven,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의거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아래’(beneath), ‘밑으로’(down), ‘낮은’(low), ‘내려가다’(descend), ‘죽음의 방들’, ‘구덩이’(즉 무저갱)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밑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특히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 밑에 지옥이 있으므로 이곳 지구가 죽은 자들의 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천국)은 하나님 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지옥은 항상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하늘은 항상 위에, 지옥은 항상 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위냐 아래냐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물이 존재하는 곳을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빌2:9-10)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계5:2-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계5:13)

즉, 하늘에 창조물이 있고 이 땅 위에 창조물이 있으며 땅 밑에 창조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안 들면 행2:27과 행2:31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5-27).

그러므로 그[다윗]은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행2:30-32).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에 가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지요.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고 그분의 혼은 지옥(지하 세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sup>1)</sup>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in the heart of the earth) 있으리라(마12:40).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습니까? 위의 사도행전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분명히 땅(지구)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이제 대언자 요나 자신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요나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빛쟁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생명을 썩어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욘2:2-6).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고 그곳이 산들의 밑바닥 아래에 있다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 달라고 조르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

1) 원래 지옥, 즉 'Hell'은 넓은 의미로 '죽은 자가 가는 그늘진 곳'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 즉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갔다(삼상28:14, 19).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이므로 둘 다 죽어서 넓은 의미의 이 지옥 즉 지하 세계로 갔다. 물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의인들을 위한 '안식하는 부분'(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을 위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다.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 시의 한 강도도 죽은 뒤 이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 부분으로 내려갔다(행2:27, 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하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그 거주민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의 지하 세계에는 '좁은 의미의 지옥' 즉 형벌받는 장소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접하면 일단 지하 세계로 생각되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십자가 사건 후의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은 최후의 지옥 즉 계헨나라 불리는 불 호수(계20:14)가 아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애)를 참조하기 바란다.

요나도 위의 말씀에서 자신이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그는 죽었고 그의 몸은 고래 배 속에,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4:8-10)

자,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문제 역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겠지요.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시63:9)

But those that seek my soul, to destroy it, shall go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사44:23)

Sing, O ye heavens; for the LORD hath done it: shout, ye lower parts of the earth.

위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가신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지옥(지하 세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자께서는 이 모든 구절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땅의 중심부에 지옥이라는 실제 장소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지질학자들은 땅의 중심부가 니켈과 철이 녹아 있는 매우 뜨거운 장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은 불호수로 표현된 성경의 마지막 지옥과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자로 ‘지옥’(地獄) 역시 땅에 있는 옥입니다.

앞에서 외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살펴보았듯이 대환난기에는 지옥의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마귀들이 나와 사람들을 해치는데 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인물이 사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아폴리온’이며 영어로는 ‘아폴로’로서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입니다.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를 따르던 이교도들이 다 태양신, 즉 아폴로를 섬겼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주 시대에 달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도 ‘아폴로 계획’이며 우주선의 이름도 ‘아폴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폴로, 즉 마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 UFO와 지하 세계

한편 여러 민족의 전설을 보면 다른 존재들도 그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문화를 살펴보면, 땅의 표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사는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에 어떤 진실이 들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부합되는 것을 찾기로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참으로 흥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극동 지방이나 유럽 혹은 아메리카 대륙에 지하 도시나 지하 문명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전설이 많습니다. 또한 무언가 매우 이상한 일이 현재 우리의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악한 것이긴 하지만 지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동굴에서 나와 방황하는 사람들 —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들 — 에 대한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혹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음식이나 말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하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피부가 매우 하얗거나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완전히 땅속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지하 장소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미국의 원주민들 특히 미국의 남서부에 사는 원주민들의 문학 속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백인들이 서부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한 이후로 밀이 없는 동굴이나 커다란 지하 동굴(석회암 동굴 같은)을 탐험하거나 시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탐험을 시작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명의 UFO 전문가들은 비행접시의 조종사들이 사실은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E.T., Extra Terrestrial)이 아니라 땅속에서 나오는 ‘내계인’(I.T., Intra Terrestrial)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UFO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곡이나 동굴 같은 깊숙한 영역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 그리고 다른 신화나 전설 속의

지옥이나 마귀의 사역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실 위의 진술은 참으로 묘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재 여러 사람들이 문서를 통해 자기들이 정부의 고위 비밀 조직에 의해 고용되어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거대한 지하 장소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산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UFO에 대한 증언을 한 밥 라자르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대한 지하 동굴은 그 크기가 조그만 도시만 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현재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들 중 유명한 곳이 바로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에리아 51, 즉 51구역’(Area 51), ‘그룸 레이크’(Groom Lake), ‘드림랜드’(Dreamland) 등으로 불리는 지하 동굴입니다.

이들이 개발하는 기술에는 현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비행기보다 몇 배나 더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와 입자 광선이나 다른 고에너지 광선을 사용하는 무기 그리고 땅 밑을 시간당 10킬로미터씩 뚫고 다니며 거대한 터널을 만들 수 있는 서브테린(Subterrene) 등을 개발하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터널은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바위를 고온으로 만들어 뚫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기계가 지나가면 지하의 흙과 바위가 녹아 직경이 3-5미터 정도 되는 완전한 터널이 된다고 합니다. 듣기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 증언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하 세계의 상층부에서 일했으며, 그 밑으로 몇백 미터 정도 더 내려가면 인간의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 파충류나 다른 종류의 외계인(혹은 이방인)들을 가끔씩 만나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휴머노이드들이 미국 정부와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외부인들의 종류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이곳 미국과 다른 나라의 지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이런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어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탄의 군대 중 최소한 하나가 땅 밑에서 올라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지하 세계의 문명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두 구절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중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라이다*, 하매(욘 1:7; 2:2)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in it.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in earth)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눅11:2).

첫째 구절은 마귀(魔鬼)가 땅에서 — 사실은 땅속에서 — 위아래로 다니다 왔다고 말하며 둘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in earth), 즉 ‘땅 위와 땅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땅 위에서’라면 ‘on earth’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과 시46:10; 욘38:33; 시16:3 등의 말씀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저는 결코 이것이 100%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地獄)의 왕 아바돈과 마귀들이 땅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UFO 외계인의 분류

보웬(Charles Bowen)은 「휴머노이드」(*The Humanoids*, Futura Publication, London, 1977)라는 책에서 300건의 UFO 착륙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 안에는 직접 자기 눈으로 외계인을 보았다고 주장한 100여 명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계인들과 대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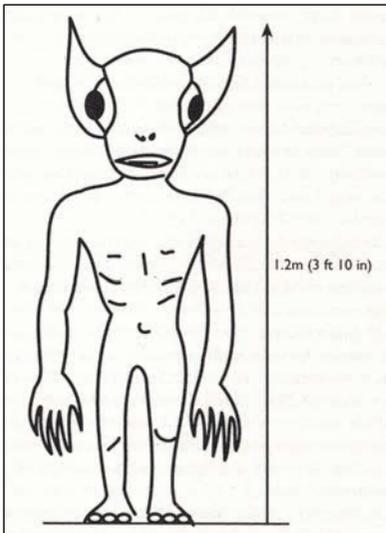
증인들이 1945년에 유럽과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UFO 외계인들에 대해 증언한 것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중 여섯 명은 ‘거인들’을 보았고, 아홉 명은 ‘키가 큰 남자들’을, 다섯 명은 ‘보통 크기의 남자들’을, 열 명은 ‘키가 작은 남자들’을, 열두 명은 ‘키가 작은 난쟁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다섯 명은 ‘털이 많은 난쟁이들’을, 세 명은 ‘녹색의 창조물’을, 또 한 명은 ‘털이 많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나오는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가진 외계인들도 여섯 차례나 보고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키가 작은 그레이들과 잠수부 복장을 한 키가 큰 자들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들 외계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1. 그레이

이들은 키가 작아 약 0.9-1.2미터 정도이며 호리호리한 몸체와 매우 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리는 대개 눈물방울을 뒤집어 놓은 듯한 역삼각형 모습입니다. 이들의 눈은 동공이 없고 아몬드같이 생기고 위로 치켜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가 없고 단지 퇴화된 듯한 입과 코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들의 얼굴에서는 특히 눈이 부각되곤 합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을 하며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띄는 어떤 성적 특징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복제를 통해 대를 이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매우 빨리 움직이며 유황 냄새를 풍깁니다. 그들의 손은 길고 섬세하며 손가락이 세 개나 네 개라고 합니다. 그들은 피부의 구멍들을 통해 양분을 흡수하고 (예를 들어 피 같은 것) 역시 피부의 구멍을 통해 배설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어떤 냄새를 피우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제타레티쿨리와 리겔 행성계에서 왔다고 합니다.

## 2. 렘틸리안(혹은 렘토이드)

이들은 거대한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로 온 식인 도마뱀 종족을 다룬 TV 미니시리즈 ‘V’에 나오는 외계인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레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레이  
고대인들의 조각상(그레이와 비슷함)  
제주도의 돌하르방도 이와 비슷함

그런데 이들은 뱀 냄새를 내며 육식만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눈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눈은 뱀 같으며 동공이 수직으로 갈라져 있어서 콘택트렌즈로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들은 드라코 행성계(Draco system)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드라코니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라코는 용을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 3. 블론드, 노르딕 등

이들은 모든 면에서 마치 사람 같고 단지 동상처럼 윤곽이 고르며 금발을 하고 있어 마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신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론드나 노르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남성만을 볼 수 있습니다. 납치당한 사람들은 이들이 종종 그레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이들의 모습이 꼭 인간 같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 UFO 휴머노이드 블론드, 노르딕

데 UFO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대개 노르딕들은 좋으며 그레이나 랩토이드는 나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원도 확실하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이들이 리란 행성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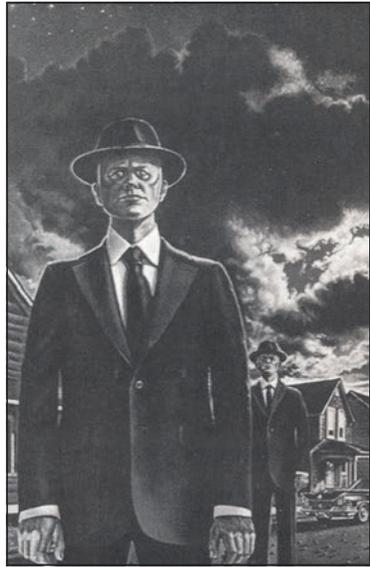
### 4. 검은 옷의 사나이들

독자께서는 1997년도에 크게 히트를 친 영화 ‘맨 인 블랙’(검은 옷의 사나이들, (Men in Black, MIB)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실제로 외계인은 아니고 완전히 검은색 옷과 모자를 쓰고 있으며 창백한 피부와 동양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된 캐딜락을 몰고 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MIB들은 UFO가 출현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 의하면, 이 MIB들에게서는 오존이나 유황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우 둔탁한 목소리로 말하며 어찌면 로봇이거나 안드로이드

(기계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UFO 외계인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신학적 확신을 갖고 있으며 접촉자들에게 이것들을 전수해 줍니다.

1. 우주를 창조한 권능의 하나님은 없다.
2. 윤리나 도덕은 다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한 절대적 선이나 절대적 악은 없다.
3.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고 ‘사람’이 아직 원인 단계에 있을 때 우주의 외계인들이 ‘사람’에게 인성을 부여했다. 이 일은 외계인들이 짐승들과 성적 교접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고 여러 아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요9:35; 요일5:5).
5. 여러 등급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백만이나 된다(욥1:6; 38:7).
6. 신들에는 여러 형태와 등급이 있다(고전8:5를 인용하며).
7. 사람도 신처럼 될 수 있다(창3:1-4).



▲ UFO 출현 때 나타나는 검은 옷의 사나이들

### UFO 외계인과 난쟁이 신화

이제 UFO 외계인과 관계가 있는 전설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난쟁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을 들자면, 아일랜드의 작은 요정들(Leprechauns)과 영국의 요정들(Fairies)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땅 신령(Gnomes)과 난쟁이 트롤(Trolls)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정이 예쁜 아이를 빼앗아 가고 그 대신 두고 가는 못생긴 아이(Changeling)에 대한 전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난쟁이들이 밤에 침대에서 아기를 훔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자기들의 아이를 두고 가는데 그는 인간으로 키운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들과 현대 여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외계인들에게 자기의 아기나 자궁 내 태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통해서 아직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태아들 중 몇몇은 대중매체가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어찌면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난쟁이들은 그레이들처럼 못생기고 키가 0.6-1.2미터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키는 세기마다 변해 왔으며 이들은 오늘날 밤에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 것으로 알려진 UFO 외계인들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설 속의 난쟁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불행히도 성경은 이 같은 난쟁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 켈트족의 요정 신화

## UFO와 마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짓말의 아버지 사탄이 땅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몰몬교를 세운 조셉 스미스에게 일어난 사건이 일종의 UFO 체험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더 명백해집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대모이자 신지학 협회(접신 협회)의 창설자인 마담 블라바츠키는 자신이 마스터들과 교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녀가 말한 마스터들이란 지금의 UFO 용어로 외계인들입니다.

즉 E.T.입니다. 이 같은 교통에 근거하여 블라바츠키는 두 개의 기념비적인 서적을 펴냈습니다. 「비밀 교리」(*The Secret Doctrine*)와 「계시된 이시스」(*Isis Unveiled*)라는 책은 금세기 뉴에이지 운동의 모든 교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마귀 숭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본인은 크로울리였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접어 두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 역시 자신이 영적 교통을 통해 우주의 다른 곳에서 온 아이와쓰(Aiwass)라는 이름을 가진 ‘초인적 지능을 지닌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계시를 모은 책은 1904년에 「법에 대한 책」(*The Book of Law*)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로울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로 불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바꾸어 그 이름을 합치면 영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666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담긴 계시는 사실 그가 받은 여러 계시 중 첫 번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크로울리는 자신이 다른 세상이나 다른 차원에서 온 외계인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1920년과 1930년이었으며, 신비주의의 독일 나치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 블라바츠키

그림을 잘 그렸던 크로울리는 이 외계인 중 하나를 직접 그렸고 그를 램(La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램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 ‘그레이’(Grey) 외계인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때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크로울리는 계속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전복시킬 ‘뉴에이지’를 가져오기 위해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매우 증오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됩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크로울리는 히틀러야말로 자신의 마술에 의해 뉴에이지 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크로울리의 저서 「법에 대한 책」에서 1940년대를 이끌 전쟁 영웅이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다시 나치 독일에 대해 더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20세기의 외계인과 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상한 인물을 한 명 소개해야 합니다. 그는 매우 괴짜이며 은둔 생활을 한 작가지만 그 자신이 신비주의를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러브크래프트(Howard P. Lovecraft)였습니다. 그는 단편 소설들을 썼는데 이 소설들이야말로 처음으로 공포 소설과 공상 과학 소설 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모두 20세기 전반부에 쓰였는데 이 당시에는 공포 소설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들도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훌륭한 단편 소설 같았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언급하기도 어려운 사고와 외계인 이상의 어떤 존재들의 현현 등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사실 그런 존재들은 시82:6이나 시97:7에 있는 ‘신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 다니켄보다 40년이나 앞서서 그는 외부의 우주 공간에서 온 신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던위치 공포」(*The Dunwich Horror*)와 「우주의 컬러」(*The Color of Space*) 등과 같은 책에서 그는 매우 능력이 많은 외계인들이 이 세상을 늘 내려다보고 있으며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쳐다보면 즉시로 그들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마술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UFO 신화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바다 밑에 매우 불경스러운 문명 세계가 있으며 거기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나와 미국 내 뉴잉글랜드 지방의 프리메이슨들의 처소를 가득히 채우고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 매우 무서운 후예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매우 미묘하게 기술되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였고 자신의 생의 대부분을 은둔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같은 혼합 결혼이나 공포 등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장자 신들’이라 부른 ‘외계에서 온 신들’은 요그소도쓰(Yog Sothoth), 니아르라쑈테프(Nyarlathep), 크툴루(Cthulhu)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이 신들은 종종 「던위치 공포」나 「인스마우스 위의 그림자」(*The Shadow over Innsmouth*) 등의 책에서 나타난 대로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 마귀의 후예를 낳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거대한 눈을 가진 이 신들은 마치 우리가 개미들을 다루는 것처럼 인간들을 다루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괴물들의 행동을 제지시키는 어떤 현명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계의 신들 앞에서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전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러브크래프트 자신도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지냈으며 특히 바다 근처나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UFO가 바다나 지하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크로울리에 폭 빠진 그랜트(Kenneth Grant) 같은 작가들은 비록 러브크래프트가 고도의 마술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러브크래프트의 책에서 기술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실제로 적용하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종의 어둠의 예언자요, 사탄의 신성모독적인 계획을 알리는 선구자였을 것입니다. 사탄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현재 마술을 행하고 있는 라베이(Anton LaVey) 같은 이들은 러브크래프트를 신중히 받아들였으며 그의 책에 기록된 마술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 UFO와 나치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의 ‘제3제국’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가 신비주의에 폭 빠졌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나치가 UFO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히틀러는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외계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툴레 게셀샤프트(Thule Gesellschaft)와 브릴 협회(Vril Society)라는 단체와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독일의 신비주의와 마담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을 이상하게 접목시켰습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블라바츠키가 사실 인종 차별주의자요 특히 반셈족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주장한 ‘뿌리 종족’과 ‘레무리아 종족’(Lemurian)<sup>2)</sup>과 ‘아틀란티스 종족’(Atlantean)이야말로 히틀러가 주장한 아리안족의 우월성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있었던 종족의 일부로 사람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UFO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울티마 툴레(Ultima Thule)라는 신비주의와 독일 사람들의 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린란드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북극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노르웨이의 신화 속에 나오는 발할라(Valhalla) 같은 곳으로 신들과 과거에 죽은 영웅들의 거처였습니다. 사실 그는 북극과 남극이 내부의 지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가 위에서 의논한 것, 즉 잃어버린 문명이나 엄청난 기술 등으로 가득한 지하의 동굴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지구가 마치 안이 완전히 비어 있는 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놀라운 문명을 이루며 땅 밑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발산해 주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브릴’(Vrill)이라 불리는 신비한 마술의 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어떤 영매를 통한 영교나 혹은 독일에 UFO가 추락한 것을 통해 나치의 ‘제3제국’의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비행체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의 오른손 역할을 한 히틀러가 바로 비행접시 계획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

2) 레무리아 대륙은 원래 ‘알락꼬리 원숭이의 땅’이란 뜻이며 인도 아래, 아프리카 옆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락꼬리 원숭이는 영어로 레무르 원숭이라고 한다. 1880년대 진화론과 창조론이 격론을 벌이고 있을 때, 레무르 원숭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레무르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섬과 인도에 분포하는데 이 두 곳 사이에는 인도양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으로서는 그 분포를 설명하기 힘들었다. 레무르 원숭이가 그 바다를 헤엄쳐서 갔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대륙이 있었고 그 원숭이들이 그 대륙으로 걸어서 이동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대륙의 이름을 레무르 원숭이의 이름을 따서 레무리아라고 짓게 되었다. 그러나 1915년 베르너의 대륙 이동설이 나오면서 마다가스카르와 인도가 원래 하나였다가 인도판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붙으면서 히말라야산맥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레무리아 대륙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공상가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이 대륙이 아틀란티스의 모 대륙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저는 결코 지구의 내부가 비어 있다고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믿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들의 비행기 제조 기술이나 다른 진보된 기술은 어떤 다른 곳에서 왔음이 분명하며, 아마도 영고 현상을 통해 마귀들이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히틀러의 과학자들이 그 당시의 어떤 비행기도 제칠 수 있는 접시 형태의 비행기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매우 사악했으므로 사탄이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 미국이 원자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자 폭탄 제조에 있어서도 히틀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참으로 다행이며 이 점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나치 독일은 최소한 두 대의 접시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 패배하게 되자 남쪽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극 대륙 어딘가에 속이 텅 빈 지구의 내부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기술로 그곳을 찾아내어 그 안에서 사는 첨단 문명의 종족들과 연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서 지구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독일 해군 탐험대가 남극을 향해 떠났고, 미국의 버드 장군이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버드 장군이 자신의 함대를 끌고 가 남극 대륙에서 나치군과 전쟁을 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미국군이 승리를 한 것 같고 나치 군대는 남극 대륙의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터널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버드 장군의 조카인 할리 버드 박사(Dr. Harley Byrd)는 자기 삼촌이 여러 차례 남극을 탐험하려 가면서 독일 사람들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버드 장군이 발견한 도시의 지도자는 자기들의 비행기를 ‘플루겔라드’(Flugelrad)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날개 달린 바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에 약 백만 명의 독일 사람과 이천 명의 과학자들이 사라졌고 남극 근처의 뉴슈와벤랜드/퀸마우스 밑에 있는 지하 기지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나치의 제3제국과 UFO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아닙니다.

## 로스웰과 미국의 남서부 지방

앞에서 우리는 이미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2년 후에 발생한 UFO 추락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해에 크로울리가 죽었습니다. UFO 추종자들은 그 당시에 로스웰에서 진짜 비행접시가 그레이 우주인들을 태운 채 추락했으나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그 당시의 정황들은 이 추락 사건이 진실임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연 이것이 100%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추락 사건이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그리고 네바다주에는 ‘땅속에 숨겨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런 전설들의 출처는 대개 미국의 원주민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 주는 일들은 로스웰 사건 이전의 것들이며 심지어 백인들이 미국 대륙을 점유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종종 언급되는 곳은 데스밸리 부근의 파나민트산과 아르켈루타 평원, 뉴멕시코주의 덜스 근방에 있는 테하차피산과 포코너스 지방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날아 다니는 배’를 타고 다니는 고대의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파나민트산 부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저자(슈네벨린)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흥미 있는 것은 몰몬교의 메카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와 그곳에 있는 몰몬 성당 밑의 지하 세계에서 랩탈리안이나 그레이로 불리는 우주인들이 ‘비밀 작업’을 진행한다는 보고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사람들 중 지식인들은 몰몬 템플 광장 밑 깊은 곳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슈네벨린) 역시도 그런 지하실 중 여러 개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랩탈리안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상한 외계인들을 지하에서 본 적이 있으며 또한 몰몬교도들이 자기들의 계보를 보관하는 곳으로 알려진 산속의 유명한 동굴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몰몬교 자체가 UFO와 관련된 기원을 갖고 있고 신비주의를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보고가 진실로 밝혀진다 해도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백 년간 데스밸리 근방을 탐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큰 도시 전체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거대한 지하 바다나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어떤 비행접시 조종사들이 그곳에다 자기들의 기지를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UFO가 그렇게 많이 출현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UFO들이 아르켈루타 지역과 파나민트산 근처에서 출발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행체 중 하나가 로스웰에서 추락했을 것입니다. UFO 광신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에게 로스웰 사건은 참으로 큰 딜레마를 가져다줍니다.

실제 그 추락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기원을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실제로 로스웰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주파 레이더를 통해 그 비행체의 추진 장치가 고장이 나서 추락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은 폭풍우가 와서 그 비행체가 벼락을 맞아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파견 나온 정보부 관리인 마르셀(Jesse Marcel)은 추락기의 파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있었으며 마치 알루미늄 포일과 같은 얇은 금속성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은 같았지만 실제로는 딱딱한 금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키가 작고 큰 얼굴을 한, 검은색의 아몬드 형태의 큰 눈을 가진 존재들이 추락 장소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색/녹색을 띠고 있었고 유황(硫黃) 같은 냄새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살아 있었고 죽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 몇 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군인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자신들이 비행 디스크를 포획했다고 했으나 곧바로 그 사건은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 위원회를 조직했고 바로 이로 인해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마샬 장군(General George C. Marshall)에 의해 1947년 7월에 조직되었고 처음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했기 때문에 ‘마제스틱 12’(Majestic 12, MJ-12)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위한 코드명은 ‘합동 조사를 위한 중요한 기관’(The Majestic Agency For Joint Intelligence)의 약자를 따서 ‘MAJI’라 불렀습니다.

처음의 12명의 MJ-12 위원에는 부쉬 박사(Dr. Vannevar Bush), 포레스탈(James Forrestal), 멘젤 박사(Dr. Donald Menzel)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아직 미국 시민들이 우리 영토에서 어떤 외계인의 비행체가 추락했다는 것을 알 단계가 아니며 그 비행체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위원회는 진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적인 공포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수립되었고 모든 UFO 출현을 무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UFO 출현에 대한 모든 정보는 ‘마제스틱 12’ 위원회로 송부되었고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트루먼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더불어 ‘마제스틱 12’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제스틱 12’ 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임기를 연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극비 사항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의 ‘마제스틱 12’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포레스탈 장군은 것처럼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며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 작전을 노출시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가족의 동의도 없이 신경 쇠약증으로 베데스다 해군 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를 석방시키려 했을 때 그는 자기 목에 목욕 가운 띠를 매고 1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헨리는 그가 살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마제스틱 12’ 위원 중 첫 번째 희생자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것은 ‘마제스틱 12’ 위원회가 형성되기 2년 전의 일이며 미국의 전쟁 부서는 뉴렘베르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독일에서 많은 나치 과학자들을 빼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페이퍼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이라 불렸습니다. 이렇게 구출된 사람들 중에는 폰 브라운 박사처럼 훌륭한 과학자도 있었고 멩겔레 박사 같은 괴물도 있었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을 통해 ‘마제스틱 12’ 위원회는 나치 군대가 비행접시 기술에 대해 연구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현존하는 비행체를 이용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나치 군대는 또한 난쟁이 그레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제스틱 12’ 위원회가 형성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UFO와 외계인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인 ‘프로젝트 싸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에 ‘프로젝트 그릿지’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블루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로부터 대중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그 안의 정보는 일단 모두 검열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직접 알린 것을 제외하고는 비행접시에 대한 실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이 정부 조직은 비행접시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정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한 다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위에서 언급한 만텔 대위의 비극을 겪으면서 — 어쩌면 그는 ‘마제스틱 12’ 위원회의 두 번째 희생자일 것임 — 계속해서 1950년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난쟁이 그레이 E.T.들과 ‘마제스틱 12’ 위원들과의 오랜 협상 끝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들과의 협상에서 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아마도 그 협상으로 인해 비행접시 외계인들은 미국 내 남서부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거대한 지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실험을 위해 가끔씩 미국 시민들을 납치하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납치된 시민 중 어느 누구도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는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말입니다. 그 대가로 이 우주인들은 우리 인간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발달된 그들의 기술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50년 이후에 미국 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sup>3)</sup>

한편 지금도 UFO 출현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UFO 출현이 있을 때면 발전소 근방의 지역에서 크게 전기가 나가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때 우주인들이 전기를 빼내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UFO들은 물이 많은 곳에 출현하곤 합니다. 비행접시들은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빨아들여 비행체의 빈 공간에 채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 유명한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일들,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살과 피’ 및 ‘뱀장어, 개구리, 두꺼비’ 등이 UFO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계인들이 사람이나 짐승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끝낸 뒤 시신을 분해하여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들이 빨아올리는 물속에 들어 있던 물고기나 양서류가 쓸모가 없으므로 공중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후자의 경우 회오리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살과 피가 떨어지는 것은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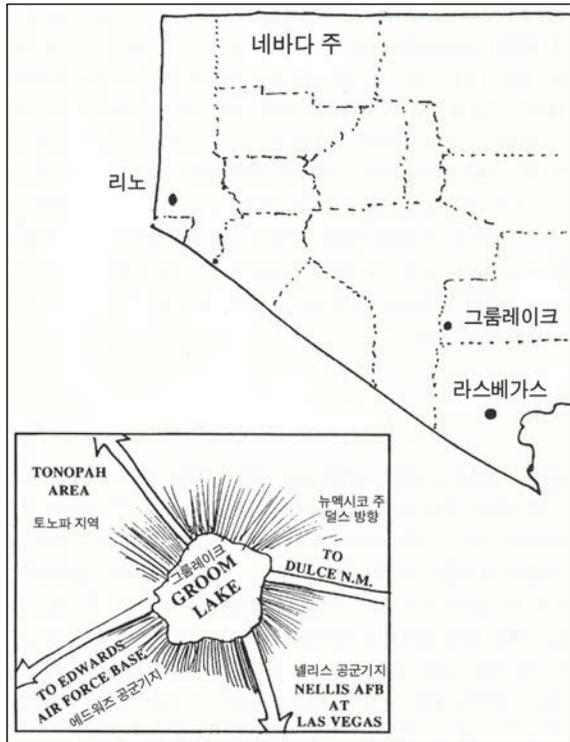
3) 이 부분은 전적으로 「Space Invader」의 저자인 슈네빌린의 생각이다.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미국의 많은 UFO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추측한다.

## 666 고속도로

최고 비밀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깊은 지하의 군사 기지’(Deep Underground Military Base, DUMB)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기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바다주의 델리스 공군 기지 사격장 근처에 있는 ‘에리아 51’(51구역) 같은 곳에서 비밀 작전이 수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리아 51’의 또 다른 이름은 ‘드림랜드’입니다. 비록 구소련의 스파이 위성들이 네바다 사막에 있는 매우 거대한 기지의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공군은 공식적으로 ‘에리아 51’ 같은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행자들이나 UFO 광신자들은 그 장소를 보기 위해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곤 합니다. 거의 매일 밤 그들은 밤하늘에 비행체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들은 그곳이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와칸헛 보안 시스템사가 고용한 사립 경비원들(이들은 대개 4륜 구동 자동차를 몰고 다님)에 의해 제재를 받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공격과 더불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하야카와라는 크리스천 연구자와 일본 TV 방송 기자들도 이런 경비원들에게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경비원들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위장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장한 멧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비원들은 고속도로에서 그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위협했으며 그들이 달리는 동안 검은색 헬리콥터가 나타나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 UFO 출현이 빈번한 네바다주

고속도로에 대해 말하자면, ‘에리아 51’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장소는 바로 뉴멕시코주의 덜스입니다. 약 500명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마을은 ‘포코너스’ 지역 근방에 있는, 북부 리오아리바 카운티의 지카릴라-아파치 인디언 보호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특이한 유전 공학 연구소가 있으며 여러 보고서들은 이곳이 바로 거대한 지하 기지(DUMB) 중 하나로 들어가는 땅 위의 출입구라고 진술합니다. 이곳은 로스알라모스에서 북서쪽으로 1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666번 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16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666이라는 번호를 가진 고속도로는 미국 내에 단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주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고속도로로, 666번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더 많이 UFO 출현이 목격되었고 소가 살해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에리아 51’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UFO 기술을 도입한 미국산 비행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U-2라는 스파이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중에게 알려진 B-2 스텔스 폭격기와 ‘블랙버드’ 프로젝트와 ‘오로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외계인 기술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12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지하 연구실에서 일했으며 그곳에서 키가 작은 그레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렙틸리안들을 만났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렙틸리안들은 키가 1.8미터 이상이며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벨로시랩터’처럼 생겼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혹시 영화 ‘쥬라기 공원’의 스티븐 소콜로프 감독이나 ‘E.T.’의 루카스 감독이 혹시 이런 것들을 미리 본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지옥을 향한 대기실

점차로 사람들이 UFO 외계인들에 의해 속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미국 정부 내의 음침한 조직 — ‘마제스틱 12’ 위원회, 국가 안전 기획부 등 — 과 그레이들 간의 비정상적인 연합에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된 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아이들, 어른들에 대한 보고도 매우 많이 들어왔고 외계인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보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희생자도 생겼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델스 밑에 있는 지역의 약 30층 규모의 탱크가 사람들의 신체 부위로 가득 찼다는 보고가 ‘마제스틱 12’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외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접하여 후대를 생산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자기들의 시민들을 위로 토해 냈고 지금 그들이 지하 세계의 터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하 세계에 있는 20-30층 규모의 장소를 본 사람 중 하나는 그곳이 마치 지옥의 대기실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보고서들로 인해 이 지하 기지, 즉 DUMB 내에서 외계인들과 인간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고 그저 소문으로만 알 수 있지만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외부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우리는 지하 세계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델스 지역의 지하 기지는 완전히 외계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룹레이크 지역과 파나민트산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네바다주에서 수행한 지하 핵 실험 중 상당수가 이런 외계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인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워낙 깊이 때문에 지하에서의 핵전쟁은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5-7층 정도 내려간 시설물들은 장악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낮은 8-35층 정도의 시설물은 외계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결코 대중들에게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알려진다면 외계인들이 더 많은 시민들을 납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누르던 제약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UFO 납치 현상이 봇물처럼 터진 것이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한편 노르딕이라는 외계인 그룹은 사람들에게 대해 좀 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이 사람과 외계인 간의 그리고 그레이(혹은 뱀 같은 랩틸리안)와 거의 천사와 비슷한 노르딕 간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 검은 기술과 검은 돈<sup>4)</sup>

물론 왕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세력을 가진 자들 — ‘마제스틱 12’나 국가 안전 기획부 등 — 은 지나간 세대에 자기들이 밀동까지 소유하게 된 외계인 기술을 모두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여 이들은 불법으로 많은 자본을 생성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큰 도시 하나를 다 넣을 수 있는 지하 기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보부나 안전 기획부에 배당된 검은 예산도 이런 거대한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1947년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기술이 과연 전적으로 인간의 발명에 의한 것인지 E.T.의 기술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참으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80세에서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들의 일생을 통해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진 기술보다 더 엄청난 기술을 직접 보아 왔습니다. 어려서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것이나, 핵폭탄의 위력, TV, 컴퓨터, 유전자를 나누는 것, 심장 이식 수술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름레이크 등의 지하 기지에 있는 존재들이 아직 우리에게 알려 주려 하지 않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슈네벨린)가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담했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은 사실 그 당시의 고급 두뇌들이 알고 있는 기술보다 한 세대 정도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보다 적어도 한 세대 앞서가는 E.T.들의 ‘검은 과학 기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검은 과학 기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군부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필라델피아 실험’(Philadelphia experiment)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어났으며 ‘USS 엘드리지’라는 미국의 해군함이 우연히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배는 다른 차원이나 시공간으로 가 버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배는 한 군데 해군 기지에서 다른 곳으로 수송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해병들은 그 배가 자기들 발아래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

4) 이 부분 역시 「Space Invader」의 저자인 슈네벨린의 생각이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 대해 많은 논쟁이 있으나 많은 UFO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진술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배의 출입문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분자 상태로 녹아 버려 무섭게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배가 시간인지 차원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해 신경 쇠약증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50년 전에 그런 정도의 기술을 어설뜨게나마 만지작거릴 수 있었다면, 검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친구들이 검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그것을 사용할까요? 실제 목격자의 말과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나온 정보 그리고 저 개인의 독자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 하나는 달과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값비싼 광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광물을 캐내어 지구에 가져와 자신들의 ‘검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이라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그들은 외계인이 설계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우주선에 실려 화성과 달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 비행체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 그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실로 몇 시간뿐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영화 ‘콘택트’의 줄거리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편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외계의 실험실에서 노예 노동자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달과 화성에 사람들(혹은 어떤 지적 존재들)이 만든 매우 웅장한 건축물을 담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화성의 키도니아 평원 위에 있는 스펡크스 같은 얼굴을 한 사방 1.6킬로미터 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보다 덜 유명한 것으로는 달의 시너스메이 지역의 릭 관측소 사진에 들어 있는 정삼각형의 구조물 — 혹은 운송 매체나 피라미드 — 이 있으며 또 위의 삼각형 구조물에서 남서 방향에 있는 샤르드라는 별명을 가진 높이가 2.5킬로미터나 되는 고층 빌딩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조물은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기 2년 전인 1957년에 달 위성 오르비터Ⅲ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약 11킬로미터 정도의 높이와 1.6킬로미터의 너비를 가진, 유리처럼 생긴 직육면체가 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69년에는 아폴로 10호가 달에서 성(城)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sup>5)</sup>

호그랜드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중요한 기하학

5) 유튜브 동영상 ‘Ancient Structure On The Moon Filmed By Armstrong, 1969’의 경우 조회 수가 무려 320만 회가 넘는다.

물체로서 어떤 격자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며 달의 표면에서 약 50킬로미터 정도 치솟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달에는 거의 중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50킬로미터의 고층 구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이런 구조물들을 외계인들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리기 전에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이 지었을까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달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미국이나 러시아가 우주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번 돈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주에서 번 돈은 이란-콘트라 사건, 노리에가 사건 등 미국 중앙정보부가 행한 조잡한 일들로 인해 생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광산 채굴 작업이 노조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노예들에 의해 공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그 돈의 액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딤편6:10).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미국이 추진해 온 우주 프로그램이 속임수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선이 날기도 전에 이미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케네디를 위시해서 여러 명의 대통령이 제미니와 아폴로 계획을 위해 요구한 수십억 달러의 돈은 사실 '검은 계획'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연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25년 전에 사람을 달에 데려다 놓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 UFO와 뉴에이지의 표

### 네 번째 종류의 접촉

UFO 무용담 중에서 매우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네 번째 종류의 접촉’(Close Encounters of Fourth Kind, CE4)입니다. 이것 역시 외계인들 — 특히 그레이들 — 과의 접촉으로서,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실제로 납치를 당해 UFO를 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알려진 것은 바로 베티와 바니 부부의 피랍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1961년 9월 19일, 힐 부부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차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 50킬로미터를 지나온 2시간 동안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후에 최면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이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타게 되었으며 자기들의 차로 되돌아오기까지 2시간 동안 마취 상태에서 의학적 신체검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외부 상처는 가려졌고 이 부부가 심한 통증을 느낀 후에야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공식적으로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매우 진짜인 것 같다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말한 사건에서 우리는 인류의 비극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 마치 실험실의 흰쥐처럼 무자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힐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요소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베티가 처음에 자신의 피랍 경위를 회상했을 때, 그녀는 테이블에 누운 채 외계인들이 자신의 몸을 점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배후의 벽에서 — 아마도 그들의 우주선이었을 것임 — 그녀는 어떤 행성계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최면 속에서 그녀는 이 지도를 매우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천문학에도 고속 고성능 그래픽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힐이 밝힌 행성계 그림은 바로 제타레티 클리계의 그림이었습니다. 단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 그림은 지구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별에서 본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한 모사 해석 방법에 의해서만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으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의 힐 부부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도 외계인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의 주장은 몇몇 UFO 잡지나 책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클로즈 인카운터스’(Close Encounters of Third Kind)라는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가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영화는 UFO에 의한 납치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지만 UFO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E.T.들이 좋은 존재라고 대중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스트리버 열풍

이런 와중에 1987년에는 UFO 납치에 대한 유명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커뮤니온」(*Communion*)이며 저자는 스트리버입니다. 이 책은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결과 스트리버는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버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에이지 추종자인 스트리버는 이런 사건들을 통한 자신의 성장을 그린 두 개의 후속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었고 스트리버야말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UFO 납치 사건을 대중들 앞에 내어놓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sup>1)</sup>

스트리버는 UFO 현상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이므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UFO 납치를 기록한 「커뮤니온」에서, 그는 큰 수정같이 생긴 UFO로부터 나온 이상한 존재들이 자신을 유괴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UFO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버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앞뒤 상황과 그가 제시하는 증거로 볼 때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며 무난하게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

1) 스트리버는 뉴에이지의 도래를 선언하는 인물이다.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가서 ‘The Grays by Whitley Strieber’를 치면 그의 책 소개를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는 스트리버가 경험한 UFO 접촉이 실제로는 마귀들의 환상이나 출현일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로 UFO 납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형상이나 이상을 심어 주는 일을 잘 합니다. 스트리버가 기술한 사건은 마귀 들린 사람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며 후자의 경우에 마귀들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게 합니다.

스트리버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이었으나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신비주의, 동양 종교와 뉴에이지 등에 오랫동안 심취해 왔으며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의 고대 역사 연구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온」을 저술하기 전에 그는 피로 얼룩진 공포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신비주의 등에 몰두한 결과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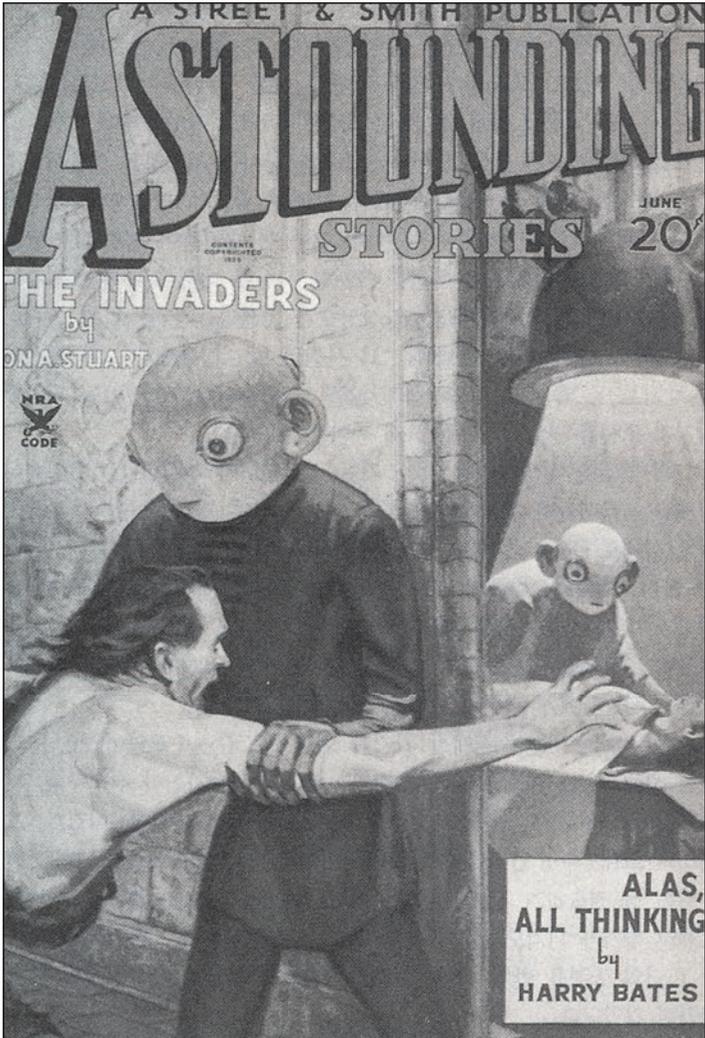
북부 뉴욕주의 외딴집에서 스트리버는 몇 가지 매우 놀라우며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가 외계인들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매혹적이면서도 비열하게 생긴 여성 외계인과 더불어 성교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리버는 이 존재가 실제로 이집트 신비 종교의 여신인 이쉬타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꾸미지 않은 형상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현대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된 이쉬타르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을 검게 칠하고 그녀의 머리를 제거하면 내 마음의 문에 있는 형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무서운 존재, 지혜의 전수자, 인정사정없이 심문하는 자의 형상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에 회색 여신이 치리했던 어두운 신전에서 살던 자들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마도 그 외계인들은 신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을 것이다(스트리버의 「커뮤니온」에서).

UFO에 여자가 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스가라서 5장의 ‘날아가는 에바 바구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천주교회의 마리아 출현과 관련이 있는 UFO 현상에서 모두 발견되는 공통 현상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UFO 외계인들을 ‘신들’이라고 부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버는 자신이 갇히게 된 우주선 내부의 큰 원형의 방에 있을 때 그 존재들이 자기와 또 그곳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존재들’ 이라고 말했다고 기술합니다. 꽃 모양의 흰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포로가 되어 그들로부터 선고를 받게 되자 그 여자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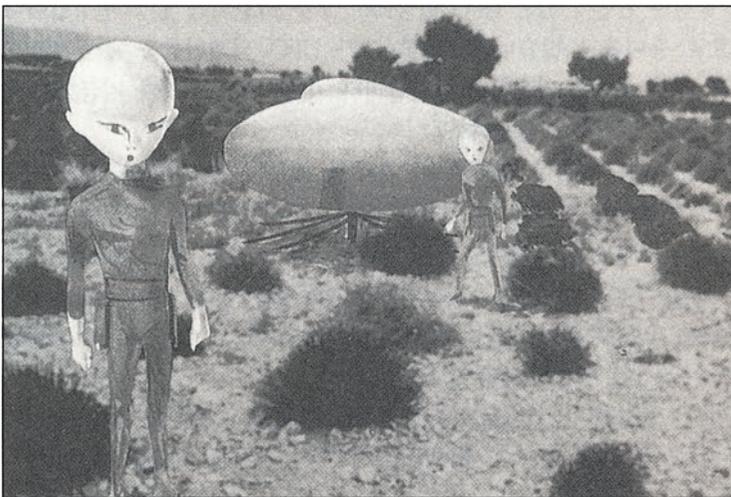


▲ 1935년에 UFO 외계인에 의한 피랍을 묘사한 그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UFO 이야기가 널리 퍼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은 UFO 피랍이 과거부터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신 분들은 UFO가 다가오자 많은 남녀들이 자신들을 태워 달라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광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화 ‘콘택트’의 여자 주인공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이 UFO와 접촉을 하려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들에 의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마귀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사령관 마귀와 더불어 영원토록 불 호수에 갇혀 고통받을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둘째로, 스트리버는 자신이 신음하며 큰 소리로 자신을 잡아간 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 나는 사람이야!”라고 외치자 UFO 외계인들의 지도자인 그 여성 이쉬타르가 매우 냉정하게 반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심장부를 찌르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이쉬타르는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무섭고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 관한 한, 그는 판사요, 배심원이요, 고문자요, 법 집행자입니다. 참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스트리버처럼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의 불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 1965년 7월 1일 프랑스의 로리스 마쓰가 만난 UFO와 외계인

## UFO와 삼각형의 표

스트리버의 UFO 납치 경험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버는 깨어난 후 자신의 손에 어떤 표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날에 일어났을 때 나는 왼손에 두개의 조그만 삼각형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며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두 개의 삼각형 중 큰 것은 매우 깊이 새겨졌으며 마치 실력 좋은 외과 의사가 수술한 것 같이 내 피부 밑에 이식되었다. 그리고 매우 조그만 다른 삼각형은 큰 삼각형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무슨 일을 행했고 나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 후에 나는 단지 그들이 나를 길들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시다시피 삼각형은 사탄의 심벌입니다. 삼각형 심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뉴에이지 추종자 스트리버가 루시퍼 입교식을 통해 루시퍼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각형은 뉴에이지 사탄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벌입니다. 뉴에이지 사교 단체나 조직 혹은 뉴에이지 추종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는 삼각형 심벌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삼각형이 지닌 불길하고 신비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상징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가로서 「초기 인류의 표적과 상징」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을 저술한 처치워드(Albert Churchward)는 삼각형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삼각형이 피라미드의 원형이었으며 매우 신성한 상징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피라미드가 하늘의 피라미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각형은 하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의 신화에서는 슈라는 이름의 신이 처음에 삼각형의 형태로 땅에서부터 하늘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삼각형의 세 꼭짓점은 수트와 슈 그리고 호루스, 즉 삼위일체 신을 의미한다.<sup>2)</sup>

---

2) 피라미드는 4각형의 토대에 측면은 3각형을 이루며 각 측면이 한 정점에서 만나 방추형을 이루도록 돌이나 벽돌 등을 쌓아 만든 구조물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국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자의 쿠푸, 카프레, 멘카우레 파라오의 피라미드이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BC 5세기)는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주전 2000-2500년경에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축되었다고 전한다.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6m 높이로 19세기 말까지는 인류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대피라미드의 네 변 길이는 모두 230m 정도이다. 평균 2.5t의 무게와 어른 키만 한 돌로 이렇게 길게 받침을 세우려면 아무래도 각 변의 길이가 달라질 터이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값의 차이가 날 뿐 거의 비슷하다. 또 각 밑변이 각각 동서남북을 가리고 있고 밑변의 각 모서리가 90도를 이루는데 이것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의 여신 숭배자들에게는 삼각형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성삼위일체를 모방하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삼위일체 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결국 오시리스는 아버지 신이 되었고 이시스는 어머니 여신 그리고 호루스는 그들의 아들 신이 되었습니다.

삼각형은 힌두교도들에게도 매우 거룩한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역시 바빌론의 여신 숭배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 백과사전 연구자인 워커(Barbara Walker)는 고대 힌두교도들과 이집트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 여신을 숭배했으며 그 여신의 신성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여성 삼각형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삼각형은 칼리 안트라로 알려졌으며 여성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집트에서는 삼각형이 여자를 의미하는 상형 문자이며 그것을 힌두스탄(인도)으로 가지고 온 집시들 사이에서도 삼각형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그리스 알파벳의 델타는 거룩한 문 곧 어머니 델타의 생식기를 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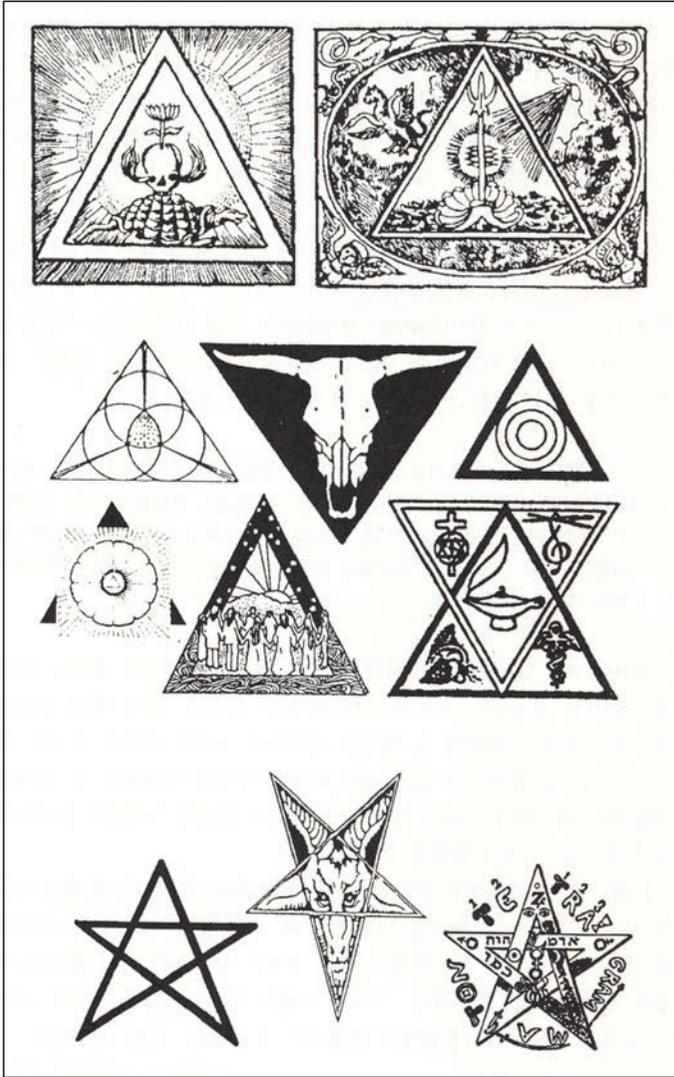
워커에 따르면, 삼각형은 바빌론 신비 종교, 즉 여신을 섬기는 종교 체제에서 늘 발견되는 공통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현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대하며 그 의미를 새기듯이, 고대의 바빌론 종교를 추종하던 이들도 삼각형에 대해 그와 비슷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워커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형이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의 어미’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의 저 악명 높은 블라바츠키는 오늘날의 유명한 뉴에이지 그룹인 루시스 트러스트, 벤자민 크립의 타라 센터 등의 기원이 된 신지학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계시된 이시스」라는 책에서 삼각형이 지닌 종교적 의미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고대의 힌두교도들이 옛날에 신들이 우주를 만들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아움(aum, 혹은 음)이라는 단어를

---

역시 무시할 정도로 오차가 작다. 현대의 건축학자들은 이런 정밀도를 가진 거대한 건물을 짓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밑변 하나의 길이를 높이로 나눈 값은 1.57이다. 이것은 원주율(3.1416)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면 피라미드의 건축 과정은 더욱 복잡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왔으며 피라미드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가서 ‘Ancient Aliens: Great Pyramid's Shocking Precision’, ‘Ancient Aliens: Engineering Mystery Behind the Great Pyramid’로 검색하면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신비들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노아의 대홍수 때의 천사들의 타락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금으로 된 삼각형에 새겨 신전에 갖다 놓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전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높은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삼각형과 이 세상이 새겨진 반지를 껴다고 합니다.



▲ 뉴에이지의 삼각형 심벌

##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는 표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의 예언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FO에 납치된 스트리버의 경우에는 짐승의 표의 전조가 될지도 모를 신비한 표가 삼각형으로 손잔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환난기의 짐승의 표가 삼각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트리버가 UFO에 납치되어 신비한 표를 받았다는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의 짐승의 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UFO는 마귀들이 들끓게 될 대환난기와 크게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처럼 뉴에이지 추종자가 마귀로부터 루시퍼 전수 의식의 표를 받는 것은 다음에 있는 이야기처럼 매우 흔한 일입니다.

리처드가 흥분이 된 채로 방에 들어오자 모두들 그를 쳐다보았다. 문이 닫히고 그 청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일곱 명이 둥근 원을 그리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를 쳐다보자 리처드의 얼굴에는 갑자기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리처드가 표를 받을 차례였다.

“리처드, 우리가 여기에서 만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로서 네게 수행하려는 의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매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다... 다시 말해 네가 받은 이름에 대한 것 말이다. 우리 형제 화이트 박사가 곧 그것이 네 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큰 공포가 리처드를 사로잡았다. 그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다. “리처드, 그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참아야만 한다. 주께서 네게 주신 이름이 네 피부 속에 이식될 것이다... 또한 상처가 난 세포 조직에는 색이 칠해져 네 평생 동안 환하게 빛날 것이다.”

그 청년은 칼이 자기를 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잘 참았다... 그는 무척이나 땀을 많이 흘렸다... 그 고통은 엄청났다. 다리 밑으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더 신경질을 냈다. 마침내 지도자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예언에 따라 오늘 해야만 할 일들은 다했다. 이제 리처드 너는 다윗의 열쇠를 소유해라. 그것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권위를 줄 것이다. 네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도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다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는 결코 제가 꾸며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역시 뉴에이지 추종자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최후의 보루」(*The ultimate frontier*)라는 뉴에이지 베스트셀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뉴에이지 추종자만이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에이지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신의 계획의 일부로 사탄이 남녀노소에게 주기 위해 표를 준비해 왔음을 성경은 확실히 보여 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계 13:16-17).

어떻게 표를 받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표’(mark)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카라그마’(charagma)에서 왔으며 이 명사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새겨진 형상이나 도장’ 등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인 조디아테스 박사(Dr. Spiro Zodhiates)는 짐승의 표가 언급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표는 말 그대로 몸속에 무엇인가를 조각해 넣거나 부식시켜 새겨 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새겨진 표는 숨겨질 수 없으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사람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들어 컴퓨터용 소형 마이크로칩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런 소형 장치에 숫자와 다른 정보를 입력한 뒤 피부 바로 밑에 이식시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백화점의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가 짐승의 표에 대한 전조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손이나 이마에 레이저 바코드가 새겨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런 기술이 UFO 외계인들이 전해 주는 검은 기술 중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스트리버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UFO 외계인들은 조그만 전자칩 같은 것을 세포 이식 조직으로 사용하며, 실제로 이런 조그만 조직이나 전자칩 등을 사람의 코나 귀 혹은 심지어 사타구니 부근에 이식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식시킨 것들은 그 크기가 조그만 핀의 머리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렇게 이식된 것은 동그란 모양이나 실린더 모양의 조그만 쇠붙이

이거나 혹은 작은 씨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애완용 짐승의 피부에 송신기를 이식하는 것 같은 기술보다 더 진보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사람이 자의로 받는 것이며 따라서 명백히 죄가 됩니다. 외계인들이 이식한 표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는 단지 UFO 납치 시 피랍자가 표를 받는다는 것이 대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외계인들이 이런 조그만 장치를 이식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치 우리가 소나 양 혹은 개를 분류하기 위해 꼬리표를 붙이듯이 자신들의 후예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뒤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2. 지구상의 깊은 곳에 (아마도 드림랜드 같은) 숨겨진 중앙 컴퓨터가 보내는 부호나 충격을 받아들이는 송신기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레이들은 어떤 가족들을 삼대나 사대까지 번식시켰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가 다 납치를 당해 이상한 우주선에서 인공 수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그레이들은 어떤 가족을 유심히 살펴보며 온 가족을 부화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결혼도 주선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람의 신경계에 심어 놓은 매우 정교한 전자 장치가 뇌파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페인의 델가도 박사(Dr. Jose Delgado)는 이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성난 소의 뇌 안에 심어 놓은 조그만 수신기에 라디오 전파를 보내 소가 제자리에 정지하도록 하는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쥐의 뇌 속에 있는 '기쁨을 느끼는 곳'에 전극을 붙여 놓았습니다. 단추만 누르면 이 불쌍한 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기뻐서 꺽충꺽충 뛰곤 했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그 쥐는 신호에 따라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델가도 박사는 동물에게 처음으로 중독 현상을 가져다 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자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와 비슷한 송수신기를 이식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온순해진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참 흥미 있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델가도 박사의 실험에 반대하는 대중의 항의가 너무나 커서 결국 그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사람의 기본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과학계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하 세계의 문 뒤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뇌분이 같은 것들은 젊은이들 안에서 매우 강력한 신경 조절 효소 — 이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임 — 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작은 장치들은 뇌가 만들어 내는 PEA 같은 강력한 각성제와 DHEA 같은 호르몬을 내게 할 것입니다. PEA는 보통 의사들이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마다 즉시 자기가 보는 여성이나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호르몬의 어머니라 불리는 DHEA는 특히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크게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매력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 자신도 매력 있게 만듭니다.

이런 각성제나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집의 조라는 청년은 갑자기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집의 제인에게 매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뱀의 ‘형제애 UFO 그룹’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두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 두 집안의 피가 섞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와 제인은 갑작스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자기들의 뇌 속에 있는 컴퓨터 송수신기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뇌 속에서 신경 화학물이 흘러나오므로 상대방에게 홀리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아드레날린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핏속에 분비시켜 공포감이나 편집증 같은 것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살하게 할 수도 있고 최면에 들게 해서 무의식중에 폭탄을 설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우주의 외계인들이 방송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무대에 나와 세계 평화를 약속하는 어떤 세계적 지도자 —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 에게 매료되어 전적으로 맹목적인 충성을

약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도자는 비행접시를 타고 임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피할 도리가 없이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장치들은 그것들이 어디에 심겼는지 밝혀지기 전에는 결코 X선 등에 의해 잡히지 않습니다. 만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런 일에 착수했다면, 아마 이미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작은 장치들을 체내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공포에 떨며 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가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강하며 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악한 때가 오리라고 그분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슈네벨린)는 이미 이런 장치들을 몸에 지닌 사람들과 상대해 왔으며 늘 똑같은 방법으로 상담해 줍니다. “주님께 기도드려 그런 장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영혼을 구원하실진대 분명히 그분은 그 조그만 전자 기생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들은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자기들이 그런 장치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의 피부가 조그맣게 부어오르며 얼마 후 그 장치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장치가 몸 밖으로 나오며 아침에 목욕하는 중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심에 대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 표는 분명히 ‘짐승의 형상’을 대표하며 대환난기에 그것을 받는 이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 14:9-11).

한편 휴거를 받지 못하고 대환난기에 들어가 복음을 깨닫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이들은 새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죽게 됩니다.

또 그가 그 짐승[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13:15).

비록 어떤 이가 뉴에이지 사원이나 배도한 교회에 가는 것을 피해 산속이나 외딴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로잡혀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하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계13:7)

물론 독자께서 확실히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조그만 장치 등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다 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전에 모두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갑니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물론 정부나 방송 매체의 지도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된 당신의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인들이 당신을 비행접시에 태워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데려갔고 나중에 새 세계 질서에서 무난히 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으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휴거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는 UFO 신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이 실상은 우리의 구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사실은 매우 무기력하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독자께서 아직도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자신의 운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UFO 납치 요약

스트리버 열풍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한 바를 정리하면 UFO 납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길에 있는 차나 고립된 농장 혹은 숲속같이 대개 고립된 장소에서 UFO가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침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2. 납치당하는 사람들은 마치 진정제를 맞은 사람들처럼 되어 외계인들에게 복종한 채 위로 붕 뜨게 하는 광선을 쬐고는 이상한 비행체에 탑승하게 된다.
3. 위에서 그레이 등으로 표현된 외계인들이 그들을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다룬다.
4. 대개의 경우 외계인들이 매우 이상한 기술로 그리고 몹시 무서운 방법으로 피, 정액, 난자 및 다른 체액을 취한다.
5. 외계인 승무원들은 특히 납치된 사람의 생식 기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납치된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6. 납치된 사람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 동안에 종종 비행선 내의 이상한 벌집같이 생긴 방에 갇히며 그 비행선 내에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말한다.
7. 승무원들은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것을 통해 의사를 교환한다.
8. 종종 외계인들은 납치된 사람의 몸에 매우 작은 전자칩 같은 것을 심는다. 주로 귀나 코의 바랍이 지나는 곳 등에 이런 것을 심는다.
9. 대개 UFO 피랍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이 지상에서는 단지 몇 시간이나 하루 이를 정도가 지났으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거의 없다.
10. 승무원들은 납치당한 사람의 기억을 지워 버리고 납치한 장소 근처에다 그 사람을 놓고는 가 버린다.
11. 이렇게 납치된 사람은 이상하게 생긴 상처나 혹은 나쁜 기억, 가위눌림 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전혀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12. 자신들이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들 중 몇몇은 어떤 신경성 임신을 보고하곤 한다. 실제로 이들은 임신한 여자가 보이는 각종 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증세들이 신비스럽게 없어진다.
13. 어떤 여자들은 수개월간 아이를 임신했다가 출산했는데 의료진들이 아이를 훔쳐 갔다고 주장한다.
14.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여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15.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발표하면 어김없이 검은색 캐딜락을 탄 무서운 검은 옷의 사나이들(MIB)이 그들에게 다가와 마치 UFO 출현을 보고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들을 위협한다.

이처럼 무서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자기들에게 UFO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대부분은 정신적 안정을 잃은 사람들의 주장이며 “나도 그렇다.”라는 UFO 납치 신드롬에서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섭고 아픈 일들을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같은 UFO 납치 현상은 미래에 사탄이 이루게 될 계획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UFO 납치는 사탄의 최종 작전인가?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이상하고 두려운 현상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이 주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UFO 납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보고서나 진술이 사실이라면 — 최소한 몇 가지라도 — 심지어 1950년대에도 외계인들의 주요 목표는 납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 DNA와 사람의 DNA를 가진 자기들의 후예를 생산해 내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외계인들이 사람과 외계인의 잡종들을 수백 명이나 만들어 냈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런 잡종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한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혹시 인간이나 짐승 복제를 시도하는 과학자들에게 UFO 외계인들이 자기들의 복제 기술을 전수시켜 주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토마스 에디슨 같은 유명한 발명가 역시 접신자로서 블라바츠키가 창설한 신지학 협회의 회원이었고 죽은 자들과 접촉하여 영계로부터 아이디어를 전수받으려 했다는 것은 이미 신비주의 내부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와 비슷한 아주 놀라운 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슈네벨린)가 수행하고 있는 ‘With One Accord’라는 복음 전파 사역은 오랫동안 사탄주의와 사탄주의 의식을 통한 학대(SRA

현상)로부터 살아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백 명의 생존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자기들이 크리스천인데 현재 UFO 납치로 인한 시련을 겪거나 이미 겪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SRA 현상’과 UFO 납치 현상, 즉 ‘CE4 현상’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우 비슷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대개 과거에 가위놀림이나 어떤 숨겨진 염려, 공포, 무질서하게 먹는 것,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2.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무서운 것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최면이나 견디기 힘든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3.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는 남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4.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악한 사람들(혹은 존재들)에 의해 강간을 당했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임신했다고 주장한다.
5.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표나 상처를 지니고 있다.
6.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자기들 안에 무엇인가 작은 것이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7.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자기들의 자녀나 혹은 태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8.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의 피를 취해 갔고 억지로 피나 다른 체액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9.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힘이 많은 남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10. 이 두 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해 온 것 같다.

물론 이외에도 이 두 경우 모두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심리학자나 심리 치료사들, 학계의 학자들 그리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 — 심지어 교회 등 — 에 의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 미리 세뇌당한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에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현상 속에는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현상은 그것을 경험하는 본인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곧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객관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SRA 그룹’과 ‘CE4 그룹’ 가운데서 확실히 착각 현상에 빠진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희생자들은 자기들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이처럼 자신이 심한 침해나 학대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현상에서 어떤 유전학적 실험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사탄주의자들이 반신반인 같은 어떤 존재를 낳기를 매우 열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나 타락한 천사들과의 가증한 성교를 통해 사람의 유전 체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노아의 날들’이 다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 예비된 군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아이들을 충분히 많이 키워 놓는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이기고 하늘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이야 어찌 됐든 바로 이것이야말로 현재 그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주의자들은 이처럼 혼혈 잡종 아이들이 더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더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응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2억이나 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심리학 전쟁의 명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는 심리학의 명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것을 창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SRA 현상’이나 ‘CE4 현상’ 같은 무서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크게 사기가 꺾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귀는 ‘영적 테러’라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클라호마주의

폭탄 테러로 인해 모든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사기가 꺾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SRA 현상'이나 'CE4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 심지어 교회의 신도들에게도 — 교회가 풀이 꺾여 더 이상 영혼 구원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CE4 현상'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스트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패티 허스트는 납치를 당했으나 결국 자기를 잡아간 자들과 사랑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은행에서 돈을 터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최소한 이것은 그녀의 변호사가 주장한 바입니다). 그 이후로 심리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인질로 오랫동안 잡히면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을 동정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UFO 현상 중 CE4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UFO에 납치를 당해 비행접시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 심지어 매우 어려서부터 — 결국에는 우주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접촉하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다루어 본 하버드 대학의 심리 치료 박사인 맥 박사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와 자기들을 납치하고 자기들 신체의 가장 예민한 곳에 매우 예리한 도구들을 꽂아 놓는 이상한 난쟁이 우주인들을 결국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두 개의 인격체(즉 사람과 우주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들이 매우 지혜로운 외계인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중 인격체를 좋아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우주인들을 찬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크리스천 작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외계인에 대해 전하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뉴에이지 복음으로 다음과 같은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1. 세계 평화나 무장 해제를 주장한다.
2. 세상이 거대한 영적 변화를 겪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 아니며 우주의 형제들 중 하나로 인류의 진화를 돕기 위해 보내어졌다.
4. 죄나 지옥의 저주 등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5. 성경의 진리나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다 뒤로 후퇴하는 자들로 인간의 진화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다.
6.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연을 숭배하라고 가르친다(즉 환경 복음을 전함).
7. 다섯째 경우와는 상치가 되는 것으로 인간의 진화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만 하며 그래야만 지구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일곱째 주장에 대해 많은 크리스천 전문가들은 크리스천들이 휴거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귀에 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귀에 들린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무당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조금 바꾸면 마귀(devil)가 ‘디몬’(daemon 혹은 demon)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귀 중에서 ‘선한 마귀’ 혹은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다 악합니다. 그러나 디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디몬, 즉 ‘daemon’에는 악한 종류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자신에게 지식을 전해 주는 ‘선한 수호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에이지 추종자들에게는 이 ‘daemon’이라는 존재가 외계인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의 비밀을 아는 안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몬이 자기에게 들러붙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기술적으로 마귀 대신에 디몬이 들러붙는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매혹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번역자들은 뉴에이지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devils)을 다 ‘디몬들’(demons)로 대체해 버렸습니다.<sup>3)</sup>

---

3) ‘우리말큰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낫’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 온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개역성경은 마귀들을 모두 귀신들로 번역하여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누가복음 9, 16장 참조). 즉 죽은 사람의 낫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일은 그 일에서 그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를 막으려 합니다.

1. 크리스천의 사기를 꺾음
2. 어른과 아이에게 고통을 줌(이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
3.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마귀 들리게 하여 그들을 통해 거짓 복음을 전함

마귀가 UFO에 납치하는 사람들이나 그가 만들어 내는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분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른 계획과 마찬가지로 UFO와 외계인을 이용한 그의 뉴에이지 계획도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 UFO와 말세의 표적들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주제인 UFO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여 성경의 조명하에서 분석해 봅시다. 이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을지도 모를 생명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 크리스천 사상가인 C. S. 루이스가 자신의 3부작 「페레란드라」(*Perelandra*)에서 소설 형식으로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1)</sup>

만일 다른 세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해, 아담의 죄가 지구에 사는 그의 후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

1) C. S.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신비주의에 빠져 살았다. 다음은 <위키백과>에 수록된 내용이다. 루이스는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지만 로마 카톨릭 신자인 톨킨과 다른 친구들의 영향으로 30세 때인 1929년 성공회 신앙을 받아들여 성공회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판타지 「반지의 제왕」 저자인 톨킨과 우정을 유지했다. 소년 시절 루이스는 사람을 닮은 동물을 매우 좋아했고 비트릭 포터 이야기에 빠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직접 동물 이야기를 상상해서 글로 쓰기도 하였다. 루이스는 형 워니와 함께 동물들이 다스리는 '복선 세계'를 창작하기도 했다. 루이스가 십 대 소년일 때, '노던니스'(Northernness)라는 스칸디나비아 고전 문학의 시나 전설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전설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루이스는 '기쁨'(joy)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십 대 때 쓴 글은 복선 이야기로부터 멀어졌고, 북유럽 신화나 자연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담은 서사시나 오페라 같은 다른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커크패트릭에게 배우면서 그리스 문학과 신화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논쟁과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다분히 성경과는 거리가 먼 신화와 전설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C. S. 루이스를 경계해야만 한다.

혹은 각각의 세계가 그 나름대로의 창조와 시험의 주기를 거칠까요? 각각의 세계마다 아담과 이브를 닮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만일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갈보리의 피가 과연 그들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여 어느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자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복음을 다른 세계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우리는 외계인으로 간주되는 이 존재들이 참으로 어느 세계에서 왔는지, 즉 그들이 우주 공간에서 왔는지 혹은 땅속에서 왔는지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들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출처에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전한다(갈1:8).

그들은 비밀리에 일하며 이것은 주님과 초대 교회가 행하던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사람의 권리와 위엄을 침해해 가면서 매우 무서운 일을 자행한다. 예를 들자면 강간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 납치, 신체 절단, 심지어 살인이나 식인 등을 행한다.

셋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예언합니다(마24:37). 이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 간의 음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입니다(창6:1-5).

넷째, 또한 성경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못할 정도로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줍니다.

다섯째, 모든 세대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심각한 죄는 바로 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창9:4; 레3:17; 7:26; 17:14; 행15:29).

여섯째,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합니다(마12:40).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다음의 것들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 이후로 혹은 그 이전부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상하게 생기고

키가 작은 존재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주로 지하로).

2. 또한 하늘에는 늘 이상한 비행체가 날아다녔습니다.
3.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지하 세계에 이상한 문명이 있으며 이 문명은 대개 비행체나 사라진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 문명은 지구의 모든 대륙에 다 있습니다.
4. 이런 존재들과 그들의 비행체 그리고 신비주의 현상, 검은 마술을 행하던 자들 — 예를 들어 블라바츠키, 크로울리, 러브크래프트 등 —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5. 핵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전부터 —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정부 내의 비밀 조직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은 주로 미국과 구소련, 독일의 제3제국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주로 이상한 비행체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6. 어떤 진보된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존재들은 지구의 시민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물로 삼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 정액, 난자, 심지어 태아 등을 취해 갔고 또한 수많은 소들의 사지를 절단했습니다.
7.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존재들과 사람들 사이의 혼혈 잡종을 탄생시키려는 일관된 시도가 있어 왔으며 과학계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8. 이런 존재들과 그들이 조종하는 비행체는 지구로부터 많은 양의 물과 전기를 취해 가는 것 같습니다.

### UFO 현상에 대한 결론

자,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그리고 마귀를 위해 일했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저(슈네벨린)는 이 모든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음을 부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UFO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UFO 출현이 다 거짓이며 오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이네크(J. Allen Hynek)는 UFO 출현 중 최소한 5% 정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UFO를 보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사실 그 5%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UFO 현상이 실재라는 것은 ‘비행접시’가 실제의 자동차처럼

너트와 볼트로 이루어진 기계라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UFO는 사실 반사된 빛이나 상상 속에서 꾸며 낸 것 혹은 마귀가 출현한 것 등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출현한 UFO가 실제의 기계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UFO 기술이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 기술보다 적어도 몇 세대는 앞선 기술입니다. 라자르(Bob Lazar) 같이 자신이 이런 비행체에 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외계인들은 행성 간의 여행을 위해 전자기장이나 중력과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늘에서 우리의 제트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빨리 날며 중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분명히 미국 및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단지 비밀 조직 내에 속한 사람들만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전에 ‘검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슈넬벨린)처럼 사탄주의에 깊게 빠졌던 사람들은 일반 대중보다 1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이런 기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담뱃갑보다 더 작은 컴퓨터를 들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와 그 이후의 미국이 어떤 큰 비밀을 유지하려 했으며 또한 무엇인가에 미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기술이 생기게 된 배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셋째 추정과는 정반대가 되지만 미국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비밀에 대해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마제스틱 12’ 위원회와 국가 안전 기획부 그리고 CIA 등의 고급 비밀 조직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며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방법에는 불법으로 마약이나 무기를 거래하는 것 그리고 달이나 화성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안전 기획부, CIA, 육군 및 해군 정보부 등은 오랫동안 검은 마술을 실험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페이퍼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을 통해 빼내 온 독일 과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CIA는 카톨릭교도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육군 정보부 일에 관여해 온 아퀴노 중령(Michael Aquino)은 큰 능력을 소유한 사탄주의자로서 ‘셋의 사원’이라는 단체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나 유아 학대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여전히 최고로 엄격한 신원 조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몰몬교도들이 CIA나 FBI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중요한 조직체 안에는 몰몬교도들 및 프리메이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몰몬교도들과 프리메이슨 그리고 사탄주의자들은 헌법보다도 자신들의 비밀 종교에 더 충성을 합니다. 또한 몰몬교도들과 프리메이슨 그리고 사탄주의자들은 그들의 역사적 기원에서 UFO 출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슈네벨린)가 몰몬교도로 충성을 바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속한 그룹의 많은 사람이 실제로 UFO에 거의 미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 UFO 외계인의 정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또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세상 끝에는 하늘에 표적들과 이적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우리는 UFO 출현과 UFO 납치 현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참된 표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 면에서 UFO 현상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나 짐승의 표와 관련 있는 컴퓨터 마이크로칩 기술의 도래 등과 같이 세상의 끝이 왔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작가나 복음 선포자들이 이스라엘의 기적이거나 사람을 표시하고 사람을 추적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 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염려를 표명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눈앞에서 ‘노아의 날들’의 표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전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런 고도의 장치나 장비에 의해 희생물이 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선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지옥이 가져다주는 형벌 중 천국이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심리학자나 세속 상담자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뒤에 구원받은 영혼을 치료해야 합니다.

### 2. 마귀는 실존하며 매우 능력이 크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흠치고

죽이려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속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이들은 심리학 같은 진득진득한 거미줄에 걸려 고생만 죽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려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 3. 천사들도 실존하며 매우 능력이 크다.

천사들은 마치 우리가 부활하여 갖게 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전15:50; 엡6:12). 그들은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몸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처럼 영원토록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 수준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혹은 더 정확하게는 마25:41에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그 능력이 심히 커서 마치 우리가 벌레보다 힘이 센 것처럼 타락한 마귀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그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 4. 선택받은 천사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결코 호텔에서 문을 열어 주는 벨보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후광을 지닌 연약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결코 여자 천사란 없습니다. 천사는 모두 남자입니다. 물론 하트 모양을 하고 꽃을 들고 오는 핑크빛 천사도 없습니다. 사실 천사들은 참으로 두려울 정도의 능력이 많은 존재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성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런 천사를 찾아보려 하거나 이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천사라면 결코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중에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현재 대중 매체와 뉴에이지 서적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천사는 거짓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소개하는 천사는 로마 카톨릭교회나 조로아스터교, 혹은 신비주의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 5.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들은 선한 천사들만큼이나 능력이 뛰어나며 선한 천사들이 소유한 모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초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생명을 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은 시들게 되고 죽고 맙니다. 이들이 소유했던 영광은 곧 추악함으로 변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선과 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들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 마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기 위해 잠시 동안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때 저(슈네벨린)는 신비주의에 폭 빠진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저의 경험에 비추어 UFO 외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을 유혹하여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마22:30).
2. 여자들에 대한 욕정을 채우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몸에 없는 것, 즉 사람의 피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의 핏속에는 아담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을 부패시키는 것은 피이며 죄를 짓기 전의 아담과 이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피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몸에 죄가 들어갔고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피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2:23).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타락한 천사들이 창조자의 법을 어기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람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들은 성적으로 남자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되면 그들은 천사로서의 불멸성과 권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4. 그들이 여자들을 통해 낳은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이상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괴물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인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존재들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5.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지성만은 잃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각종 더러운 생각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여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로 우주선 등을 만듭니다. 아마도 이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술을 축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만일 또다시 전 세계적 홍수가 생긴다면 달이나 다른 별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6.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들은 곧장 지하 세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에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1940년대 이후에는 그들의 비행선 개발에 어떤 특이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7. 지난 역사를 통해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악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위협하는 음모 조직의 진원지였습니다. 20세기에 이들은 가장 사악한 부류인 나치 지도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들은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정보부와 국가 안전 기획부, ‘마제스틱 12’ 등의 비밀 조직 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8.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오래 살게 하면 할수록 이들은 점점 더 추해집니다. 물론 이들의 후예들도 점점 더 괴물처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 이런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자께서도 그리하시야만 합니다. — 저는 가끔씩 나타나는 랩탈리안 외계인들이 타락한 천사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의 1세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행접시 우주인들은 ‘뱀의 형제들’이라 불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레이들은 가슴에 날개 달린 뱀이 있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 중 변형된 존재들로 신분이나 지위에서 급이 떨어지는 이류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어찌면 이들은 천사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난 잡종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임이므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따라서 그 법칙을 깨는 것은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처럼 다 불임입니다. 즉 후대를 낳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징은 그레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레이들의 경우에는 오직 복제를 통해서만 대를 잇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희생자들로부터 사람의 DNA, 정액, 난자 등을 빼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그들이 대를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들에 의하면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없고 로봇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렘틸리안을 위해 죽도록 일만 하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블론드나 노르딕은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면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 중 잘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창세기 6장의 강력한 자들 혹은 유명한 자들이 이런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인가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교배를 통해 대부분 좋지 못한 것이 나오며 가끔씩만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면 이들은 타락한 지 얼마 안 되는 천사들로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아직 다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외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노르딕 중에서 여성처럼 보이는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며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후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르딕은 마치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프라임 디렉티브’ 같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이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UFO 조사자들이 노르딕들을 좋은 존재로 분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로 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사탄이 조종하는 형제에 단체들은 나쁜 녀석들을 혼내 주는 좋은 친구들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유명한 헤겔의 명제와 반명제 그리고

합일의 변증술입니다. 이 경우에 당신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는 그것에 대한 거짓 해법을 제시하고 그 뒤 혼동이 다 안정되면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UFO 출현이나 UFO 납치 중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 사탄의 군대를 늘이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UFO 외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정부 내의 비밀 단체들에게 자기들이 개발한 검은 기술을 양도하며 그 대가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취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과 역사의 증거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지하 기지를 만들고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물과 피

앞에서 우리는 UFO들이 종종 물과 전기를 얻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발전소나 해양 위에서 UFO가 출현하며 또한 그것들로 인해 큰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비행접시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엔진과 라디오까지 꺼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UFO가 물을 취해 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이들은 외계인들이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물과 전기를 쓴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 안에 수소가 있으며 이 수소가 좋은 연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탄의 비밀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 저(슈네벨린)는 그들이 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그 피야말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줍니다(엡1:7). 그런데 저는 종종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이들이 과연 그 피 안에 들어있는 권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독자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하나님의 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가 바로 생명일진대(레17:11)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피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이 피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피에 관한 것이며(출4:9)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것입니다(요2:1-9). 포도즙 역시 붉은색이며 주의 만찬의 잔이 의미하듯이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해 마른땅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출4:9).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주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요2:7-9)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천사들이 —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조차 — 보기를 갈망하는 신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종들은 예수님의 핏속에 있다고 믿는 큰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그분의 몸에서 흘러내려 단지 갈보리산의 흙 속에 묻혀 버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능은 너무나 엄청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화강암이나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땅이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때부터 그분의 피는 이 지구의 모든 분자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는 마치 대륙과 암반과 강과 태양을 넘어 마치 구원을 가져다주는 염료처럼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이 땅의 물 사이에는 어떤 특별하며 신비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4).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상형이시니 이는 상형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요일5:6).

땅에(땅 안에, in earth)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요일5:8).

다시 한 번 마지막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땅 안에’(in earth)가 있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같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온 땅을 가득 채웠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 어떤 미신적인 혹은 마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땅의 물에 손만 대도 그 물에까지 들어온 그분의 피를 접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물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 외계인들 — 혹은 타락한 천사들 — 이 이 땅에 오려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물을 취함으로써 그분의 핏속에 있는 어떤 능력(눅6:19) 등을 소유하려 합니다. 사실 물이야말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중 예수님의 피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그 피가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광우병!

자, 이제 소들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피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이번에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피를 먹고 산다고 증언합니다. 그레이들의 피는 녹색을 띤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 즉 귀족이나 왕은 파란색 피를 갖고 있다는 것과 좀 통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고대 역사를 보면 신성을 띤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신성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신들의 본성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그들은 신들이 낳은 자식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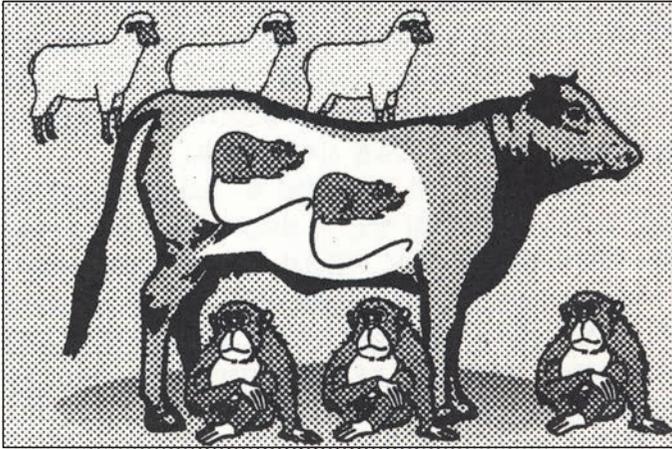
만일 이런 신들이 외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피는 분명히 파란색이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사실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왕가의 어떤 비정상적인 특징, 예를 들자면 혈우병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은 ‘외계인’ 혹은 타락한 천사의 염색체로 인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 입이나 배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들이 피를 담은 통에 손을 넣고는 마치 스펀지처럼 피를 쪽 빨아들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레이들의 이런 특징과 소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소의 피를 취해 그것을 변화시켜 사람의 피 혹은 최소한 사람의 피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만들어 수혈이나 혈장 수혈에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외계인들은 이미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외계인들은 지금 소의 피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피를 갖고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도 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들이 때죽음당하는 것만큼 사람이 죽는다면 그리고 그 시체 안에서 피가 다 제거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를 죽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레이들 그리고 소 사이에는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사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며 황소의 얼굴을 가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겔28:14). 우상 숭배는 일종의 영적인 광우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의 교만에 빠지면 치명적인 영적 광우병에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소 사이의 어떤 친밀성 때문에 UFO나 사탄주의 세계에서는 소의 피나 장기 혹은 성기 등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국가가 소를 떠받드니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외계인들은 소에서 취한 DNA를 이용하여 혼혈 잡종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 인간 복제

한편 최근 들어 사람들은 소를 이용하여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광우병, 인간 복제

인간 복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영국에서 복제 양 돌리가 출현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지 1년여 만에 미국 과학자들이 암소의 난자를 이용, 영장류를 포함한 5종의 동물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인간 복제 논란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지난 19일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태아이식학회에서 암소의 미수정란(난자)에 △양 △붉은털 원숭이 △돼지 △쥐 △소 등의 체세포를 이중 교배 기술로 이식시켜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암소가 여타 동물들의 대리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팀은 이 실험에서 암소가 임신에는 성공했으나 모두 유산됐으며 △이것이 단순히 기술상의 미숙 때문인지 △아니면 이 같은 동물의 탄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면 동물 복제를 통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위스콘신 대학의 실험 결과는 지난해 돌리를 탄생시킨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의 실험 방법, 즉 성숙한 난자를 이용한 복제술이 실현 가능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 복제 실험은 성숙한 난자 세포가 아닌, 배아 또는 태아 세포를 이용해 왔다. 즉 동종 간에 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서로 다른 종을 혼합시킨 암소의 수정란이 임신에 성공, 포유류 복제 실험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생식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실험 결과 난자의 세포질 내에서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분자 구성이 모든 포유류 동물에서 대부분 유사할지 모른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성숙한 포유류 동물 암컷이 대리모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 같은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유전자 조작은 언젠가는 인간을 포함, 동물의 필요한 장기를 주문 생산하는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한편 일본 농림 수산성 축산 시험장은 20일 소의 체세포에서 핵 이식한 난자를 암소 자궁에 넣어 복제 소를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식품 의약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 복제 시도는 이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세계일보 1998년 1월 21일).

물론 소 외에도 다른 포유동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소가 먼저 선택되었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광우병 현상과 더불어 참으로 큰 의미를 줍니다. 인간 복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난 수 세기 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것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람들의 혼합 결혼과 소위 유전학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엄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다른 이교도들과 혼합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찮은 것까지도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농업 전문가들이 꾸준히 수행해 온 것, 즉 서로 다른 씨를 함께 뿌리거나 잡종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신22:9). 물론 우리는 이 같은 잡종 교배가 씨의 형질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교배되지 않은 원래의 씨의 형질이 가뭄이나 병에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명을 황소와 나귀에 씌워 경작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신22:10).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공평하지 못한 명을 함께 지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섞인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신22:11). 물론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예표이며 사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위 현대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대신에 다윈의 진화를 선택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진리를 알기 원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 로마 카톨릭 수도승인 멘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획득 형질’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천천히, 자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으며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갑작스레 나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멘델은 다윈과 혁슬리 같은 진화론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멘델의 법칙을 무시하고는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종적이며 성적인 특성들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다중 결합물’인 RNA와 DNA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창조자가 되기 원하며 사람과 짐승을 섞거나 혹은 유전 코드를 조작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유전 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인간 복제나 혹은 휴머노이드의 생산이 아닙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UFO 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런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입니다.

1998년 1월 5일자 중앙일보는 미국의 미래 의학자 제프리 피셔의 글을 이용하여 앞으로 10-15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였습니다.

1. 유전자 조작으로 재능을 갖춘 아기 출산
2. 창조성, 자신감 등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약 등장
3. 약물을 뇌 속 목적 부위에 전달하는 방법 개발
4. IC(집적 회로)를 생체 세포와 결합, 하이브리드 인공 지능 개발
5. 약으로 유전자 치료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전술을 사용하여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완전히 이루어져 자유자재로 사람을 복제하고 사람과 짐승 간의 잡종 돌연변이를 생산해 내는 바로 그날, 사람은 드디어 스스로 창조자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온 세계를 뉴에이지, 단일 세계 정부 밑으로 끌고 들어가 온 세계의 시민들을 전자 기술, 마약, 짐승의 표, 전자기파, 유전자 조작, 고문 및 사형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1-17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UFO를 만난 뒤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고백한 스트리버처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위협을 느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은 마치 땅 위에 있는 지옥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죽음처럼 조용히 누워 내부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침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나 강렬했고 무서웠다(스트리버의 「트랜스포메이션」, 192쪽).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에 지구 밖에서 외계인들(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왔으며, 이들은 사람과 짐승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섞었고 그 결과 인류의 파멸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서 그 ‘노아의 날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독자 여러분,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이런 사악한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휴거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시 한 번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UFO에 대한 결론

### UFO와 외계인에 대한 총결론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에게 무어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근거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바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롱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결코 다음의 결론을 믿지 않을 것이며 현대 신학교 교수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실행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 같은 결론을 믿을 것입니다.

1. UFO는 실제로 존재하며 수십 세기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다.
2. UFO의 승무원들은 몸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마귀들이 현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주에서 온 우주인이 아니다.
3. 또한 UFO에 늘 상주하는 존재들로는 짐승 돌연변이들이 있으며 이들은 뛰어난 지성을 지닌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경우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창세기 6장 참조).
4. 위의 2, 3번 경우에, UFO에 타고 있는 존재들 중 어느 것도 45만 년 전이나 10만 년 전 혹은 만 년 전에 지구상에 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대학을 다녀서 진화론을 배웠다는 것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5. UFO에 상주하는 존재들은 모양과 능력 면에서 다양하다.
6. 이들의 선조들은 '신들'로 불렸으며, 지난 3,000여 년간 그리스, 로마, 독일, 영국, 잉카, 마야, 이집트, 아즈텍, 힌두, 중국 및 한국 등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의 고대 신화에 그 흔적을 남겼다.

7. 이들은 범신론자들로서 자신들의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 아주 묘하며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위장술을 사용했다. 이들은 유물론이라는 그리스 철학을 따라 온 우주가 최고의 신이라고 주장해 왔고 우주의 영원성 등에 대해 말해 왔다. 또한 지금까지 이들은 자기들이 ‘신들’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거부해 왔으며 단순히 자신들은 사람을 창조한 위대한 존재들로서 사람의 성장 및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8.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생존을 위해 행성을 찾고 있지 않으며 ‘빙하 시대’ 때문에 어떤 행성을 떠나 본 적도 없다. 이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다음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롬3:4). 1880년 이후에 무려 120개나 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근거한 ‘부패된 현대 번역판 성경들’이 나왔지만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이 구절을 삭제하지는 못했다.
9. 이처럼 부패한 돌연변이 잡종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남으려 한다. 이들이 현재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유는 이들의 계획이 ‘범죄 규제’나 ‘총기 규제’ 혹은 인류를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제어해서 종으로 부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이들의 목표는 절대 권세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신들’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11. 주전 3000년부터 주후 2000년 사이에 이 땅에서 발생한 매우 이상한 일들은 대부분 이 존재들과 관련이 있다.
12. 이들의 대부분은 ‘노아의 날들’ 곧 주전 4000년에서 2500년경에 나타났다.
13. 이 존재들 중 어느 것도 창조자 하나님은 아니며 예레미야기 10장 11절 말씀에 따라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 박멸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에서 멸망하겠고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렘 10:11).
14. 이 사실은 7년 환난기에 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갈1:8-10)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실 이 천사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름이 아니고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며 바로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이기

때문이다(계14:6-7).

15. 이 같은 유물론적 진화론자들, 즉 돌연변이들, 외계인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등의 도덕적, 영적 특성은 바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구원받지 못한 무신론자들’이나 히틀러의 ‘제3제국’을 이끌고 간 진화론자들의 특성과 같다. 실제로 이들은 엄청난 살인자들이요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16. 성경에 보면, 살인자들에게는 그들의 아비라 불리는 창조자 사탄 마귀가 있으며 사실 그야말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
17. 현재 외계인들의 계획은 매우 단순하다. 즉 잠시 동안 땅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 지하 세계 등에 거하고 있으며 결코 우주의 다른 공간이나 별에 거하지 않는다. 물론 우주여행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때까지 지하 세계에 숨어 있다.
18. 마침내 휴거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수천만의 사람들을 X 행성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뉴에이지에서 새 세계 질서에 적당하지 않으며 둘째로 다른 우주 공간 개척이 시작되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19. 이제 이들이 지하에서 위로 올라올 때가 되었다. 이제 모든 비밀이 알려졌으며 이들의 창조자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UFO 시나리오의 전모이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전12:13-14).

### UFO와 외계인에 대한 대책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도 UFO 신드롬 혹은 UFO 출현에 신경을 쓰며 거기에 미쳐야 할까요?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같이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UFO나 적그리스도를 고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에 눈을 돌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대해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고후 2:11). 특히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뉴에이지나 UFO 신비주의에 빠진 경우 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의 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도의 지식과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땅에 속한 그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며 그래서 천국 다음에는 미국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 세대 동안에는 참으로 사악한 자들이 큰 권력을 휘두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는 교회로서 자신들이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깔보며 주변에 있는 소위 크리스천 치료사라는 심리학자들에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목사들과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소년/소녀의 성적 학대나 사탄주의 의식 등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비웃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라고 그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명의 여자 아이 중 하나가 19세가 되기 전에 성적으로 농락을 당합니다. 아마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의 가정보다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키가 작은 그레이들에 의해 납치되어 몸 검색을 받거나 강간을 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등을 돌려야 합니까? 저들을 마약이나 최면술 치료 센터 같은 곳에 보내야 합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UFO와 관련된 ‘CE4 현상’은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UFO 출현 보고 중 상당수가 잘못 본 것이거나 사기이며 특히 오늘날처럼 이상한 비디오를 들고 가면 여러 가지 토크 쇼에서 큰돈을 받는다는 현실 속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FO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증언 중 상당수가 남을 흉내

낸 것이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심지어는 문하우센 신드롬(Munchausen syndrome)<sup>1)</sup>이기도 합니다. 이 신드롬은 사람들이 진짜로 경험을 일으키며 육체적 혹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작가들은 UFO가 비밀 그룹이나 정부가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하늘에 레이저 광선의 형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UFO가 마귀가 만들어 내는 어떤 착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UFO 납치란 어떤 고도의 기술로 그 본색을 유지하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UFO 출현과 UFO 납치 사건 중에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그런 일을 설명할 수 없으며 대개의 경우 그것은 또한 매우 사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무려 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UFO나 외계인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중 단지 5%만이 진짜라고 해도 그 수치는 무려 2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며 웬만한 크기의 도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거듭나서 참으로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다 없어지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슈네빌린)는 여러 명의 성숙하고 훌륭한 크리스천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UFO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롱을 당할까 봐 교회나 목사님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과학만능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두 가지 이단 교리의 희생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교리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살아 있는 자들의 휴거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도 자기들이 괴짜로 낙인이 찍힐까 봐 감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들도 자기

---

1) 병이 없는데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를 일삼는 정신 질환

양 때의 번영보다는 이 세상의 평가를 더 사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UFO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며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UFO가 여러 면에서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신비한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교회에 UFO 납치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우주인 형제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그들이 참으로 좋은 존재라고 선전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과 외계인(실제로는 내계인임)이 전하는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사람의 죄나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언젠가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바는 우주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뉴에이지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성경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곧 오심을 보여 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어 휴거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는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공공연하게 그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공중으로 올라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일단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즉 지하 기지, 조그만 전자칩 혹은 송수신기, UFO 납치 등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마치 살아 있는 지옥과 같이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덮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며 머리에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탄주의 의식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나 UFO 납치를 당한 사람들 중 휴거 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전례가 없었던 무서운 사탄의 군대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 실제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간에 — 은 마치 영적인 화산처럼 일순간에 터져 버릴 것입니다. 식인, 사탄주의, 성폭행, 짐승과의 교접, 미치는 것, 마약 사용, 기아, 재앙, 집단 대학살 등과 같은 사악한 일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침입자들'이 가져오는 뉴에이지 복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외계인이 누구이든 혹은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그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 자유 등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연 당신은 이런 외계인들, 그들의 상관들, '뱀의 자녀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에 잠시라도 거하고 싶습니까?

한편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UFO 현상에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먼저 당신은 당신의 영적 집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나 그의 그레이 군사들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조그만 장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혹은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현상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에 대한 현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마귀들의 왕인 사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UFO 현상과 관련된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혹은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매우 사악한 인간들 같은 존재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당신의 집에 들어온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다서 9절과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대치하셨을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말할 수 있던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듯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경멸하는 듯한 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롬13:7).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감싸 주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살후2:1-11)

우리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며 UFO 외계인들이 자기들을 방문한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환각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이 UFO 우주인 납치 같은 것을 경험한다면, 실제로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자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마귀의 출입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이나 시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UFO 납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포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희생자가 이런 공포에 굴복하게 되면 오랫동안 마귀의 희생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즉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즉 서로 교제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신이 UFO 납치 같은 가위눌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좀 더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경험이 가져오는 불안이나 공포가 줄어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시련을 통해 당신이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분의 권능에 복종하게 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UFO 납치가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위에서 기술한 것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신의 능력이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하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권능이 당신 위에 임할 수 있습니다(고후 12:9).

사실 이런 경험들은 다른 형태의 박해와 거의 같습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딤후3:1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격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마6:13).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내부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사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외계인이라 부르는 존재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계인들에 의한 UFO 납치 등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집에 강도가 들거나 아이들을 납치당한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욥기; 히12:8 참조).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잘 참아 내면 주님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2:19-21).

어떤 이들에겐 이런 고난이 선교지에서 죽는 일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겐 갑자기 집에 불이 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든 아니면 생각 속에서든, 외계인들의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고후4:17).

우리의 기도와 싸움이 우리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UFO나 외계인들과 관련된 것들을 추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움을 보여 주는 표적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 자극을 받고 고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매우 큰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은 독자께서 아직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이 모든 사악함이 활개를 치는 무서운 세상에서 환난 기간 중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으면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행이나 업적을 통해 영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엡2:8-9). 영생은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롬6:23). 단지 예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삼 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께서는 이제 귀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려면 반드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1. 당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롬3:23).
2. 죄들을 인정하고 이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눅13:5).
3.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롬10:9-10).

4.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들로부터 당신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롬10:13).
5.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롬12:1-2).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살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고전2:9-16).





## 영의 세계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에 팽배한 물질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 보여 주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데는 단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늘에는 모두 영적 존재만 있으며 그들은 두 종류, 즉 좋은 존재와 악한 존재로 나뉩니다. 그들은 스랍, 그룹, 천사들(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 권력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사악한 영들(엡6:12), 왕좌들, 통치자들(골1:16), 타락한 천사들(벧후2:4), 옥에 있는 영들(벧전3:18-20), 마귀들, 유혹하는 영들(딤후4:1) 등으로 구분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듯이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능하지는 못합니다(살후1:7). 그들은 힘이 매우 강해서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5,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던 무덤에서 큰 돌을 굴러 냈고 장래에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사탄을 결박해서 바다없는 구덩이(무저갱)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눅9:26)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영들이며(히1:13-14),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살후1:7-8). 장래에 이 천사들은 세상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마24:31)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 줄 것입니다(왕상19:4-8; 마4:11).

영적 세계의 권력들과 권능들 가운데는 뛰어난 존재들이 셋 있습니다.

### 1. 미가엘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세 번 언급되고 있으며(단10:13, 21; 12:1) 다니엘

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불립니다. 그는 또한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주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하며 하늘에서부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계12:7-9). 그는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언급된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부활에 대해 경합을 벌였으며(유9),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들리게 될 천사장의 음성이 바로 미가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그가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천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확실합니다.

## 2.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성경에 이름과 함께 네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27절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알려 주었고, 초림의 때가 되자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려 주었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 주었습니다(눅1:19, 26-27). 그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서 그의 지위가 매우 높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3. 사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이 셋 중 가장 지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큰 자입니다. 다만 그의 사악한 성품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할 뿐입니다. 그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무정부 상태나 반역의 근원입니다. 사탄에 관해서는 다음 장을 보기 바랍니다.

###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두 개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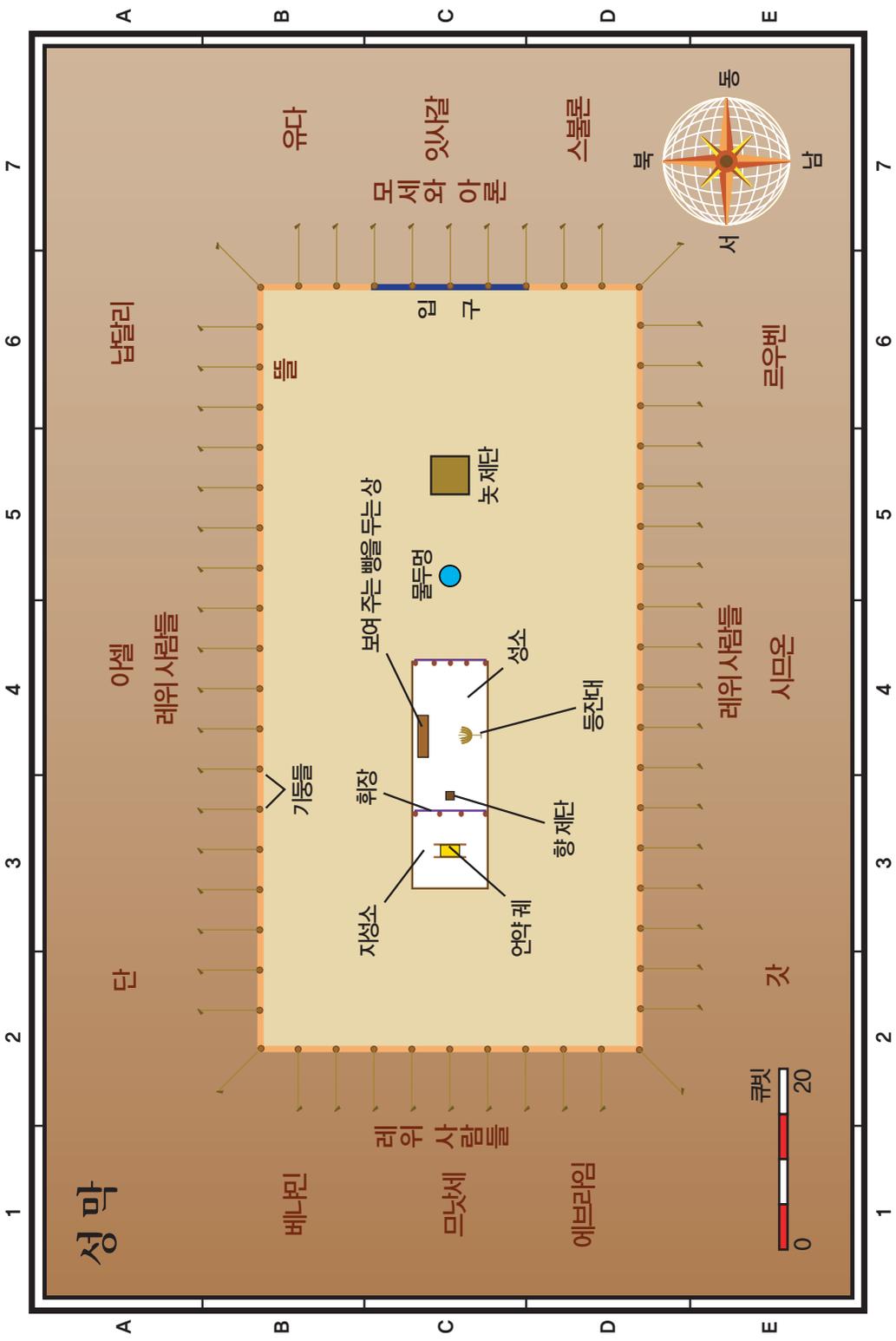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밖에 있는 뜰에 의해 둘러싸였고 이 뜰은 막으로 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성막> 선도(344쪽)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하나의 길이는 다른 하나의 길이의 두 배이며 그 사이에 베일, 즉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 중 큰 것은 거룩한 곳, 즉 성소라 불렸으며 밖에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커튼이 쳐져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는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과 분향 제단 그리고 일곱 개의 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소로부터 지성소, 즉 두 방 중 작은 방에 들어가려면 두 방을 나누는 커튼인 베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세카이나 영광' 중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 방은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라 불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출입구는 성소에 이르는 문, 즉 커튼으로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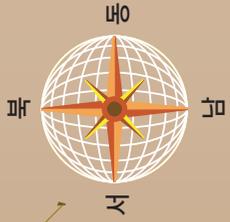
이 같은 성막과 그 주변의 뜰은 사람의 세 요소를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뜰은 몸을 나타내고 성소는 혼을 나타내며 지성소는 영을 나타냅니다. 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뜰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오직 혼을 통해서만 영과 몸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지성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의 본질 중의 영의 방을 소유하시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새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남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세 요소> 선도(345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원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고 중간의 원은 혼을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은 사람의 영을 나타냅니다. 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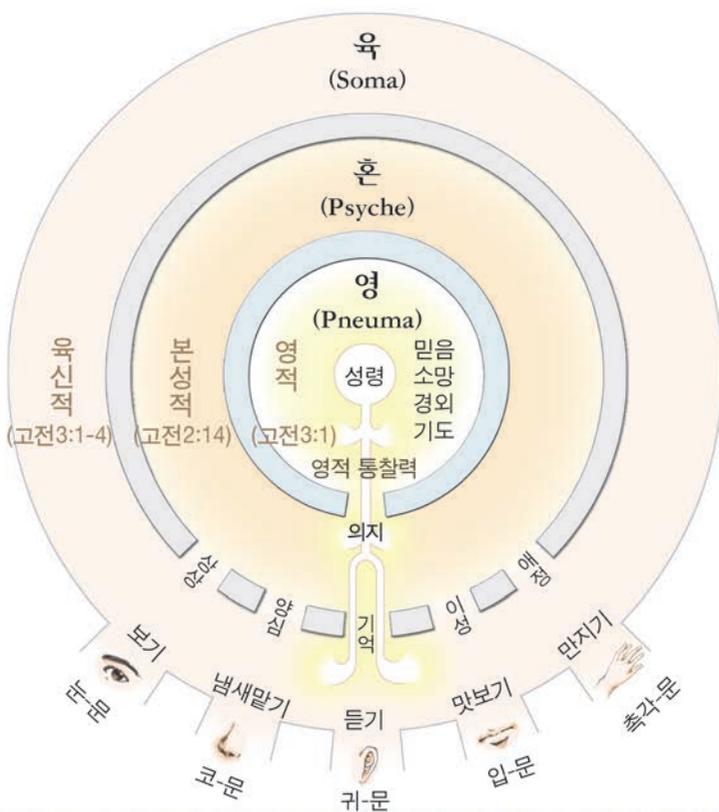


# 성막

<성막>



#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것(고전3:1-3), 본성적인 것(고전2:14) 그리고 영적인 것(고전3: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원을 보면 몸이 다섯 가지 감각, 즉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등을 통해 물질세계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에 이르는 문에는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등이 있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영이 갖고 있는 영적 기능은 믿음, 소망, 경외심, 기도, 경배 등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죄가 영의 창문을 막아 버렸고 커튼을 내림으로써 영의 방은 죽음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sup>1)</sup>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영의 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 즉 생명과 빛을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자연인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인은 그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될 때까지 결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영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몸은 무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결코 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고 '혼적인 몸'(soul-ish body)이라 불리는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혼적인 몸은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으므로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몸은 형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몸은 완전치 못하여 어떤 제약이 있긴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인이 부활 때에 자신이 원래 소유했던 육적인 몸을 다시 얻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혼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비유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에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묘사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 이것은 자연인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 산 사람 중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몸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들의 육적인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사로가 몸이 없었다면 그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 몸이 육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적인 몸은 땅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의 그의 몸은 ‘혼적인 몸’(soulish body)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혼적인 몸’이 단순히 어떤 형태를 지닌 몸이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형태나 모습 면에서 그 몸의 소유주가 땅에서 갖고 있던 육적인 몸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 세상에서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보고 느끼고 목말라하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그가 감각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사실은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갈 때에 제칠일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것, 즉 ‘혼이 잠자는 것’ 등과 같은 어떤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이 쓰일 때 그것은 항상 몸을 가리키며 결코 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과 혼이 몸을 떠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지하 세계> 선도(349쪽)를 보기 바랍니다. 지하 세계는 낙원과 지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사람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깊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sup>2)</sup> 이같이 깊이 갈라진 틈의 밑에는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 혹은 아부쓰스(아비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악한 영들이 갇혀 있습니

2) 원래 지옥, 즉 ‘Hell’은 넓은 의미로 ‘죽은 자가 가는 그늘진 곳’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 즉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갔다(삼상28:14, 19).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이므로 둘 다 죽어서 넓은 의미의 이 지옥, 즉 지하 세계로 갔다. 물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의인들을 위한 ‘안식하는 부분’(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을 위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다.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 시의 한 강도도 죽은 뒤 이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 부분으로 내려갔다(행2:27, 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하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그 거주민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의 지하 세계에는 ‘좁은 의미의 지옥’, 즉 형벌받는 장소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접하면 일단 지하 세계로 생각하되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십자가 사건 후의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은 최후의 지옥, 즉 계헨나라 불리는 불 호수(계20:14)가 아니다.

다. 그곳에는 이 구덩이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계9:11). 이 구덩이는 현재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으며 후에 자신이 원할 때에 천사를 시켜 그것을 여실 것입니다(계9:1-16; 17:8; 20:1-3).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의 영과 혼이 지하 세계의 낙원 부분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바로 그 낙원에서, ‘회개한 강도’를 만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리스도의 영과 혼은 지하 세계로부터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는 혼자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낙원에 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며 그곳을 달아 버렸고(엡4:7-10) 그래서 이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계1:18).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사람들 중 몇몇은 자기 몸을 받아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마27:52-53). 그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들려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고후 12:1-4).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의로운 자들의 혼은 바로 이곳으로 직접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고후5:8; 빌1:23). 바로 이곳에서 의로운 자들의 혼은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자신의 교회를 만나러 오실 때에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혼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잠든 자들’을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살전4:14). 그들은 땅에까지 와서 무덤에서 자기 몸을 받아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하 세계> 선도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악한 자들의 혼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 세계의 지옥에 갇혀 있으며 둘째 부활의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 때에 이들은 땅으로 돌아가 자기의 몸을 받고 곧장 흰 왕좌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심판 뒤에 그들은 둘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몸을 잃는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죽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들은 육적인 몸이 없는 영들로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최종 지옥인 계헨나, 즉 불 호수 속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과 혼은 불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의해 그 몸을 다시 잃은 뒤에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막9:43-48).

<지하 세계 선도>

현재 우리는 영적 강신술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신술 혹은 심령술은 사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레20:6, 27; 신18:10-11; 사8:19).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리는 영들’(familiar spirits) 혹은 ‘익숙한 영들’은 신약 시대의 마귀들이며 유혹하는 영들입니다.

## 심령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경고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심령술이 부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상형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4:1-3).

‘혼인을 금하고’라는 말은 독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의 폐기나 자유 결혼(혹은 연애) 등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을 삼가라’는 말은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하는 경우보다 영적인 힘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sup>3)</sup>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경고가 7절에 있는 말씀, 곧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이 꾸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슨 무슨 주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야말로 늙은 부녀가 꾸며 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천 사이언스<sup>4)</sup>의 주창자였던 에디

3) 힌두교도들과 승려들 그리고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채식만을 강조한다. 육식을 하면 진동 에너지가 나와 마귀와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 자아를 잃게 만들고 그 몸에 들어가 각종 신비한 일을 행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육의 건강을 위해 적당한 양의 고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딤후4:3).

4) 미국의 종교가 M. B. 에디 부인이 1866년에 창시하였다. 미국·영국 두 나라에 신봉자가 많다. 그들은 교의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하고 속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인간 정신·신·그리스도는 일체이며 이것이 존재하면 인간은 건강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 병이란 잘못된 주관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잘못을 제거하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이를 실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 같은 이론과 오늘날의 심리 요법 비슷한 방법으로써 신자를 놀려 나갔다(두산백과사전에서).

부인은 여러 번 결혼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늙은 부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녀들과 성경에 나오는 영매들 그리고 현시대의 영매들이 여자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브를 통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인들의 노심초사하는 성격이나 남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 마귀들의 계략에 조금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령술 혹은 마귀 숭배의 부활은 이 시대의 표적들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고 있고 사탄을 위한 일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중앙 정부는 바닥없는 구덩이에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부터 나아갑니다(계9:1-11). 마귀들이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눅8:26-33). 물론 이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8:29).

### 인간의 몸에 대한 마귀들의 권능

마귀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마9:32-33)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마12:22). 또 이들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고(눅8:26-35) 자살하게 할 수 있으며(막9:22)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고(막9:18) 사람에게 어떤 초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눅8:29) 몸의 변형이나 불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눅13:11-17).

마귀들의 포악한 성격은 자기들의 피해자들을 다루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자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롬6:13), 마귀들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딤후4:1),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벧후2:1). 피해자를 이같이 악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결과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 들린 남녀들의 행동은 마귀들이 그들을 소유하여 육적이며 성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 함을 보여 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복장이 건전치 못하며 사람들이 광란적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다 위의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종종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놓고 자유연애의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희생자를 제어하며 또 그 희생자의 마음과 몸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희생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이로써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는 혼과 몸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 들리는 것과 질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질은 당사자가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입에서 거품을 토하게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간질과 마귀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마4:24).

고린도전서 10장 20-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교도들의 숭배 의식의 배후에 마귀 숭배가 있음을 보여 주며 이들의 축제가 난장판이 되며 이들의 숭배 형식이 탐욕적이며 관능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미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즉 거룩한 성경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든지 부자든지 죽은 이후에 땅으로 다시 가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선한 자의 영이든 악한 자의 영이든 일단 죽으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령술 혹은 강신술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들을 방황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령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각이 어둡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들의 권능과 제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엡4:17-19).

## 사 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순한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그는 두루 다니며 울부짖고 또한 나중에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계20:1-3). 이런 일들은 악의 원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대적자, 용, 뱀 등과 같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 이름들 중 하나로 1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입니다.

### 1. 사탄의 기원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부터 불법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그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모두 금으로 뜯은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에덴을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에스겔서 28장 11-19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두로 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sup>1)</sup>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가졌던 원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12-20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sup>2)</sup>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새벽별들, 즉 그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창조된 ‘다른 다스리는 존재들’(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습니다(욥38:7).

여기에서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린 인물이 다시 4절에서는 바빌론 왕이라 불리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인물과 같은 바빌론 왕은 이제까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바빌론의 미래 왕을 묘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바빌론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시퍼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내주할 것이며 그때에 그는 바빌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사탄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1) 그러므로 앞뒤 문맥상 여기의 두로 왕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말씀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이 구절들은 사탄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며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은 그에게 넘겨졌습니다(눅4:6).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마4:8-9)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 II. 사탄의 현재 위치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 거론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묘사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암흑 속에 영원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욥이 살던 때의 관행이었다는 것과 사탄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욥1:7; 2:2). 사탄은 욥이 살던 때, 즉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와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 선도(357 쪽)를 보기 바랍니다.

### III. 사탄의 왕국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마12:25-26)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대언자 다니엘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가 3주 동안 그를 방해했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구하기 위해 옵니다(단10:10-14).

### IV. 사탄의 방법

#### 1.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요일5:19)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갈1:6-9). 이런 복음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딤후4:1).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벰후2:1-2).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前) 천년 재림’(Premillennial coming)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성경 주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세우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류가 치유받으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새로운 사교’ 등과 같은 거짓 체계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강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비주의나 강신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걱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웅대한 문명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서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회봉사를 통한 행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들에 돌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원초적 사역을 게을리하게 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지연하고 주님의 재림을 연기시켜서 바닥없는 구덩이 속에 갇힐 자신의 멸망을 늦추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 2.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읽을거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녀와 함께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씨, 즉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그 뒤 사탄은 바벨탑의 건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립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기 위해 갖은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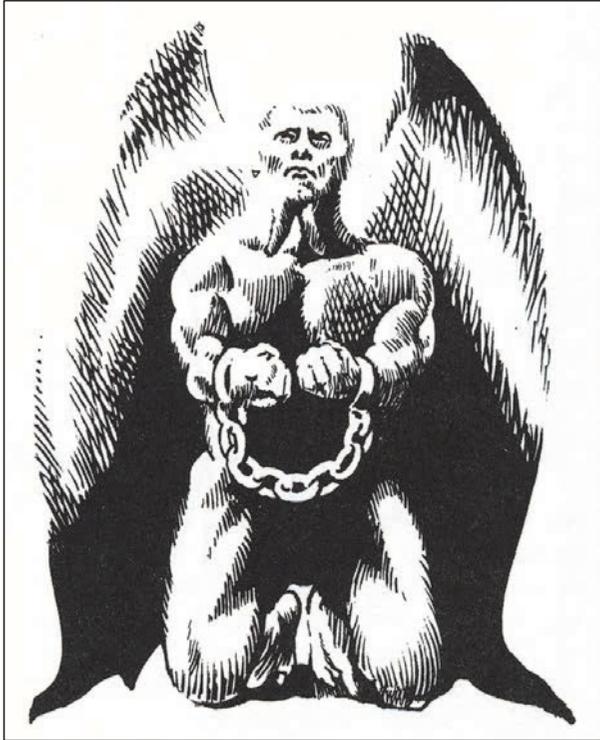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가 왔을 때 헤롯을 시켜 두 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기려 하고, 성전 꼭대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사렛 언덕 꼭대기에서 성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밀로 던져 버리려고 시도한 것과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싸움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가롯 유다가 자기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직전에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자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회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 V. 사탄의 운명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계12:9-12).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며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계13:2-8). 환난기의 끝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계20:1-3).

천 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 호수에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 (마25:41; 계20:7-10).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 천년 왕국 시대에 무저갱에 갇히는 사탄

## 사탄의 삼위일체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뒤에 다시 땅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계13:11-17). 비록 요한이 그 둘째 짐승을 어린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짐승은 마치 어린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린양처럼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그리스도)은 계시록에서 2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5장 6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어린양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이지 결코 두 뿔을 가진 어린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실 이 짐승은 어린양처럼 생겼지만 마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선도(363쪽)를 보기 바랍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세 번이나 거짓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계16:13; 19:20; 20:10). 세 번 중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과 두 번 함께 나오며 한 번은 사탄인 용 그리고 첫째 짐승과 함께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인격체인 것처럼 거짓 대언자도 인격체입니다. 그가 거짓 대언자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마24:24).

여기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짐승이 땅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력히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기에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에 대하여 사탄도 지하 세계로부터 두 인격체를 올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짐승(적그리스도)과 둘째 짐승(거짓 대언자)이 둘 다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들이며, 특히 첫째 짐승은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을 통치할 마지막 황제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초인간,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 낸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은 아버지 곧 사탄이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용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여 자기 아버지인 용으로부터 왕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용 아버지와 용 아들에게서 나와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영입니다.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 호수에 산 채로 던져진다는 사실(계20:10)은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그리스도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 세상의 왕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마4:8-10). 그는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살후2:4). 그러나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성령님을 흉내 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봉인된 것처럼(엡4:30)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의 날까지 거짓 대언자에 의해 봉인될 것입니다(계13:16-17).

거짓 대언자는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행10:38). 거짓 대언자가 행하는 이적 가운데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불 시험이 재현되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지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왕상18:17-40). 거짓 대언자에게 이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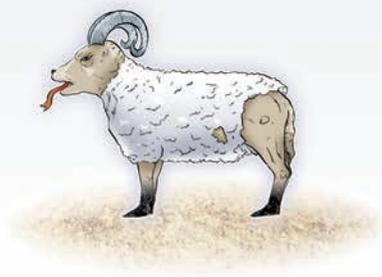
미가엘  
(단12:1;  
계12:7)



용  
대적하는 신  
(계12:7-17)

## 사탄의 삼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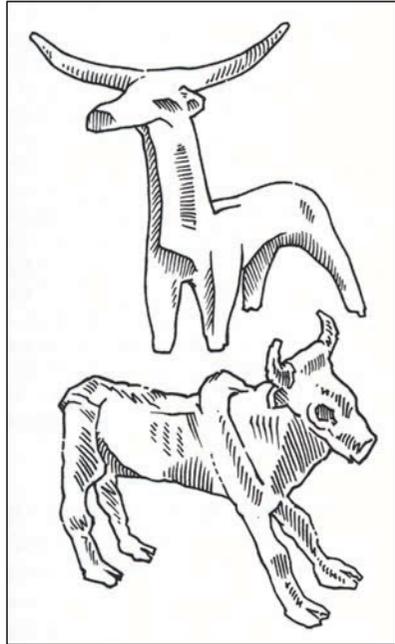
거짓 대언자  
대적하는 영  
(계13:11-17)



짐승  
대적하는 그리스도  
(계13:1-10)

사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욥기 1장 16절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대도 좋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욥의 양과 종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더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예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게 되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출32:1-6).



금송아지 우상들

마찬가지로 거짓 대언자도 사람들에게 경배의 목적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뒤 거짓 대언자는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형상은 살아 있어 말을 하는 인조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도록 명령하여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운 금 신상을 상기시켜 줍니다(단3:1-30).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 음악에 맞춰 신상에게 절을 해야 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적그리스도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히브리 소년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며,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입니다(계13:16-17). 이 표는 바로 지옥의 도장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한 천사(단3:28)

지금의 세상은 이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 종류의 신용 기관과 금융 연합체들이 하나의 신용 기관 연합체로 합병될 것이며 이 연합체의 우두머리는 금융계의 나폴레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신용 기관 연합체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의 우두머리로 앉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모두 이 악독한 문어의 발에 달린 흡입관 속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는 불로 낙인될 것이며 짐승의 숫자 곧 666이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로 완전한 7에서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의 예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른 골리앗은 그 키가 6큐빗이었으며 6개로 된 갑옷을 입었고 그의 창 무게는 600세겔이었습니다(삼상17:4-7). 짐승의 형상을 예표로 보여 주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은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이었고 6개의 악기가 경배하는 자들을 소집했습니다(단3:1-7).

환난기에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마나 오른손 안에 그 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표를 쓰며 서명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는 짐승의 표가 없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또한 남녀에게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형이라는 형벌하에서 감히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서 사거나 팔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표가 없이 사거나 팔 수 없다면 그들은 구걸을 하든지 굶든지 혹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사형 도구는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계20:4). 일간 신문에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사람들을 법에 복종하게 하려고 전날 목이 잘린 사람들의 명단이 실릴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환난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고 이와 동시에 사탄, 즉 대적하는 신은 바다없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1,000년 동안 거기서 지낼 것이고(계20:1-3), 짐승 곧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즉 대적하는 영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계19:20). 예녹과 엘리야 이 두 명의 선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 불리는 이 두 명의 악한 자들은 죽지 않고 불 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 UFO와 마리아 현현

우리는 이미 2부에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 ‘마리아 발현’이 ‘UFO 현상’과 매우 비슷하며 실제로 UFO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UFO 현상’으로 규정짓고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곳저곳에서 ‘마리아 출현’이 점점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로마 카톨릭 교황은 전 세계를 하나의 뉴에이지 종교 체제로 묶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UFO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놀라게 된 것은 천주교의 마리아 발현이 UFO 현상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몰몬교의 교주인 조셉 스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주교는 천주교이고 기독교는 그와는 다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부록에서 단지 저는 독자께서 참고하시도록 천주교의 ‘마리아 출현’이 ‘UFO 현상’이라는 것과 또한 그것이 매우 비성경적인 뉴에이지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앞부분에서는 국내의 저자가 출간한 「UFO 신드롬」이란 책에서 나오는 마리아 출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것입니다. 세속 연구가가 기술한 마리아 출현 부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요약이 잘되어 있어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UFO 신드롬」의 저자만이 유일하게 ‘마리아 출현’을 ‘UFO 현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읽어 본 여러 UFO 관련 서적의 저자들(모두 미국인들임) 역시 그것을 UFO 현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UFO 전문가들에게는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의 유래」(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뒷부분에서는 마리아 출현과 뉴에이지 커넥션에 대해 리플링거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의 동정녀 마리아 부분을 인용하려 하며 그 뒤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 가라반달에서의 마리아 출현

1980년대 일단의 영국 관광객들은 스페인의 가라반달에서 태양이 춤추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그 태양은 은빛 원반 형태였으며 자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둘레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을 발했다. 관광객들 사이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부는 그것이 UFO임에 틀림없다며 흥분해서 말했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은 그곳이 카톨릭 성지인 점을 상기시키며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종교적인 기적이라고 응수했다. 과연 그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UFO 연구가들에게는 금속성의 원반, 회전체, 오색찬란한 발광 등이 명백한 UFO 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것이 성모 마리아 현현 시의 기적에 해당한다. 이런 전통은 1917년 파티마의 성모 발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포르투갈의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파티마는 카톨릭 신자들의 순례지로 유명한 성지다. 왜 이곳이 성지가 됐을까? 왜 카톨릭교회의 기적과 UFO가 외형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UFO 신드롬은 기존의 종교적 기적과 심층적인 모티브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파티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사건이 UFO 신드롬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알아보자.

###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1916년 포르투갈은 제1차 세계 대전 참전과 반기독교적인 정부 수립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작은 시골 마을 파티마는 이랑곳없이 평온했다.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그 해 5월 어느 날 루치아, 프란시스코 그리고 히야신타라는 세 명의 어린이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폭풍우를 피할 장소를 찾고 있을 때 동쪽에서 이상한 둥근 빛 덩어리가 다가와 그들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지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투명한 미소년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천사’라고 밝히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세 아이들은 곧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빛나는 존재는 그 후에도 두 번 더 나타났으며, 세 번째 출현 이후로 세 아이들은 전보다 신중해지고 몸가짐도 조심하는 등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으려고 그 존재와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1917년 5월 13일, 여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던 세 아이들은 주변에 파란 오로라 같은 것이 생기고 갑자기 번갯불이 몇 차례 번쩍이는 것을 봤다. 그들은 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유사시에 비를 피하던 ‘코바 다 이리아’(Cova da Iria)로 급히 달려갔다. 여기서 그들은 0.9미터 정도 높이의 수풀 바로 위로 ‘빛나는 구’(光球)

가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빛나는 구’ 중앙에는 수심에 찬 얼굴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광구는 차차 커지기 시작하더니 1.5미터 정도 지름으로 주위를 에워쌌다. 그녀는 키가 1.1미터에 나이가 15세쯤 되어 보였다. 그 여인은 폭이 좁은 스커트와 재킷 그리고 망토를 걸치고 있었으며 손에는 둥근 물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 표정의 변화나 입술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간혹 손을 아래위로 움직였다. 세 아이들은 이 여성의 출현에 커다란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이 빛의 여인은 자신을 하늘나라에서 온 존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세 아이들에게 전쟁을 끝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지시한 후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월 13일마다 나타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걸음을 걷지 않고 무릎을 편 채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동쪽으로 동등 떠갔다. 이때 그쪽 나뭇가지 위로 바람 방향에 거슬러서 구름 덩어리가 다가오더니 그녀 위에서 깔때기 모양의 광선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구름도 지평선 저 멀리로 사라졌다.

세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으나 여섯 살인 히야신타가 그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발설하고 말았다. 프란시스코와 히야신타의 부모는 빛나는 여성이 사용했다는 어려운 어휘들을 이 남매들이 반복해서 말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들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루치아는 신경질적인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조롱과 질책을 면할 수 없었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세 아이들이 빛의 여성과 만나기로 한 날에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코바 다 이리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방해받는 것이 싫었으며 모여드는 군중들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세 번째 출현 날까지 몰려든 사람들은 2,500명이 넘었다. 세 아이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빛의 여인을 보거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벌이 붕붕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은 태양 빛이 이상스럽게 침침해지고 작은 나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에 의해서 놀리는 듯 가지 끝이 휘는 현상을 목격했다. 또 몇몇은 세 아이들이 황홀경에 빠져들어 갈 때 ‘작은 구름’이 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7월 13일에는 빛나는 여인이 10월 13일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늘에서 기적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서 곧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며 소련이 공산화되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것이란 예언을 했다. 그녀는 또한 오직 로마 교황에게만 알려야 할 이른바 ‘제3의 비밀’을 그 아이들에게 일러 주었다.

8월로 접어들면서 성모 현현에 대한 소문은 포르투갈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신문과 잡지들은 많은 지면을 이 광란적 현상에 할애했으며 다소 비꼬는 투의 논조를 견지했다. 하지만 카톨릭계 언론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즈음 히아신타는 전쟁에 대한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매스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비편적인 보도를 계속 해 뒀고 마침내 당국에서 이 논쟁에 끼어들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죄목으로 8월 11일 세 아이들을 재판받도록 했다. 루치아는 재판에서 질문에 불응했으며 관객들의 비웃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마침내 그녀와 나머지 두 소녀들은 성모의 ‘비밀 메시지’를 털어놓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됐다. 세 아이들은 성모와의 약속을 깨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빛의 여인과 네 번째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 당시 파티마의 시장이 아이들을 몰래 납치해 공갈 협박을 했다. 하지만 이들 세 명 모두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와중에서도 8월 13일 6,000명을 헤아리는 관중들이 ‘코바 다 이리아’에 모여들었다. 세 아이들이 없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낮게 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끝내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한 차례 번쩍하는 광선을 목격했고 작은 구름이 동쪽으로부터 다가와 상록수 꼭대기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9월 13일에도 40,000여 명의 사람들이 ‘코바 다 이리아’에 뻘뻘이 몰려들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공 모양의 번쩍이는 물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다가 갑자기 굉장한 빛을 내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9월 13일의 목격자들 중에는 카톨릭 사제들도 몇몇 끼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교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의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하였다. 이들 중에서 파레즈마(Joao Quaresma) 사제는 빛의 여인의 접근을 알리는 광구(光球)를 ‘천상의 수레’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각은 거기에 모였던 관중들도 똑같이 품고 있었으며 곧 포르투갈 국민들 사이에 ‘성모님의 빛나는 비행기’라는 표현이 유행하게 됐다.

### 파티마의 태양 기적

공중을 나는 신비로운 여인은 마지막으로 10월 13일 출현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될 이 놀라운 천녀(天女)의 ‘이피페니’(Epiphany; 신적 존재의 현현)를 보기 위해서 기자, 교수, 성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파티마로 몰려들었으며 정오 무렵에는 그 수가 70,000명에 이르렀다. 루치아와 그의 사촌들이 동쪽 하늘을 주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천상으로부터의 방문자는 이전처럼 빛과 함께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카라스케이라 나무 그루터기에 멈췄다. 이때도 루치아를 비롯한 세 아이들 눈에만 그녀가 보였을 뿐 거기에 모여든 관중들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날 그 여인은 루치아에게 성당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파티마 제3의 비밀’의 세세한 내용을 알려 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사리오의 부인’(Lady of Rosary, 즉 마리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파란 오로라에 싸여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동편 하늘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이때 루치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부지불식간에 태양을 보라고 소리쳤으며 70,000명의 관중의 눈앞에서 빛의 심포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짙은 잿빛 구름이 갑자기 흩어지면서 넓은 틈이 벌어졌고 여기로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소용돌이 같은 태양 빛이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태양은 모습을 바꾸어 마치 축을 중심으로 급히 돌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신비로운 원반 같았다. 이렇게 돌고 있는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한줄기 붉은 광선이 방사돼 지상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이 붉은 빛이 다시 보라, 파랑, 노랑, 그 밖의 무지개색으로 계속 변하면서 땅에 있는 물체들을 다양한 빛깔로 물들였다. 70,000명의 군중은 상기된 얼굴로 색색으로 빛을 발하며 돌고 있는 태양을 쳐다봤다. 놀랍게도 그들은 태양을 직접 바라봐도 아무런 고통이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 소용돌이치는 빛의 덩어리는 달과 비슷했지만 그 빛깔은 황금빛이라기보다는 흰색이나 은빛에 가까웠고 공처럼 생겼다가보다는 둥근 원반에 가까웠다. 그러나 달과 비교해 보면 이 원반은 빛깔이 달랐다. 탁하거나 광택이 없는 은빛이 아니라 몹시 강하고 밝게 빛났으며 뜨거운 열을 발산했다. 태양은 계속 2, 3분 동안 돌면서 여러 빛깔의 광선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서 회전을 멈추고 빛도 발하지 않으면서 구름이 열린 틈으로 흔들리며 떠돌았다. 이리다가 다시 빛의 파노라마를 연출하며 회전과 정지를 두 차례 더 반복했다. 마지막에는 서서히 하강하더니 갑자기 땅을 향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괴해 보였고 마치 실 잣는 물레 같았다. 그곳은 삼시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타는 듯한 열을 뿜으며 땅으로 떨어지는 태양을 보았다. 그것은 땅에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뜨거워졌다. 모든 사람이 세차게 다가오고 있는 이 녹아내리는 덩어리에 부딪쳐 깨지거나 타 버릴 것으로 생각했다. 공포와 고통의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으며, 군중들은 진흙땅에 무릎을 꿇었다. 태양의 광란적인 움직임이 있을 후 군중들 사이에서 탄원과 뉘우침의 눈물이 뺨에서 흘러내렸다. 모두들 공공연히 자신의 죄와 믿음을 고백하는 분위기였다. 도처에서 하늘을 향하여 성모 마리아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떨어지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강을 멈추고 다시 빠르게 지그재그식으로 하늘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움직임은 멈췄고 보통 때처럼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태양으로 바뀌었다. 태양이 정상적인 밝기를 되찾자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태양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코바 다 이리아’에 모인 무신론자, 회의론자, 진보적인 신문 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 흥분해서 이 현상에 대해 즉석에서 토론을 했다. 세부 사항을 묘사할 땐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났지만 태양의 회전과 하강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현상을 목격했음이 분명했다. 뻘뻘이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 속엔 놀라움, 흥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코바 다 이리아’를 중심으로 남북에 걸친 폭 70미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때 자신들의 옷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어느새 말라 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태양의 춤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사람의 몸은 젖어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떨어지는 태양의 강렬한 열기가 짧은 시간에 젖어 있는 옷을 말려 버린 것일까? 실제로 춤추는 태양으로부터 강한 열기를 받은 사람들도 이 영역에 밀집돼 있었다. 또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 치유가 일어났다고 보고됐다.

태양의 기적 현상은 10분 이상 계속되었으며 ‘코바 다 이리아’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리스본의 일간지 「오세쿨로」(O Seculo)의 편집자는 직접 이 사건을 취재했으며 ‘충격의 현상: 파티마의 하늘에서 태양이 어떻게 춤을 추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사로 송고했다.

파티마에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그것이 일종의 집단 환각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 병리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70,000여 명이 집단 환각이나 집단 최면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은 그것이 일종의 기상 현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파노라마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UFO에도 똑같이 제기되는 의문이다. 하늘이 갖가지 색깔로 채색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일종의 무지개 현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설이 제기된 적도 있다. 하지만 무지개는 정적인 현상이며 파티마에서처럼 여러 빛깔이 요동치듯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종의 오로라 현상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대낮에는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이 또한 적절한 답이 아니다.

### 성모 마리아 현현의 역사

성모 마리아 현현은 좀 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현상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1531년 스페인에 정복당한 후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당하던 멕시코의 원주민 마을 과달루페(Guadalupe)에서 한 아즈텍 인디언에게 광휘에 휩싸인 ‘사랑스러운 부인’의 출현이 세 번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생명을 주는 참된 하늘의 주인의 어머니’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모성적 사랑을 보여 준 그곳 테페야크 언덕에 성전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후안 디에고는 이 성스러운 부인의 힘으로 주교 앞에서 기적을 보여 줄 수 있었고, 그녀의 요청대로 성당이 세워졌다. 이것이 저 유명한 16세기의

멕시코 성지 ‘과달루페’ 성모 출현 이야기다.

1846년 가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살레뜨에서 십 대 중반의 두 목동들 눈앞에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났다. 이들 일자무식의 아이들에게 그녀는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했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지방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부인은 두 아이들에게 비밀 메시지를 말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교황 비오 2세에게 전해졌다. 그 여인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 말라붙은 개천 바닥을 건너 후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서서히 모습이 사라졌다. 성모 발현이 있던 다음날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바깥 말랐던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근방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장님들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들이 갑자기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라살레뜨는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성지가 됐다.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은 1858년 2월 프랑스의 루르드(Lourdes) 지방에서 일어났다. 당시 병약한 14세 소녀 베르나디트는 집 근처에 소재한 마사비엘 동굴 부근에서 모두 17번에 걸쳐서 광휘에 휩싸인 아름다운 부인의 환시를 체험했다. 그 부인은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종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르나디트의 이런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으며 결국 프랑스 전역에서 하나님과 동정녀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공개 토론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베르나디트는 마지막 환시 체험 중에 빛의 여인의 지시에 따라 언덕 아래를 밟더니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 샘물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다. 「루르드 연보」(Annales de Lourdes)는 1858-1914년까지 6,000여 건의 치유 사건과 주목할 만한 치유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결국 루르드의 기적 치유에 대한 소문은 꼬리를 물고 전 세계로 퍼져서 루르드는 오늘날 많은 순례자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성지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1879년 8월 21일 저녁 아일랜드 녹크(Knock) 성당 남쪽 벽에 아름다운 여인과 그녀 좌우에 서 있는 두 명의 성자 형체가 발현했다. 이 발현은 2시간가량 지속됐는데 15명이 동시에 목격하였다. 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비에 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녹크는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고 옛 성당 이외에 성모 현현을 기념하는 또 다른 대성당이 지어졌다. 루르드나 그 밖의 성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정밀히 검사하는 보건국도 설립됐다.

이런 성모 현현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대개 일자무식의 아이들에게 성모의 출현이 있다는 점, 순례 행렬과 함께 기적적인 치유와 지구의 종말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성모 현현은 실제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장소와 발현 횟수가 많았다. 특히, 12-15세기에 그 발현의 빈도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성모 발현은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다.

1932년 벨기에의 보랭(Beauraing)에서 약 30회에 걸쳐 5명의 아이들이 흰옷과 황금 면류관을 쓴 여인과 조우했다. 그녀는 황금 심장의 상징을 보여 줬다. 1949년에는 독일 헤롤드바흐(Heroldsbach)에서 4명의 아이들에게 성모가 나타났다. 그녀는 푸른 옷과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1961년에는 스페인의 가라반달에서 4명의 어린 소녀들 앞에 아름다운 천사와 성모가 나타났다. 1968년에는 이집트의 카이로 근교 자이탄 성당에 밝은 빛과 함께 성모가 물질화되어 사진에 찍혔다.

최근에도 성모 발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1981년 여름,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에서 양 떼를 돌보던 6명의 아이들이 성모를 만났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모 조우 광경을 봤을 때 그들은 황홀경에 빠진 채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응시하고 있었다. 메주고리예의 성모 발현은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사건 중에는 야간에 이상한 빛이 산모퉁이의 돌을 빨아올리는 장면도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린이들이 마치 무당이 신들린 듯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모가 출현한 언덕의 장소로 갈 때 가시덤불이 있는 험난한 곳을 별로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려 올라갔다.

성모와 대화를 나눈 어린이들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의 예언 중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류 종말에 대한 경고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최근 메주고리예는 가장 인기 있는 순례 성지의 하나가 됐다. 1989년 현재까지 이곳을 다녀간 순례자의 수는 1,1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20세기의 성모 발현도 예외 없이 아이들에게 발현하고 예언, 기적 치유 등을 보이는 전통적인 공통점들을 지닌다. 하지만 새로운 점은 대부분 발현에서 태양 원반의 출현이 보고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주 과학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적 전통이 강한 곳에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UFO가 나타나며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 주기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중략]

필자는 파티마와 그 밖의 카톨릭 성지에 나타나는 태양 기적을 UFO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은빛의 원반은 가장 많이 목격되는 대표적인 UFO 형태이다. 그리고 정지 시 무지갯빛 변광이라든가 고속 회전은 이러한 원반형 UFO의 목격 시에 종종 보고되는 현상이다. 낙엽처럼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특성도 원반형 UFO가 보여 주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오늘날 UFO 근접 시에 목격자들은 열기를 느끼며 가끔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한다. 파티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옷이 마를 정도의 강한 열을 체험했다... [중략]

하지만 파티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태양 기적은 순전히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은 이 현상을 살아 있는 신시현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양면

가치적 종교 체험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파티마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70,000 군중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며 이들이 보인 종교적 경외감은 아직도 신학자들이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듯하다.··· [중략]

엘우드스 특히 멕시코의 과달루페와 아일랜드의 녹크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루르드와 같은 곳에 가는 성지 순례자들과 UFO 접촉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순례 행렬이 몰리는 성지는 목동이나 어린 소녀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모가 출현한 것을 알림으로써 생겨난다. 성모 마리아는 이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에게 인류의 장래에 발생할 무시무시한 사건을 말해 준다. 또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후로의 행실이 바로잡히면 재난에서 구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성모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도 함께 명령받는데 종종 그 첫 번째 대상은 교회의 간부들이 되곤 한다. 성모와 통교한다는 약간의 또는 전무한 증거를 갖고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시도하나 맨 처음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특히 이러한 비난은 교회의 간부들로부터 쏟아진다. 하지만 중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를 믿게 되며 성모 출현이 일어났던 장소로 순례를 떠나게 된다. 이와 같은 순례지의 전설적인 속성은 맨 처음부터 명백하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교회로부터의 승인은 대개 순례지가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연후에나 이루어지곤 한다.”

UFO 접촉자의 이야기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공식을 따른다. 이 사건은 종종 유토피아로 묘사되는 타 행성으로부터 온 존재들이 정상적이고 특별히 의심 가는 점이 없는 사람들과 우연히 또는 치밀한 계획 아래 접촉을 갖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들 외계인들은 선택된 인간과 텔레파시 등으로 교신하고 그들의 우주선에 태워서 여행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주선과 우주여행에 대한 기술이 인간에게 설명된다. 그리고 그 인간은 노인 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방문자가 온 행성의 선진 문명에 대해서 배운다. 그는 또한 불평등, 전쟁, 핵 실험 등과 같은 인류와 인류 문명이 일구어 낸 실패작들 때문에 지구상에 곧 발생할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예언도 전달받는다. 외계인들은 타 행성의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핵 실험으로부터 방사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접촉자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이 임무의 성공 여부는 매우 중요하데, 만일 성공했을 경우 지구상의 생물은 파국적인 재난에서 벗어나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접촉자들은 그가 받은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강연회를 개최하며 책을 저술한다. 그들은 외계인을 만났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 성모 마리아 현현의 비밀: 아니마 원형과 대모신 원형

성모 발현에는 세세한 부분에 다소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 한결같이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왜 이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유사한 모습이 체험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일까?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UFO 근접 조우를 융의 집단적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 현현도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 아직도 UFO 근접 조우에 대해서 그 객관성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성모 출현은 분명히 선택된 조우자들이 정신적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즉 아름다운 여인의 체험에 관한 한 이 문제는 순전히 체험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는 상징적인 여성의 원형을 아니마(anima)라고 한다.··· 아니마는 고대 희랍 신화에서 인어, 반인반조의 바다요정, 나무요정, 고대 로마의 다이애나 여신, 중국의 달 여신 관음보살, 인도의 샷티(Shakti), 회교 국가에서 모하메드의 딸 파티마(Fatima)에 해당한다고 한다. 가리반달, 헤룰드바하, 파티마, 메주고리에에서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달을 상징하는 듯한 은빛 원반을 동반했다. 여기서의 보여 주기 게임에 동원된 상징적인 모습은 인류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아니마의 원형이었을까?

전형적인 성모 마리아 현시는 주로 아이들과의 공명 메커니즘을 이룬다. 라살레프, 루르드, 파티마에서도 그랬으며 메주고리에에서도 그랬다. 이런 공통점은 성모 체험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원형이 어머니 원형(The Mother Archetype)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어머니 원형은 우려와 연민 그리고 여성의 마력을 나타낸다. 도움과 다정함, 소중히 여김과 보살핌 그리고 성장과 풍요를 지켜 주는 모든 것이 이 원형과 결합돼 있다. 그런데 이 모성의 원형은 다른 원형들처럼 양면 가치적이며 부정적인 모성 원형은 사마귀와 결부돼 있다. 성모 마리아 숭배에 나타나는 여성은 아이들에게 연민과 우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인류를 파괴하려는 모든 것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고자 애를 쓰는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 성모 마리아 숭배와 고대 여신 숭배

성모 현현이 순전히 기독교적인 근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고등 종교의 기저에 잠재한 누멘적(Numen) 요소가 거기에 존재한다.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적인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성자, 성모 현현으로 공인된 사례들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교리에 맞지 않는 원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엿보인다.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성모 숭배 신앙이 안고 있는 딜레마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초기 기독교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없었다. 그런데 주후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 예배가 공식 교리로 채택되면서 그것은 카톨릭교회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당시 에베소에서 널리 숭배되고 있던 달 여신

다이애나를 기독교에 접목시킴으로써 교세를 쉽게 확장하려는 성직자들에 의해 마리아 숭배가 기형적 발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성모 신앙의 필요성은 비단 에베소 지역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어머니 여신 숭배가 근동 지역에서 보편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마땅한 대상을 마리아로 바꾸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종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과연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천상으로부터의 방문자들은 자신을 직접 성모 마리아로 자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우주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또는 성처녀라고 밝힌다.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 카톨릭교회에서 공인한 사례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14년 카톨릭교계에 의해 성모 발현으로 공인된 루르드의 베르나디트의 체험을 살펴보자. 베르나디트 앞에 나타났던 빛나는 여인은 결코 자신을 성모 마리아라고 밝히지 않았다. 두 번씩이나 계속된 신부의 질문에 대해서 성모를 상징하는 듯하나 ‘무염 시태’란 말로 대신했을 뿐 질문의 핵심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끝내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교계에서 성모 현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교계에서 루르드에서의 발현을 공인하게 된 것은 이미 수많은 신도들의 순례 행렬과 기적 치유에 의해 성지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왜 루르드에 나타난 존재는 보다 명료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1925년 성모 발현으로 공인된 파티마에서의 경우에도 3명의 아이들 앞에 나타났던 빛나는 여인은 자신을 ‘로사리오의 부인’이라고 소개했지 결코 성모 마리아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여인이 하필이면 왜 굳이 매달 13일에만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다. 13이란 숫자는 오래전부터 서양인들 사이에서 불길한 숫자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에도 호텔의 13호실에 숙박하게 된다가나 식탁에 13명이 둘러앉은 것을 가장 불쾌하게 느끼며 13일의 금요일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있다. 그래서 13호실이 없는 호텔이 수도룩하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13 공포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민속학자들은 이 숫자가 마녀의 요정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왜 이처럼 기성 신학에 합치되지 않는 상징들이 성모 현현에 깔려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를 이교(異敎)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민속학자들은 이런 이교적 전통을 요정 신앙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몇몇 민속학자들은 성모 신앙이 요정 신앙과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의 종교학자 에반스 벤츠(W. Y. Evans Wentz)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기독교(아마도 천주교일 것임)에 자리 잡은 몇 가지 유형의 신앙 형태에는 구신앙의 거석(巨石) 숭배, 성천(聖泉) 숭배, 성수(聖水) 숭배, 요정(妖精) 숭배 등의 이교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명백히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거석 숭배는 오벨리스크나 대성당 그리고 첨탑의 형태로 기독교에 잔존하며, 성천 숭배는 루르드로 대표되는 기적의 샘물로서 성역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반스 벤츠는 성수 숭배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중세에는 성자를 상징하

는 표식의 나무로서 송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정 송배가 성모 신앙과 성자 신앙으로 흡수됐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우리는 세속 UFO 연구가가 천주교의 ‘마리아 발현 현상’을 ‘UFO 현상’으로 규명하고 이방 종교의 특성 등을 들어 가며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실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동정녀 출현’과 마귀의 뉴에이지 전략을 분석한 것입니다.

### 동정녀의 표와 형상

수천 년 동안 마귀의 표는 세상의 문화와 종교적 발판 속에서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내 왔으며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에는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전 세계 도처에 있는 5억의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상뿐만 아니라 이마와 손에 표를 지닌 불교 성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억의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매년 부활절 전의 사순절에 있는 ‘재 수요일’ 미사 때에 자기들의 이마에 점들을 찍습니다. 힌두교 크리스슈나 광신자들은 매일같이 자기들의 이마에 소의 배설물을 뒤집어씹습니다. 이러한 고대 관습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 종교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같이 이마에 찍는 표가 ‘영원한 동정녀이며 유일한 존재’(the One)를 나타낸다고 말하며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이를 루시퍼라고 밝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방 종교가 ‘유일한 존재’(the One)를 섬기는 범신론 체계이긴 하지만 ‘동정녀’ 또는 ‘어미 여신’(Mother Goddess)은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어떤 형상화된 우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우상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의 신에게 신성을 부여했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한 여신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만유이다.

이미 성경은 희생양들의 손을 잡고 그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공범자 곧 ‘말하는 형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폭로해 준 바 있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계13:15-16)

독일의 마리안프리트라는 곳에서 레우스(Barbara Reuss)에게 나타난 동정녀의 형상은 그녀의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요청했고 이 유령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표적(the Sign)이다. 나는 내 표적을 내 자녀들의 이마 위에 둘 것이다.

비전(환상) 속에 등장하는 동정녀가 ‘유일한 존재’의 형상이거나 외적인 출현이듯이, 독일에서 나타난 이 유령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공통점은 이렇게 말하는 인물의 정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밀교주의’(Esotericism)의 ‘동정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이런 표적’이 사탄 자신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계13:15-16)

### 루시퍼: 동정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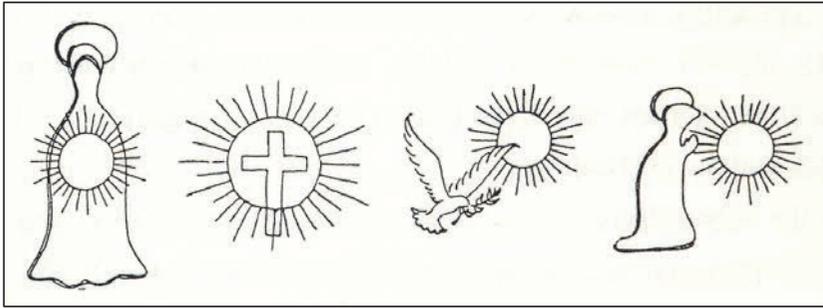
뉴에이지 작가들은 이 동정녀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사탄으로 드러나는 ‘큰 용’이라는 것을 금방 인정합니다.

그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격하시키고 이제는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라 부르는 크리스천 신학자들은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분은 사나트수알라(Sanatsuyala)이시고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시며 천상의 동정녀 곧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머니로서 큰 용(the Great Dragon)으로 불리는 분이시다.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정녀 곧 ‘큰 용’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 채 뉴에이지의 대모 블라바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마술의 대리자... 그 빛나는 별... 그 별의 동정녀는 교회가 루시퍼라고 부르는 분이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에에 나타난 환상들’로 잘 알려진 현상을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했던 여섯 아이들 중 하나인 드라기세빅(M. Dragicevic)은 1982년 4월 14일의 환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 메주고리에 나타난 UFO

그는 사악하며 너무나도 불길했다. 당신들은 그가 나를 노려봄으로써 거의 죽이려 했고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도망쳤고 우리의 여인(Lady, 즉 마리아)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성수(holy water)를 사용해서 새롭게 되고 복된 물건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입고 그것들을 너의 집 안에 들지니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탄이나 혹은 스가라서 5장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악한 권력과 권능이 '동정녀'로 변신하는 것은 이번에만 목격된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일곱 도시에서 마귀의 동정녀가 나타났고, 코르크 카운티의 미첼스타운에서 발간되는 한 아일랜드 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20,000명의 순례자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까닭은 몇몇 아이들이 우리의 여인(Lady, 즉 마리아)의 동상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뿔을 가진 마귀의 유령이 그 동상 뒤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블라바츠키는 형태를 변경하는 '유일한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줍니다.

그는 신비의 인물로서 그에 관한 전설은 동양의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 형태를 변경하는 자가 바로 그분이시나 그분은 동일한 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분은 이름 없는 유일신이시며 동시에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고 그분은 창시자이다.

### ‘짐승의 형상’인가?

뉴에이지 추종자 랭글레(Madeleine L'Engle)가 지은 「벨 같은 외침」(*A Cry Like a Bell*) 같은 책은 앞으로 '동정녀'가 전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기독교 역사가 히슬롭 목사(Alexander Hislop)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 기간에는 ‘동정녀가 경배받는 짐승의 형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소유하게 될 엄청난 권능은 사람들의 심리적 풍토를 잘 조성해서 거짓 대언자의 종교가 번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 인류학자 리치(Edmund Leach)는 ‘동정녀 숭배’가 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 사회학의 고전인 「종교와 정치 체제」(*Religion and Regime*)는 작은 자와 큰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일치 혹은 순종을 강조하는 사회가 종교적으로 여성을 중요한 위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동정녀’의 형상은 세계적인 범신론의 이상입니다. 결국, 이 여신은 힌두교도, 애니미즘 추종자, 불교도, 미국 토속인 등과 같은 범신론자들과 무슬림 교도 및 카톨릭교도 등과 같은 비범신론자들을 한군데로 모아 거짓 대언자의 제단으로 끌고 가는 공통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재 동정녀의 환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결코 어떤 특정한 종파의 배타적인 ‘영적 교접 현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수십만 명의 무슬림 교도들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몇 마일 떨어진 ‘동정녀 교회’ 위의 하늘에서 어떤 것이 빛을 내며 맴도는 것을 보려고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삼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 환상은 아랍 신문들의 톱기사 거리였습니다. 콥틱 크리스천 교회 내 성직자들과 더불어 무슬림 교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여깁니다.

동정녀의 출현에 관한 기사들은 다양하지만 신문사나 거대한 군중들 모두 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이 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리아의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교도 사원에 존재하는 동상, 즉 한 마리의 비둘기로 그 머리를 장식한 ‘동정녀 주노’(the Virgin Juno)의 동상에 익숙한 이집트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같이 ‘빛나는 비둘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이나 이 형상을 자신들의 문화 속에 담아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스타르테(Astarte)와 이시스(Isis)의 형상물에 관한 고고학적 발견물들도 그 머리 위에 똑같은 모양의 비둘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빌론의 삼위일체(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특히 여성이 성령(비둘기)을 대신합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와 그의 부인(婦人)은 하늘에 떠올라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에서 마리아를 실제로 구현시킵니다. 한편 카이로에 있는 사람들

을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그녀를 ‘동정녀 주노’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교접된 마귀인 솔리(Soli)가 그 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줍니다.

당신이 영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지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이다.

### 처녀인가, 동정녀인가?(a virgin or the Virgin)

‘동정녀’(the Virgin, 대문자로 쓰인 것에 주의하기 바람)라는 호칭은 타락한 인간들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신(神)을 만들 고자 애쓰며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린 이후로 사용해 온 칭호입니다(롬1:25).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처녀 탄생’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원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카톨릭 성서(두에 랭스 역본)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에 ‘여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카톨릭 성서		킹제임스 성경
그녀가 네 머리를 부숴 버릴 것이요 너는 그녀의 발꿈치를 숨어 기다릴 것이라(she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l lie in wait for her head).	창3:15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최근에 유고슬라비아에 나타난 유령들의 대변인 노릇을 해 온 카톨릭 사제 블라시크와 슬라브코는 이 같은 거짓된 망상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카톨릭 성서 내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녀’가 ‘카톨릭교회’까지도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합니다. 이 말은 카톨릭교회가 뱀의 머리를 부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처음에 위치한 이 구절은 사탄을 패배시킬 표적과 구원이 되는 한 여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바로 우리의 숙녀(our Lady, 즉 마리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모든 고대 그리스어 사본이 교회를 중성인 ‘그것’(it)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새 역본은 교회를 카톨릭의 ‘성모 교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NASB, NIV 등 현대 역본		킹제임스 성경
그녀의(her)	엡5:25	그것(it) [교회]
그녀의(her)	엡5:26	그것(it)
그녀의(her)	엡5:27	그것(it)
현대 역본들이 교회를 ‘그녀’로 표현함에 유의하기 바람		

현재는 이교도의 ‘동정녀’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신화들이 기독교 신학을 위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베단타 경전」(*Hindu Vedanta scriptures*)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흉내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리-유가(Kali-Yuga)의 초기에 동정녀(the Virgin)의 아들이 태어나리라.

‘동정녀’라는 명칭은 가나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타르테(Astarte)와 아쉬 토레스(Ashtoreth),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여신인 레아(Rhea) 또는 세미라미스(Semiramis), 이집트 사람들의 여신인 이시스(Isis), 힌두교도들의 여신인 이시(Isi), 카나바바(Kanyabava), 트리가나(Trigana), 로마 사람들의 여신이 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어머니이자 그리스/로마의 여신인 케레스(Ceres), 헤스티아(Hestia), 베스타(Vesta), 다이애나(Diana), 아르테미스(Artemis), 데메테르(Demeter), 키벨레(Cybele)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 역본들은 마리아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8절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NASB, NIV 등 현대 역본		KJV
삭제	눅1:28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교도들의 종교에 나오는 ‘동정녀’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었 듯이, 마리아는 ‘한 처녀’(a virgin, 소문자에 주의하기 바람)였지 결코 이교도 들의 ‘동정녀’(the Virgin)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교회에서 유래된 사도 신경에도 ‘동정녀’가 언급되지만 불행히도 그 ‘동정녀’는 성경의 마리아를 가리키는 ‘한 처녀’(a virgin, 부정관사 및 소문자)가 아니고 이교도들의 ‘동정녀’(the Virgin, 정관사 및 대문자)입니다. 영어로 적힌 사도 신경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위의 말씀에 나오는 한 처녀와는 달리 정관사 ‘the’와 대문자로 표기된 ‘동정녀’(the Virgin)는 그 처녀성이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요 지금도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공표했던 주후 451년의 칼세돈 카톨릭 공회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사복음서(마12:46-49; 막3:31-34; 눅8:19-21, 요2:12) 및 갈1:19 등에 기록된 증거에 근거해서 이 같은 거짓 교리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25절은 모든 새 역본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NASB, NIV 등 현대 역본		KJV
‘말(firstborn)’ 삭제	마1:25	말아들(firstborn son)
		예수님을 말아들로 표기한 이유는,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고 다른 아이들을 출산했음을 의미함.

우리는 이교도들의 ‘동정녀’(the Virgin)가 신국제역본(NIV)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IV		KJV
동정녀(the Virgin)	왕하19:21; 사23:12; 37:22; 47:1; 렘18:13; 31:4; 31:21; 46:11; 애1:15; 2:13; 암5:2	처녀(a virgin)

한편 대문자화 된 ‘동정녀’(the Virgin)는 모든 종류의 뉴에이지 신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슈레크(Alan Schreck)는 「카톨릭교도와 크리스천」(*Catholic and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근의 역본들 속에 들어 있는 메시지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마리아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리아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녀의 역할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는 또 다른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의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슈레크의 발언은 카톨릭교회가 마리아를 부를 때 쓰는 ‘공동 구세주’와 ‘공동 중재자’ 같은 칭호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뉴에이지 추종자인 호드슨(Geoffrey Hodson)도 한 구세주가 아닌 두 구세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도록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천상의 동정녀[루시퍼]는 멸망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어져 내려왔다.

캐롤(Michael Carroll)은 자신이 철저히 연구한 「동정녀 마리아 이단 종파」(*The Cult of the Mary*)라는 책에서 이들이 이 같은 추론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전통은 마리아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녀를 소피아(Sophia)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에서의 여성의 인격화 등과는 구분한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은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혼합시키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성경 속의 모든 인물」(*Everyone in the Bible*)의 저자인 바커(William P. Barker)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수많은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 지적한다. 마리아의 부모가 죄 없이 그녀를 출생했다는 ‘마리아의 무염 시태’, 그녀가 ‘영원한 동정녀’라는 생각, 그녀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마리아의 몽소승천’, 그녀가 예수와 더불어 ‘공동-구세주’라는 것 등은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에 잔존해 있던 여성 이단 종파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와 성장한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캐롤은 소위 마리아의 유령이라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그 실재(實在)가 결코 마리아로 확증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 사실은 저 유명한 「마리아의 메달들」의 창안자인 라부레(Catherine Laboure)의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루르드 지방과 포르투갈의 파티마 및 라살레뜨 지방에 출현한 마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대개 하나의 ‘빛나는 어떤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으나

사실 그것은 후에 그 환상들을 직접 보지 않은 제삼자들이 부추겨서 마리아로 확신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화평의 천사’나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무염 시태’, 즉 ‘원죄 없는 수태’ 등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중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말하는 인물이 참으로 마리아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 루시퍼의 ‘빛’(The light of Lucifer)

지금 마리아 숭배자들과 무슬림 교도들은 한결같이 ‘빛나는 어떤 것’, 즉 UFO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그 이유는 루시퍼가 라틴어로 ‘빛을 가진 자’를 뜻하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루시퍼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 추종자들과 고대 신비주의자들이 사용한 단어 중에서 아마 ‘빛’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크림(Benjamin Creme)은 자신의 주(主) 마이트레야가 “나의 빛의 군사가 빛을 보리라.”고 말했음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명상을 하는 동안 흰빛을 마음에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뉴에이지 잡지들은 ‘빛’과 ‘빛의 아들들’로 불리는 그룹에 관해 보도하고 있으며 「물병자리 음모」라는 책은 빛의 환상을 보는 것이 뉴에이지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한 특징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리스어 ‘프누마’(pneuma), 즉 ‘영’(Spirit)은 기독교를 인도하지만 ‘포스’(phos), 즉 ‘빛’은 뉴에이지와 이방 종교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권능은 오직 성령님께서서만 나옵니다. 갈5:22와 엡5:9는 ‘성령님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고 권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다시 새 역본들은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요청하고 있고 뉴에이지 대열에 함께 가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5:22 말씀은 ‘빛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NASB, NIV 등 현대 역본		KJV
빛의 열매(fruit of the light)	엡5:9	성령의 열매

신비주의 전수식에서 입문자는 종종 하나의 형상으로 변형된 하나의 빛을 봅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동정녀’의 유령 속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이러한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이 같은 환상이 마치 '빛의 홍수'와 같다고 묘사합니다(이것 역시 UFO 현상임). 캐롤이라는 사람은 영계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 유령들의 출현보다 먼저 일어남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동정녀'의 환상을 본 목격자들은 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합니다.

이집트의 자이툰(Zeitoun, Egypt): “나는 한 빛을 보았다.”

아일랜드의 녹크(Knock, Ireland): “밝은 하나의 빛...”

포르투갈의 파티마(Fatima, Portugal): “찬란한 한 빛이 퍼져 나왔다.”

라살레뜨(La Salette): “찬란한 한 빛이 다가왔다.”

벨기에의 바뉴스(Banneux, Belgium): “대략 한 사람의 크기만 한 하얀빛을 보았다.”

유고슬라비아의 헤르체고비나(Hercegovina, Yugoslavia): “아주 밝은 빛...”

멕시코의 과달루페(Guadalupe, Mexico): “찬란한 한 빛을 보았다.”

뉴에이지 추종자 후르타크(J. J. Hurtak)는 자신의 책 「에녹의 열쇠들」에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말을 하는 '빛 픽토그램'(light pictograms, 즉 빛과 더불어 나타나는 존재)이 고대 근동 문명에서 지식의 분배자 노릇을 했던 것처럼 뉴에이지에서도 지식의 분배자가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종종 신비주의의 전수 과정에서 일어났던 눈부신 빛과 환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프로세우스의 주석은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모든 전수식과 비밀 의식 속에서 신들은 형태가 없는 하나의 빛을 내보이며 때때로 이 빛은 한 사람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교도 및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본 빛들과 환상들은 (1) 신비의 바빌론에서 부터 시작해서, (2) 그리스 세계로, (3) 몇 권의 그리스어 신약 필사본들로, (4) 뉴에이지 추종자들과 배교한 기독교가 이루게 될 '신비의 바빌론'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서 이제 할리우드는 '클로즈 인카운터스'와 같은 영화들을 제작해서 자신의 고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밝은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E.T.'와 같은 영화들은

드라기세빅이 ‘추악하고 끔찍하리만큼 추악한 창조물’이라고 묘사한 괴물들에 대해 관객들이 무감각해지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인류를 오도하고 있는 새 역본 뉴에이지 성경들과 ‘환상들’ 그리고 뉴에이지 잡지, 영화, 출판물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명확하며 유일한 의사 전달 수단인 성경을 저버리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간접적이고도 불명확하며 부패한 짐승의 표와 형상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든지 혹은 우상이든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형상은 결코 성경을 번개한 웨스트코트의 선생이었던 플라톤이 연출한 것과 같은 ‘복된 환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의 ‘찬란함’으로 인해 그것을 보는 자들의 눈은 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들은 그 잔이 ‘가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계17:4)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빛으로 인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계21:22; 22:15).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중한 것들을 배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환상들과 형상들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이 ‘동정녀 유령’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기록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바로 그녀가 ‘땅의 창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편람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감싸고 있는 신비의 외투가 다소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교회 협의회와 오우번 신학교가 후원한 대규모 집회인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 참가자들에게 이제부터 그들의 신(神)의 형상을 ‘어미 여신’(女神)으로 재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주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배가 한층 더 진보하려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신 어머니를 더 진실히 존경해야만 한다. 사실 동정녀에 대한 경배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의 혼을 매매하는 ‘창녀들의 어미’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제 뉴에이지에 의한 미사여구와 함께 그녀는 서서히 세상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그 ‘동정녀’가 ‘마귀들의 어머니이며 루시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상의 동정녀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신들과 마귀들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사랑이 넘치며 자애로운 성격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녀의 실제 이름은 루시퍼 혹은 루시퍼리우스이다. 루시퍼는 신이요 지상의 빛으로서,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영’이 되며 또 ‘사탄’이 된다.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마귀들이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 ‘동정녀’ 베일과 ‘어머니’ 망토를 선택해 왔다고 공언합니다. 뉴에이지와 더불어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배도한 천주교는 자신들의 ‘동정녀’에게 루시퍼 추종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마귀들의 여주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추기경 리구오리(Alphonse de Liguori)는 그의 저서 「마리아의 영광」(*The Glories of Mar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는 지옥의 여왕이며, 마귀들을 주관하는 여주인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이 동정녀에게만 주어져 있다.

뉴에이지 이단들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동정녀’에 대해 이처럼 서로 일치하는 것은 마치 썩은 나무가 최종적으로 꽃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최초로 바빌론의 신비 종교가 자신을 ‘하늘의 여왕’ 혹은 어미 여신 이쉬타르라고 선포한 이래로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여신 숭배를 퍼뜨렸고 지금도 온 땅을 덮고 있는 ‘음녀들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 세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소에 침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 이 병균은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사회를 감염시켰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the queen of heaven)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렘7:18).

이집트의 헤르모폴리스에서 발견된 기원전 5세기경의 파피루스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도피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늘 여왕 숭배’가 심판을 불러일으켰음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교도들의 숭배 예식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콜리리디안(Collyridians)이라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작은 케이크를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교도들의 ‘동정녀’ 여왕으로 숭배하는 잘못된 바빌론 종교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창녀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빌론 여신도 자신의 희생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 세계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그녀가 많은 물들과 백성들과 무리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다.”고 묘사합니다. 클레리쿠스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왕이 이교도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어머니’를 숭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같은 하늘 황후 여신 숭배가 이집트에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은 카르낙(Karnac)이 채취하여 현재 대영 박물관에 보관 중인 돌에서도 입증됩니다. 이 돌에는 ‘거룩한 어머니이신 여인, 하늘의 여왕, 새벽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케레스 여신에게 이 호칭을 붙였고 또한 로마인들도 자기들의 여신 키벨레에게 이 호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증한 호칭은 중국의 성무(성모), 힌두교의 이시, 파라마타, 사라스와티, 타우마트라, 아카사, 데바나키, 나리-마리아미 등에게도 붙여졌습니다. 이 ‘동정녀’ 마귀는 온 세상을 뒤덮기 위해 세계 각처로 이동하다가 벨기에의 보랭(Beauraing)으로 옮겨 가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하늘의 여왕이다. 목주(로사리오)로 기도하라.

대언자 예레미아가 ‘하늘의 여왕’에 대해 경고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의 여왕의 출현과 사원」(*The Apparitions and Shrines of Queen of Heaven*)과 같은 책들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편으로 끌여가고 있습니다.

### 새 현대 역본 성서들의 베일

‘환상들’과 ‘우상들’ 그리고 ‘신성모독의 이름들’ ‘유일한 존재’,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 등은 다 바빌론의 신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신비 체제는 거짓 ‘동정녀’의 베일을 벗겨 버린 요한계시록에서 ‘한 여자’(a woman)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계17:5).

역사를 통해 고대 바빌론 종교는 늘 ‘신비들’(mysteries)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짝트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종교를 거울에 반사시킨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 세계 종교와 바빌론 신비 종교가 서로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 역본들은 그녀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거나 아예 삭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 구절의 핵심 단어인 ‘신비’를 그녀의 이름과 이마에서 제거해 버리고 그 대신에 전혀 의미가 없는 다른 단어로 대체해 버립니다.

소수 그리스어 신약 본문의 편수자들은 ‘신비’라는 단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음녀 종교 체제’와 함께 연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단어를 도로 사도 요한의 입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째로 삼켜 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창녀 종교 체제를 연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된 모래성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들’에 의해 씻겨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다수의 새 역본들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ASB, NIV 등 현대 성서		KJV
바빌론	계17:5	신비, 큰 바빌론

이제 새 역본들에서는 ‘바빌론’이 하나의 신비주의 종교 체제가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변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흥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과 주석들은 ‘신비의 바빌론’이 현대의 페르시아와 같은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수용해 온 의미를 바꾸어 버린 새 역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재건축한 것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심지어 몇몇 역본들은 이 창녀가 ‘사람들의 혼’을 매매하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도(계18:13)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또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바빌론의 신비가 종교적인 것임을 연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종교 체제의 정체를 더 깊이 숨기려고 새 역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저 큰 도시 바빌론’에서 ‘도시’라는 핵심 단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니라. 또 일곱 왕이 있는데”라는 말씀 대신에 “그들은 일곱 왕이라”고 주장하려는 새 역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은 마지막 날들에 부활하게 될 바빌론 신비 종교의 중심지가 될 그 도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그 도시는 ‘일곱 산’ 위에 있으며 이 산들은 그녀를 보여 주고 마치 진주 반지에서 진주를 엮어매고 있는 갈고랑이처럼 이 거짓된 신비의 보석을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과 여행사들 그리고 심지어 카톨릭 성서인 신미국성경(NAB)과 콜럼버스 기사단에서 발간한 팸플릿 51번조차도 이 ‘일곱 언덕 위의 도시’가 바로 로마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천주교의 ‘마리아 출현’이 결코 천주교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고대 이교도들의 루시퍼 숭배에서 비롯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의 특징 중 하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빛의 출현’이 명백한 UFO 현상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빛의 출현’ 혹은 UFO 출현이 20세기의 끝에 더욱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온 세계의 뉴에이지 추종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야 말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광경들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눅21:11, 25-26).

하늘에 두려운 광경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기절하는 때가 곧 닥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리아 출현’이나 ‘UFO 출현’은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를 향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7년 환난 기간에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사악한 일들이, 어쩌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엄청난 크기의 UFO가 하늘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UFO 출현’, ‘마리아 마귀 출현’, ‘외계인 출현’, ‘공룡 출현’, ‘복제 인간 및 복제 짐승의 출현’, ‘인간과 짐승 사이의 돌연변이 잡종 출현’, ‘요한계시록 9장의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마귀들의 출현’ 등과 같은 일들보다 더 무섭고 사악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할리우드의 영화를 통해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9-12).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환난기의 무서운 재앙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구원받도록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흥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5:6-9).

## 고대 세계의 지식

진화론은 인간의 진화가 시작된 백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이 서서히 발전해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같은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인간의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능력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창4:20)

홍수 이전에 목축을 업으로 삼은 자들과 농사를 짓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창4:21).

창세기의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하프나 오르간같이 복잡한 악기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수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음악을 작곡하고 악보를 읽고 연주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낫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창4:22).

두발가인이 가르치는 자였다는 점으로 보아 또한 홍수 이전 시대에 학교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음악가들과 금속 세공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 냈습니다. 다시 말해 홍수 이전에도 무엇인가를 발명해 내거나

재주가 있어 무엇인가를 잘 다듬고 깎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야만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홍수 이전 세상에 있었던 과학이나 지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게 되었고 지난 300-400년에 걸쳐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대인들을 ‘아무 능력도 없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에 엄청난 규모의 원형 경기장 같은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며 사해 남단에 있는 약 450m 높이의 산에다 강력한 마사다 요새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놀라운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리가 지은 「성경핸드북」의 72쪽을 보면,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에리두, 오베이드, 키위, 우르 등의 도시에 살던 시민들은 채색된 도자기, 팽이, 거울, 키, 낚시 바늘, 보트, 매우 정교하며 기하학적으로 칠해진 도자기, 수레 등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의 문화나 생활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 줍니다. 유다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셋의 아들들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고대 도시에는 대형 도서관과 상하수도 시설, 난방 용수 가열 시스템 및 다른 편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했던 수동형 냉난방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새로 짓는 집에 도입되어 사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현재 우리가 지닌 기술의 90% 이상이 개발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을 다시 발견해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지구의 초창기 사람들과 홍수 이후의 첫 세대는 거의 900년이나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때까지 지식이 직접 전수되어 홍수 이전의 지식이 홍수 이후에 낱알이 기록될 수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담은 므두셀라 때까지 살았으며, 므두셀라는 노아 때에 생존해 있었고 노아의 연대는 셈의 연대와 겹치며 셈의 연대는 아브라함의 연대와 겹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900년을 살았을진대, 그들이 천문학, 금속학, 피라미드 건축 및 다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창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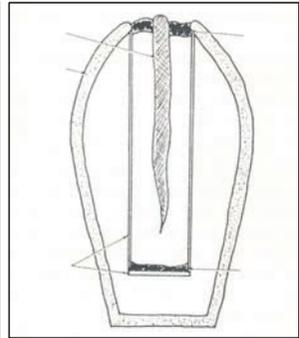
못하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쓰였고 결국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책들도 ‘산(酸)이 없는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20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찢지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 포장 용기를 보고는 20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대 문서나 기록들은 다 번역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므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될수록 성경의 진리들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기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의 초창기에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1891년에 이집트의 사카라에서 무덤을 파 내려가던 고고학자들은 여러 가지 공예품과 더불어 뿔나무로 만들어진 새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사카라의 새’라는 딱지를 붙여 분류만 해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년간 그 물체는 단지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사람들에게 전시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비행기가 발명되고 공학이 좀 더 발전되면서 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고차원의 비행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이것을 조사한 항공 엔지니어는 ‘사카라의 새’가 바로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이 개발하려던 새롭고 차원이 높은 ‘경사진 날개를 가진 우주선’, 즉 달을 오고 가는 챌린저 우주선과 똑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2년 9월, 매우 저명한 「옵니」 잡지의 53쪽에는 주전 200년경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이 비행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무토막 유적을 실제로 날려 보니 이것은 현대판 글라이더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멋있게 날았다. 이것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물체가 비행기 모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래된 유물이 담고 있는 섬세한 기술은 너무나도 특이해서 우리는 최근에야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로 인해 크게 놀라고 있다. 지난 500년간 우리가 이룩한 과학 및 기술 측면의 진보가 이미 고대 문명 속에도 존재했다고 믿는 것이 가능한가?



▲ 고대 세계의 비행기와 건전지

1936년에도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단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250년경에 만들어진 건전지로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물입니다. 진흙 껍질로 만들어진 이 건전지는 쇠로 된 중심부를 갖고 있는 구리 실린더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식 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구멍 속에는 여러 개의 건전지가 있었습니다. 1976년에 독일 힐데스하임에 있는 로에메르 박물관(Roemer and Pelizaeus Museum)의 에게브렉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았을 때 이것들은 분명히 건전지이다.

그 후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건전지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그 안에 포도주스를 넣자 약 2볼트의 전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프랭클린이 전기를 발명하기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이미 전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산된 전기가 2,000년 전에 어디에(모터, 전등, 전기 분해용 전극) 쓰였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소위 현대의 산업 사회 혹은 우주 사회가 있기도 전인 고대 세계에 이미 이와 같은 지식과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에는 주전 78년에 안티크세라 근처에서 침몰한 그리스 상선에서 매우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가 매우 단단하며 석회암 침전층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예일 대학의 당국자들은 이것이 매우 단순한

천체 관측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방사선 등을 사용하여 이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약 30개의 정교한 치차를 갖고 있는 매우 복잡한 기계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해와 달의 운동을 기록하여 과거에 그것들의 위치와 미래에 그것들이 지구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알려 주는 천체 관측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치차를 갖는 도구들이 서구에 나타난 것은 주후 157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비드는 주전 300년에 중력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이 기계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땅 위에 지어진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물 위에 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해양에서 여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지 않았을 때에 거대한 매머드가 시베리아와 캐나다의 평야 위에서 돌아다녔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양과 대양을 오고 갔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과학자들은 노아의 대홍수 때에 지구가 지금처럼 비스듬하게 놓이면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북극에 살던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얼어 죽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얼어 죽은 매머드의 위장에서는 녹색의 풀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펠(Dr. Barry Fell) 박사는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초기 정착자들과 관련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담은 두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안에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입증해 주는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해안 지방에 바이킹들이 정착지를 만들어 거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펠 박사는 바이킹들이 이주하기 훨씬 전에도 이미 북미 대륙은 유럽이나 중동부 세계에 살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펠 박사가 지은 「아메리카의 역사」(*Saga America*)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400년경부터 주후 11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서구 세계는 여섯 개의 해양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이 해양 세력들의 군함들은 매우 질서 정연하게 지중해와 그 부근의 바다를 점령했다(카르타고, 그리스, 리비아, 로마, 동로마,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 등)… 그런데 이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와서 내륙 내부의 큰 강이나 호수 등을 탐험한 것은 아니다.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켈트족, 이베리안족, 스페인의 바스크족, 초기 리비아인들, 이집트와 크레타 사람들 등…

그러나 주전 4세기 이후부터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곳을 탐험한 때를 알려 주는 절대 무오한 증거들을 남겨 놓았고 현대의 역사가들도 이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증거물이란 다름 아닌 동전들로서 현재 금속 탐지기가 매우 발달한 관계로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인들 역시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달했으며 고대 리비아인들은 항해 거리 면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 그들 중 하나인 키레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원주 길이를 계산했고 만일 대양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지구를 돌아 처음 장소에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비아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수학, 천문학, 항해술, 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 사실 고대의 아메리카 대륙은 지중해 연안에 살던 학식 있는 이들이 도피해서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던 곳이었다... 그래서 황금시대가 이곳에 도래했다... 여러 세기 동안 많은 해양인들이 우리의 해안을 떠나 태평양으로 갔고 아시아 사람들과 무역을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런 문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펠 박사의 책에는 실제의 동전, 무기, 도자기 그리고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돌에 새겨 놓은 역사적 유품들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의 역사」의 280쪽과 281쪽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린 지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낭떠러지가 있는 직육면체가 아니고 완전한 구(球)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삼각 함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구의 원주가 40,000킬로미터라고 계산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신이 북미를 방문하기 전인 주전 239년에 이 지도를 그렸으며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주후 1492년보다 무려 1,731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주후 1, 2세기경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다수가 박해를 피해 도망친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또다시 펠 박사의 책은 164쪽에서 이런 것을 확증해 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미국 대륙은 박해를 당하거나 정복을 당해 쫓겨난 사람들의 도피처 역할을 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 신세계, 즉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보여 주는 것 같다. 텍사스주 빅벤드 근처에 있는 바위틈에서 발견된 이상한 진흙판은 고대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이 한때 이베리아로부터 미국에 이주해 왔음을 보여 준다...

또한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는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로마의 네로와 하드리아안 등의 박해를 피해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옮겨온 것을 보여 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주후 69년에 로마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음을 보여 주는 증거도 있다. 그 반란에 참가했던 요세푸스는 주후 69년에 마치 빛나는 검처럼 생긴 거대한 혜성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했다. 열심당원들은 그것을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였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핼리 혜성이었다고 말한다. 테네시주 벡크릭에 있는 무덤에서 추출한 돌은 그 당시 테네시주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 표적을 보았고 그 돌 위에 '유대인들을 위한 혜성'이라고 새겼음을 보여 준다. 또한 주후 132년에 있었던 제2차 반란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간 세겔, 즉 유대인들의 돈이 켄터키주의 여러 지역과 그 옆의 아칸소주에서 발견되었다.

아마도 고대인들의 지식을 보여 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1956년에 터키의 해군 장교가 미국의 해도를 만드는 관청에 넘겨준 지도입니다. 1979년에 하프굿 교수(Professor Charles H. Hapgood)는 「고대 해상왕들의 지도-빙하 시대에 있었던 고등 문명의 증거」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은 그 지도에 대해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2년 9월호 「옵니」 잡지가 그 책에서 인용한 것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뉴햄프셔주의 킨 주립 대학의 과학 역사 교수인 하프굿 박사는 이 지도의 진위를 가려내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이 지도는 1513년에 터키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가젤 사슴 가죽 위에 그린 세계 지도의 일부이다. 레이스는 이 지도의 한 구석에다 자신이 20개의 고대 지도로부터 이 지도를 편집했다고 기록했으며 그중 하나는 콜럼버스의 지도였다고 한다. 콜럼버스가 역사적인 미국 여행을 완수한 후에 역사가들은 그를 미국으로 안내한 전설의 지도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도가 있었음이 이 지도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피리 레이스의 지도에서 특히 하프굿 박사가 주목한 것은 그 지도가 남극에 있는 퀴마우드랜드 지방의 해안선을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49년이 되기까지는 현대인들조차도 남극 대륙의 얼음으로 인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리 레이스가 이용한 원래의 지도는 약 6,000년 전에 빙하가 남극 대륙을 덮기 전에 그려졌단 말인가?

컴퓨터 해석에 따르면, 원래의 지도는 단순히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그려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프굿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삼각 함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도는 얼음이 남극 대륙을 덮기 전에 있었던 남극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 하프굿 박사는 원래의 지도가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이라고 추측한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항해사나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 과학적인 업적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어느 지리학자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프굿 박사가 발견한 사실들은 미국 전략 공군 부대의 지도 제작 부서가 인정했으며 여러 천문대의 전문가들도 그의 발견에 동의를 표했다.

자신의 책 58쪽에서 하프굿 박사는 북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에 큰 섬이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지금은 사라진 이 섬이 고대의 아틀란티스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아틀란티스가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믿는다. 「고대 해상왕들의 지도」의 230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빙하 시대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주장이 참으로 틀렸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매우 많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지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986년 8월 30일, 캐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북극에서 단지 1,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숲이 얼어붙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숲의 나무들은 석화된 나무들이 아니라 여전히 땅속에 뿌리가 박혀 잘 보존된 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톱으로 보통 나무를 자르듯이 이 나무들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지구의 역사가 사실 성경의 연대기대로 몇천 년(약 6,000-10,000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이전의 고대인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최근에 와서야 얻게 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남극에서 북극으로 바다를 타고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해상왕들의 지도」의 231쪽에는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리 공화국의 팀부카 부근에 사는 도곤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인데 이들은 지구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시리우스(천랑성)라는 별이 자신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리우스(지금은 시리우스 B라 불림)의 두 별이 도곤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의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들은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와 더불어 타원의 두 초점을 형성하며 타원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타원 궤도상에서 시리우스 B의 회전 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것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 별들의 상대적 밀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별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사실 하얗게 빛나는 조그만 별이다.

도곤들은 또한 달이 물이 없고 죽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으며 토성에는 고리가 있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은하수가 멀리 떨어진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성에 네 개의 달이 있다는 것과 사람 몸의 피의 순환 경로를 알고 있었고 또한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시리우스야말로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며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템플은 이 같은 도곤들의 전통이 이집트의 왕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음을 밝혀 왔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의 전통이 이 고도의 지도를 만들어 낸 고대 문명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대체 아프리카에 사는 이 원시 부족들이 지난 5,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살펴본 다른 수수께끼들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미스터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지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로마서 1장 21-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롬1:21-22)

다니엘 12장 4절은 말세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매일 접하면서도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인(猿人)이나 원숭이를 만들지 않으셨으며 창조력이 뛰어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 그들은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하셨던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지금과 같이 고성능 컴퓨터나 자동차 등을 만들 수 있었던 말입니까?” 독자께서 혼동하는 것은 ‘지적 능력’과 ‘지식의 축적’입니다.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컴퓨터나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재 20세기에 인류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난 4,000년간의

지식의 축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합쳐져서 결국 현재의 초고속 기술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 중 최첨단 기술은 인간 복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올바른 역사관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역사관이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데도.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2:20-21).

## 사라진 아틀란티스

인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활동 속에는 성경에서 어렵풋하게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미스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들은 종종 믿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 혹은 신화 등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한 것들이 성경의 기본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그 근거 등을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비 중 하나가 바로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때는 유럽과 북미 대륙 사이에 많은 사람이 살던 매우 큰 대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은 지진과 화산 활동 등에 의해 갑자기 무너져서 몇 시간 혹은 며칠 내로 바다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대영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있는 전설의 섬이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솔론과 대화를 나눈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이 섬이 리비아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보다 크며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지역 위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했음을 보여 준다. 아틀란티스는 솔론이 태어나기 9,000년 전에 있었던 큰 왕국으로서 그 군대는 아테네를 제외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했다... 과연 플라톤이 이 같은 전설에 얼마나 자기 의견을 가미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또한 이것이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는, 실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인지 판단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 아라비아의 지리학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중세의 작가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심지어 17세기와 18세기에도 이 전설의 신뢰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몽테뉴, 버폰, 볼테르 같은 이들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대영 백과사전에 있는 글은 계속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섬과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며 사라진 대륙의 유물을 찾으려는 탐험기들이 발견한 섬과

대륙 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솔론이 크리티아스에게 말해 준 아틀란티스에 대한 플라톤의 이야기야말로 그 이후에 전개된 이 대륙에 대한 모든 가설이나 이론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톤의 요지는 주전 421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범아테네 축제 기간에 소크라테스와 크리티아스가 나눈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10살 때에 90세였던 자기의 고조할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소크라테스여,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일곱 명 중 가장 지혜로운 솔론이 진리로 확증해 준 이야기를 들으라... 오래전에 우리 도시는 위대한 탐험 작업을 수행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삶이 파괴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잊혀졌다... 크리티아스는 나일강의 삼각주가 모이는 정점 곧 나일강이 나누는 부근에 사이티아라 불리는 지방이 있다고 말했다... 솔론은 자신이 그곳을 여행했을 때 거기에는 불과 물에 의한 사람의 파멸을 보여 주는 여러 종류의 유적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로 인한 파멸을 보여 주는 유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너희 백성들은 단 한 번의 홍수만을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도 여러 차례의 홍수가 있었다. 더욱이 너희는 너희 나라에 한때는 매우 용감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의 씨 중 살아남은 소수로부터 너희가 유래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건 이후의 수 세기 동안의 생존자들이 아무것도 글로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홍수에 의한 세상의 파괴가 있기 전에 솔론은 전쟁에 매우 능한 용사였다...

너희 도시에서 발견된 위대한 유물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흠모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능가한다. 역사의 기록은 너희가 대서양으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로 용감하게 진격해 가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한 도시를 파멸시켰음을 보여 준다.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해협 바로 앞에 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섬은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 당시의 항해자들은 이 섬에서 다른 섬으로 가거나 이런 섬들에서 대양과 맞닿아 있는 그 대륙의 정반대 지역까지 갈 수 있었다.

이 대서양의 섬에는 그 섬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 그리고 대륙의 일부도 점령하여 통치한 왕들이 이끈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 그들은 리비아와 이집트 그리고 티레니아 국경에 이르는 유럽을 지배했다. 이 모든 권력이 하나에게 집중되어 단 한 번에 너희 나라와 그 해협 안의 온 지역을 점령하여 노예로 삼으려 했다. 바로 그때 너희 도시의 지도자 솔론이 나타났다...

그 뒤에 지진과 홍수가 있었고 몹시 무서운 날이 닥쳤다. 그날에 전쟁에 나간

너희 모든 군사들이 땅속에 통째로 잠겼고 아틀란티스섬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라져 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 바다를 건너거나 탐험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소크라테스여, 이제 나는 크리티아스가 솔론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 주었노라.

위에서 인용한 플라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큰 홍수 이전에 아틀란티스라는 이 대륙이 재앙에 의해 바다 밑으로 파묻히게 되었다고 플라톤이 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다른 민족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플라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홍수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다른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티빙(William H. Stiebing, Jr.)이 지은 「고대의 비행사들-우주 충돌」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아틀란티스 전설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크리티아스는 솔론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에 (그때가 바로 아틀란티스의 멸망이 있었던 때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음) 신들이 헤파에스투스스와 아테네와 더불어 이 땅을 나누고 자기들의 영토로서 아테네를 받았음을 기록한다. 그들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만들어 그곳에 살게 했다.… 포세이돈은 자기 몫으로 아틀란티스를 받았고 그 섬을 10등분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비옥한 땅은 포세이돈의 만아들인 아틀라스에게 돌아갔고, 그는 그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기의 형제들 위에서 군주 노릇을 했다.…

그 섬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이 매장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나무를 공급할 숲이 있었고,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코끼리를 포함한 사육 짐승들, 곡식, 열매, 향료, 식물, 올리브, 포도 등이 있었다.… 그 수도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길이가 550킬로미터, 너비가 368킬로미터인 큰 평야에 위치했다. 그 산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에서 12만 명의 중무장한 군인들과 24만 명의 경무장한 군인들, 만 대의 수레와 1,200대의 전함을 제공했다. 다른 아홉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부와 인력이 있었다.…

여러 세대 동안 왕들은 지혜롭게 포세이돈의 법에 따라 치리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신성이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이들은 욕심을 내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이것을 본 제우스는 신들의 회의를 열어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킬 것인가를 논의했다. 제우스가 자신의 동료 신들에게 연설을 함에 따라 이 이야기는 중간에서 끝난다.



▲ 고대의 아틀란티스 대륙

플라톤이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틀란티스의 거주민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후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버가모(피가모스)를 방문하자마자 우리는 제우스의 신전이 서 있던 기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거주민들이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인해 몇 세기를 지나는 동안 연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신화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이 구절에 대한 필그림 성경의 각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거인들의 업적은 신비한 아틀라스, 헤라클레스 그리고 다른 남신과 여신에 대한 고대 이야기들의 기원이 되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로서 베드로와 유다가 기록한 대로 사탄을 따라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린 자들임을 보여 줍니다. 물론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탐험하는 동안 유카단 지역의 주교는 마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술한 책을 마드리드에 가져왔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칸(Kan) 해의 자크(Zac) 달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틀간 진행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진흙 언덕으로 된 '무의 대륙'(Land of Mu)이 희생을 당했다. 이곳은 두 번이나 위로 들렸다가 화산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밤에 사라졌다. 이 같은 화산의 힘은 그곳에 집중되었고 그 땅의 여러 곳을 들어 올렸다가 가라앉히곤 했다. 마침내 그 표면이 갈라지고 10개의 나라들은 조각조각 나뉘어졌다. 지진의 힘에 견디지 못한 채, 이 나라들은 6,400만의 인구와 함께 이 책이 쓰이기 8,060년 전에 가라앉아 버렸다.

마야의 역사가가 기록한 '무'라는 대륙의 멸망에 대한 기사와 플라톤이 전해 준 '아틀란티스'의 멸망에 대한 기사는 거의 모든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 두 개의 전설은 큰 섬 혹은 대륙이 화산 작용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땅이 10개의 나라로 나뉘었고 이 사건이 주전 9000년경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온 땅이 서로 붙어 있었다는 점에서 성경과 일치점을 보이니 땅이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대양에 의해 분리되었음을 보여 주는 성경의 연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욱단이었으며(창10:25)

위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땅이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뉜 것은 주전 2200년 경이며 주전 10000년경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한때는 땅이 모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 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대륙끼리 연결하면 잘 들어맞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아틀란티스의 전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은 다 같으나 단지 그 일이 일어난 연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 나뉘었을 때 엄청난 지진과 화산 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 하늘에까지 올라가 이런

재앙을 피해 보려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야의 기록을 통해 ‘무’ 대륙(아마도 아틀란티스였을 것임)이 멸망했을 때 6,400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에는 온 지구상에 겨우 1,000만 명 정도가 살았으며 마야 사람들은 기껏해야 수십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가 6,40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말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야 사람들은 어떤 고대의 기록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사람이 땅의 표면에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약 1000살까지 살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서부터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온 지구상에 30-40억의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지금의 인구 통계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플라톤과 마야의 기록이 제시한 연대에 관한 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이 땅에 큰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나 마야의 역사 기록자 그리고 10,000년 전 운운하는 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들의 연대기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 책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늘이나 땅에서 보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20세기 말의 현대인들은 TV나 책을 통해 우주여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과학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의 말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며 빨리 왕래하기 위해 비행기를 날린 것은 1903년의 라이트 형제 때부터이며 그럴듯한 점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하늘을 날기 전까지만 해도, 즉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하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빛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천사나 혹은 마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하늘을 난다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우주여행도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빛을 보고 이제는 그것이 우주선 혹은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어떤 사건을 대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목격자의 정신적 혹은 영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플라톤 등과 같은 진화론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연대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대홍수를 포함하는 성경기록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어서가 만든 연대기가 몇천 년 정도 틀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애써 늘려 놓은 연대기를 믿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성경의 관점에서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재앙이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사실 원래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의 창조가 파괴된 이후에 그것을 복원시키는 재창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재창조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의 이야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신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파란색 피를 가진 인종을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노아의 대홍수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 간의 결혼’입니다. 따라서 재창조 이론으로 아틀란티스 대륙의 붕괴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주전 1450년에 테라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입니다. 그 이전에도 약 10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섬들에는 여러 차례 적은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고 마침내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자 바닷가 근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테라 곧 지금의 산토리니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20세기에 산토리니에 배를 타고 가서 그 분화구 안으로 가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절벽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산토리니 남단에는 크레타섬이 있는데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 거하던 때에 미노아 사람들이 그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500년경에는 미노아 문명이 절정에 달했고 그곳의 수도인 크노소스는 그 당시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궁전 안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었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순환 시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탕과 화장실은 지금처럼 타일이 깔려 있었고 찬물과 더운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노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토리니의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 등으로 인해 수천 명의 크레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미노아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산토리니의 남은 부분과 테라 왕국을 구성한 섬들이 실제로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라고 믿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산토리니의 가파른 절벽 위에 중심 도시인 테라가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 노새를 타고 약 300미터 정도 올라가자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소도시 테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첫 번째 건물은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의 호텔이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산토리니가 그 전설의 아틀란티스의 중심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대의 테라에 있었던 그 화산 폭발 사건은 플라톤이나 다른 이들이 제시하는 사건들과 아틀란티스의 크기와 인구 그리고 멸망의 시기 등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갑자기 멸망하게 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고고학적 탐험이나 지질학적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다면 그 문명의 유해들은 대서양의 밑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틀란티스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의 유명했던 크랜터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유대우스, 터툴리안, 마르셀리누스 같은 고대 역사가들 역시 크랜터처럼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아멜리우스, 플리니, 플루타르크 등은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고 단지 그 증거들만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와 탐험가와 지질학자와 다른 이들은 아틀란티스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고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은 그런 곳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고 어떤 성경 구절은 시간이나 공간에 그런 곳이 있을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틀란티스는 현대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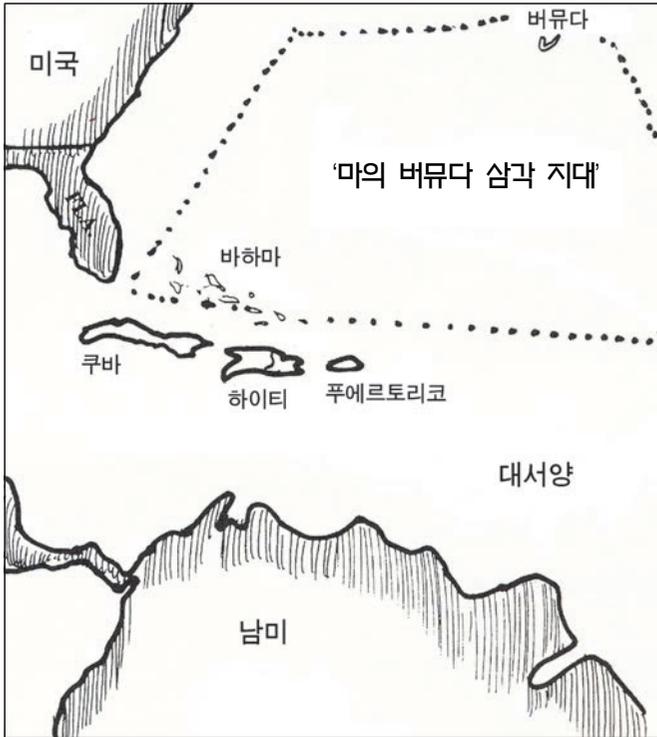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는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입니다.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일어난 수수께끼 같은 재난들과 사라진 현상이 어떻게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바다와 대양에 존재하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27:1).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자 돼지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모두 익사했습니다. 둘째 부활 때에는 바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 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다 속에 감추어진 미스터리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1986년 5월 19일,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실종된 요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동료들이 어떤 재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순항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청명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안개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요트는 부서졌고 그 안에 있던 여덟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수많은 참사들, 즉 이해하기 힘든 참사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전 500년경부터 이런 참사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버뮤다 삼각 지대는 '마귀의 삼각 지대', '후두 바다', '황혼 지역', '실종되는 배들의 항구' 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재난 중 상당수가 크리스마스 때에 일어나며 또한 재난이 일어날 때 UFO가 출현한다는 점입니다.

해안 경비대의 5720번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

버뮤다 삼각 지대는 대서양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가상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즉 큰 배나 조그만 보트, 비행기 등이 많이 사라지는 지역이다. 이 삼각 지대의 꼭짓점은 버뮤다와 마이애미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이다. 대서양에 속한 바로 이 지역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100여 대의 비행기와 배가 1,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베를릿츠(Charles Berlitz)가 지은 「버뮤다 삼각 지대」라는 책의 11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의 항공로와 해로에는 많은 비행기와 배가 다니고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고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건은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종된 비행기 중 상당수는 갑자기 실종될 때까지 기지나 종착지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다가 사라져 버렸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계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나침반이 계속해서 빙빙 돌며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노랗게 되어 안개가 끼었다거나, 주변의 바다는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들 주변의 바다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을 라디오로 보내고

는 사라졌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 지역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비행기나 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이 공포는 이제 미스터리가 되었다. 여러 가지 그럴 듯한 설명이 있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도 되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갑작스러운 파도가 형성되었다든지, 폭탄이 비행기를 폭파시켰다든지, 바닷속의 괴물이 공격을 했다든지, 그들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든지,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배를 실종시키는 전자기적 와류나 중력에 의한 와류가 발생했다든지, 고대로부터 생존해 온 어떤 존재들이나 혹은 외계인들이 조종하는 UFO나 잠수함에 의해 납치당했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다. 버뮤다 미스터리에 대한 해결책 혹은 설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다 바다와 관련이 있으며 이 미스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이다.

다음은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발생한 비행기나 배의 실종 사건 중 몇 가지만을 요약한 것이다.

1. 1948년 12월 30일, N16002 항공기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태우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마이애미의 불빛이 보이는 거리에서 이 항공기는 착륙하기 위해 마이애미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관제탑에서 지시를 내리는 동안에 비행기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플로리다주 내에 있는 여러 곳의 기지에서 라디오로 이 비행기와 접촉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계속했고 그 이후에 광범위하게 수색을 했지만 이 항공기나 그 안의 탑승객들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이야말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다.
2. 1948년 1월, 브리티시 사우스 아메리칸 비행사 소속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버뮤다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비행기도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민간 항공부는 이번의 실종 사건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제까지의 실종 사건 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3. 1949년이 되기 바로 전에 또 다른 DC-3 비행기가 맑은 날씨에 버뮤다와 자메이카 구간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 경우에도 그 부근의 미국 해군이 그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비행기는 망각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4. 1945년 12월 5일 오후, 매우 이상적인 날씨에 다섯 대의 해군 어벤저 비행기가 정규 순찰을 위해 플로리다주의 포트로우더데일을 출발하여

버뮤다 삼각 지대로 날아갔다. 그런데 비행 편대의 대장은 자기들이 길을 잃었다고 통신을 보냈고, 항법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대화가 끊어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27명의 승무원을 태운 다섯 대의 해군 정찰기는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해 해군 관리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5. 1946년, 시티벨레라는 배가 아무도 태우지 않은 채 바하마 근처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6. 1944년 10월, 지금도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는 루비론이라는 배는 플로리다주 연안에서 단지 개만을 태운 채 발견되었다.
7. 1940년, 글로리아 콜리타라는 배 역시 아주 양호한 상태로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8. 1935년, 라다하마라는 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침몰했다.
9. 1931년, 노르웨이의 스타벤저라는 배는 43명의 승무원과 함께 바하마 근처에서 사라졌다.
10. 1925년, 라이푸쿠마루라는 배는 “빨리 와라. 이것은 마치 칼 같다! 피할 수 없다.”라는 SOS 구조 전문을 보내고는 매우 날씨가 좋은 날에 사라져 버렸다.
11. 1921년, 디어링이라는 배는 다이아몬드 솔스라는 해안에서 두 마리의 고양이만을 태운 채 발견되었다. 고양이들의 빵은 여전히 스토프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바로 이 지역에서 12척의 배가 사라져 버렸다.
12. 1918년, 미국 해군의 시클롭스라는 배는 309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바르바도스로부터 실종되었다. 그들은 SOS 구조 전문도 보내지 않았다. 1941년에는 시클롭스의 자매선인 프로테우스와 네레우스 역시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다.
13. 1492년,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 지대에 있는 사르가췌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침반이 북극성을 가리키지 않음을 보았으나 선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또한 불이 바다로 떨어졌고 멀리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14. 1781년과 1812년 사이에 네 척의 미국 군함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사라졌다.

15. 1840년, 프랑스의 로살리호는 값비싼 화물을 실은 채 낫소 부근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1854년에는 벨라호 역시 표류했고, 1866년에는 스웨덴의 로타호가 아이티 부근에서 사라졌다. 1868년에는 스페인의 상선인 비에고호가 버뮤다 삼각 지대를 향해하다 사라졌다.
16. 1880년, 미국의 아틀란타호는 300명의 수병을 태우고 버뮤다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1902년에는 독일의 프레야호가 선원들을 다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17. 1953년 2월, 자메이카로 가는 도중에 영국의 요크호는 절망의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고 런던의 법정은 이 배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18. 1950년 3월, 미국의 글로브마스터호가 삼각 지대의 북쪽에서 사라졌고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매우 조용한 밤에 수송선 산드라호가 사라졌다.
19. 1954년, 미국 해군의 수퍼콘스텔레이션호와 서던디스트릭트호가 사라졌다. 1955년, 콘네마라 IV호가 삼각 지대의 중심에 홀로 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1956년에는 10명의 선원을 실은 두 척의 해군 함정이 사라졌다.
20. 1950년, 미국 공군의 KB-50 항공기가 9명의 군인을 실은 채 랭리 공군 기지에서 아조레스로 비행하는 도중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21. 미국 해군은 1963년과 1968년에 이 삼각 지대에서 두 척의 핵 잠수함을 잃어버렸다.
22. 1965년, 미국 공군의 C-119 항공기가 그랜드투르크섬으로 향하던 중 사라졌고, 1967년에는 해군 함정 여러 척과 영화 장비를 싣고 가던 비행기가 비미니로 가는 중에 사라졌다.

마의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 매우 많지만 위에서는 이것들 중 몇 가지만을 참고로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 삼각 지대에서 일어난 배나 항공기의 실종 사건의 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쿠쉬(Lawrence David Kusche)는 자신의 책 「버뮤다 삼각 지대 미스터리」에서 비행기나 배의 실종 사건에는 어떤 신비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중요한 실종 사건들

을 조사했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고가 항해사나 조종사의 실수, 공중 납치, 선상 반란, 숨은 장애물, 바다에 늘 존재하는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무책임한 보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책 277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 지대의 전설은 조작된 미스터리이다. 이것은 부주의한 연구로 인해 생겨났고 알게 모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추론을 이용한 작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조작이 자꾸 반복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쿠쉬의 책과 그의 결론에서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자면, 그가 처음부터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실종의 미스터리가 다 과장이고 상상이며 사실을 잘못 진술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실 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삼각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을 그 자신이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도 그런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밸리츠는 자신의 책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나 비행기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혹은 배의 경우에 사람만 없어진 채 발견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미스터리는 그 지역만의 이상한 환경이나 사람의 잘못, 나쁜 기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많은 날, 항구나 비행장 근처에서 발생했으므로 현재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버뮤다 삼각 지대의 역사는 고대와 근대의 전설적인 안개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끔씩 발생하는 자연계의 힘, 아직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증명된다면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개념들을 모두 바꾸어 버릴 물리 이론 등과 같은 것에 의해 본질이 가려진 사건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버뮤다 삼각 지대는 바다로 가라앉아 실종된 땅, 잊힌 고대 문명,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모르나 지난 수 세기 동안 외부 우주 세계나 혹은 지구의 내부 세계에서 땅으로 오는 외부인 등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좀 더 거창한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적 진리의 하늘이 틈새 사이로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어서 확실하고 익숙한 곳에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위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반물질의 존재 가능성, 시간과 공간의 곡선, 새로운 개념의 중력장과 자기장 등등... 이것은 굉장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지식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좀 비논리적이라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 지구 내부에 있고 잘 알려진 버뮤다 삼각 지대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이것에 대해 새로이 설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수 없다.

버뮤다 삼각 지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대해 책을 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지역의 바다에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믿으며 또 다른 부류는 이 모든 사건이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슨(George Johnson)과 태너(Don Tanner)는 성경적 관점에서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의 배나 비행기의 실종을 바다와 해양에서의 마귀의 활동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경과 버뮤다 삼각 지대」라는 책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버뮤다 삼각 지대와 일본 근해의 마귀의 바다에서 모든 나침반이 항상 북쪽만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뱀장어들이 삼각 지대의 깊은 곳까지 이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르가스 바다의 해초들이 삼각 지대에서만 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바다의 깊이가 약 6,000미터나 되는데 바다 표면에서만 말이다. 지구 내부의 미스터리들과 그것들이 위에 있는 세상에 미치는 효과들로 인해 이 분야의 전문가나 향해하는 이들은 곤혹스러워 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된다.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자신들의 예전 거처에 거하기를 꿈꾸며 현재 도피 중이며, 사탄이 이런 환상을 부추기기 위해 거짓 종교를 파급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늘날 사탄은 심령술사들을 통해 자신이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신의 탄생지를 크게 미화시키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버뮤다 삼각 지대의 심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분명히 지구에는 내부 세계가 있으며 그 출입구는 바다에 있다. 이제 이 세상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결을 향해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영적 영역으로부터의 집요하고 강한 침략 행위가 우리의 물질세계 내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고 있다.

「성경과 버뮤다 삼각 지대」의 저자들은 바다와 해양에서의 사탄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믿음, 즉 버뮤다 삼각 지대와 일본의 마귀의 바다야말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 몸을 잃고 죽은 존재들의 영이 거하는 곳이며 그들이 자기 자신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바다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나침반이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곳이며

정북 방향이어야말로 사탄이 자신의 회중 위에 앉기를 원하던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의 방향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증해 봅시다. 처음에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하늘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작정했을 때 그는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후 루시퍼는 하늘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회상하시며 루시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처럼 하늘은 높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산이라 불렸고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회중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을 하리라.”고 다섯 번이나 외쳤던 루시퍼가 이 땅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름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보다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사 14:13).

바로 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경을 확고히 믿는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 99퍼센트는 자기들의 머리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쪽을 가리킨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만일 호주에 사는 사람이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가 가리키는 방향 역시 전혀 다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자신의 머리 위쪽 방향을 가리켰을 때 그 방향이 정확하게 셋째 하늘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북극에 사는 사람뿐입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늘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북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시48:1-2).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종종 시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에 나오는 시온 산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바로 그 도시로, 하나님께서 친히 짓고 만드신 바로 그 도시입니다(히11:10).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북쪽에 그리고 나사렛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그 어느 곳의 남쪽도 아니면서 다만 이 땅의 북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보려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노래하는 복음 찬송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행1:11; 살전4:16). 그런데 그 하늘은 북쪽에 있습니다. 옳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욘9:8-9)

왜 하나님은 남쪽에다 우주의 '방들'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에 자신이 거하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자신이 거하는 셋째 하늘의 남쪽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별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라 하더라도 북쪽 하늘에 있는 V자 형태의 커다란 진공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북쪽에 있는 작은 별만이 그곳에서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자신의 하늘과 남쪽에 있는 지구 사이에 장애물을 두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늘에 커다란 빈 공간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욘26:7)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던가요? 이 땅이 셋째

하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남쪽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책을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에 갈 때 우리는 다 북쪽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속 어딘가에 하늘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의 고상한 곳에서 모든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왕좌는 북쪽에 있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시75:6-7).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며 남쪽도 아니라면 자연히 북쪽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왕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는 위의 말씀에서 ‘북쪽’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께서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북쪽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들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마귀와 그의 군대는 북쪽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한편 욥기 26장은 바다 밑에 거하는 죽은 자들과 구부러진 뱀과 그의 영역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도 가려지지 못하느니라(욥26:5-6).

또한 성경은 땅 밑에 ‘문’ 혹은 ‘구멍’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번 세계 지도를 펴고 다음의 지역이 위치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교도 문화의 본산지이며 부패된 성경 사본들의 출처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반인반수의 스팅크스가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 부근, 이라크와의 전쟁이 발발한 페르시아만의 입구에 위치한 보스라(혹은 바스라), 소돔과 고모라, 에베레스트산,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마귀의 삼각 지대’ 등. 이상하게도 이 지역들이 모두 북위 30도 근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버뮤다 삼각 지대도 북위 30도 근처에 놓여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8-32절 말씀에는 고라라는 레위 사람이 무리를 지어 모세에게 대항하며 반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땅을 열어 고라의 무리들 곧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온 가족을 산 채로 땅속으로 집어넣고 다시 땅을 덮으셨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이 발생한 곳도 북위 30도 근방입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정확한 과학 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땅속에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재난은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를 받아 땅 밑으로 가리앉은 곳에서 불과 20-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참조 유다서 7절). 이 지역은 바다의 표면보다 약 400미터 정도나 낮은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곳보다 낮은 곳은 없는데 바로 이곳에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있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곳이 문자 그대로 불 호수가 될 것입니다(이사야서 34장, 마13:42; 25:41 참조).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반 샌더슨이라는 사람은 지하에 열두 개의 ‘문’ 혹은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마16:18, 은2:6 참조). 또한 지구의 내부가 비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남극과 버뮤다 삼각 지대가 이런 구멍들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양에서 가장 깊은 곳은 대서양의 버뮤다 삼각 지대와 태평양의 일본 근해의 마귀의 삼각 지대와 인도양의 오만의 만(페르시아만이 인도양으로 바뀌는 곳) 등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이 다 북위 20-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개 그 근처에서 UFO가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바다와 UFO’, ‘나침반이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점’, ‘같은 지점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점’ 등은 버뮤다 삼각 지대가 마귀와 그의 군대들과 상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버뮤다 삼각 지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줄 때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간 복제

### 들머리

2004년 2월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 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었다는 발표가 있는 이래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sup>1)</sup>

특히 황 교수의 ‘인간 배아 복제’ 성공으로 말미암아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증폭되던 가운데 몇 달 전 알츠하이머병을 앓아온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말을 타다 떨어져 전신 마비가 됐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사망하자 줄기세포 연구 문제는 본격적인 정치적 이슈로도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리브의 이름을 거론하며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파킨슨병이나 연소성 당뇨병 및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신랄히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인들이 일단은 케리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이 되어 버린 미국에서는 향후 4년간 표면적으로 인간 배아 복제가 금지될 전망이지만 성인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

1) 이 글은 가천 의과 대학 소아과 과장이고 전산정보원장이신 차한 박사가 기고한 것이다. 이 글을 포함한 많은 유익한 글들이 차한 박사의 단행본 「성경으로 세상보기」와 「성경으로 세상보기 2」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참고로 차한 박사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중에 그가 줄기세포 생성에 성공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연구나 새로운 배아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민간 지원 연구는 이 같은 제한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인간 복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잠시라도 멈추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불원한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인간 복제’에 대해 성경적 조명을 해봄으로써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유익을 구해 보고자 한다.

## 생 명

인간 복제를 포함한 생명 복제를 논하려면 먼저 생명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움직이는 창조물’(the moving creature) 곧 동물(動物)에서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창1:20, 3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셨던 것과 달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게 하셨다(창1:26; 2:7). 그래서 아담 이후 역사상 존재하였던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눅3:38).

그러나 아담과 달리 그 후손들은 아담의 타락에 의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타락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유한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창9:6; 약3:9; 창5:3).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곧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기쁜 뜻을 뱀에게 내리신 형벌의 말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도록 하셨다(계12:9; 창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이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seed)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마1:21; 요1:12; 3:16).

## 인본주의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영생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곧 복음(gospel, 天乃人)이 아니라 종교(religion, 人乃天)를 통해 ‘결코 죽지 않으려는’ 시도를 행해 온 것이다(창3:4; 갈1:11-14).

오늘날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되고 있는 바빌론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된 과정을 보면 확실히 이 인내천(人乃天)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아의 홍수 후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에 거하게 되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세우게 되었다(창1:28; 9:1; 11:2, 4, 9). 아울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둘 대신 그들의 진보된 기술로 만든 벽돌로써 도시와 탑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창 11:3-4; 고전10:31).

그런데 이러한 바빌론의 방법론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면서 함께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창11:8-9; 행 11:26).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격’(Godhead)이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식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팽배해지게 되었다(행17:29).

그리고 21세기 생명 공학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러한 인본주의의 종교적 방법론은 질병 치료용이라는 미명을 지닌 ‘인간(배아) 복제’로 대치되어 ‘결코 죽지 않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창3:4).

이는 황우석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의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복제 배아를 만들고 이것으로 다른 환자의 난치병을 완치시킨다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윤회의 완성일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복 제

즉 인간 복제란 영(靈), 혼(魂), 육(肉)으로 구성된 인간에서 단순히 육만을 복제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살전5:23; 히4:12). 이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너무나도 ‘종교적’이며 ‘영적’인 문제이다.

특히 같은 생명 복제이면서도 동물의 복제와 인간의 복제가 같을 수 없음은, 즉 인간 복제가 영적인 문제임은 주님께서 욥의 나중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신 구체적 내용들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욥기 42장을 보면 주님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욥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양은 칠천에서 만 사천 마리로, 낙타는 삼천에서 육천 마리로, 소는 오백에서 천 겨리로, 암나귀는 오백에서 천 마리로 정확히 두 배가 되었지만 아들은 일곱, 딸은 셋으로 이전과 똑같은 수였다(욥1:2-3; 42:10-13).

즉 동물은 영혼(soul)이 없기 때문에 욥이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영혼(soul)을 소유한 존재이므로 욥의 고난 중 욥이 죽었던 자녀들은 그 혼이 살아서 낙원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 후에 이전과 같은 수의 자녀를 주심으로써 자녀 수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두 배’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그렇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는) 인간 복제는 복제 양 돌리의 경우처럼 결코 단순히 육만의 복제로 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를 나눌 수 없는 ‘전인적 존재’(holistic person) 곧 ‘영혼과 몸이 같이 있는 단일체’(psychosomatic unity)로서 인간이 복제되는 것이므로 복제의 대상이 된 세포를 공여(供與)한 사람의 혼과는 또 다른 혼이 복제된 육에 함께 내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제 인간은 출현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 복제’와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복제된 인간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기만 하면 복제 아기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황 교수의 연구 성과가 나온 이후 복제 인간의 출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물론 이번에 확립된 줄기세포는 남성의 체세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성용’이란 제한점이 있고 또 배반포기까지의 배아 복제 성공률은 높은 반면 줄기세포주를 확립한 비율이 낮은 점 등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 복제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만약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기고 복제를 시도해 볼 과학자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인간 복제의 우려를 씻기 위해 윤리적 논란이 큰 인간의 난자 대신에 인공 세포질을 만들어 체세포를 복제하려는 프로젝트도 황교수에 의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난자 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사라진다고 하여도 인간 복제 가능성마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젠가는 체세포의 유전자를 발생 초기로 돌려서 체세포 자체를 수정란 상태로 만들어 줄기 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세포를 역분화(逆分化)시킬 정도로 생명 공학이 발전될 경우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자궁 내 성장 대신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차적인 인간 복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란 항상 죄와 불의의 길로 향할 뿐이기 때문이다(약1:15; 롬3:10-18). 따라서 인간 복제에 대한 욕망 곧 인간의 영생에의 집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동안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리라(창 3:24).

### 복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언젠가 혹시라도 복제 인간이 우리 곁에 등장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인가?

비록 인간 복제라는 비윤리적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반성경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난 복제 인간이지만 그들이 영혼(soul)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복제 양 돌리가 괴물이 아니고 (새끼까지 낳을 정도로) 양이 분명했던 것처럼 복제 인간도 생물학적 측면에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결코 영혼(soul)과 육체를 나눌 수 없는 ‘전인적 존재’(holistic person)이므로 복제 인간도 혼(soul)적인 존재가 됨(becoming)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창2:7).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니라(창2:7).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다시 말해 복제 인간이란 ‘무성 생식의 방법으로 원본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존재가 신생아의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제 인간은 원본 인간과 유전자만 같을 뿐 별개의 영혼을 소유한 별개의 인격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soul)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된 과정의 정당성과 그 태어난 인간 자체에 대한 관계하심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인본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고 또한 할례의 언약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창16:1-4, 15; 17:20, 23-26). 아울러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하여 태어나게 된 베레스나 다윗이 간통하고 남편인 우리야를 죽인 후 아내로 삼았던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출생 과정과 상관없이 한 영혼과 관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창38:12-30; 마1:3; 삼하11:2-27; 12:24-25; 마1:6).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요3:6)이며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요6:63)

따라서 복제 인간도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마1:21; 요1:12; 요3:16; 롬10:13; 고전15:1-4).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soul)을 위해 흘려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7).

## 생명나무

그렇다면 인간 복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의 기술과 고안’에 이끌려 복제된 인간의 육(肉)에다 영혼(soul)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반응을 살펴봄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창2:8-9).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이처럼 특별히 두 나무를 두셨다고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동산 어디에 있어도 이 두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자인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이 두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리라.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선과 악의 판단도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제시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의 조경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 의지’(레22:18, 21, 23; 23:38; 민15:3; 29:39; 신12:6, 17; 16:10; 23:23; 대하31:14; 스1:4; 3:5; 7:13, 16; 8:28; 시119:108)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을 선포하셨다(창2:17). 그래서 만약 아담과 이브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창3:22-24, 참조: 「Discovery of Genesis」 by C. H. Kang & Ethel R. Nelson).

## 심 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이브에겐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으며 이 세상에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태동하게 되었다(창3:16-19).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창3:19하). 그리하여 먼저 영(靈)적으로 죽은 아담은 930세를 고통 가운데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은 후 그 육(肉)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한 구원의 방법론을 곧바로 행해 보이셨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셔서 930년(추정)의 간격을 두고 영(靈)과 육(肉)이 죽게 하셨으며 그 사이에는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이다(창 3:15, 21; 고전15:45; 창5:5).

그렇다면 이제 수정란(受精卵)부터 영(靈), 혼(魂), 육(肉)을 지닌 하나의 인간이라고 간주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황우석 교수에 의해 인간 복제는 시작이 된 것이고 따라서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 교수의 인간 배아 복제는 착상(着床, implantation) 전의 상태에서 마치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막 입에 넣고 있는 순간에 비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직은 먹어서 소화 흡수를 시켰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진 유보가 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악(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난 이후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 복제된 인간의 육(肉)에다 영혼(soul)이 허락되어서 그 복제된 인간이 선(善)과 악(惡)을 분별할 수 있게까지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방관치 아니하시고 곧바로 가시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신1:39; 사7:15-16).

## 7년 환난기

그런데 앞으로 곧 다가올 단일 세계 정부하에서 ‘인간 복제’와 같은 바이오 산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계놈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밝혀진 인간의 ‘유전 정보’(image)를 조작한 후 여기에 ‘생명’(life)을 부여하는 인간 복제 기술을 적용시켜 마치 전능자로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할 것이다(계13: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image)에게 생명(life)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13:15).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 곧바로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때에 큰 환난(great tribulation)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마24:21-22).

주 예수님께서 ‘인간 복제’와 같은 악(惡)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서 영존하는 파멸로 징벌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바로 그때가 임박했음을 성경에 제시된 여러 표적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세태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살후1:7-9; 마13:39-43; 단12:4; 나2:3-4; 마24:7, 12; 딤후4:1-4; 딤후3:1-5; 약5:3; 벴후3:3-4).

그런데 7년 환난 기간 중 심지어는 5개월 동안 메뚜기에 의해 고통을 받더라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계9:3-6). 아마도 역설적으로 인간 복제 기술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결과로 인해서겠지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 속에서 차라리 죽음을 갈망한다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죽음이 멈춰진 때보다 최악의 고통의 시대가 또 있을까? 이것은 마치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태일 것이다.

## 마무리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팀의 인간 배아 복제 연구가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의 '올해 10대 연구' 중 3위로 선정됐다. 사이언스 2004년 12월 17일자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 화성 탐사 로봇의 생명 탐사 업적'을 올해 최고의 연구 성과로 소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한 소형 인류 화석'에 이어 세 번째로 황 교수팀의 업적을 선정했는데 이 주목받는 세 가지 연구 모두의 기저에는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렇다. 비단 사이언스의 평가뿐이라.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 의한 모든 인본주의의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해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에 처해지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눅6:26; 창3:6, 19; 11:4-9).

이미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기 시작하여 대환난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아울러 대환난 기간 중 영존하는 복음을 지닌 천사가 외치는 소리에 미리 아멘으로 화답토록 하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계14:7).

## 하나님의 심판: 역병들

### 유전자 관련 역병들

20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유전자를 조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자 하나님은 유전자와 관련된 무서운 병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세상에 무서운 역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재림의 때에 곳곳에서 역병들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마24:7-8).

여기의 역병은 영어로 ‘pestilence’인데 이 말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 하면서 유전자를 조작해 감에 따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유전자와 상관있는 역병으로 사람들을 치실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게 될 역병들을 간단히 보여 줍니다.<sup>1)</sup> 이런 병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 1. 슈퍼 박테리아

1940년대 대량 생산이 이뤄지면서 인류를 태초부터 괴롭혀 온 세균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페니실린은 기적의

1) 여기서 소개하는 세기말 질환들은 가천 의과 대학의 소아과 과장이신 차한 박사님이 직접 강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영상과 강의 내용을 참조하기 원하는 독자는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의 자료실에서 영상 자료를 보기 바란다.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니실린에 듣지 않는 페니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되었습니다.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은 계속 증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황색 포도알균이 페니실린에 듣지 않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의 페니실린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약제가 메티실린입니다. 그런데 1960년에 메티실린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불과 1년 만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이 등장했습니다. MRSA에 듣는 몇 가지 항생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 반코마이신입니다. 그런데 1996년에는 반코마이신에 잘 듣지 않는 황색 포도알균(VISA)이 발견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반코마이신에 완전 내성을 보이는 균주(VRSA)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슈퍼 박테리아(Superbacteria, superbugs)는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을 지칭하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내성 세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 VISA, VRSA)
2.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 구균(VRE)
3. 거의 모든 항생제에 듣지 않는 ‘다제 내성 그람 음성 세균’

슈퍼 박테리아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병원 환경에서 주로 존재하며 방어 기전이 손상되어 있는 입원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슈퍼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 감염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과 국내에서도 병원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슈퍼 박테리아가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90,000여 명이 MRSA에 감염되고 18,000여 명이 이와 관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병원에서 분리되는 황색 포도알균의 60% 이상은 메티실린 내성균(MRSA)이며 이로 인한 감염증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발견되는 MRSA가 병원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흔해서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에 듣지 않는 돌연변이 세균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자연 현상이며 항생제에 노출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빨리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내성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

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 2. 에이즈

2008년 국제 연합 에이즈 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7년 현재 에이즈 감염인의 수는 3천 3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감염자 수의 증가와 효과적인 약제의 사용으로 생명이 연장되어 전체 환자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환자의 발생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985년 처음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에서 감염인의 발생이 보고 되었고 질병 관리 본부 보고에 따르면 국내 감염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 744명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보고된 누적 감염인수는 총 5,323명이라고 합니다.

에이즈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룯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절대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정신과 상담 또는 신앙의 힘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특히 게이들은 수많은 섹스 파트너를 갖고 난교(亂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의 예견되는 성행위로 인해 구강, 폐, 전립선, 남자 성기, 쓸개, 항문, 직장, 결장, 여자 성기, 자궁, 골반, 뇌, 피부, 혈액, 면역 시스템 등 여러 신체 시스템에 갖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감염자의 살을 파먹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의 새로운 변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게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하나님(God)이라는 단어를 적절히 인용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배격합니다(창1:27). 또 그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동성애의 토대로 삼습니다(딤펴전6:20). 또한 성경이 동성애가 가증스러운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합니다(레18:22; 20:13; 왕상14:24; 롬1:26-27; 고전6:9; 딤펴전1:10; 유7). 결국 그들은 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요일 1:8).

동성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엡5:22-33).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지 못하게 만듭니다(딤펴2:13; 계19:7-8; 22:20).

### 3. 광우병

광우병은 ‘핵산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의 일종인 정상 ‘프리온’의 변종인 변형 프리온(PrP<sup>Sc</sup>)이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에 해당하는 전염성 해면상 뇌증에 걸린 면양, 사슴 등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다시 소에게 먹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인간이 먹으면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PrP<sup>Sc</sup>)이 인간에게 들어와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vCJD)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창1:28).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떠한 사물이든지 ‘섞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9:3; 레 19:19). 하나님께서 제정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초식 동물인 소에게 육식을 시킨 결과 광우병이란 새로운 역병의 심판이 생겨났습니다(출9:15; 시78:50; 렘21:6; 합3:5; 히12:23).

광우병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형 집단 사육을 하면서 잘못된 사료를 줌으로써 생겨났습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 대신 맘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마6:24; 롬16:18).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많은 ‘인수 공통 전염병’ 중 특별히 소의 역병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로 섬기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루시퍼의 얼굴도 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출32:1-6; 왕상12:25-33; 겔1:10; 10:14; 28:14).

기독교 문화권의 대표 지역으로서 시간, 공간, 언어 등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우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함을 꾸짖으십니다(롬3:11-12; 눅18:8). 이것은 우리가 위치한 이 시대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마24:7; 눅21:11).

### 4. 사스

2003년 3월 15일, 중국 광둥성,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및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급성 폐렴에 대한 경고가 전 세계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고열, 기침 및 호흡 곤란을 특징으로 하는 폐렴으로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고, 일체의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을 찾을 수 없었으며 급성 호흡 부전으로 진행하여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2003년 사스(SARS) 대유행 시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총 8,42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16명이 사망했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은 사망률이 43%에 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확진된 사스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증상이 경하고 사망하는 경우 없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들의 객담을 비롯한 여러 검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확인되어 이것을 사스의 원인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의 흔한 원인균으로 치명적인 폐렴은 거의 일으키지 않으나 사스 환자들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형으로 ‘SARS 바이러스’ 또는 ‘SARS 코로나바이러스’라 명명되었습니다.

SARS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며 리바비린을 비롯한 몇몇 항바이러스제가 시도되었으나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SARS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SARS는 질병 관리 본부에서 지정한 4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종 전염병으로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5.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말합니다. 매년 인구의 약 10%가 감염됩니다. 인플루엔자는 노인, 영유아 및 만성 내과 질환 환자의 경우 폐렴의 합병 또는 기저 질환의 악화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며 일부는 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종 심각한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10-4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유행 인플루엔자는 항원 대변이에 의한 것으로 세계적 유행이 특징이고 인구의 30-50%가 감염되므로 인명 및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20세기에는 3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1. 1918년 A/H1N1 스페인 대유행(미국에서만 50만 명 사망)
2. 1957년 A/H2N2 아시아 대유행
3. 1968년 A/H3N2 홍콩 대유행

또한 1997년에는 홍콩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A/H5N1이 사람의 감염을 초래하였습니다.

자연계에는 여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마치 단골손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림 각 종(種)마다 고유하게 자신에게 맞는(적응된) 숙주(동물)만을 감염시키고 다른 동물은 감염시키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종 특이적 감염’ 또는 ‘종간 장벽’이라고 합니다.

야생 조류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헤마글루티닌(H) 항원의 종류가 15가지(H1-15), 뉴라미니다제(N) 항원의 종류가 9가지(N1-9) 있습니다.

### (A) 조류 인플루엔자

1997년 홍콩에서 처음 출현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H5N1)가 전 세계 60여개 나라로 꾸준히 확산되면서 조류의 집단적인 폐사를 초래했고 산발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2003년 이후 2008년 9월 10일까지 A/H5N1에 감염된 사람은 387명이었고 그중 63.6%인 2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A/H5N1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유행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를 넘어 터키, 이라크, 이집트까지 확산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토착화된 조류 감염병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른 사람의 감염도 일정하게 발병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도 전파가 된다는 것이 알려졌고 또 이러한 가설로 대륙 간의 전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에 충북 음성에서 첫 A/H5N1의 유행이 양계장에서 있었고 그 이후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33건 이상 유행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 매번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의 조치로 유행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철새 이동 경로 변화의 영향으로 조금씩 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 (B) 신종 인플루엔자

다음번에 있을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24일 멕시코와 미국에서 확인된 돼지 유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 감염 유행은 항공기 여행객을 통해 4-6주 만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6월 11일에 21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갖지 못한 특성,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효과적인 전파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대유행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륙을 넘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감염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성은 북미의 돼지, 사람 및 조류 바이러스와 유라시아의 돼지 바이러스 등 ‘4중 재편성 바이러스’(quadruple reassortant)로서 주로 돼지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돼지 유래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람 감염은 이제껏 인류가 겪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인류 대부분이 면역성이 없으므로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가장 두드러진 역학적 특성 중 하나는 대부분 환자가 젊은 사람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60-70%가 5-30세). 아마도 노인 층은 과거에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적 및 항원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현대 의학보다 수천 년 앞서서 질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레17:15-16).

### 결 론

말세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악한 시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롬1:28). 특히 말세에는 이런 악한 일들로 인해 성적 혼란이 생기고 그 결과 에이즈 같은 역병이 성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롬1:27).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 하나 챙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사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우리가 간직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천한 몸이 휴거를 받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뉴에이지의 더러운 역병들이 창궐한다 해도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삽시다.

##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울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구출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나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들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닥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곁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네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내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네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악한 일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 어거스틴의 창세기 6장 해석 변경

창세기 6장에는 현시대 사람들이 해석상 난제로 여기는 어려운 기사가 나옵니다.

<sup>1</sup>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sup>2</sup>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sup>3</sup>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sup>4</sup>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사건은 결국 노아의 대홍수로 이어졌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sup>5</sup>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sup>6</sup>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sup>7</sup>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당시 땅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sup>11</sup>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sup>12</sup>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아무런 편견 없이 창세기 6-7장을 읽으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는 존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였고 그 결과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들이 땅에 생겨났으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멸하고 홍수 뒤에 새롭게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1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22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23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창7:21-23).

이런 기사를 읽으면 누구라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성경 신자라고 하면 구약 시대 특히 모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욥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1:6).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2:1).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7)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신학자들, 목사들, 성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자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롬8:14, 19).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요1:12).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anifest, 롬8:19). 로마서 8장의 문맥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과 그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간 현재 드러나 있으며 욥기 38장 7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임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눅3:38).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창2:7).

유다서 6-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처음 신분(위치)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4-6절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성경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사실 이외의 다른 해석은 사적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강력한 칼빈주의자로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 역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확언합니다.<sup>1)</sup>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반대를 제기하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 주장을 펴는 이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참조 막12:25; 눅20:33).

---

1) John MacArthur, 「맥아더 스테디 성경」(*The MacArthur Study Bible*). Nashville, London, Vancouver, and Melbourne: Word Publishing, 1997, p. 24.

이 구절은 천사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자기들의 처음 위치(신분)를 버리고 떠났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반역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으면 모든 천사의 성은 남성이며 날개 같은 것도 없고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신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날개 달린 창조물은 그룹으로서 천사가 아니며 이사야서 6장의 날개 달린 창조물은 스랍으로서 역시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렇게 명백한 해석이 갑자기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바뀌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고 그 일은 천주교의 국가 교회 교리를 확립한 어거스틴이 자기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 영해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를 저술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어거스틴 이전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믿던 신앙을 180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글은 어거스틴의 이런 해석이 왜 문제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1차 수신자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모세 오경) 해석에 관한 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물론 구약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유대인 역사가들이나 성경 이외의 그들의 작품이 무어라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아마 요세푸스일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누구라도 요세푸스에 대해 조금은 배울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요세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틴어: Flavius Josephus, 37-100)는 1세기 제정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 주후 66년에 발발한 유다이아 전쟁에서 그는 유대군을 지휘하여 로마군에 맞섰으나 로마군의 포로가 된 뒤 투항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풀려나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는 티투스의 막료로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훗날 이 전말을 「유대 전쟁사」라는 책으로 남겼다.

요세푸스의 글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여 주는 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그의 책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늘 참고하는 고전입니다.

예수님 승천 바로 이후에 살았던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뿐만 아니라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의 견해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담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는 「유대 고대사」의 1권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헤라클레스 같은] 거인들이라고 부른 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일을 행하였다. 참고로 여기에 붙은 각주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느 면에서 과거의 거인들이었다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의견이었다.”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이런 증언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은 후이(Bryan Huie)가 요약한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sup>2)</sup>

1.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인 종족을 믿었음을 보여 준다.
2. 역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3. 에녹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4. 「주빌리의 책」(*Book of Jubilees*)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5. 주후 2세기에 살았던 저스틴 마터(순교자 저스틴)도 「두 번째 변증」(*Second Apology*) 5장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6. 주후 240년경에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주교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

2) <https://www.douglasjacoby.com/sons-of-god-by-bryan-t-huie/>

7.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8.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창6; 신32:8; 욥1:6; 2:1; 38:4; 시29:1; 89:5 등).
9. 유명한 성경 학자인 벌링거(E. W. Bullinger, 1837-1913) 역시 그의 유명한 저서 「Companion Bible」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0. 유다서 6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1. 야살의 책 4장 18절은 짐승들도 혼합되어 하이브리드 종류가 나온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몰로 심판하셨다(창6:7).
12.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 역시 이를 지지한다.<sup>3)</sup>

이런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과 주후 300년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를 초지일관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며 <위키백과>는 이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sup>4)</sup>

1. 어거스틴 이전에 고대 작가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던 견해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거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 - 외경에서는 이들을 순찰자라고 부름 - 과 사람들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종족이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어거스틴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연설에 의거하여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시」(신국)에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후손들로, 사람들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혼혈 종족을 낳음으로써 순수한 종교를 부패시켰다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3) 우리는 요세푸스, 필로, 에녹서, 주빌리의 책, 야살의 책, 저스틴 마테나 북아프리카의 주교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들이 한결같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증언하였음을 보일 뿐이다.

4) <위키백과>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항목

5) 「하나님의 도시」의 원제목은 「이교도들에 맞서는 하나님의 도시」(On The City of God

이처럼 역사는 매우 분명하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임을 보여 줍니다.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천주교회를 위해 연옥 교리를 만들고 영혼의 자유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며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유대인)을 신약 시대의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천년 왕국 같은 실제적 왕국은 이 땅에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를 도입하고 그 교리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비록 그가 천주교회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 ‘성어거스틴’이라 불리지만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회의 성인들이란 한결같이 ‘믿음+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므로 성경적으로는 ‘다른 복음, 저주받은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힘입어 천주교회는 그 뒤로 무려 1,000년 이상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유대인과 성경 신자 말살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반셈족주의’(Anti-Semitism)<sup>6)</sup>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는 유대인 자체를 말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말살하려 했고 바로 이런 시도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왕국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유대인들과 성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카톨릭주의의 무지와 미신에 갇혀 살게 되었고 이에 역사는 이 시기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천주교회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비성경적 카톨릭주의와 반셈족주의의 기반을 놓아준

---

*against The Pagans*)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시대에 로마를 침략하는 이교도들을 순수한 종교를 부패시키는 자들로 보았고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창세기 6장 사건을 이교도들의 침략과 같은 것으로 영해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말의 영어식 표현을 직역하면 ‘셈족에 대한 반감’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셈족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혹은 유대 민족에만 해당된다. 유럽 모니터링 센터는 반유대주의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인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유대인 개개인과 그들의 재산, 또는 유대인 공동체 기관과 유대교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공격의 대상은 유대인들의 집합체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국가도 포함된다.” 반셈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기독교 - 사실은 천주교 - 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Christ killers)로 증오한 것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였다. <나무 위키>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1535년경부터 프랑스 출신의 칼빈이라는 또 다른 어거스틴주의자가 일어나 스위스 제네바에 신정 정치 국가를 세우면서 장로교라는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칼빈주의는 그 원천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으므로 엄밀하게는 어거스틴주의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회들은 불신자였던 어거스틴을 크게 신봉하고 따라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 역시 유대인 말살과 성경 신자 배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처럼 자기의 믿음을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숙청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당연히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가르침을 전파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세 청교도들과 경건한 주석을 지은 매튜 헨리, 미국의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등이 기록한 구약 성경 관련 글들을 읽으면 내용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혹은 배격 신학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는 당연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의 교리적 근원은 어거스틴이므로 이런 주제에 대한 그들의 글은 언제나 거기서 멈추고 결코 성경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천주교회처럼 유대인들의 귀환과 천년 왕국의 확립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관련된 성경을 거의 다 영해(靈解)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도 이런 맥락에서 영해가 되어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견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교회는 교회이지 이 둘이 혼합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원토록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니엘서 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있을 넷째 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므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1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열마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열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인 것같이 그 왕국도 열마는 강하되 열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43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룯의 때에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 했던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명료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전혀 다른 번역으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개역성경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헨리 모리스(Henry M. Morris, 1918-2006)는 20세기에 미국에서 창조 과학을 확립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토목 공학 박사이며 창조 문제와 창세기에 관한 한 이분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리스는 생전에 「창세기 기록」(*Genesis Record*)이라는 매우 상세한 창세기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에 의해(created) 존재한 자들이며 사람에게서 태어난(born) 자들이 아니다. ‘강력한 자의 아들들’ 같은 표현도 역시 천사들을 가리킨다. 창세기 기자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순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 줘도 이미 성경대로

믿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득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 무슨 진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해석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대로 믿는 바를 간략하게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을 영해하는 사람들의 헛된 전통과 교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평범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과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달됨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존된 성경으로 성경을 풀 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성경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한 해석입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ק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קים כנ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αμ.  
'Αβραα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중점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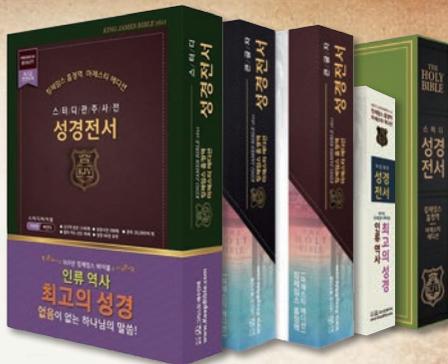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